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사목신학 개요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사목신학 개요

엮은이 : 비르지니아 오도리치·안젤로 콜라크라이

옮긴이 : 성바오로수도회

펴낸이 : 서영수

펴낸곳 : 바오로가족

주소 : 서울 강북구 송중동 103-36

등록 : 7-93호 1992. 10. 6

발행일 : 2012. 12. 28

비매품

야고보 알베리오네

사목신학 개요

젊은 성직자를 위한 사제직 실무 해설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Edizione a cura di Virginia Odorizzi SGBP e Angelo Colacrai SSP

© Società San Paolo, Casa Generalizia, 200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2 by Pauline Family, Seoul, Korea

작품 약어 표기 : ATP

© EDIZIONI SAN PAOLO s.r.l., 2002

Piazza Soncino, 5 - 20092 Cinisello Balsamo (Milano)

<http://www.edizionisanpaolo.it>

Distribuzione: Diffusione San Paolo s.r.l.

Corso Regina Margherita, 2 - 10153 Torino

바오로가족

차례

표기와 약호 _ 9

소개글 _ 10

I. ATP의 본문 형성과정 _ 12

II. ATP의 세 가지 다른 출판본 _ 21

III. 당시 사목신학 안에서 ATP _ 33

IV. ATP의 가장 중요한 주제 _ 52

결론 _ 63

일러두기 _ 66

헌사 _ 71

추천하는 글 _ 72

초판 서언 _ 74

개정판 서언 _ 77

출발점 _ 79

유일한 으뜸 사제 _ 79

사제의 실천적인 삶 - 자료의 구분 - 주의사항

제1부 열성의 기초에 대하여 _ 85

서론 _ 86

1장 일반 신심에 대하여 _ 88

2장 신심의 실천 _ 92

1. 삶의 방법(시간표-규칙) | 2. 묵상 | 3. 영적 독서 | 4. 성무일도 |
5. 미사성제 | 6. 성체조배 | 7. 양심성찰 | 8. 사도 일치회 | 9. 고해
성사 | 10.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 | 11. 성 요셉 신심 | 12. 수호
천사 신심 | 13. 연옥영혼 | 14. 성체흡송 사제회의 병설단체 | 15.
사제 보속 연합회

3장 신심의 열매 - 사제의 덕성 _ 136

1. 순명 | 2. 정결 | 3. 겸손 | 4. 사랑 | 5. 해이의 표식

4장 면학 _ 161

1. 일반 면학에 대하여 | 2. 과목 선택 | 3. 레크리에이션

5장 재물의 관리 _ 177

1. 일반적인 개념 | 2. 소작농, 농지임대, 농지관리인 | 3. 부동산의
관리 | 4. 동산의 관리 | 5. 자선과 절약 | 6. 유언

제2부 사목과 사목의 일반적인 수단에 대하여 _ 203

서언 _ 204

일러두기 _ 205

1장 사목활동 전반에 대하여 _ 207

2장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한 성직자 일반 규범 _ 218

3장 사제의 관계 _ 231

1. 본당신부와 보좌신부의 관계 | 2. 본당신부와 인근 본당신부의

관계 | 3. 본당신부와 본당에 거주하는 사제들의 관계 | 4. 사제와 평신도, 본당신부와 친지의 관계 | 5. 본당신부와 봉사자의 관계 | 6. 본당신부와 권위기관의 관계 | 7. 본당신부와 교사의 관계 | 8. 본당신부와 제의실지기의 관계 | 9. 본당신부와 병자들의 관계 | 10. 본당신부와 가정들의 관계 | 11. 본당신부와 수녀들의 관계 | 12. 본당신부와 유치원의 관계 | 13. 본당신부와 병원의 관계 | 14. 본당신부와 슬픔을 겪는 이들 혹은 적대자들의 관계

4장 여러 부류 사제들의 사목활동에 대하여 _299

1. 본당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하여 | 2. 감목대리(지구장 신부)의 사목활동을 위한 전략 | 3. 담당사제에 대한 규범 | 4. 교사신부들에 대한 규범

제3부 사제의 열성에 관한 일부 특별 활동에 대하여 _325

1장 고해성사 _327

1. 중요성과 일반 원칙 | 2. 고해성사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 3. 고해성사에서 여러 종류의 고백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 4. 보속 | 5. 훈화 | 6. 사죄경 | 7. 가장 통상적인 일반 경고 | 8. 가장 통상적인 특별 경고 | 9. 고해사제의 행동 | 10. 실천을 위한 두 가지 해결책 | 11. 고해사제와 독신자 | 12. 고해사제와 기혼자 | 13. 고해성사를 자주 하도록 준비시키는 방법

2장 영성체에 대하여 _379

1. 어떻게 성체를 자주 모시도록 할 것인가 | 2. 잦은 영성체를 위한 연맹 | 3. 어린이들을 위한 성체성사 교육 | 4. 성체성사 3일 기도 | 5. 영성체의 결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6. 영성체로부터 얻는 이익의 표시

3장 예식 _399

1. 전례 예식 전반에 대하여 | 2. 미사성제(축일) | 3. 미사성제(평일) | 4. 저녁기도 | 5. 성체 흡수 시간 | 6. 40시간 | 7. 다른 성체성

사 예식 | 8. 5월 | 9. 마리아의 정원 | 10. 목주기도 | 11. 성모 마리아의 축일과 장엄미사 | 12. 꼬마 성직자 | 13. 성가 학교 | 14. 성체 성사 도우미 | 15. 노자성체의 동반을 위한 어린이들의 모임 | 16. 꼬마 들러리

4장 복음 선포 _443

1. 필요성 | 2. 복음 선포자의 재능 | 3. 두 가지 특별한 경우에 관한 유의사항 | 4. 강론의 재능 | 5. 몇 가지 실천적인 주의사항 | 6. 어디에서 자료를 얻을 것인가 | 7. 여러 시기를 위한 주제 | 8. 열성으로 이루어진 강론의 상세한 내용 | 9. 강론에서 춤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 10. 영신수련을 위하여 | 11. 특별 계층에게 말할 것 | 12. 강론과 독서를 위해 유익한 서적들 | 13. 젊은 복음 선포자들을 위하여 | 14. 강론의 결실을 맺고 지속시킬 것 | 15. 결론

5장 교리 _507

시상을 통한 방법 | 교리교육을 잘할 것 | 몇 가지 교리교재 | 본당 또는 주일 교리 학교 | 오라토리오 | 부록 | 몇 가지 유의사항 |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

6장 사제가 보급해야 할 주요 신심과 캠페인 _557

모든 이에게 적합한 신심들 | 특수 계층 사람들에게 알맞은 신심들 | 신심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 | 모두에게 다가가기 쉬운 여러 가지 캠페인

7장 가톨릭 액션 _572

8장 가톨릭 액션 단체의 특별 활동 _585

국민연합 | 학교 문제에 대하여 | 남성 오라토리오 | 여성 오라토리오 | 종교 학교 | 야간 학교와 겨울 학교 | 이동도서관 | 훌륭한 프로 파간다 | 교양 서클 | 가톨릭 액션 안에서 협력자 양성 | 액션의 특별 활동 | 가톨릭 액션 단체 | 가톨릭 청년회 | 청소년 서클 | 청소년 보호활동 국제 가톨릭 연합 | 선거 활동 | 가톨릭 여성 | 경제 활동 | 유의사항

9장 수도성소 _ 618
실천적인 규범은 어떤 것인가?

10장 축제를 조직할 것 _ 625

11장 성전 건립 _ 628

성당 청소 | '그리스도교 예술의 벗들' 협회

색인 _ 645

성서 인용 색인 _ 647

교회 문헌 색인 _ 649

정기간행물과 잡지 색인 _ 652

참고도서 색인 _ 654

저자 색인 _ 661

연맹 색인 _ 681

장소 색인 _ 685

인명 색인 _ 688

주제 색인 _ 697

표기와 약호

AAS Acta Apostolicae Sedis(사도좌 관보)

AD 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ASS Acta Sanctae Sedis(성좌 관보)

CC La Civiltà Cattolica(라 치빌타 카톨리카: 가톨릭 문화)

DIP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수도단체 사전)

EC Enciclopedia Cattolica(가톨릭 대백과사전)

E.Ec Enciclopedia Ecclesiastica(교회 대백과사전)

DSMCI Dizionario Storico del Movimento Cattolico in Italia

1860~1980(1860~1980년 이탈리아 가톨릭 운동의 역사 사전)

소개글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 ATP)를 출판하게 된 동기는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저서들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확립시킴으로써 그분 카리스마의 본질적인 요소를 보다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연대적으로 이 책에 앞서 「La Beata Vergine delle Grazie」¹⁾(은총의 복되신 동정녀)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저술했다. 그 소책자는 그분의 첫 저서다. 본서는 세 가지 출판본(1912년 판, 1915년 판, 1960년 판)²⁾이 있는데, 알베리오네 신부가 사제 생활 초창기에 이룬 아주 중요한 결실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는 본당에서 사도직을 펼치며 신자들과 직접 접촉하던 시기다. 알바의 일부 지역에서 자신의 첫 사목체험을 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 양성자로 활동한 후 젊은 알베리오네 신부는 ATP를 쓰기로 결심했다.

1) G. ALBERIONE, 「La Beata Vergine delle Grazie」(은총의 복되신 동정녀), Tip. Albese di N. Durando, Alba 1910.

2) A. DAMINO,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참고도서), Edizioni dell'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amiglia Paolina, Roma 1994³⁾, pp. 25-28.

이러한 사목활동은 그분이 직접 행하신 것이었지만, 성바오로 수도회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1914년 성바오로수도회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무엇보다 양서 출판에 집중하는 사도직을 시작했다. 그 후 그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홍보 수단들을 동원해 사도직무를 발전시켜 나갔고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목활동이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직무에서 간접적이고 현대적인 직무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 입문에서 살펴볼 과제가 아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직무 사이에는 일치되는 바탕이 있는데 그 토대는 부각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그 토대는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사람을 껴안으면서 '영혼들'에게 가장 충만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다가서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 정신은 '사목적인 카리스마'라는 바오로 가족 전체를 위한 전형적인 표현으로 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목정신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생각, 활동, 선택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먼저 사제로서 사목을 체험하였고, 그 후에 교육자로서 신학생들을

3) 직접 사도직에서 간접 사도직으로 전이하는 과정에 관해서 더 깊은 연구를 기다리면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L. ROLFO, 「Don Alberione, appunti per una biografia」(알베리오네 신부, 전기를 위한 요약),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1998³⁾, p. 75; R. F. ESPOSITO, 「La teologia della pubblicitaria」(광고 신학), EP, Roma 1970, p. 71 이하; E. SGARBOSSA, 「La formazione presbiterale e il sacerdozio di Don Alberione」(알베리오네 신부의 사제 양성사 사제직), in 「Palestra del Clero」, 1996년 3-4월호, pp. 661-684.

양성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바오로 가족의 설립자로서 살았다.

I. ATP의 본문 형성과정

1. 그분이 ‘첫 사목경험’을 한 알바 교구에는 성덕이 출중하고 사목 직무 능력이 탁월했던 사제 몇 분이 계셨다. 1800년대 말 피에몬테의 성인들(요셉 베네딕토 코토렌고, 1786-1888; 요셉 카파초, 1811-1860; 요한 보스코, 1815-1888,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학교에서 성장한 이들은 사람들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를 성직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조성했다. 이들 가운데 몬시뇰 갈레티(E. Galletti)는 사목방문을 통해 이룩한 활동, 시노드(1873), 성체성사 신심, 성직자 양성과 교리교육으로 알바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 몬시뇰 로렌초 팜피리오(Lorenzo pampirio)는 알바 신학교에 아주 엄격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또 이 노선을 따른 몬시뇰 프란치스코 레(Francesco Re)는 피에몬테 성직자 사이에 강경한 정통주의 입장을 옹호하며 모더니즘에 맞섰지만, “현실성을 외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⁴⁾

알바의 주교들은 교구 안에 가톨릭 운동을 가열차게 벌인 업적으로 길이 기억에 남았다. 쇠퇴기를 겪은 후 1911년에 일어난

4) L. ROLFO, 『Il buon soldato di Cristo』(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EP, Alba 1978, p. 106.

가톨릭 운동은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을 통하여 들불처럼 타올랐다.⁵⁾

이러한 강력한 교회활동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젊은 알베리오네 신부는 첫 사목 체험을 했던 것이다. 몇 군데 본당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중에는 나르촐레(쿠네오)의 성 베르나르도 본당도 있었다.⁶⁾ 이곳에서 그는 보좌신부로서 첫 소임을 맡았고 진취적인 활동과 선한 의지를 마음껏 발휘하였다.⁷⁾ 마침내 이곳에서 직접적인 사목과는 다른 자신의 성소를 분명히 깨달았고⁸⁾, 관행적인 사목 형태가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2. “ATP라는 책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알베리오네 신부는 주교로부터 신학교 영적지도 신부와 역사 및 교회사 교수로 부름을 받아 신학생과 새 사제 양성 책임을 맡게 되었다. “온전한 단

5) G. MAGGI, ‘Temi politici e sociali nell’ azione dei cattolici albesi del primo novecento’ (1900년대 초기 알바 가톨릭 신자들 활동에 나타난 정치 사회적 주제), in Alba Pompeia, Nuova Serie IV (1983) I, pp. 5-18; P. REGGIO, “Alba: L’ ambiente socioreligioso nella città e dintorni” (알바, 도시와 주변 상황 안에서 사회종교적 분위기) in 『Conoscere Don Alberione』(알베리오네 신부를 알기), Ed. Centro di Spiritualità Paolina, Roma 1994, pp. 79 이하.

6) 참조 G. BARBERO, 『I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Un uomo - un’ idea』(사제 야코보 알베리오네, 한 인간 - 이상), Società San Paolo, Roma 1991², pp. 155-158; D. RANZATO-G. ROCCA, 『50 Anni di una presenza pastorale』(50년의 사목생활), Roma 1988, p. 17 이하.

7) L. ROLFO, 『Don Alberione, ...』(알베리오네 신부...), 상동, p. 71.

8) G. ALBERIONE, 『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 Storia carismatica della Famiglia Paolina (AD)』(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바오로 가족의 카리스마 역사), Roma 1998, n. 82와 86.

순함으로 그들 공적 생활의 첫걸음을 이끌어 주되, 실천적이고 확실하게 인도하는 안내서”⁹⁾를 통해 이들을 확실한 길로 이끌기 위해 ATP를 써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사제 직무에 관한 그의 수업은 무미건조하게 개념을 전달해주는 것을 뛰어넘어 대화와 나눔, 그리고 경험을 깊이 각인시켰다. '개요'를 집필하면서 그는 교구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천에 관한 연구도 병행했다.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목과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일부 본당신부들에게 발송하였다. 이 본당신부들 가운데 바르톨로메오 달로르토(Bartolomeo Dallorto) 신부, 루이지 시보나(Luigi Sibona) 신부, 아우구스토 비고룬고(Augusto Vigolungo) 신부 등이 확인된다.¹⁰⁾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논문, 작품과 잡지들을 참조하였다. 각주 작업과 숙고내용의 선별과 정리, 그리고 교정 작업에서 다른 사제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9) G. ALBERIONE,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사목신학 개요), II ed., Pietro Marietti editore, Torino 1915, p. XI. - ATP의 모든 인용은 전혀 다르게 인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서에서 인용하였다.

10) 알바 신학교 교수인 몬시뇰 나탈레 부씨(Natale Bussi · 1907-1988) 신부는 1982년 8월 17일에 했던 인터뷰에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사용했던 이러한 방법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어떻게 사목을 할 것인지 - 본당신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게다가 이 설문지를 분명히 받았을 몇몇 사제들을 확인해 주었다. 몬시뇰 바르톨로메오 달로르토(Bartolomeo Dallorto · 1886-1953) 신부는 몽포르테(Monforte) 본당신부였고, 몬시뇰 루이지 시보나(Luigi Sibona · 1874-1947) 신부는 카날레-카스텔리날도(Canale-Castellinaldo) 본당신부였으며, 몬시뇰 아우구스토 비고룬고(Augusto Vigolungo · 1869-1941) 신부는 베차(Vezza) 본당신부였다.

그리하여 작품의 초안이 완성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¹¹⁾

알베리오네 신부는 나중에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2년 동안 12명의 사제들과 함께, 매주 강연회를 갖고 영혼을 돌보는 데 좋은 쇠신된 수단들을 연구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던졌고 15명의 지구장 신부들(Vicari Foranei)로부터 문서로 제안을 받아냈다(이것을 그는 신학생들과 젊은 사제들에게 전달했다).”¹²⁾

그러므로 ATP는 실제 사목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목자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을 뿐 아니라, 점차적인 이론적 심화작업과 다른 이들이 겪었던 경험에 관한 깊은 성찰을 거쳐 탄생했다. 아무튼 출발부터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료에 대한 이론적·학문적 접근방식을 배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많은 사람의 구미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른 저자들의 작품에서 찾으려는 내용 정도는 본서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¹³⁾

그의 목표는 젊은 사제들이 진지하게 사제직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ATP에서 그들은 확실하고 거듭 언급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목신학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받았다.

11) ATP, p. IX 참조.

12) 『AD』, n. 83.

13) ATP, p. XI.

“오랜 기간 ‘영혼을 돌보는 사목’에 헌신해온 목자들의 경험과 공헌에 의해 탄생했다.”

“교구 신자들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였다.”

“풍부한 참고도서를 제시하여 다른 전문 분야를 찾아 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3. ‘ATP에 대한 좋은 반응과 보급.’ 여러 도서관에서 찾아본 결과가 입증하듯이,¹⁴⁾ 이 작품은 이탈리아 성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삽시간에 알려졌다.

이미 1912년 토리노 대교구의 성직자 월간지인 「Difesa ed azione」(방어와 활동)가 이 작품(당시에는 윤전 복사로 출판된)을 극찬하는 서평을 게재하였다. “사목적인 관점에서 정말 탁월한 작품들은 같은 계열 분야에서 아직 드물고 그 드문 작품들조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수 상황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까지 거의 와 닿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아주 좋은 책이 우리에게 선보였다... 이 작품은 우리의 욕구를 놀라울 만큼 완벽하게 충족시켜준다... 아주 방대하고도 풍부한 내용, 단순하고 명쾌한 문체, 책 전체에 흘러넘치는 기쁨진 보화, 이 모든 것이 이 책에 온갖 극찬을 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¹⁵⁾ ‘성직자에

14) 1915년의 텍스트는 예를 들어 토리노, 로마, 나폴리와 같은 이탈리아 대형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카바 드 티레니(Cava de' Tirreni)(살레르노)의 베네딕도회 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 귀중한 봉사’를 선사해준 저자에게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1913년 책의 서언을 준비하면서 A. 리켈미(Richelmy) 추기경은 “특히 사목적인 직무를 열성과 결실을 통하여 실행하는 실천적인 방식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훌륭한 신학자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가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 작품 안에는 ‘견고한 교의’와 ‘실천적인 지혜’가 함께 빛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참된 목자에게 확실하고 쉬운 실습서가 됩니다.”¹⁶⁾

이러한 짧은 서평만 읽어도 사목신학(TP)이 어떻게 해서 ‘영혼의 목자’가 사용해야 할 가르침의 실천적인 종합서로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시대의 전형적인 사상이었던 점을 「라 치빌타 카톨리카」(La Civiltà Cattolica: 가톨릭 문화: *역주-1850년 4월 6일 나폴리에서 창간된 예수회의 격주간지)지도 공감해 ATP에 관한 서평을 게재하면서 알베리오네 신부를 ‘이 분야 저명한 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 작품 안에서 특히 젊은 사제들을 위한 실천적 규범과 적절한 충고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강조하였다.¹⁷⁾

출간된 뒤 오랫동안 이 작품은 사목학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15) 「Difesa ed Azione」(방어와 활동), Mensile dell' Associazione del Clero dell' Archidiecesi di Torino(토리노 대교구 성직자 연합회 월간지), 11 (1912)p. 135.

16) A. RICHELMY, 「Presentazione」(소개 글), in ATP, p. VII, 1913년 2월 2일.

그들 중에 G. 스토키에로(Stocchiero)는 「사목 실천」(Pratica Pastorale)이라는 저서를 1921년에 발간하였고, E. 나데오(Naddeo)는 같은 해에 「영혼의 참된 목자」(Il vero Pastore di anime)를 발간하였다.¹⁸⁾

여기에서 왜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의 책이 크게 확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이 되기까지 개정판을 내거나 재판을 찍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 그 답변은 아마도 그 시기 그의 활동 기록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1914년 이후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수도회 설립에 쏟아 부었다. 성바오로수도회(1914), 성바오로딸수도회(1915),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1924), 선한목자예수수녀회(1938), 사도의모후수녀회(1957),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신도 봉헌 단체들을 설립하였다(1958~1960). 설립자는 가

17) A. TAVERNA, 「Rassegna di Teologia Pastorale」(사목신학에 대한 논평), in 「La Civiltà Cattolica」, 67 (1916) IV, p. 456. 그렇지만 같은 잡지에 게재된 서평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소심한 고백자를 대면한 고해신부의 처신(n. 185-201 참조)에 관하여 약간의 비판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소위 '생명의 신비'라고 일컬은 젊은이들의 계시에 관한 언급에 관해서 아주 단호하게 혹평받았다. 사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러한 계시를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 (n. 192 참조)고 주장하였다. 「La Civiltà Cattolica」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젊은이들을 나쁜 습관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타락에 이르는 문을 활짝 여는 것" (p. 459 참조)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저자인 알베리오네 신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여하간 1960년의 개정판에는 아무런 수정 없이 본래 썼던 그대로 발간되었고, 다만 윤리에 관한 주제 한 군데만 바뀌었다(ATP, III ed. p. 254 참조).

18) G. STOCCHIERO, 「Pratica pastorale a norma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e in rapporto alla legislazione ecclesiastica italiana」(교회법전 규정과 이탈리아 교회법에 따른 사목실천), Marietti, Torino 1921. 알베리오네 신부의 책은 p. VII에 인용되었다. - E. NADDEO, 「Il vero pastore di anime, Norme Pratiche di Teologia Pastorale dei Parroci Italiani」(영혼의 참된 목자, 이탈리아 본당신부의 사목신학 실천규범), voll. 2, Ferrari, Roma 1922. 알베리오네 신부의 작품은 p. IX에 인용되었다.

족 수도회의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모두 쏟아 부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목적인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실상 1912년부터 1916년까지 그는 사제 직무 실천을 돕기 위한 잡지인 「사목생활」(Vita Pastorale)¹⁹⁾을 도맡아 지휘하면서 발간하였다. 여러 수도회를 설립할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성향에 비추어 보면 그는 자신이 성찰한 것을 글로 써서 사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야말로 사목 직무를 돕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잡지 1921년 1월호에는 "본당신부와 본당신부들의 관계 - 화합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화를 피하기 위하여"에 관한 ATP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다.²⁰⁾

ATP를 개정 또는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갓 태어난 수도회인 선한목자예수수녀회, 곧 이른바 '파스토렐레' (Pastorelle: *여주-우리말로는 '여목동'에 해당)의 젊은 자매들에게 1939년 행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론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사목신학에 관한 소논문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점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고, 나의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를 마련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

19) A. DAMINO, 「Bibliografia...」, 상동, pp. 148-150 참조.

20) 「Vita Pastorale. Rivista per la pratica del Ministero Sacerdotale」(사목생활. 사제 직무의 실천을 위한 잡지), IV (1921), pp. 4-6. ATP, n. 104 이하 참조.

니다. 이러한 결여부분은 스토키에로(Stocchiero)의 저서로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²¹⁾

ATP의 대폭적인 수정작업은 3판에서 이루어졌는데, 1960년 요셉 피스토니(Giuseppe Pistoni) 몬시놀이가 편집 작업을 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와 피스토니 몬시놀이가 주고받은 서간 문서²²⁾를 보면, 피스토니 몬시놀이는 모데나(Modena) 신학교에서 사목신학 강의를 맡아 준비하면서 ATP의 내용을 교재로 채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책이 절판되었기 때문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에게 새로운 출판 책임을 맡도록 제안하였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3판의 출판은 곧 준비를 서둘렀고 1960년에 인쇄에 들어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날 무렵인 1965년 몬시놀 피스토니 신부는 공의회에 새로운 전망에 부합한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자인 알베리오네 신부의 손으로 작품을 개정하라고 다시 제안했다. 1965년 12월 21일자 편지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상용하도록 교정하라는 제안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담은 답장을

21) G. ALBERIONE, 「Prediche alle Suore Pastorelle」(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서 행한 강론), vol. 1, EP, Albano Laziale (Roma) 1961, p. 35.

22) 이 문서는 안토니오 스페치알레(Antonio Speciale) 신부가 친절하게 제공해주었는데, 몬시놀 요셉 피스토니 신부가 스페치알레 신부에게 보낸 보고서와 첨부부록 A, B, C, D, E, F로 구성되었다. 1989년 10월 16일자로 된 보고서 안에서 몬시놀 피스토니 신부는 알베리오네 신부와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총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첨부부록은, 작품의 3판에 붙인 서언인 첨부 B만 제외하고, 편집자의 요청에 따른 답변 편지였다.

보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목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책에서 없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고 더 소개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제안이 좋다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로해진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의 독자는 본서 저자인 알베리오네 신부로부터 이 오래된 작품에서 읽은 내용을 역사적으로 재해석하고 오늘의 맥락에 맞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II. ATP의 세 가지 다른 출판본

이미 암시했던 것처럼, ATP는 다양한 구성단계를 거쳤다.

1.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첫 초고’는 연구 경험이 풍부한 만큼 고된 작업을 거쳐 나왔다.²³⁾ 작품은 타자 원고를 복사사진으로 찍은 형태로 출간되었다.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 Torino, lit. A. Viretto, 1912.) 현정은 ‘나의 사랑하는 벗들, M.M. R.R.[Molto Reverendi](^{*}역주 ‘매우 경애하는 이들’ 곧 사제들을 이르는 표현) 알바 신학교의 윤리 강좌 수강 학생들’에게 바쳐졌다.

23) ATP, Prefazione alla 1ª edizione(초판의 서언), p. IX; 본서의 p. 55.

텍스트는 저자가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1912년 8월 1일 저자가 쓴 것이다. NB(유의사항)는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알바 신학교 영적지도신부인 신학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에게 문의할 것.” 이었다.

작품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열성의 기초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붙였고, 3개 장(章), 즉 신심과 면학, 면학, 재물의 관리로 세분된다.

제2부 제목은 ‘사목과 사제로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 활동’ 으로 6개 장(章)으로 세분된다. I. 사목활동 전반에 대하여, II. 본당 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하여, III. 지구장 신부들(Vicari Foranei)의 사목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전략들, IV. 담당사제들(Cappellani)의 규범, V. 교수 신부들의 규범, VI. 사제들의 관계 순이다.

제3부는 ‘사제의 열성에 관한 일부 특별 활동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12개 장(章)으로 세분된다. 여기서는 숙고의 쟁점이 전형적으로 성사적인 내용으로 옮겨간다. 즉 고해성사, 영성체, 예식, 복음 선포와 교리교육. 마지막으로 신심 원칙이 소개되고 가톨릭 액션 단체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3개 장(章)은 수도성소, 축제의 조직, 성전 건립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타자원고와 사진 복사로 발간된 초판의 내용이다.

2. ‘1915년의 출판본’ 은 일부 본당신부들의 요청에 따라 알베리오네 신부가 ‘조금 걱정하는 마음으로’²⁴⁾ 수정 보완해 개정 출판한 것이다. ‘2판-개정-수정-보강판’, Torino, cav. Pietro Marietti editore, 1915라는 서지정보를 볼 수 있다. 겉표지에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라는 제목을 붙인 다음 괄호 안에 부제를 덧붙였다. (젊은 성직자를 위한 사제직 실무 해설 <Pratica del ministero sacerdotale per il giovane clero>). 그뿐 아니라 베드로의 첫째 서간의 두 구절을 모토로 삼았다. “pascite, qui in vobis est, gregem Dei... et cum apparuerit princeps pastorum, percipietis immarcescibilem gloriae coronam(1 Petr. V, 2-4)”(*역주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1베드 5, 2-4>). 이 모토를 통하여 젊은 독자들에게 하느님의 양떼를 다음과 같이 잘 돌보도록 초대한 것이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1베드 5, 3).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초대였던 셈이다.²⁵⁾

이어서 헌정이 뒤따르는데, 초판에 비해 부드럽게 표현했다. ‘나의 사랑하는 벗들에게 - MM. RR. 젊은 사제들 - 그리고 알바 교구의 친애하는 신학생들에게.’

24) ATP, Prefazione alla 2ª edizione(2판의 서언), p. XI; 본서의 p. 57.

작품을 축복하고 저자를 격려하는 토리노의 대주교 리켈미 추기경의 짧은 소개 글이 1913년 2월 2일자로 실려 있다. 따라서 작품의 초판에 관한 내용은 색인에 가서 확인한 것으로 표기되었다.²⁵⁾

새 출판본인 2판에서는 서언이 2개 나오는데 모두 알베리오네 신부가 쓴 것이다. 첫 번째 서언은 1912년 판을 위해 썼고, 두 번째 서언은 본서를 위한 서언으로서 앞서 밝힌 출판의 동기를 다시 강조하면서 훨씬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1912년 출판본에 비해 1915년 출판본은 일부 본문이 훨씬 더 내용이 깊다. 작품은 여전히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열성의 기초들’을 다루며 신심이 깊은 하느님 백성 가운데 사제의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위한 전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신심실천을 열거하는 목록에 이어 덕성에 대한 설명, 지속적인 면학 또는 학구열에 대한 초대가 이어졌다. 왜냐하면 사제는 ‘지나간 시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²⁷⁾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부의 결론은 재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범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도출한 것이다.

‘사목과 사목의 일반 수단’이라는 제목을 붙인 제2부는 사목

25) 이 주제에 대한 깊은 연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E. BOSETTI, 『Il Pastore. Cristo e la Chiesa nella I lettera di Pietro』(목자.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 EDB, Bologna 1990.

26) 2판의 p. 373에 나오는 색인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게 된다. “초판에 관한 지극히 경애하올 리켈미 추기경의 판단.”

활동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려 시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원칙들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자상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실천적인 사항만 다를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날 필요한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선별할 것입니다.”²⁸⁾

제3부는 ‘사제의 열성에 관한 일부 특별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목생활의 특별한 순간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즉 전례, 교리, 애덕·보조의 동참 등이다. 사목자, 특히 젊은 사제가 사목활동을 하면서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교회 차원 연맹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이 아닌 연맹에 대한 설명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일부 마지막 부분은 성전 건립에 관한 이야기와 성당 건축업자들에게 하는 조언이다. 다양한 제안과 주장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큰 일을 하는 데 가장 부족한 것은 돈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족한 것은 위대한 일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일을 착수하기 위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들, 인내의 정신과 위대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²⁹⁾

2판의 서언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책을 쓰는 의도가 “거

27) ATP, n. 52.

28) ATP, n. 79.

의 학적일 정도로 완성도 높은 수준 높은 문제를 가진 최소한 잘 짜여진 일을 요구하는³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것이야말로 원했던 결과를 가로막거나 또는 거의 방해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두 출판본을 비교해보면 언어적인 차원과 구조적인 차원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2판의 제2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아주 많이 손질을 했지만, 초판의 거의 모든 내용이 2판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중에 새로 숙고한 내용과 명확한 설명이 제1부와 제3부에 짧게 추가된 게 눈에 띈다. 끝으로 작품 전체를 어휘 면에서 놀랄 만큼 새롭게 다듬었고 훨씬 매끄럽고 적합한 표현들을 구사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2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제목과 구조를 많이 바꾸었다. 초판의 '사목과 사제로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 활동'이라는 제목을 '사목과 사목의 일반 수단'으로 바꾸었다. 초판에서는 6개 장(章)이었는데, 2판에서는 4개 장(章)으로 줄이고 다른 논리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배분하였다. '사목 활동 전반에 대하여' (1장),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한 성직자 일반 규범' (2장)과 같은 일반적인 숙고로부터, '사제의 관계' (3장)와 '일부 사제들의 사목활동에 대하여' (4장)와 같은 특별 숙고내용으로 이동한다.

29) ATP, n. 363..

30) ATP, Prefazione alla 2ª edizione(2판의 서언), p. XI; 본서의 p. 57.

그러므로 1915년 출판본의 구조는 앞선 출판본보다 훨씬 조화롭게 짜였다. 첨가된 자료 내용은 정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작품을 시작할 때 새로운 부분이 삽입되었고, '열성의 기초에 대하여'라는 내용이 제1부 전체를 이끈다. 그뿐 아니라 초판에서 간결하게 표현되었던 7·8·9단락이 여기서는 훨씬 더 유기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짧은 도입부는 본문의 다른 부분에도 삽입되었는데, 종종 '머리 부분' 역할을 하며 다음 장(章)을 소개해준다.³¹⁾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제목을 추가했고,³²⁾ 사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넣었다.³³⁾ 1912년 판 본문의 짧은 부분들 중 일부를 생략하였거나 통합하였다.³⁴⁾ 전체적으로 모든 수정작업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문을 보충하는 일이었다.

3. '1960년의 3판'의 제목은 「사목신학 개요, 학교강의와 직무를 위하여」(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per la scuola e il ministero)라고 붙였다. 이 작품은 바오로 출판사의 "사목-통치제도 시리즈"(Collana Pastorale-Regimen)로 발간되었다. 텍스트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동의를 얻어 교구 참사위원(canonico) 몬시뇰 요셉 피스토니(Giuseppe

31) 본서 n. 36 참조. 초판은 제 3장과 '사제 덕성, 신심의 열매들'을 생략하였고, 연속성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 없이 계속 다루어나갔다.

32) 본서 n. 70 참조.

33) n. 37 참조. 거기에서는 1913년 시작되어 1915년 피에몬테에서 창립된 Lega Sacerdotale Pro Pontifice et Ecclesia(교회와 교황청을 위한 사제 연맹)를 설명하고 있다.

Pistoni) 신부의 손을 거쳐 완전히 개작되었다.

1957년 9월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 교구 참사위원회에게 “사목에 관한 책을 개정하는 제안을 수락해준 데 대해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그 책을 가장 실천적이고 쇄신된 내용을 제대로 다루는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반드시 교정해야 할 9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요약하였는데, 특히 성직자의 양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였다. “교역자(minister), 분배자(dispensator), 양의 자세(forma gregis)로서…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산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에서 길어야 하는데, 그 원천은 곧 복음, 성체성사,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³⁴⁾ 그는 형제들과 ‘효과적이고 애정 어린’ 일치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사제의 사도적 삶에 특히 유의했다. 즉 사제는 각 사람, 모든 사회계층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준비된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정치적 문제와 주변 문화적 주제에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황청의 최신 문서, 최종 공의회와 최신 사목관련 출판물을 참고해 텍스트를 아주 쇄신된 내용으로 꾸며달라고 편집자를 독려하면서 지시를 마무리하였다.

34) n. 45 참조: 무상의 선교회(Missionari Gratuiti)에 관한 소식을 생략하였다. n. 204에 이에 관한 아주 짤막한 문장이 다시 나타난다. “무상의 선교사 연맹의 훌륭한 강사들의 강론도 활용하였다.”

35) 첨부부록 A는 알베리오네 신부와 can. 피스토니 신부 사이의 서신왕래에 관한 문서다. 본 소개 글의 각주 22 참조.

피스토니 몬시뇰은 자료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새로운 출판본을 준비하였다. 첫 부분에는 사목신학에 관한 숙고와 목자의 모습에 관한 성찰을 다뤘다. 양떼에 대한 지식과 사목활동을 통제하는 규범도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교회의 과제 또는 ‘권력’ 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활동 수단들을 설명하고 교도직(magisteriale: *역주-가르치는 직분을 말함. 본래 그리스도의 3중직은 예언직·사제직·왕직을 일컫음)·사제직·왕직(regale)이라는 3중의 직무 내용을 다뤘다.

편집자는 앞선 출판본 내용을 새로운 질서로 다시 나누지 않고, 두 개의 새로운 장(章)을 도입하였다. 첫 번째는 ‘사목신학’으로 과제와 수단을 설명하면서 ATP에 관한 전체적인 숙고를 심화시켰다. 두 번째는 ‘본당에 대한 읽’으로, 사목적 개입의 수단이 되는 심리학을 활용해 본당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과 특히 사목신학의 새로운 방향³⁶⁾이 새 출판본을 다른 방식으로 방향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1900년대 초의 낡은 구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설명한 ATP의 여러 출판본의 대조는 본서가 왜 2판(1915)의 텍스트를 기본 텍스트로 채택하였는지 설명해준다. 우리는 저자가 본래 가졌던 생각과 그가 다루었던 구조를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다. 그뿐 아니라 2판은 저자의 아주 소박

하지만 명쾌하고, 본질적이면서 절제된 스타일을 훨씬 더 잘 보여준다.

4. “진위성. 단독 저자인가, 여러 명의 저자인가?” ATP의 여러 출판본에 실린 서언들을 주의 깊게 읽다보면 저절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서언들은 모두 알베리오네 신부가 혼자 작성한 것이다. 실상 이 서언들을 대조해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서언에서 저자는 비록 ‘교구 본당신부님들 가운데 아주 열성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원로 신부님들 중 18명’에게서 ‘제안’을 받았고 논문, 저서들, 여러 잡지들을 활용했지만, 텍스트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2판에 붙인 서언은 그 같은 주장을 확정해준다. 그렇지만 3판에서는,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에 나오는 구절³⁷⁾에서 보는 것처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초판을 ‘열두 분의 본당신부님들이 준비하셨고’ 그중 아주 전문가들이 자료를 보내주셨으며, 그런 다음 정리를 하였고 다른

36) 20~30년대에 많은 사목학자들은 새로운 사목적 요건에서 부각된 문제들을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직면하기 위하여 아주 부적합하고 방해가 되는 교부주의적인 구조를 포기하였다. 이 시기에 사목 활동에서 새로운 존재, 즉 평신도의 존재와 특히 여성의 존재를 설명하였다. 튀빙겐의 저명한 사목학자인 F. X. 아놀드(Arnold)와 함께 사목신학은 신학적 틀 안에 정확한 정의와 위치를 얻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 시가의 사목’으로 가톨릭 분야에서 알려진 종합적인 운동을 망라하여 설명하였다. M. MIDALI, 「Teologia Pastorale o pratica」(사목신학 또는 실천 신학), LAS, Roma 1985, pp. 61-83 참조.

사제들과도 많은 강연회를 통해 일치를 본 다음 텍스트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존경하는 신부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³⁸⁾

이 마지막 언급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서언의 진위성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하여 3판의 서언이 과연 알베리오네 신부가 작성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당시 설립자의 개인 비서였던 A. 스페칼레 신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일지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1958년 12월 12일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는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의 3판을 위한 서언을 준비하셨다.” 다른 이들의 답변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중에는 G. 로아타(Roatta) 신부의 증언도 있고 1982년 8월 17일의 나탈레 부씨(Natale Bussi) 몬시뇰의 인터뷰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ATP의 편집에 관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최종적인 언급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전의 언급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텍스트의 점진적인 구성을 염두에

37) AD, n. 83: “2년 동안, 12명의 사제들과 함께 매주의 강연에서, 영혼을 돌보는 쇠신된 좋은 수단들을 연구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던졌고 15명의 지구장 신부들(Vicari Foranei)에게서 문서로 제안을 받아냈다(이것을 그는 신학생들과 젊은 사제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것이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사목신학 개요)라는 책(1913년)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38) ATP, III ed., p. 7.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8명'의 본당신부들의 의견을 참조한 것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첫 번째 제안을 수렴한 것 같고, 나중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다양한 독서를 통해 내용을 직접 넓혀 나갔을 것이다.

3권의 서언과 AD에서 기억하고 있는 '12명의 사제들'은 사목 강연 주간에 참여하고 알베리오네 신부와 협력했던 사람들, 초판을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와 연구에 참여하고 수집된 자료를 선별하고 다듬는 작업을 거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비록 AD의 언급이 1954년, ATP 3권의 서언이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러한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점이 알베리오네 신부가 책의 원저자라는 사실을 토론에 부치게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의견을 내놓은 사제들이 공동저자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저자에게 자신들의 저작권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로 영감을 불어넣었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했던 사실에 비취볼 때, 알베리오네 신부를 책의 저자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저서가 출간된 이후에는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게 설립자의 습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아마 ATP의 준비 자료들도 그와 같은 망각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초판의 자필원고나 오리지널 타자원고가 모두 전해지지 않기 때문

에 편집에 관하여, 습작에 관하여, 그리고 사용했던 자료의 원본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분석 비평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³⁹⁾

III. 당시 사목신학 안에서 ATP

1. '전체적인 맥락.'⁴⁰⁾ ATP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목신학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영향을 끼친 1800년대 말 사목신학의 몇 가지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1800년대 중엽부터 1900년대 중엽까지는 ATP의 매뉴얼이 풍성하게 양산되었다.

이들 안에서 공통된 교회론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점과 마찬가지로 "권위와 일치"의 기초이며 진정성의 최후의 보증인 교황 곁에 교회를 구

39) 실제로 「Quaderno 60」(노트 60)에 ATP 초판의 9~31페이지의 자필원고가 보존되어 있다.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다. 실상 「Quaderno 60」은 구체적으로 7~128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ATP의 전술한 페이지에 상응하는 7~41페이지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필체가 아니다. 아마 글자를 더 잘 알아보기 쉽도록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자필원고를 쓰도록 맡긴 그의 협조자의 작품인 듯하다. 손으로 일련번호를 매긴 점을 볼 때 「Quaderno 60」의 다른 번호와 똑같이 적으려 했다고 여길 수 있다. 다음 시기에 칸을 채우기 위해 여백으로 남겨 둔 곳이 더러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앞에 두고 필사가가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39페이지에서 '흡송하고' (adorano)라는 말 다음에 비워 둔 공간이 뒤따르고 이어서 감탄부호가 나온다. 자필원고 원본의 'tremanti' (떨리는)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방증한다.

축해야 한다.”⁴⁰⁾고 주장하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해지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해석 구도 안에서 신자들은 교회의 사목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현상학적인 차원은 그들에 가려져 있지만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제정하시어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3중의 권한, 즉 교도권(Magistero), 재판권(Giurisdizione), 명령권(Ordine)을 교회에 수여하셨다.

이러한 교회론적 개념은 법률적이고 교계제도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다. 이는 차세대 사제들과 신학생 양성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ATP의 매뉴얼을 조성했다. 그 신학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목활동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돌봄’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사람들보다는 각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의 직무 전체를 일컫는다.⁴²⁾ 이러한 개념에는 이원론적인 인류학적 시각과, 거의 예외적으로 영혼을 위해 육체적 요소를 무시하는 듯한 구원의 축소 개념이 예측된다.

40) 이 점에 대하여 다음 작품들을 참조하라. F. ARNOLD, 『Storia moderna della Teologia Pastorale』(사목신학의 현대사), Città Nuova, Roma 1970, pp. 172-182; C. FLORISTAN e M. USEROS, 『Teologia dell' azione pastorale』(사목활동의 신학), EP, Roma 1970, pp. 119-121; M. MIDALI, 『Teologia...』(신학...), 상동, pp. 18-83; S. LANZA, 『Introduzione alla Teologia pastorale』(사목신학 입문), Queriniana, Brescia 1989, pp. 36-67.

41) S. DIANICH, 『L' ecclesiologia in Italia dal Vaticano I al Vaticano II』(제1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이탈리아에 나타난 교회론), in 『Dizionario Storico del Movimento Cattolico』(가톨릭 운동 역사 사전), vol. II, Marietti, Torino 1981, p. 164.

- 사목적인 돌봄은 개별적으로 고려된 ‘영혼들’을 위한 것으로 특수화되는 한편, 공동체는 개별성의 총합으로 이해되었다.⁴³⁾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세상에 대한 사랑의 이중(二重)적 개념을 명확히 강조하지 않았다.

- 이러한 ‘돌봄’의 대상자는 하느님과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는 모든 구원의 선사를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은총을 필요로 하는 타락한 인간이다.⁴⁴⁾ 이러한 세 가지 요청에 대한 응답은 오로지 말씀의 선포와 성사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교회 규범에 의해 보증된다.

- 여기까지 소개된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목 수행자의 모습은 전적으로 사제와 관련되어 확립되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봉헌 삶과 사제적 사명이 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성과 개인적인 준비가 결속된 사제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제-목자’⁴⁵⁾의 모습은 교도권-사제권-왕권이라는 그야말로 교회의 권한을 나타내는 삼중의 차원으로 특화된다.

- 대다수의 매뉴얼에서 채택한 방법론은 사목자와 신자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 방법론은 학술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자료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입문 차원에서 다루면서 접근하는

42) C. KRIEG, 『Cura d' anime speciale』(특별한 영혼을 돌봄), Marietti, Torino 1913, pp. 5, 16-24 참조.

43) 상동, pp. 9-15 참조.

44) 상동, pp. 1-41 참조.

것이다.⁴⁶⁾ 정확한 학문적인 지향을 요청하는 소수의 매뉴얼은 사목을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의 원칙을 직무실천에 적용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⁴⁷⁾

- 사목신학의 원천은 성경에서 길어온 것이고, 종종 교의신학적으로 인용되었으며,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취한 것이고, 공의회와 시노드 회의록에서, 교회법 관련 서적에서, 그리고 드물지 않게 성인들의 경험과 위대한 영혼을 지닌 목자들에게서 발췌한 것이다. 적용할 때에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긍정적인 학문의 도움을 받았다. 즉 심리학, 교육학과 가끔 주체의 상황에 따라 의학도 참조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학과 사회학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⁴⁸⁾

2. ‘이탈리아적 맥락.’ 알베리오네 신부가 자신의 「개요」를 집필할 당시 이탈리아에는 확고한 사목 이론이 없었다. 그 대신 다소 성공을 거둔 작은 매뉴얼들이 돌고 있었고 그 내용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당시 사회 상황은 평신도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는 아직 세속 세력의 방어논리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목적 성찰은 대학 바깥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시대 독일어권에서는 종교학이 일반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사목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수덕·영성적인 사목방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률적인 사목방향이었다.

대표적인 텍스트는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아들(Figli di Maria Immacolata)의 설립자이며 수덕에 관한 여러 저서를 남긴 제노바의 성 사비나 수도원장 요셉 프라시네티(Giuseppe Frassinetti)가 쓴 「초임 본당신부의 실천적인 매뉴얼」(Manuale pratico del parroco novello)⁴⁹⁾이었다. 1863년에 처음 발간된 그 책은 1964년에 이르러서는 12판까지 발행됐다.⁵⁰⁾ 30년 동안의 사목 직무 경험에 기반을 두고 태어난 이 작품은 “연로한 형제가 자유롭게 ‘공부를 이제 막 마친 여러분은 이론적인 개념에서는 저를 앞서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제가 앞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초임 본당신부들”⁵¹⁾에게 제시되었다.

49) G. FRASSINETTI, 「Manuale pratico del parroco novello」(초임 본당신부의 실천적인 매뉴얼), I ed., Tip. Miglio, Novara 1863. 이 책의 특징은 사제직무의 일상 체험에서 생긴 실천적인 조언들을 수집했다는 것이다. 사목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열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과 본당신부가 양성 받아야 하는 사제적 수덕과 관련된 사목적 의무에 대해서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다.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루는 내용은 본당신부의 의무에 대하여, 성사에 대하여, 본당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의 실천에 대하여 등이다. 유럽의 주요 언어들로 번역돼 극찬을 받았다. 이탈리아 주교단은 그의 저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성직자의 목상자료로 지정하였다. 나보라의 주교인 젠틀레 몬시뇰은 자기 교구 모든 본당신부들에게 사목서한을 동봉하여 한 권씩 보냈다(11판 서문, p. 7 참조).

45) 상동, pp. 65-95 참조.

46)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각주 52-53 참조.

47) C. KRIEG, 「Cura d' anime...」, 상동, pp. 61-63 참조.

48) 상동, p. 61; H. SWOBODA, 「La cura d' anime nelle grandi città, Pustet, Roma 1912, pp. 9-15.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는 1902년에 「사목신학」(Teologia Pastoralis)를 발간한 E. 베라르디와 1912년에 「영혼의 목자에 대하여」(De Pastore animarum)를 출판한 A. 미켈레티(Micheletti)가 있다.⁵²⁾ 라틴어로 편집된 이 두 매뉴얼은 영혼을 돌보는 사목자들을 독자로 삼았고 사목적 특징과 근본적인 의무들을 그려냈다.

주세페 칼란드루초(Giuseppe Calandrucchio), 주세페 바르톨로티(Giuseppe Bartolotti), 주세페 코라치니(Giuseppe Corazzini)와 같은 다른 저자들은⁵³⁾ 더욱 엄격한 법률적·교회법적 성격의 성찰을 제시하였다. 1917년에는 세싸 아우룬카(Sessa Aurunca)의 주교 포르투나토 데 산타(Fortunato De Santa) 몬시뇰의 작품 「사목신학 요점」(Spunti di teologia pastorale)이 발간되었고, 1926년에는 이를 수정 보강한 4권이 나왔다.⁵⁴⁾ 교회법전(1917)의 편찬 이후에는 여러 사목신학자들

이 새로운 규범에 사목적 실천에 관한 성찰을 덧붙였다. 이를테면 E. 나데오(Naddeo)는 1922년에 2권으로 된 「영혼의 참된 목자」(Il vero pastore di anime)를 출간하였고, 특히 G. 스토키에로(Stocchiero)는 「사목실천」(Pratica Pastorale)으로 유명하다.⁵⁵⁾ 그는 1921년에 이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이탈리아 성직자들의 큰 호응 속에 받아들여졌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중판됐고 신학교 교재로 채택되었다.

마침내 이탈리아도 두 명의 독일 사목학자인 C. 크리그(Krieg)와 H. 스보보다(Swoboda)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⁵⁶⁾ 이들의 작품은 20세기 초기 20년 동안 번역되어 읽혔다. 크리그(Krieg)는 엄밀하고도 과학적인 증명을 통하여 사목이라는 참된 학문을 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했을 뿐

50) 11판(1928)과 12판(1964) 모두 알베리오네 신부의 바람대로 바오로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51) G. FRASSINETTI, 「Manuale...」, 상동, 서론, p. 9.

52) E. BERARDI, 「Teologia Pastoralis」(사목신학), Typ. Novelli-Castellani, Faventiae [Favenza] 1912 참조. A. MICHELETTI, 「De Pastore Animarum」(영혼의 목자에 대하여), Pustet, Roma 1912 참조. 이 책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부분은 'De Boni Pastoris persona et obligationibus' (좋은 사목자의 인격과 의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자로서의 사제의 모습, 사제의 덕성과 기본적인 의무가 나열돼 있다. 두 번째 부분은 'De Pastoris opera eiusque peculiaribus obligationibus' (사목자의 활동과 특별 의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교구와 본당의 여러 사람들을 대면하는 사제의 관계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어서 성사 집행과 본당에서 추진해야 할 여러 활동들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세속 재물관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규범을 다루었다. 그렇지만 이 출판물은 특수 전문 작품 반열에 올릴 만한 작품은 아니다.

53) G. CALANDRUCCIO, 「Vademecum del parroco italiano, ossia manuale teorico-pratico di leggi ecclesiastico-civili riguardanti i parroci」(이탈리아 본당신부의 가이드북, 다시 말해서 본당신부들에 관한 일반-교회 법률의 이론적-실천적 매뉴얼), Tip. dell'An-cora, Napoli 1901. - G. BARTOLOTTI, 「Il parroco italiano ne' suoi rapporti con le leggi dello stato, Manuale teorico-pratico contenente dottrina, legislazione, giurisprudenza intorno alle leggi civili, penali, amministrative e finanziarie concernenti il regime parrocchiale」(국가법과 맺는 관계 안에서 본 이탈리아 본당신부, 본당 통치에 관한 민법, 형법, 재물관리 법률에 수반되는 교의, 법률제정, 관례를 담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매뉴얼), Pustet, Roma 1910³. - G. CORAZZINI, 「Il parroco. Cenni storici, diritto, legislazione」(본당신부 역사적 암시, 권리, 법률제정), G. C. Sansoni, Firenze 1913.

54) F. DE SANTA, 「Spunti di teologia pastorale」(사목신학 요점), Marietti, Torino 1926⁴.

55) E. NADDEO, 「Il vero Pastore di anime, norme pratiche di teologia pastorale per parroci italiani」(「영혼의 참된 목자」, 이탈리아 본당신부들을 위한 사목신학의 실천적인 규범), 2 vol., Ferrari, Roma 1922. - G. STOCCHIERO, 「Pratica pastorale, a norma del CIC in rapporto alla legislazione ecclesiastica italiana」(「사목실천」, 이탈리아 교회 법률 제정과 연관된 CIC의 규정에 따름), Marietti, Torino 1921.

만 아니라 마침내 사목학과를 만들었다. 스보보다(Swoboda)는 본당의 사회적·사목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그는 산업화의 현상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이 이미 깊이 스며든 도시에 있는 본당들의 문제들을 직시하였다.

젊은 사제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스보보다(Swoboda)의 저서는 ‘눈부신 연구서’로 보였다.⁵⁷⁾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빈 대학교의 교수이신 저자는 영혼의 사목 상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상당한 연구보조금을 받아 유럽의 모든 주요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⁵⁸⁾ 그는 어떤 계획을 짜기 전에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특히 구체적인 현황에 상응하고 효과적이고도 정확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 학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스보보다(Swoboda)의 견해에 공감하였다.⁵⁹⁾

56) C. KRIEG, *Scienza Pastorale, Teologia Pastorale*, 4권, A. 보니(Boni) 신부가 독일어 판에 관한 번역 허가, Marietti, Torino. 실제로 이 작품은 저자의 죽음으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았다. 제1권 「특별한 영혼에 대한 사목」(*Cura d'anime speciale*)(독일어판 1904), Marietti, Torino 1913; 제2권 「교리, 즉 교회 일치운동의 학문」(*Catechetica, ossia scienza del catecumenato ecclesiastico*)(독일어판 1907), Marietti, Torino 1915; 제3권 「하느님 말씀의 강론 또는 복음화 학문」(*Omiletica o scienza dell' evangelizzazione della parola di Dio*). 이 작품의 저자는 자필원고만 남겼고, 사후에 출판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20년에 출판되었다. - H. SWOBODA, 「La cura d'anime nelle grandi città」(대도시에서 영혼 사목), op. cit.

57) ATP, n. 268.

그뿐 아니라 C. 크리그(Krieg)의 학술적 연구는 ATP 독자들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켜주었다고 칭송하였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작품, 즉 크리그(Krieg), 「사목학…」(*Scienza Pastorale...*)보다 사목에 관한 더 우수한 연구가 앞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⁶⁰⁾

그렇지만 알베리오네 신부는 두 명의 독일 사목학자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사목자는 성 알폰소⁶¹⁾, 성 가롤로 보로메오(Carlo Borromeo),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성 요한 보스코, 코톨렌고(Cottolengo)와 아르스의 본당신부와 같은 과거의 성인 사목자들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스승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의 목자는 성 줄리아노 에이마르(Giuliano Eymard),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와 파베르(Faber)의 영성 작품에서 자양분을 취해야 한다. 비록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리적 맥락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말했지만, 위대한 목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교부들과 성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고 있다.

58) ATP, n. 299. SSP의 총본부 역사 문서보관소에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사용했던 스보보다(Swoboda)의 책이 보존되어 있다. 그 책 텍스트 전체에 걸쳐 ATP를 만들기 위해 활용된 주제와 구절들을 표시해둔 밑줄과 메모들이 눈에 띈다.

59) 알베리오네 신부는 스보보다(Swoboda)의 작품으로부터 사목활동의 본질과 원칙에 관한 숙고를 받아들였다. ATP, nn. 81-87 참조. 사목 조직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관하여, ATP, nn. 154, 158, 299 참조.

60) 「ATP, Prefazione alla 2ª edizione」, p. XI.

61) 본서 마지막에 나오는 저자 색인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의 독촉으로 바오로가죽 출판사는 성 알폰소의 여러 작품을 출간했다.

3. ‘교회 운동과 쇠신의 누룩들’ 사목적 반성 차원에서 나온 이탈리아 문학서 제작은 다소 신 스콜라주의(neo-scholastica)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구도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실천 사목이 윤행하는 상황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성찰과 흥미로운 시도들이 여러 교회에서 대동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목 이론과 실천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아래 각 공동체의 쇠신 요소와 유럽 전역 문화적 운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교들이나 사제들의 사목적 열성 및 적극성과 결부된 것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간접적으로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던 교회 ‘운동들’을 동반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들이 곧 교리, 전례, 자선활동 혹은 사회활동이었다.

이탈리아 ‘교리 운동’의 르네상스에는 몬시뇰 G. 보노멜리(Bonomelli), G.B. 스칼라브리니(Scalabrini), A. 카페첼라트로(Capecelatro), L. 파바넬리(Pavanelli) 등과 같은 인물들이 관여했다. 이들은 여러 수도회 회원들과 함께 연구 모임과 대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리교사」(Il Catechista Cattolica)라는 잡지도 창간했다.⁶²⁾

벨기에에서 일어나 독일로 퍼져나간 ‘전례 운동’은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전례 잡지」(Rivista Liturgica)(1914) 창간 형태로 나타났다. 이 잡지는 핀알피아(Finalpia)의 베네딕토 수도회 B. 볼로냐니

(Bolognani) 수도원장(아바스)이 주창하였고 E. 카론티(Caronti) 신부가 편집을 담당하였다. 노르치아(norcia)의 주교 마리니(Marini) 몬시뇰과 이브레아(Ivrea)의 주교 필리펠로(Filippello) 몬시뇰 등 주교들이 협력하고 슈스터(Schuster) 아바스와 밀라노의 대주교 같은 학자들이 힘을 보태어 하느님 백성으로 하여금 전례의 성화를 이루는 힘과 사목적 가치를 깨닫게 하였다.⁶³⁾

이탈리아 사목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순간은 이른바 ‘가톨릭 사회 운동’으로 알려진 사회적-교회 활동과 사상이 형성된 시기였다. 장르와 분야가 아주 복잡한 사회 활동은 “1848년 이후 시작된 모든 시도와 연맹정신에 근본적으로 부합하고 그 이후에는 가톨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적 맥락에 대항하기 위해 조성됐다.”⁶⁴⁾

1800년대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왕성한 원조와 자선 활동을 시작으로 이 운동은 초기 공제조합(Società di Mutuo Soccorso)의 탄생과 농업협동 금고(Casse Rurali) 형태의 신용협동조합(Cooperative di Credito) 설립, 그리고 이민자 보호 후원회(i Patronati in difesa degli emigranti) 등 새로운 사업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였다.⁶⁵⁾

이 시기에는 주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청년 계층과 여성 계

62) L. NORDERA, 「Il catechismo di Pio X. Per una storia della catechesi」(‘비오 10세의 교리 교육’ . 교리의 역사에 대하여), LAS, Roma 1988, pp. 221-290 참조.

63) S. MARSILI, 「Storia del movimento liturgico italiana」(이탈리아 전례 운동 역사), in O. ROUSSEAU, 「Storia del movimento liturgico」(전례 운동의 역사), EP, Roma 1961, pp. 263-269 참조.

층⁶⁴⁾의 장래가 화두가 돼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연대순으로 보면,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단체들의 활동이다. 즉 직공들의 회(Opera degli Artigianelli), 그리스도교 학교 형제들의 회(Opera dei Fratelli delle Scuole Cristiane), 무리알도의 요셉 회(Opera dei Giuseppini del Murialdo)와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회(Opera dei Salesiani di don Bosco)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조직들이 경제적·사회적 삶의 여러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유용하였는데 무엇보다 먼저 좋은 영성적 양성을 통하여 견고하고도 연합적인 결속력을 만들어주었다.⁶⁷⁾

제도적인 면이 덜 강조된 다른 노선은 '전원생활처럼 사목생활에 몹시 열성적인 성직자'⁶⁸⁾의 끈기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농부에게 개량된 농사법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유익한 정보와 가르침을 많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다.

64) M. BELARDINELLI, 「Per una storia della definizione del movimento cattolico」(가톨릭 운동의 역사적 개념에 대하여), in 「Dizionario storico del Movimento Cattolico in Italia」(이탈리아 가톨릭 운동의 역사 사전) (DSMCI), vol. I, Marietti, Roma 1981, p. 2.

65) S. ZANINELLI, 「La situazione economica e l'azione sociale dei cattolici」(가톨릭 신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 활동), DSMCI, vol. I, pp. 323-327 참조.

66) 알베리오네 신부는 1900년 이후에 많이 논의되었던 여성 권리 신장에 관해 무관심하지 않았고 여성이 사목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음의 저서에서 면밀하게 증명하였다. 즉 「사제의 열성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 Scuola Tip. 'Piccolo Operaio' ('작은 노동자' 인쇄 학교), Alba 1915. 이 작품의 텍스트는 '영혼을 돌보는 사목'에 전념하는 사제직을 직접 다루고 있으며, 가정 상황, 본당과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사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협력을 중시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Nuova edizione(새 출판본),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1.

끝으로 지역 가톨릭 출판의 기여도 적잖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는 특히 교구의 정기간행물과 '본당 주보'와 같은 출판물과 연계되어 있고, 그런 출판물 안에 교리 지식과 교구 생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양서 출판'을 신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자선행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1875년부터 약 30년 동안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 큰 조직은 일치운동 대회(Opera dei Congressi)였고, 그 단체에 속한 이들 가운데 돋보이는 인물은 몬시뇰 라디니-테데스키(Radini-Tedeschi), G.B. 파가누치(Paganuzzi), N. 레차라(Rezzara)와 같은 저명인사들이다.⁷⁰⁾ 많은 숙고와 실천적인 제안을 두드러지게 추진했던 이탈리아 가톨릭 사회 주간(Settimane Sociali dei Cattolici italiani)은 1907년부터 매년 개최되었고 마피(Maffi) 추기경, G. 토니올로(Toniolo) 교수, A. 보자노-피코(Boggiano-Pico), A. 칼다나(Caldana)와 같은 탁월한 인물들이 이를 활성화해 나갔다. 이 모임에서는 가족, 학교, 노동조건, 노동조합, 이민 등과 같은 실제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직면했다. 다시 말해 현대적인 사목 문제들을 다루었던 것이다.

67) S. ZANINELLI, 「La situazione...」, op. cit., pp. 331-332.

68) 상동, p. 332.

69) ATP, n. 71 참조.

4. ‘비오 10세와 모더니즘.’ 알베리오네 신부는 ATP에서 본질적으로 자기 시대의 교회적 관점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특히 ‘Instaurare omnia in Christo’⁷¹⁾(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모토로 삼았던 비오 10세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었다.

사르토 교황의 교황직무는 본당신부와 주교의 의미 있는 경험들을 통해 준비되었고 처음부터 신앙의 보고(寶庫), 윤리적이고 교회법적인 규율, 성사적인 삶이라는 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요소 안에서 교회 삶의 ‘재건’으로 함축된 특별히 사목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교리의 촉진, 그리스도교 신자와 사제 양성의 촉진, 그리고 전례의 촉진을 위한 여러 문헌을 들 수 있다.⁷²⁾

그의 교황직을 모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특징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상은 바로 ‘모더니즘’의 위기였는데, 이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사목자들의 양심을 찢어놓았다. 이미 19세기가 저물 무렵, 문화와 과학 분야에서 전례없이 폭발적인 발전에 직면한다. 교회 안에서, 또 사상계에서 헤겔의 가장 현대적인 변증

70) S. TRAMONTIN, 『Un secolo di storia della Chiesa. Da Leone XIII al Concilio Vaticano II』 (교회사 한 세기. 레오 13세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Studium, Roma 1980, p. 5 참조.

71) PIO X, 『E supremi apostolatus cathedra』(사도좌의 최상 권위로부터: *역주-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회복에 관한 회칙), Litterae Encyclicae(회칙 서한), 1903년 10, 4일, CC, 1903, IV, pp. 129 - 149 참조.

법과 칸트의 주관주의에 내몰린 형이상학과 전통 철학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퍼거스 케르(Fergus Kerr)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된다. “19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은 생각과 진리가 적어도 어떤 면에서 그것이 제안되고 확인되는 역사적 전망과 사회에 상대적이라는 사실이다.”⁷³⁾

따라서 모더니즘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본체’(corpus)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경험과 종교적 경험을 강조했다.⁷⁴⁾ 종교 사상가들은 하느님을 교회의 도그마 안에서 찾기보다 오히려 인간 영혼의 심리적 열망에서 찾았다. 모더니즘에 의해 성서는 교회의 ‘본체’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각기 다른 고대 문학 ‘작품’(corpus)으로 다루어졌고, 역사적 분석, 철학, 수사학, 고고학 등이 섞여 있는 혼합 도구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학적인 연구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시에는 반(反)종교개혁의 노선, 즉 프로테스

72) 교황은 국제성체대회(聖體大會)의 열정적인 추진자로서 그 대회의 25주년을 1905년 로마에서 거행하면서 “하느님 신비에 대한 신자들의 참여 활동”이라고 격려했고, 성가와 성음악을 촉진시켰다. 그와 같은 추진사업을 사제요 작곡가인 로렌조 페로시(Lorenzo Perosi)에게 맡겼다. 그는 시스틴 성당을 관리하기 위해 로마로 불러왔는데 바로 그 족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비오 10세는 특히 교리 분야에 적극적이었고, 이미 회칙 『Acerbo nimis』(*역주-그리스도교 교리교육에 관한 회칙)(1905년 4월 15일)를 통해 문제를 다루었다. 교황은 어린아이들의 정기적인 종교 교육에 대하여 염려하였고,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형제회(opera della Confraternita della Dottrina cristiana)를 발족시켰다. 로마 관구의 교구를 위하여 1912년에 교훈적 특성으로 유명한 교리서를 발표하였다.

탄트 운동에 맞서는 노선상에서 교회에서 허용된 전통적인 성서 독서법과 대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전통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교황청의 교도권이 갖는 역할은 신앙 통제의 유일한 규범으로 강조되었다.

비오 10세의 회칙 「Pascendi dominici gregis」(주님의 양떼를 돌봄)(1907년 9월 8일)는 앞선 오류 목록(sillabo)⁷³⁾에 뒤이어 반포되었는데, 물론 '모더니즘'의 공식적인 단죄를 선언하였다. 모더니즘을 단순하게 불가지론적(agnostica: 역주-신의 존재를 비롯한 몇 가지 명제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종교적 인식론으로 유신론과 무신론의 두 입장 모두를 반대함)이고 상대적인 관념으로 여겼고, 따라서 계시된 진리를 분쇄하는 이단으로 본 것이다.

실로 유럽에서는 오늘날 '진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정적으로 시대의 정신에 따르는 '복종자들'이 되고 말았다. 그들 가운데 프랑스 성서학자 알프레드 로이시(Alfred Loisy)(1857~1940)와 켈빈학파였다가 예수회 회원이 되었던 아일랜드 신학자 조지 티렐(George Tyrrell)(1861~1909)이 있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들은 중세 교회를 성토했다

73) F. KERR, O.P., "Rahner Retrospective II: The Historicity of Theology" (라너 회고록 2: 신학의 역사성), in 「New Blackfriars」, 61(1980), 339.

74) 1854년에 출판된 덴칭거(Denzinger)의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신앙고백, 신앙의 정의와 선포문 참고자료서)과 같은 출판물은 당시 일반적인 철학 동향에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성서와 역사이론 연구의 발전에 무지했던 학자들을 위한 로마교회의 선언 보증서였다.

었고 계시된 진리에 관한 교회적이고 성서적인 발표에 대하여 역사적·상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연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던 사제와 평신도들이 조심스럽게 가톨릭 평신도들의 정치적·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를 청하였다. 마르나바회 수도자 조반니 세메리아(Giovanni Semeria)는 현대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호교론적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성서주석학자 조반니 제노키(Giovanni Genocchi)는 로마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진보주의자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하였다. 레오 13세가 보호해주었던 움베르토 프라카씨니(Umberto Fracassini)는 페루지아 신학교 원장이자 교회역사와 주석에 관한 사상의 주창자로 유명하였다. 당대의 평신도 문화와 교류를 확립할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의 확연한 무능력을 개탄하였던 살바토레 미노키(Salvatore Minocchi)는 사제직을 포기하였고, 로몰로 무리(Romolo Murri) 신부와 에르네스토 부온아이우티(Ernesto Buonaiuti) 신부도 그와 같이 사제직을 버렸다.⁷⁵⁾

알베리오네 신부는 완숙한 기록을 통해 모더니즘의 위기를 다음과 같은 짧은 요점으로 정리한다. "1895년부터 1915년까지 사

75) 「Lamentabili Sane Exitu」, 1907년 7월 4일. - 오류 목록(Sillabo) 또는 'Syllabus' (수록집)는 비오 9세가 1864년 12월 8일에 단죄한 80개의 명제 목록의 명칭이다. 제목 전체는 「Syllabus complectens praecipuos nostrae aetatis errores」(우리의 영원한 오류 명제의 전체 목록)였고 회칙 「Quanta cura」의 부록으로 출판되었다. 오류 목록(Sillabo)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현대 관념론과 협정을 맺거나 또는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회학, 신학, 수덕학의 주제에 대해 ‘많은 탈선’이 있었고, 이는 모든 진리와 교회의 토대를 뒤흔들 정도였으며, 심지어 교회의 파괴를 꾀하였다! 또한 그는 ‘인상 깊은 실례’로 안토니오 포가차로(Antonio Fogazzaro)의 「성자」(Il Santo)를 인용하였다.⁷⁶⁾ 그에 의하면 많은 현상이 그러한 탈선의 불운한 결과였다. 즉 ‘사회주의가 진보해나가는 것’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프리메이슨(massoneria)의 명에’에 직면하여 반대 입장에 선 성직자들의 분열, 정신의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⁷⁸⁾, 사회적·정치적 대립, 새로운 정보 수단과 학교의 분과적인 사용(다시 말해 도그마를 위한 사용이 아님) 등이 그랬다.⁷⁹⁾

수많은 혼란이 있는 뒤, 알베리오네 신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메모하였다. “사목은 건설적인 길을 따르면서, 비오 10세의 모범과 활동에 상응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얼마나 존경심을 표현하였는지 주목하라) “비오 10세는 매혹적인 빛 안에서 나타났고, 대중 사이에 가시적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었다.”⁸⁰⁾

76) 이 모든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참조하라. P. SCOPPOLA, 「Crisi modernista e rinnovamento cattolico in Italia」(이탈리아 모더니즘의 위기와 가톨릭 쇠퇴 운동), Il Mulino, Bologna 1961; M. GUASCO, 「Modernismo: i fatti, le idee, i personaggi」(모더니즘: 사건, 사상, 인물),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1995; L. BEDESCHI, 「Il Modernismo italiano: voci e volti」(이탈리아 모더니즘: 목소리와 얼굴),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1995. - 「Conoscere Don Alberione, Strumenti per una biografia」(알베리오네 신부를 알기, 전기를 위한 도구), Centro Spiritualità Paolina, Roma 1994, pp. 39-127도 참조.

어쨌든 알베리오네 신부는 모더니즘의 위기로부터 자신의 미래 직무를 위한 실천적인 교훈을 이끌어냈다. 온갖 논쟁의 증명에서 벗어나 그는 화제가 되는 운동의 긍정적인 요소를 가려내고 ‘혁신자들’이 제시한 많은 제안들을 실천 사목 안에 적용하려 심혈을 기울였다.⁸¹⁾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의 출판 활동을 위한 지침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삼았고, 다음과 같은 사명을 확립했다. “구원하는 교의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 복음을 모든 인간적 생각과 사고에 침투시켜야 한다. 종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해야 한다. 만일 종합 대학이라면, 신학, 철학, 문학, 의학, 정치경제학, 자연과학 등의 학과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대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것을 가톨릭주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학, 교육학, 지질학, 통계학, 예술, 위생, 지리학, 역사, 온갖 인류의 진보 등을 신앙에 입각한 이성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⁸²⁾

77) AD, n. 89 참조. - 포가차로(Fogazzaro)와 그의 소설(1905년에 출간)에 관해서는 L. CARONTI, 「Fogazzaro, Subiaco e 'Il Santo」(포가차로, 수비아코와 ‘성자’), EP, Alba 1989를 참조하라.

78) “문학, 예술, 교회규율, 저널리즘, 신학, 철학, 역사, 성서 등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가 모더니즘의 급격한 확장을 통해 도래했다. 특히 젊은 성직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길을 잃었다. 비오 10세의 주의 깊고 결단력 있는 활동은 선의의 사람들을 비추었고 길을 찾기를 호소하였다.”(AD 51).

79) “학교는 불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영혼을 두고 다투는 무대로 변하였다.”(AD 54). - 이러한 모든 주제에 관해서는 AD 49-55 참조.

80) AD, n. 50.

아마도 이러한 것이 바로 가족의 사목적인 사명이 아닌가?

IV. ATP의 가장 중요한 주제

이 책은 당시의 교회 맥락 안에 자리를 잡으며 근본적인 특징, 그림자와 특히 빛을 조명해주고 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말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교회의 법률 제정, 그 시대의 신학적이고 수덕·윤리적인 가르침, 특히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 특별히 자신의 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비오 10세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표현한 것으로, 그가 다른 내용의 중심적인 요소들 안에 지속적으로 언급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미 본 바와 같이, 설립자는 새 교황의 사목 계획을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수렴하였다. 새 교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그리스도교 삶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
- 복음과 교회로 복귀.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요 구원의 장소다.
- 성성과 직무를 위한 사제들의 양성. 성성과 직무는 사제적 애

81) 「Gesù, Il Maestro, ieri, oggi e sempre」(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스승이신 예수), Atti del Seminario internazionale su 'Gesù, Il Maestro' ('스승 예수'에 대한 국제 세미나 회의록), Società San Paolo, Roma 1997, pp. 45-63(p. 56) 참조.

82) AD, nn. 87-88.

덕 안에서, 즉 영혼을 돌보는 사목 안에서 통합되는 이중(二重)의 과제다.

ATP는 비오 10세의 성직자에게 행한 권고 「Haerent animo」(*역주- 1908년 8월 4일에 반포한 회칙. 사제 수품 50주년을 맞이하여 가톨릭 사제들에게 행한 권고)를 인용하는 구절로 시작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교황 회칙의 말씀은 일종의 '선언' (manifesto: *역주-오늘날의 선거공약을 의미하는 '마니페스토'에 해당)처럼 들렸다. “사제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나·하느님’이라는 말을 모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제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깃발에 ‘나·하느님·백성’이라고 써야 합니다.”⁸³⁾ 이 같은 개념은 그 다음 작품인 「사제의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에서 거듭 강조되었다. “자신의 사제 생활을 미사와 성무일도로 축소시키는 사제, 다시 말해 자신의 깃발에 ‘나·하느님’이라고 쓰고 오직 이 말을 모토로 삼는 사제는 사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수도원의 독방을 주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어를 모토로 삼으십시오. ‘나·하느님·영혼·백성’.”⁸⁴⁾

ATP는 비오 10세의 문헌들을 많이 인용하였다. 즉 교령 「Sacra Tridentina Synodus」와 자의 교서인 「Inter plurimas pastoralis officii sollicitudines」와 같은 문헌들이다.⁸⁵⁾ 또한 회칙 「Acerbo nimis」(*역주- 1905년 4월 15일에 반포된 그리스도교 교리교육에 관한 회칙)

와 「Il Fermo Proposito」(*역주- 1905년 6월 11일에 반포된 이탈리아 가톨릭 액션에 관한 회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앞의 회칙은 교구의 교리 활동에 대한 숙고를 위하여 인용되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리위원회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가 교리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교리 텍스트를 다듬는 작업을 하도록 주교가 원했기 때문이었다.⁸³⁾ 두 번째 회칙은 결정적이고 투쟁적인 순간에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헌은 ‘과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교황의 쇄신의 교도권으로 소개되었다.⁸⁷⁾

2. ATP가 차지하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차원은 타락한 인간의 상황에서 고려된 인간이다. 따라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 대한 충실성’이다. 인간에 대한 충실성은 매뉴얼의 전형적인 묘사를 통하여 제시되었다. 매뉴얼은 법률 제정 및 윤리적 규범의 묘사와 정신적 스승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묘사, 강론과 교리를 통한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에 관한 묘사로 구성됐다.

비록 성직자 중심적인 교회론으로 출발했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알베리오네 신부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스보보다(Swoboda)와 크리그(Krieg)의 연구는 교

부시대의 위대한 사목자들과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시절의 위대한 사목자들이 추론해낸 고전적인 모델을 통합하고 쇄신했다.

3. ‘특별 주제.’ ATP의 지배적인 사상에 대하여 이 작품이 강조하는 의존성, 연결성, 한계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알베리오네 신부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이미 교회 안에 사목적인 성찰을 제시하려고 했던 공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저자는 젊은 시절(신학생 때 개인적 위기를 겪었던 것도 포함하여)부터 시작된 자신의 체험과 결부되고 나아가 자신의 민감성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떠오른 도전을 직면하고 답변을 찾는 그의 용기와도 결속되어 있는 숙고의 장(場)을 열었다. ATP 안에는 계속되는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저자의 능력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스보보다(Swoboda)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제직으로 실행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활동”이라고 말한 ‘사목의 정의’를 자신의 모토로 삼았다.⁸⁸⁾ 그러나 즉시 간결하게 정의(定意)를 내리려는 듯 다음과 같은 표현을 덧붙였다. “그러한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티나에서 실행하려고 하셨던 바로 그 직무였습니다. 즉 ‘Veni ut

83) ATP, n. 1.

84) G. ALBERIONE, 「La donna associata...」, 상동, nn. 16-17.

85) ATP, nn. 198, 202와 234.

86) AD, n. 80 참조. G. PRIERO, 「Il lavoro di un anno ad Alba」(알바에서의 1년의 활동), in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1915), p. 267 참조.

87) ATP, n. 324.

vitam habeant et abundantius habeant',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하셨던 사람들에게 의해 그 직무가 완수되었습니다. 'Sicut misit me Pater et ego mitto vos'."⁸⁸⁾ 이런 방식으로 그는 교회의 사목 직무는 그리스도의 목자 직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성부의 구원 의지에서 나온 유일한 사 명에 따라 세워졌고 생명을 전달하려는 유일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전망은 단순히 제도적·법률적인 것 이 아니라, 분명히 성 바오로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도의 사목적 염려에서 야기된 복음적, 선교적 전망이었다.

그리스도께 충실한 점진적 접근, 나아가 그분 안에 몰입하는 '여정' (iter)으로 제시된 사목의 '목적'에 특별히 집중했다. 개인 적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화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지성에서, 마음에서, 활동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한

88) ATP, n. 81; H. SWOBODA, 「La cura d' anime...」, 상동, p. 11.

89) 요한 10, 10: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20, 2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암시 하는 바는 이어서 당시 젊은 수도회였던 선한목자예수수녀회를 이끌었던 30년 동안 충만하게 발전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수도회를 사목의 전형인 세 가지 성서구 절, 즉 요한 10, 1-18; 21, 15 이하, 그리고 1베드 5, 1-5에 바탕을 두고 세웠다. 그는 설 립 이후 30년 동안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도회를 이끌었다. E. BOSETTI, 「Un commento di Giacomo Alberione sul Buon Pastore」(선한 목자에 관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주석), in 「Un carisma pastorale」(사목적 카리스마), Atti del Seminario sul carisma(카리스마에 관한 세미나의 회의록), Roma 1985, pp. 141-199 참조.

다."⁹⁰⁾

저자가 다른 작품⁹¹⁾에서 계속 발전시키게 될 이러한 명제는, 여기서는 겨우 암시만 했을 뿐이지만, 바오로 가족 회원들의 영 성과 양성뿐 아니라 사목활동을 뒷받침하는 '길-진리-생명 방 법'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이미 드러내준다.⁹²⁾

ATP의 다른 특징적인 요소는 '사목의 대상자'가 '모든' 하느 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종종 교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남성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점이다. 사제-목자는 "백성 전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장소에 서... 본당신부는 신심이 두터운 영혼의 작은 그룹만을 돌보고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모든 이들의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안전한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안전한 양들이 'pusillus grex' (작은 양떼: *역주-루카 12, 32 참조)이고 잃어버린 양들이 더 많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⁹³⁾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에게 파견된 목자는 두 가지 점에서 회 심하도록 해야 한다.

- 대상자들에 대하여. 이미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작은 그

90) ATP, n. 81.

91) G. ALBERIONE, 「Donc formetur Christus in vobis」(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Pia Società San Paolo, Alba-Roma 1932 참조. 「Introduzione nella nuova edizione」(새 출판본 입문), Roma 2001, nn. 49 이하; AA.VV., 「L' eredità cristocentrica di Don Alberione」(알베리오네 신부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유산), EP 1989, pp. 241 이하 참조.

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본당의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그의 역할에 대하여. 열렬한 신자들이 참여하는 예식을 주관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그들과 만날 기회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일부 본당의 협소한 공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통찰하였다.⁹²⁾ 대중과 개인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한편, 구원의 힘을 가진 말씀을 어떻게 하면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듣지 않는 자에게도 강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회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도시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일과 크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이들을 위하여... 특히 좋은 출판물을 전할 수 있습니다.”⁹³⁾ 그러므로 출판은 효과적인 사목 도구가 된다.

사실 알베리오네 신부보다 앞서 스보보다(Swoboda)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한 특별 활동’을 통하

92) A. F. DA SILVA, 「Il cammino degli esercizi spirituali nel pensiero di don Giacomo Alberione」(야코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상 안에 나타난 영신수련의 여정), Centro Spiritualità Paolina, Ariccia 1981 참조.

93) ATP, nn. 86, 132, 139, 140, 141.

여 두 가지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였다.⁹⁴⁾ 개인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우와 인정을 받는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러한 논점을 부각시켰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해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구별을 절대화하는 일을 극복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였다.⁹⁵⁾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회, 즉 전통적인 수단과 차별된 다른 수단을 통하여 ‘대중’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것은 ‘좋은 출판물을 전하는 것’이었다.

4. ‘새로운 방법.’ 저자는 강론과 교리와 같은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봉사 형태를 사실상 존중하였지만, ‘양서 출판’이라고 알려진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⁹⁶⁾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목소리를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적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현대의 이기들도 복음화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94) 알베리오네 신부의 이러한 방향은 1936 - 1938년에 더욱 견실해졌고, 그때부터 그는 ‘사목을 위한 수도회’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듯이 그러한 수도회 설립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업들, 즉 「선한 목자」(Pastor Bonus)(1936-39) 잡지, 사목신학 코스, 로마에 있는 본당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봉헌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삶을 바칠 생각을 확고히 해 나갔다. R. F. ESPOSITO, 「Lo specifico paolino delle suore di Gesù Buon Pastore」(선한목자예수수녀회의 특별한 바오로 정신), in AA.VV., 「Un Carisma Pastorale」(사목적인 카리스마), op. cit., pp. 54, 79 참조; D. RANZATO-G. ROCCA, 「50 anni di una presenza...」(50년의 현존...), op. cit., pp. 43 이하 참조.

95) ATP, n. 277.

96) H. SWOBODA, 「La cura d' anime...」, op. cit., p. 281.

ATP의 다른 짧은 구절도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본당신부는 선협적인 방법을 통하여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정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지역 사람들을 알고 난 후 그 지역에 맞는 활동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⁹⁷⁾ 그는 나아가 천상 스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사제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필요한 사항들, 빈궁한 처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¹⁰⁰⁾

그러니까 건설적인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영혼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5. ‘구체성과 전체성.’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큰 사목적 근심과 ‘강력한 사회적 민감성’에서 야기된 양극화 현상으로서 사실은 한 가지로 통합된다. 역동적인 알바 교구에서 받았던 양성 덕분에¹⁰¹⁾,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회를 복음화·그리스도화하겠다고 결심하였고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배제하기로

97) ATP, n. 87 참조.

98) ATP, n. 277. 금세기 초반기의 출판 사업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 ROCCA, ‘La formazione della Pia Società San Paolo (1914-1927)’, in ‘Claretianum’, XXI-XXII (1981-1982), 477-482.

99) ATP, n. 327.

마음먹었다.

성직자의 사회 활동과 가톨릭 액션은 이러한 전망 아래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 활동과 가톨릭 액션’이라는 명목 아래 어떤 사람은 ‘단지’ 신용금고, 사회 구호, 은행 등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 개입할 수 있지만 성직자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목적으로 돌보는 행위가 아니다.¹⁰²⁾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구 참사위원.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와 함께 알바 교구 여러 본당에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을 펴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¹⁰³⁾ 그의 방향은 분명하였다. 사제 또는 목자의 존재는 ‘호언장담’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순수한 영성주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하며, 통합주의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한다. 본당신부들은 성무를 집전하는

100) ATP, n. 84; ATP, 145-146 참조.

101) 알바 교구의 사회·종교적 상황에 관해서는 G. MAGGI, “Temi politici e sociali nell’azione dei cattolici albesi del primo novecento” (1900년대 초기 알바 가톨릭 신자들 활동에 나타난 정치 주제와 사회 주제), in ‘Alba Pompeia’, op. cit., pp. 5-18 참조. 저자는 알바 교구 본당에 교황 문헌 ‘Il fermo proposito’ (*역주-가톨릭 액션에 관한 회칙)를 알리고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의 활동을 알리도록 주교로부터 초대를 받았던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와 알베리오네 신부가 전개한 활동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위기와 논쟁의 시기가 지난 후, 1909년에 파견된 이 두 신부는 교구 본당 내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을 사회주의를 대체할 하나의 가능성으로 소개하면서 활발한 선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1911년 말에는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이 91개 본당에서 전개되었고 2352명이 가입했는데 전년에 비해 800명이 늘었다.

사람이기만 해서 안 되고 현장의 사람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모든 현실이 그리스도화되고, 본당 차원에서 시작된 농업과 산업도 그리스도화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안에서 지혜롭게 지낼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문의 근본적인 요소들로부터 방향을 돌려,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목적인 개념을 강하고 담고 있는 ‘전체성’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는 인간의 전체성 안에서 모든 인간적 실재에 도달할 필요성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과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류 발전이 조금씩 실행하도록 해주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어떤 사회적 조건에 있든지 모든 인간에게 전할 필요성을 말해준다.¹⁰⁴⁾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한 그의 공적은 새로운 도구로서 매체를 도입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도원을 설립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설립한 수도회들은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내용(콘텐츠)에서나 매체(수단)에서나 ‘새로운 사목’을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102) ATP, n. 323.

103) AD, n. 61.

알베리오네 신부는 물론 개혁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텍스트를 집필하였다. 그 텍스트는 오히려 전통과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면 결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고, 그는 전통적인 사목 안에 새 싹을 틔웠다. 일단 싹을 틔우면 숙고와 실천 차원에서 혁혁한 변화를 보장해주는 싹이다.

이러한 특징은 목자와 수도원 설립자로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삶 전체를 부각시켜준다. 그의 삶은 의심할 여지없이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어가야 할 유산이다.

본서 작업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루치아 바로(Lucia Baro) SGBP와 바오로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소중한 도움을 기꺼이 해준 안드레아 다미노(Andrea Damino) 신부와 잔카를로 로카(Giancarlo Rocca) 신부, 제안을

104) ATP, nn. 81-82, 86-87 참조.

서슴지 않고 해주고 이 서론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안토니오 F. 다 실바(da Silva) 신부와 엘리세오 스가르보싸(Eliseo Sgarbossa) 신부, 작품을 검토하고 교정해준 루이지 조반니니(Luigi Giovannini) 신부, 기술 분야에 관한 모든 문제를 위해 수고해준 마우리치오 티라펠레(Maurizio Tirapelle) 수사 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비르지니아 오도리치(VIRGINIA ODORIZZI) 수녀 SGBP

안젤로 콜라크라이(ANGELO COLACRAI) 신부 SSP

AVVERTENZE

1. Il testo su cui si è lavorato e che viene proposto è la *seconda edizione* (1915). Le note in calce sono opera dei curatori della presente edizione.

2. Le parentesi quadre indicano che nel testo sono state introdotte dal curatore delle parole o delle citazioni rimaste sospese.

3. Anche l'uso di forme grammaticali non comuni al linguaggio corrente è stato conservato, per rispettare lo stile dell'Autore. Si sono conservati perciò il diagramma "gl" invece di "l"; l'ausiliare "essere" invece di "avere" o certe forme perifrastiche, come ad es.: "hanno da..." e l'uso di francesismi come "è... che".

4. Gli indici riguardano:

- le citazioni bibliche, secondo la numerazione della "Biblia Vulgata";
- i documenti della Chiesa;
- gli autori di opere, menzionati nel testo di cui si è completata la citazione;
- le associazioni e le riviste;
- i nomi propri che si riferiscono a persone e a luoghi;
- i temi trattati (indice analitico);
- un elenco bibliografico, riguardante la documentazione consultata.

5. La numerazione marginale rimanda alle pagine dell'edizione tipica (II edizione, del 1915) del testo alberioniano. A tale numerazione fanno riferimento tutte le citazioni e gli stessi indici al termine del volume.

일러두기

1. 본문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2판(1915년)이다. 하단에 나오는 각주는 본서를 엮은 편집자들이 달았다.
2. 각으로 된 괄호[]는 생략된 말이나 인용부분을 편집자가 넣은 것이다.
3. 저자의 문체를 존중하기 위하여, 현대 언어에서 통용되지 않는 문법 형태를 보존하였다. 그래서 ‘ı’을 사용하지 않고 ‘g’를 사용한 경우, ‘avere’ 보조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essere’라는 보조동사를 사용하거나 우회적인 용법으로 ‘hanno da...’와 ‘è... che’와 같은 프랑스어적인 표현을 한 경우 그대로 살려두었다.
4. 색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불가타 성서’의 표기에 따른 성서 인용 색인;
 - 교회 문헌 색인;
 - 본문에서 인용한 작품의 저자 색인;
 - 연맹 색인과 잡지 색인;
 - 언급된 인물의 인명 색인과 장소 색인;

- 다른 주제 색인(내용 색인);

- 참조한 문헌에 관한 참고도서 목록.

5. 가장자리의 숫자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는 원전인 출판본(1915년의 2판)의 페이지를 가리킨다. 이 숫자는 본서의 모든 인용과 본서 말미에 나오는 색인에서 사용하였다.

TEOL. G. ALBERIONE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Pratica del ministero sacerdotale per il giovane clero)

II EDIZIONE

RIVEDUTA - CORRETTA - AMPLIATA.

Pascite, qui in vobis est, gregem
Dei... et cum apparuerit princeps
pastorum, percipietis immarcescibilem
gloriae coronam.
(I Petr. V, 2-4).

TORINO

CAV. PIETRO MARIETTI - EDITORE
TIPOGRAFO PONTIFICO E DELLA SACRA CONGREGAZIONE DEI RITI

1915

Riproduzione fotostatica del frontespizio originale.

Visto: *nulla osta alla stampa*

Torino, 26 Agosto 1914

Can. STEFANO RONCO, *Rev. Deleg.*

IMPRIMATUR

Mons. F. DUVINA *Prov. Gen.*

Visto: *nulla osta alla stampa*

Alba, 6 Ottobre 1914.

Can. FRANCESCO CHIESA, *Rev. Del.*

IMPRIMATUR

Albae, die 7a Octobris 1914.

† JOSEPHUS F. *Episcopus.*

PROPRIETÀ RISERVATA (15 - X - 14-25)

나의 사랑하는 벗들에게
존경하는 젊은 사제들에게
그리고 친애하는 알바 교구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추천하는 글¹⁾

우리 신자들에게 거룩한 사제를 양성해주는 일은 한 신학교 장상(저자는 신학교의 영적지도신부)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사목 직무를 열성과 건실한 태도로 실행하는 실천적인 방법에 관하여 강조하는 것은 두 배로 권고할 만한 업적이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신학자 알 베리오네 신부님이 저술한 사목신학 개요가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 작품 안에는 견고한 교의와 실천적인 지혜가 함께 빛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참된 목자가 확실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습서가 됩니다. 젊은 사제들뿐 아니라 원로 사제들도 그리스도교 삶을 다시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규범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덕성에 대한 생생한 사랑으로 집필한 이 책을 기꺼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께서 가장 총애하시는 당신의 교역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극복

1) 이 소개글의 원전 목차에서는 'Giudizio dell' Em.o Card. Richelmy sulla prima edizione' (초판에 관한 지극히 경애하올 리켈미 추기경의 판단)이라고 불렀다.

하고 온갖 자기애와 나태함의 성향을 억누르면서, 하느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제시해준 이러한 배움에 상응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리노, 1913년 2월 2일

+ A. 리켈미(RICHELMI) 추기경
토리노 대주교

초판 서언

저자는 1911 - 1912학년도에 친애하는 알바 신학교 윤리강좌 2학년 과정 학생들에게 사목신학의 실천적인 권고 몇 가지를 전해줄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신심, 학문, 열성을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개요를 그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러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쳐 줘야 할 사람은 일개 교수 이상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교구 본당신부님들 가운데 아주 열성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원로 신부님 18명에게 질문지를 보내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사목신학에 관한 여러 논문, 저서, 잡지와 신문 기사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고 분류하며 정리하고 교정하는 일에 여러 신부님들이 협력하였습니다.

이 신부님들에게 무한한 칭송과 감사인사를 진심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제 책을 출간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훌륭한 분들의 충고와 바람을 따르기 위해서이고 둘째, 매년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젊은 사제들에게 그곳에서 받은 사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서이며, 이 책을 읽을 노련한 사제들로부터 적합하다고 믿는 관찰 사항, 수정할 사항, 첨가할 사항들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셋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한 사람만큼 더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께서 자신의 생각과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충심으로 간구합니다. 그 모든 도움을 중히 여길 것이며 그 의견들은 분명히 이 책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활동에 협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제는 실천적인 사목신학의 영역이 아주 방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목적인 돌봄 자체도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조건들이 영혼의 목자들에게 안겨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문과 실천과 확고부동한 자세를 지닌 사람이 완수해야 할 방대한 연구 과제에 대한 미미한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모후이시요 사도들의 충고자이신 마리아께서 주님의 신비로운 포도밭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많은 사제들의 노고와 성무를 기꺼이 축복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바에서, 1912년 8월 1일

지은이

개정판 서언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2판을 출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초판은 타자를 쳐 인쇄했기 때문에 초라한 비망록(제가 보기에는 사제의 공책처럼 보입니다)처럼 개인적 문서 같지만 활판으로 인쇄되는 이 2판은 학적이며 훨씬 고상한 스타일로 꾸며지고, 잘 정돈된 체계로 완벽한 출판물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이 모든 기대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전한 단순함으로 젊은 사제들의 공적 생활 첫 걸음을 이끌어 주는 일로서, 실천적이고 확실한 안내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다른 저자들의 작품에서 찾으려는 내용만큼은 본서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저자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목에 대한 이들 작품을 능가할 연구는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즉 4권으로 된 크리그(Krieg), 「사목학」(Scienza Pastorale)¹⁾이
그것인데 그중 제1권 「특별한 영혼에 대한 사목」(Cura d' anime
speciale)과 제2권인 「교리」(Catechetica)가 출간돼 있습니다.

출발점

유일한 으뜸 사제

사제의 실천적인 삶 - 자료의 구분 - 주의사항

사제. - 비오 10세는 1908년 '성직자에게 주는 권고' 에서 다음 1
과 같은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가 오로지 자기 성화에
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
다.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이
끌어주신 일꾼입니다. 그의 중요한 의무는 나쁜 풀을 뿌리 뽑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뿌리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지 않
도록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강론대, 고해성사,
병자들, 어린아이들, 고통 받는 이들, 죄인들을 잊어버리면서 자
신의 성화에만 몰두하며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처럼 모든 이에게 선행을 베풀고 억압받는 이들을 악마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¹⁾ 그러므로 사제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1) C. KRIEG, Scienza Pastorale, Teologia Pastorale, 4권, A. 보니(Boni) 신부의 번역, Marietti, Torino.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았으며 다음과 같은 작품이 출간되었다. 「특별한 영혼에 대한 사목」(Cura d' anime speciale), Marietti, Torino 1913; 「교리, 즉 교회 일치운동의 학문」(Catechetica, ossia scienza del catecumenato ecclesiastico), Marietti, Torino 1915; 「하느님 말씀의 강론 또는 복음화 학문」(Omiletica o scienza dell' evangelizzazione della Parola di Dio), Marietti, Torino 1920.

사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나-하느님’이라는 말을 모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제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깃발에 ‘나-하느님-백성’이라고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출산을 위하여 혼인성사를 제정하셨던 것처럼, 영성적인 계승을 위하여 신품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Per evangelium ego vos genui.”²⁾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사제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Faciám vos fieri piscatores hominum.”³⁾ 그뿐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설명하셨습니다. “Posui vos ut eatís et fructum afferatis et fructus vester maneat.”⁴⁾

2 사제에게 하나의 큰 책임을 부과하셨습니다. 즉, 가족의 아버지는 하느님의 심판대에서 자기 자식들을 대하여 대답해야 하고, 선생은 자기 학생들에 대해, 사제는 그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들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같은 책임에 대해 놀라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Vae autem

1) PIO X, 「Haerent animo」, Exhortatio ad clerum catholicum(가톨릭 사제들에게 보내는 권고), ASS XLI (1908), p. 562.

2) 1코린 4, 15: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3) 마태 4, 19: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4) 요한 15, 16: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mihí si non evangelizavero!”⁵⁾ 한편 지도자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Qui bene praesunt presbyteri duplici honore digni habeantur.”⁶⁾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따른 귀중한 대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Centuplum accipietis et vitam aeternam posidebitis.”⁷⁾ 현재 삶에서 백배의 영적 위안을 받고 미래에는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제는 ‘학자’ (dotto)만이 아니요, ‘성인’ 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학자-성인’ 으로서, ‘사도’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학식과 성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실천적인 삶. - 이제 실천적인 삶에서 사제들, 특히 젊은 사제들이 이러한 사제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도 다양한 위험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불운하게도 사제직을 잃었습니까!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는 당신이 살던 시대 상황에 대하여 “훌륭한 사제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하여, 적은 수이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만일 오늘날에 글을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5) 1코린 9, 16: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6) 1티모 5, 17: “지도자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원로들은 이중으로 존대를 받아 마땅합니다.”

7) 마태 19, 29: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참조.

1. 일부 사람들은 열심히 성무일도를 바치고, 미사성체를 거행하며, 거기에다 몇 가지 다른 신심실천을 덧붙일 때 훌륭한 사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제는 시간의 활용, 열성의 활용, 강론을 준비하는 방식과 고해성사를 듣는 방식 등에 관하여 성찰하지 않습니다. ‘열성이 없기’ 때문에 참된 사제가 아닙니다.

3 2.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일에서 거의 전적으로 투신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등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면학과 신심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원천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곧 열성도 잃게 될 것입니다.

3. 일부 사람들은 자기 양성을 위한 이 두 가지 요소인 면학과 신심에 매진하지만, 나중에 사도직을 실행할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또는 그 활동을 충분하게 알지 못할 때는 아주 쉽사리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또는 외적 활동에 완전히 봉헌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항, 즉 영성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또는 ‘오로지’ 이러한 것만 돌보고 다른 일은 한 쪽으로 밀쳐놓거나 아마 경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활동 방향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최악이요 다른 측면에서는 최상입니다. 희생을 치른 것에 비하여 결실이 아주 없는, 균형을 잃어버린 활동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소중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소진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제시하는 실천적인 제안들을 통하여 적어도 젊은 성직자에게서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줄이고 멀리 떨쳐버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분. -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1. 열성의 삶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자기 양성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식과 열렬한 신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제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2. 영혼을 돌보는 참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반’ 수단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혼을 사목하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 사제는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통제해 나가야 할까요? 일부 범주에 속하는 사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3. 사제적 열성에 속하는 특별 활동에 대하여 말하자면, 성사, 강론, 신심, 가톨릭 액션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여기서는 새로운 사항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이 제안한 몇 가지 실천적인 규칙과 해야 할 많 5

은 활동을 아주 간략하게 열거하고자 합니다.

논문을 작성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웅변을 가르치는 책에서는 어떻게 전개하는지 살펴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학교에서 공부하였던 신학, 웅변학, 교회법의 학술적인 논문 바깥에 있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하도록 하고, 상술한 논문에서 이해한 내용을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목신학은 윤리신학 또는 웅변학, 또는 교회법에 관한 학술논문과 지나치게 연계되어 왔고 거의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사목신학의 '고유한' 분야가 아닐뿐더러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사목신학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⁸⁾

일단 많은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는 신학과 교회법뿐 아니라 웅변과 전례, 교회법 규정 등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또한 독자는 항상 자신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분이며, 수덕적인 면에서도 거룩하고 실천적인 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8) 사목신학의 역사적인 변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작품을 참조하라. M. MIDALI, 『Teologia pastorale o pratica, cammino storico di una riflessione fondante e scientifica』(사목신학 또는 실천신학,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성찰의 역사적 여정), LAS, Roma 1985, pp. 17-44 참조.

제1부 열성의 기초에 대하여

서론

6 인간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거룩한 자기 사명을 완수하려는 목적을 지닌 교회는 긴 세월 동안 규칙을 세우고, 규범을 정하며, 사제들에게 형벌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삶에 대한 실천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거룩한 사제와 훌륭한 영혼의 목자들에게 교회법의 형벌을 면하게 해줌으로써 예전과 크게 달리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본당신부가 몇 년 동안 자기 교회를 사막처럼 비우고 돌아다니면서, 미사성제도 자주 빠뜨리고, 젊은이 교육을 등한시해 무지를 키웠으며, 부도덕한 면을 확산시키고, 신자들의 삶을 그리스도교적 삶이 되도록 애쓰지 않으면서도, 교회 장상과 교회법 앞에서는 규정대로 처신하는 일이 왕왕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이 부족할 때, 다시 말해 사제가 불타는 열성을 잃어버렸을 때, 전례 기술, 교회법, 강론 등의 수완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시체처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의무와 자질을 다루는 책들도 지나치게 면학과 신심에 대해서만 길게 다룰

뿐 열성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성은 사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사도만이 가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학문과 신심은 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따름입니다.

열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열성은 하느님께 대한 존경과 영혼의 구원을 강렬하게 원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신심 정신에서 생깁니다. 사제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을 닦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한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사제는 자신의 시간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제의 '신심' 과 '면학'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록처럼 재물의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일 것입니다.

1장 일반 신심에 대하여

‘신심’은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영혼들이 잘못 알아듣는 것처럼, 신심은 외형적이거나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신심은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정신착란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신심이란 풍요로운 활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내적 활동 전부를 가리킵니다. 빛나는 신앙에 의해서 비추어진 정신은 제일 먼저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하느님 안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무한한 존재 안에 더 깊이 다가가 매일 스며들어갑니다. 그런 후 바로 마음이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움과 진리에 매료되어 하느님과의 사랑과 일치로 이끌리도록 자신을 맡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의지는 은총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강한 결심을 굳히고 더욱 활기차게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외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말은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울리며, 손은 열성적인 일에 임할 준비를 더욱 잘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실입니다. 곧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명이 자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심도 양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심의 실천이 영양분이며 덕이요 결실입니다.

원칙. 1. 사제의 신심과 평신도의 신심은 아주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신자들의 신심은 자신의 성화를 목표로 삼지만, 그 사제의 신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성화시키는 것도 목표에 포함됩니다. 일반 신자는 욕정을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하느님의 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를 완수했는지에 대하여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즉 ‘나와 하느님’을 살펴봅니다. 대신 사제는, 특히 본당 신부라면, 자신 안에 그리고 다른 이들 안에 하느님의 정신이 살 8
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의무와 타인들을 위한 사제 직무를 완수했는지 성찰합니다.

2. 일반 신자는 자신의 신심실천을 언제 어떻게 행할지 소신껏 할 수 있고, 다시 말해 자기 영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사제는 신자들의 편의를 방해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3. 사제는 자신의 성성 정도에 따라 사람들을 성화시킵니다.

만일 그가 아주 거룩하다면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느님의 길에 더욱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주 거룩하다면 '더 많은' 죄인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사제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가까이 이끄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회개는 설득하는 일이며 더 많은 은총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심오하게 느끼는 사람이 설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더욱 확실하게 얻어냅니다.

결과. 1. 사제의 기도는 일반 신자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9 양심성찰을 더 폭넓게 해야 하고, 부지런히 신심행위를 해야 합니다.

2. 신심 실천을 위한 시간표를 짤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ex. g.¹⁾ 만일 고해성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면, 일어나자마자 묵상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묵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평범한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조배를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표양을 보이는 일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하여 신심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Exempi gratia = 예를 들어서.

3. 사제는 자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성화시켜야 할 아주 엄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제에게 필수적인 것들(성무일도, 미사성제, 묵상, 영적독서, 성체조배, 묵주기도 제3단)로 지시된 신심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지나친 열성적인 활동 때문에 신심 실천이 '항상 또는 습관적으로' 방해를 받는다면,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어떤 활동이든지 벗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젊은 사제는 설사 상대가 연장자와 장상이라고 해도 태만한 형제들의 표양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연로한 사제가 '규칙적인' 묵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젊은 사제는 그래서 안 됩니다. 젊은 사제는 불행하게도 지나치게 자유롭거나 또는 자신의 사제적 의무나 개인적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자기 시간을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소모하는 사람의 표양 앞에서 굳건히 견뎌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사제들이 그와 같은 형제들 안에서 치명적인 암초에 부딪혀 훌륭한 그들의 결심을 잃고 맙니까! 터득해야 할 신심, 예를 들어 성체조배, 성 요셉께 대한 신심, 수호천사께 대한 신심 등은 한층 더 가꾸어야 합니다.

2장 신심의 실천

1. 삶의 방법 (시간표 - 규칙)

우리의 시간을 배분하는 순서, 우리의 영성적이고 지성적인 작업의 프로그램은 쉽고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1.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
2. 많이 할 것.
3. 만족할 정도로 잘 할 것.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종의 일반적인 규범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은 삶의 다양한 조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면학에 필요한 자료.
2. 영적인 일에 사용해야 할 시간(예를 들어 매일 묵상 20분; 성체조배 15분, 30분 혹은 한 시간 등).
3. 가꾸어나가야 할 특별한 덕성과 가사도우미, 조각인, 고백

자, 동료 교역자 등과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적용해야 할 규범.
4. 특정 직무에 필요하고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열성적인 활동.

주의할 사항. 1. 만일 시간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특별한 상황이 요청하는 일을 실행한 후에 하던 일로 돌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각종 이유 때문에 정해진 시간표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망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망상은 시간이라는 아주 소중한 보화를 아무것도 아닌 일이나 무위도식 또는 시시하게 보내는 습관에 쉽게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을 지나치게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청에 시간을 내주며 많은 일을 더 편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병자들을 방문하는 일은 종종 운동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신문을 읽는 일은 짬짬이 시간이 날 때 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하며, 장황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아침에는 성당에서 아주 긴 시간 머물 필요가 있으며, 고해성사를 하려는 고백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성무일도를 성당에서 바쳐야 하고, 먹을 음식은 실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어느 본당으로 임지를 배정받았을 때에는 - 보좌 신부와 같은 소임 - 가능한 한 빨리 그 본당 사제들 중 가장 성덕이 출중한 분께 본당신부를 대하는 방식, 가사도우미를 대하는 태도를 물

어야 하고, 하면 좋은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관하여, 기본적인 위험 등에 관하여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시간표. 아주 활발한 본당들 가운데 한 본당에서 오랫동안 따랐던 모범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1. '성모송' 소리에 기상합니다. 즉 겨울에는 5시, 봄과 가을에는 4시 반, 여름에는 4시에 기상합니다.

2. 즉시 고해성사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서둘러 고해성사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해성사 보려는 고백자가 없더라도, 이러한 규칙을 아주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각 사제는 거기서, 미사 전과 미사 후에, 자신의 신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나머지 부분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하도록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묵상, 사제관 시간경 등).

3. 미사는 계절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합니다.

4. 세 시간 또는 네 시간 후에 사제관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식사와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한 다음,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읽고 쓰는 일 등을 정오까지 합니다.

5. 점심식사 후에는 한 시간 정도 공동으로 취미시간, 그러니
12 까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6. 15시에 공동으로 산보를 하면서 '저녁기도와 끝기도' 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성당에서 영적독서, 성체조배, 아침기도

를 바칩니다. 고해성사를 요청받게 되면, 각자 중단할 수 있고, 이어서 다시 계속해야 하는 신심을 실천합니다.

7. 이 모든 것을 마친 다음, 사제관으로 돌아가 각자 자기 방에서 아침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냅니다.

8. 19시에 저녁식사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 가톨릭 서클의 회원들을 도와주러 가거나, 저녁 학교나 성가를 지도하러 갑니다.

9. 22시까지 기도하고 취침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시간표는 종교적인 업무와 사회활동이 아주 많은 본당에서 가능하면 준수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이런 본당에는 종종 병자가 많고 사제들 각자 여러 가지 맡은 일과 계속되는 바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충실히 지키기가 쉽고, 아주 광범위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도록 해줍니다. 신심에 관한 사항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사제들은 진정으로 훌륭한 정신을 가진 분들이고 대단한 열성을 갖춘 분들입니다.

2. 묵상

중요사항. -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대죄(죽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무일도를 소홀히 하는 일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만, 묵상을 생략하는 일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영혼에게 남깁니

14 다. (성직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¹⁾ 항상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료 또는 병자 방문,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강론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님.) 묵상과 일부 직무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사제는 통상적으로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홀히
13 한 것이 결국 신자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실천 사항. - 영성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준 형태에 따라, 적어도 평균 20분 동안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묵상은 젊은 성직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성의 대가들의 충고를 따라, 전날 저녁에 미리 메모해둔 사항들을 읽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방법에 관해서는, 성 이나시오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²⁾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의지를 실행하는 데 몰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서를 청하고, 결심하며, 기도할 것.) 그러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묵상은 영적독서가 아닙니다.

주제의 선택. 1. 방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유롭게 선택.

목요일: 성사에 관하여.

금요일: 수난 혹은 예수 성심에 관하여.

토요일: 성모님에 관하여.

주일: 복음에 관하여.

2. 방법: 책 한 권을 선택해서 끝까지 읽으며 그 내용을 따라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가장 권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방법을 따르든 혹은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든, 가끔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무일도, 성사와 준성사에 관하여, 장례예절, 임종을 위한 기도 등을 위해 규정된 전례기도에 관하여, 연옥영혼, 수호천사, 성 요셉에 대한 신심에 관하여 묵상하는 것은 항상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일반적인 열성에 대한 주제와 특히 열성적인 활동, 즉 고해성사 주는 일, 강론하는 일, 병자와 어린

1) 규율 수도자들 편에서 바쳐야 하는 성무일도의 합동 암송기도의 의무를 암시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의 기금(beneficio: 성직록)으로부터 급여가 보장된다고 이해하였다. 암송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둑이 되는 것이다.

2) 성 이나시오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 방법이 알베리오네 신부의 영성에 끼친 영향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A. F. DA SILVA, 『Il cammino degli esercizi spirituali nel pensiero di don G. Alberione』(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상 안에 나타난 영신수련의 여정), Centro Spiritualità Paolina, Ariccia 1981, pp. 11-21.

이를 돌보는 활동, 선을 위해 행하는 활동 등에 관한 주제를 자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만일 할 수 있다면, 미사 전
15 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사 후에, 병자들을 방문하러 가는
중에도 가능합니다.

묵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천할 만한 서적들³⁾

D. CAFASSO, 「Meditazioni pel clero; Istruzioni pel clero」(성직자를 위한 묵상; 성직자를 위한 교육) (토리노의 위로의 성모<Consolata> 본당 제의실에 문의할 것).

CHAIGNON, 「Prete santificato」(성화된 사제) (Tip. Emiliana, Venezia).

HAMON, 「Meditazioni」(묵상) (Libreria del Sacro Cuore rimpetto ai SS. Martini, Torino<토리노의 순교자 성당 맞은편에 있는 성심 서점>).

S. ALFONSO, 「Apparecchio alla morte」(죽음을 대비하는 수단) (상동).

KROUST, 「Meditationes」(묵상) (Tip. S. Giuseppe, Via San Calogero, N. 9, Milano).

CABRINI, 「Sabato dedicato a Maria SS.」(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토요일) (Tip. Emiliana, Venezia).

3) 저자가 제시하는 참고도서는 거의 항상 불충분하다. 본문에 인용된 서적의 모든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자들의 색인을 참조하라. 각주에는 단지 저자나 제목이 부분적으로 빠진 것을 확인하여 보충한 내용만 실었다.

ARVISENET, 「Memoriale vitae sacerdotalis」(사제의 삶에 대한 회고록) (P. Marietti, Via Legnano, 23, Torino).

VEN. EYMARD, 1. 「La presenza reale」(실제적인 현존). 2. 「La Santa Comunione」(영성체). 3. 「Esercizi Spirituali innanzi al SS. Sacramento」(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 앞에서 행하는 영신수련). 4. 「L' Eucaristia e la perfezione cristiana」(성체성사와 그리스도교 완덕). 5. 「Mese del SS. Sacramento」(미사). 6. 「Mese di N.a Signora del Sacramento」(성사의 여주인이신 성모님의 미사). 7. 「Vita e virtù del Ven. Eymard」⁴⁾(가경자 에이마르의 생애와 덕 *역주 - 1962년 시성됨) (판매처: 사제 Carlo Poletti, Vicolo S. Maria n. 3, Torino).

PAGANI, 「SS. Eucaristia」⁵⁾(성체성사) (Tip. degli Artigianelli, corso Palestro, 14, Torino).

- 「Scuola di Gesù appassionato」⁶⁾(열성적인 예수님의 학교) (상동).

PAGANI, 「L' Ufficio divino dal lato della pietà」⁷⁾(신심의 측면에서 본

4) 「Vita e virtù del padre Pier Giuliano Eymard」(피에르 줄리아노 에이마르 신부의 생애와 덕), fondatore della Congregazione del SS.mo Sacramento(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수도회의 설립자), Religiosi del SS.mo Sacramento, San Claudio, Roma 1900의 텍스트는 저자가 무명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회의 사제들이 엮은 듯하다.

5) 텍스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마 다음의 작품을 말하는 듯하다. G. B. PAGANI, 「L' anima divota della SS.ma Eucaristia」(성체성사에 열렬한 영혼), 7ª ediz., Pirotta, Milano 1845.

6) 텍스트는 I. CARSIDONI 신부(Ignazio del Costato di Gesù, sacerdote passionista<예수 고난회의 사제>, + 1844): 「La scuola di Gesù appassionato aperta al cristiano con la meditazione delle sue pene」(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묵상과 함께 그리스도교인에게 개방된 열성적인 예수님의 학교), Tip. Pontificia Ist. Pio IX, Roma 1908. 다른 신심 실천과 함께 「A Maria SS.ma Addolorata」(통고의 성모 마리아께) 3일기도가 첨가되어 있다.

성무일도) (상동).

ARATO, 「Il S. Sacrificio della Messa」(미사의 희생제물) (토리노, 성심서점)

16 - 「La formazione dell' umiltà」⁸⁾(겸손의 양성) (상동).

주의사항. - 여기서 저는 성직자들 사이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토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익한 서적들만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서적 중 그 어떤 책도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여 열성에 대하여 충분하게 다룬 게 없습니다.

3. 영적 독서

우리는 묵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강론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도 행하는 법입니다. 영적 독서는 우리가 드물게 듣게 되는 사제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성의 길은 선별된 저자들 그리고 특히 성인 저자들이 쓴 저서

7) 작품의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Pagani로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다음의 작품을 말하는 듯하다. N. BACUEZ, 「L' ufficio divino dal lato della pietà」(신심의 측면에서 본 성무), Artigianelli, Torino 1885.

8) 아마 다음의 작품을 말하는 듯하다. L. BEAUDENOM, 「Formazione all' umiltà, e per essa all' insieme delle altre virtù」(겸손에 대한 양성, 그리고 다른 덕성을 위한 양성과 함께), Tip. Salesiana, Firenze 1913.

들을 많이 읽더라도 알지 못합니다. 사제에게는 적어도 매일 15분씩 이러한 신실한 독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 독서를 위한 서적들⁹⁾

GERSEN, 「De Imitatione Cristi」(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하여)(Pietro Marietti, Torino).

S. FRANCESCO DI SALES, 「Opere complete」(전집) (Clemente Tappi, Via Garibaldi, 20, Torino).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Teotimo」(테오토모) - 「Filotea」(필로테아: *역주- 신에론) - 「Stendardo della Croce」(십자가의 깃발) - 「Lettere」(서간집) - 「Trattenimenti spirituali」(영적 유희) - 「Sermoni famigliari」(가족들에게 한 연설) - 「Discorsi di sacre controversie」(거룩한 논쟁에 대한 담화) - 「Opuscoli vari」(여러 가지 작은 작품들) - 「Vita di San Francesco」(성 프란치스코의 생애).¹⁰⁾

FRASSINETTI, 「Gesù Cristo regola del Sacerdote」(사제의 규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Tip. Poliglotta Vaticana, Roma).

- 「Pratica della Confessione progressiva e della direzione spirituale」 17 (점진적인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의 실천). (Due vol. Tip. Lethielleux, Rue de

9) 저자들의 색인 참조.

10) 이 작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P. CAPELLO, 「Vita di San Francesco di Sales」(성 프란치스코 드 살의 생애), Marietti, Torino 1861를 말하는 듯하다.

Cassette, 10, 파리).

R. G. MEYER, 「Scienza dei Santi」(성인에 대한 학문) (Roma, Desclée).

S. ALFONSO, 「Le Glorie di Maria」(마리아의 영광)(Giacomo Ameodo, Torino).

- 「Gran Mezzo della Preghiera」(기도의 위대한 수단)(Società Buona Stampa, Torino).

DUBOIS, 「Guida dei Seminaristi」(신학생들의 안내서)(Marietti, Torino).

- 「Il Santo Prete」(거룩한 사제). - 「Pratica del Cristianesimo」(그리스도교의 실천) - 「Pratica dello zelo」(열성의 실천)(상동).

GIBBONS, 「L' ambasciatore di Cristo」(그리스도의 대리자)(Cav. Pietro Marietti, Torino).

ARVISENET, 「Memoriale Vitae Sacerdotalis」(사제 생활의 회고록)(상동).

AURELI AUGUSTINI, 「Confessionum libri XIII」(고백록 13권) - 「Meditationes」(묵상)(상동).

BONA, 「De Sacrificio Massae」(미사의 희생 제물에 대하여)(상동)

CHRYSOSTOMI, 「De Sacerdotio」(사제직에 대하여)(상동).

FABER, 「Progressi dell' anima nella vita spirituale」(영적 삶 안에서 영혼의 진보) - 「Il Santo Sacramento」(거룩한 성사) - 「Il Creatore e la creatura」(창조주와 피조물) - 「Tutto per Gesù」(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 「Il piede della Croce」(십자가의 발치) - 「Conferenze spirituali」(영성 강의) - 「Betlemme」(베들레헴) - 「Il Prezioso Sangue」(소중한 성혈) - 「Vita e lettere」(생애와 서간집)(상동).¹¹⁾

MONNIN, 「Spirito del Curato d' Ars」(아르스의 성자 정신)(상동).

RODRIGUEZ, 「Esercizio di perfezione e di virtù cristiane」(그리스도교 완덕과 덕행의 실천)(상동).

L. VACCARONO, 「Il Cuore di Gesù del Sacerdote」(사제의 예수 성심)(Società Buona Stampa, Torino).

P. PERREYVE, 「La giornata dell' ammalato」(병자의 하루)(상동).

FRASSINETTI, 「Industrie Spirituali」(영적 작업) - 「Il Conforto dell' Anima Divota」(신심 깊은 영혼의 위로) - 「La divozione illuminata」(빛나는 신심) - 「Il Convito del Divino Amore」(하느님 사랑의 향연) - 「Il Pater Noster di S. Teresa」(성녀 테레사의 주님의 기도) - 「Il Catechismo Dogmatico」(교의에 관한 교리) - 「Le amicizie spirituali」(영적 우정) - 「Il religioso al secolo」(세기의 수도자) - 「La forza di un libretto」(소책자의 힘) - 「Il Paradiso in terra」(지상의 낙원) - 「Amiamo Gesù」(예수님을 사랑합시다) - 「Amiamo S. Giuseppe」(요셉 성인을 사랑합시다) - 「Amiamo Gesù, Giuseppe, Maria」(예수님, 요셉, 마리아를 사랑합시다)(Tip. Poliglotta Vaticana, Roma).

11) 이 작품은 아마 J. E. BOWDEN, 곤자가(Gonzaga) 공주가 영어에서 옮긴, 「Manna Rancadelli」, Marietti, Torino 1912에 수록된 「Vita e lettere del padre Federico Guglielmo Faber」(페데리코 굴리에모 파베르 신부의 생애와 서간집)를 말하는 듯하다.

MONSABR. . . , 「Il Santo Rosario」(거룩한 묵주기도)(S. Lega Eucaristica, Milano).

BONA, 「De Sacrificio Missae」(미사의 희생 제물에 대하여)(Cav. Pietro Marietti, Torino).¹²⁾

YVES LE QUERDEC, 「Lettere di un Parroco di città」(도시 본당신부의 편지)(Ufficio della Rassegna Nazionale, Firenze).

- 「Lettere di un Parroco di campagna」(시골 본당신부의 편지)(상동).

- San Francesco di Sales, 「proposto a modello dei Sacerdoti」(사제들의 모델에 대한 제안)(Libreria del S. Cuore, Torino).

DENIFLE, 「Vita Soprannaturale」(초자연적인 삶)(Convento di S. Domenico, Chieri).

사제들이 읽기에 아주 적합한 성인들의 생애

「Vita di San Francesco」¹³⁾(성 프란치스코의 생애)(Pietro Marietti, Torino).

BARBERIS, 「S. Agostino」(성 아우구스티노)(상동).

P. EYMARD, 「Vita」¹⁴⁾(생애)(presso i Sacerdoti adoratori (성체흠숭 사제회): Vicolo S. Maria, 3, Torino)

12) 아마 알아챘겠지만, 이 작품은 조금 위에서 이미 인용되었다.

13) ATP, n. 15, 각주 10 참조.

14) ATP, n. 14, 각주 4 참조.

PEANO DALMAZZO, 「Can. Silvestro」(교구 참사위원 실베스테르)(Tip. Cooperativa, Cuneo).

GASTALDI, 「Ven. Cottolengo」(가경자 코톨렌고 *역주 - 1934년 시성됨)(Pietro Marietti, Torino, 3권).

DE MICHELI, 「Tito Rampone」(디도 람포네)(Scuola Tipografica Salesiana <살레시오 인쇄학교>, Milano).

CARD. CAPECELATRO, 「S. Alfonso」(성 알폰소)(Desclée, Roma).

- 「P. Ludovico da Casoria」(루도비코 다 카소리아 신부)(상동).

BOUGAUD, 「Santa Giovanna di Chantal」(성녀 요안나 드 샹탈)(P. Marietti, Torino, 2권). 18

CARD. CAPECELATRO, 「Storia di S. Pier Damini」(성 피에르 다미니의 전기)(Stabilimento Tip. De-Angelis e Figlio, Napoli).

- S. Filippo.

LEMOYNE, 「Ven. Giov. Bosco」(가경자 요한 보스코 *역주 - 1934년 시성됨)(Società Buona Stampa, Torino, 2권).

BOUGAUD, 「Storia di S. Vincenzo de Paoli」(성 빈첸시오 드 폴의 전기)(P. Marietti, Torino).

MONNIN, 「Beato Vianney: Curato d' Ars」(복자 비안네: 아르스의 본당신부 *역주 - 1925년 시성됨)(상동)

BOUGAUD, 「B. Margherita Alacoque」(복녀 마르가리타 알라코크 *역주 - 1920년 시성됨)(상동).

AB. ROBILANT, 「Ven. Cafasso」(복자 카파소)(Tip. Buona Stampa, Torino *역주 - 1947년 시성됨).

4. 성무일도

중요사항. - 사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입니다.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기도' 를 통하여 도움을 줍니다. 사제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성무일도를 바칩니다. 교회는 성무일도를 펼치는 사람에게 성직록을 반환할 의무를 지울 만큼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천사항. - 먼저 : 부분마다 정신을 꺾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 Ufficio divino dal lato della pietà」¹⁵⁾(신심의 측면에서 본 성무일도)를 읽고, 그 주제와 여러 가지 부분, 예컨대 수업에 관한 묵상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성서와 주석을 곁들인 시편을 영적독서로 읽으면 좋습니다.

바칠 때 : '매 시간' 특별한 지향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청해야 할 은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15) ATP, n. 15, 각주 7 참조.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자들, 죄인들, 교회, 교황, 연옥영혼들, 어린이들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바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즉 'digne, attente, devote' .¹⁶⁾

'Digne' (가치 있게): 다시 말해 기도라는 행동의 위대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기도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위엄 있게 기도를 바쳐야 하며, 적당한 대목에서 잠깐 쉬고, "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으로 암송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아래로 깔고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Attenti' (주의 깊게): 'vel ad verba' , 정확하게 발음해야 하고, 'vel ad sensus' ¹⁷⁾(의미를 새기며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님의 축일과 성인들 축일 등을 맞았을 때 그 의미를 새깁니다. 'vel ad veritas morales' (윤리적 진리에 입각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리 했던 묵상, 영적독서, 성체조배에서 주로 했던 사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무일도서를 읽을 때 19에는 분심이 드는 걱정거리를 가라앉힌 후 읽어야 하고, 정신, 의지, 마음을 집중하기 위하여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지향을 정하고, 좋은 생각을 떠올리며, 십자가를 응시

16) 가치 있게, 주의 깊게, 경건하게 .

17) Ad verba... ad sensus (lapsus, ad sensum <sensum의 실수>)...ad veritates morales: 말이나... 의미나... 윤리적 진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어리석음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Devote’ (경건하게): 외적으로 침착해져야 하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당이면 매우 좋고, 공부방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의실, 응접실, 주방, 기차 안 등은 권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지만,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시간의 선택. - 일반적으로 ‘저녁기도, 끝기도, 아침기도와 찬미경’을 저녁에 바치고, ‘시간전례’를 아침에 바치는 것이 낫습니다.¹⁸⁾ 일부 사제들은 성당에 더 오래 머물고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를 아침에 바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제들은 저녁에 미리 성당에 가서 고해소 옆에서 ‘저녁기도’와 ‘끝기도’와 ‘아침기도’와 ‘찬미경’까지 바치기를 바랍니다. 만일 정해진 시간을 준수한다면 고해성사를 볼 고백자들을 더 많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18) 여기서는 비오 12세의 전례개혁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시간전례를 따르고 있는데, 당시의 시간전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아침기도’ (Mattutino) (9개의 시편 + 9개의 독서가 3개의 ‘notturni’ <야간 시간대>로 나누어져 있음)와 ‘찬미경’ (Lodi) (5개의 시편 + 찬가); ‘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각기 3개의 시편); ‘저녁기도’ (Vespro) (5개의 시편 + 찬가)와 ‘끝기도’ (Compieta) (3개의 시편). 아침기도와 찬미경은 전야 저녁과 연결되어 미리 앞섰고, 소시간경(*역주. 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은 아침에 바쳤고, 저녁기도와 끝기도는 오후에 바쳤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성무일도를 저녁식사 전 또는 더 나쁘게는 저녁식사 후로 미루는 습관은 절대적으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목적에 따라, 성무일도를 열성을 실행하는 ‘수단’이며 ‘방법’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나아가 성무일도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제는 그에게 속하는 영혼들, 즉 영적 가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자신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자기 에너지 대부분을 쏟아야 합니다. 사제는 그들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제는 특히 기도할 때 그들을 앞에 두어야 하고,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들 앞에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의 강론을 듣는 청중 앞에 있어야 하고, 그의 교리를 듣는 어린이들 앞에 있어야 하며, 그의 고해소의 고백자들 앞에 있어야 하고, 유혹에 빠진 자들, 의심을 가진 자들, 항구하지 못한 이들, 건장한 자들, 병자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행할 강론, 경고, 훈화, 성무, 이 모든 것은 공부해서 준비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소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시키고자 한다면, 혀를 통해 강론하기보다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강론할 필요가 있습니다.¹⁹⁾

5. 미사성체

19) ALFONSO DE' LIGUORI(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 『Selva di materie predicabili ed istruttive, Opere ascetiche』(강론과 교육을 위한 자료집. 수덕 활동), vol. III, Marietti, Torino 1967, p. 115 참조.

탁월함. -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자체입니다. 다만 봉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미사는 사제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1. 모든 본당의 이름으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의 이름으로, 모든 부적합한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모든 부적합한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모든 부적합한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흠송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2. 죄인들, 특히 사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영혼들의 죄를 기워 갚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3. 그들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성부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4. 사제의 손에 온 세상을 위한 은총과 특히 기도해주어야 할 영혼들을 위한 은총을 획득할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사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교역자일 뿐 아니라 미사 중에 하느님 백성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의 필요한 사항과 의무를 자기 손에 가지고 있고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이의 이의를 다룹니다. 희생제사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2

준비와 감사. - 준비는 적어도 15분 정도 해야 합니다. 그중 10분은 기도, 성무일도, 묵상 등을 하는 데 쓸 수 있고 적어도 5분은 '직접적으로' 미사와 성체를 준비하는 데 써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의실 게시판이나 예식서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준비와 감사

를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주서(朱書)가 '지침' 이 됩니다. 기도서나 또는 다른 책에서 채택한 기도를 통하여 준비와 감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목표의 방법을 짧게 할 것을 특별히 권합니다.²⁰⁾

제의를 입고 벗는 일도 가능한 한 침묵 중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이유(예를 들어 고해성사, 또는 다른 시간에 할 수 없는 혼화, 강론 등)로 미사 전에 즉시 준비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다른 시간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하고, 감사는 시급한 용무가 끝난 다음, 아주 늦게 또는 저녁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 전에 성인들은 여흥, 쓸데없는 대화, 완전히 세속적이고 필요 없는 독서를 피합니다. 정오쯤 미사를 거행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네 가지 목표' 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미사성제뿐 아니라 성체조배, 묵상을 아주 열렬히 하기 위해서도 적용된다. '성체성사 병설 단체' (Aggregazione del SS.mo Sacramento)의 매뉴얼은 에이마르(Eymard) 신부가 작성했지만 유작으로 출판되었고, 거기에 이 방법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병설단체는 이른바 '희생제사의 네 가지 목표' 라고 지칭되는 방법을 성체를 흠송하는 동안 따르도록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이 방법은 한 시간을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처음 15분은 '흠송', 두 번째 15분은 '감사', 세 번째 15분은 '화해',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로 봉헌합니다." P. G. EYMARD (성), 「Aggregazione del SS.mo Sacramento」(성체성사의 병설단체), Artigianelli San Giuseppe, Roma 1909, punto 5, p. 13 참조. 이러한 방법이 바로 영성 안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의 작품을 참조하라. Cf A. F. DA SILVA, 「Il cammino degli esercizi spirituali...」(영신수련의 여정...), op. cit., pp. 11-21; cf G. ALBERIONE, 「La mia messa」(나의 미사), in 「Le preghiere della Famiglia Paolina」(바로로 가족 기도서), EP, Roma 1965, pp. 40-46.

준비와 감사 부분과 관련해 사제가, 특히 그리고 본당신부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느님 백성의 으뜸이라는 것과 백성의 필요와 의무를 자신이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사시간. - 예를 들어 여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느님 백성의 '대다수' 를 위해 항상 가장 편리한 시간을 택해야 합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아주 이른 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성사를 자주 보고 미사에 참여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를 드리는 방식. -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짧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분 안에 끝내지 않도록 합니다.

십중팔구 지나치게 긴 전례 거행은 '시간 낭비' 이고 제대 앞에 오래 머무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숙고하면서 미사의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리를 곱씹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로한 사제들과 젊은 사제들은 예외로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같은 성당의 여러 사제들끼리나 같은 지역 여러 사제들 간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Dies Irae' (*역주 '진노의 날' 이라는 뜻으로 진혼미사 곡인 레퀴엠에 속하는 죽은 이들을 위한 부속가/따름 노래)를 바칠지 아닐지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봐야 합니다.

전례의식을 거행할 때 쉽사리 실수에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사제)에게 가끔 제대 앞을 보면서 슬직하게 교정해 달라고 청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영신수련 기간 중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신수련을 하는 곳에서 미사를 드린다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목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청중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장소에서 분심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²¹⁾

6. 성체조배

중요 사항. - 사제를 위하여 중요할 뿐 아니라 신자들을 위해서는 더 중요합니다. 복된 이들을 행복하게 하시며, 진리의 샘과 모든 은총과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께서 사시는 감실을 확대하면서 쓸데없는 대화와 세속적인 방문에 몰두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것에 대해 죄에 떨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성체조배입니다.

21) 이러한 강력한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의회 이전 전례에서는 주례자 혼자 미사를 낮은 목소리로 라틴어로 '드렸고', 그러는 동안 신자들은 침묵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신심 기도를 암송했는데, 그중 묵주기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기억해야 한다. -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는 자주 드렸고, 때때로 매일 드렸는데, 복음 전 'Dies Irae' 라는 따름 노래(부속가)를 포함하였다.

예수께서는 흠숭을 받기 위하여 성체성사 안에 계십니다. 사제는 이 의무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도 완수해야 합니다. 이 같은 흠숭의 의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제는 나중에 성당 청소, 제의, 성구 청결도 소홀히 하는 사제들입니다. 천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흠숭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인간의 어리석은 눈뎀입니다!!! 이러한 태만을 생각하면 기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감사기도를 받기 위하여 감실에 계십니다. 사제는 가장 지극한 존엄으로 들어놓여진, 즉 'alter Christus' (제2의 그리스도)가 된 자신과 모든 이를 위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감실에 계십니다. 사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분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사제의 죄는 그에게 위탁된 영혼들에게 큰 악을 불러들입니다. 사제의 죄에 대하여 울어야 합니다. 사제의 죄는 신자들의 죄보다 한없이 더 악한 것입니다. 특히 신자들이 하느님의 교역자인 사제의 태만, 냉정함, 나쁜 표양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사제는 그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시는 상처를 기워 갚으며, 예수님 곁에 있는 친구의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감실에 계십니다. 사제는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형벌에 대하여 성체조배 외에는

다른 위로 받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때때로 적어도 우리가 판단할 때, 미사 자체보다 성체조배로부터 더 많은 결실을 보고 더 많은 열정을 발견한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장된 생각으로 보일지라도, 체험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제에게는 교회, 교황, 설 25 교가, 선교사, 죄인들, 연옥영혼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청해야 할 많은 은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한, 영혼을 알기 위한, 선을 베풀기 위한 참된 길을 사제에게 가르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빈민 가운데, 환상 가운데, 교역직무의 모순 한가운데 있는 사제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제가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 불타오르는 사제가 되는 곳이 바로 감실입니다.

실천 방식. - 가장 활동적인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시간은 점심 전 혹은 오후 3시께입니다.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 혹은 11시에 미사가 있다면 이때 미리 성체조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녁에 성체강복이 있을 때, 거기에 미리 참석해서 성체조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통상적인 시간이 더 큰 인상을 주고 집중하기 좋습니다. 지속 시간에 24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열성이 넘치는 사제들은 매일 한 시간의 성체조배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이런 사제들은 그들의 본당을

축복받은 오아시스로 만듭니다. 다른 사제들은 30분 동안 성체 조배를 하고, 다른 이들은 15분내지 10분간 합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짧게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열성이 성장하고 그와 더불어 지속시간도 늘어갑니다. 마지막 5분이나 3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조배에 바치도록 합니다. 성체조배를 단축시키지 말아야 하고, 열성이 무미건조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방법. - 모두가 알고 있는 네 가지 목표의 방법²²⁾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경자 에이마르(Eymard)²³⁾의 책을 따르면서, 읽고, 묵상하며, 거룩한 애정으로 고무되고, 좋은 결실을 보도록 합니다.

그는 성체성사의 참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위를 보시오).

파가니(Pagani)의 성체성사(위를 보시오).

26 성 알폰소의 「Le Visite al SS. Sacramento」(성체조배).

예를 들어 몬사브레(Monsabré), 「Il S. Rosario」(거룩한 묵주기도)(Tip. della Lega Eucaristica(성체성사연맹 인쇄소), Milano)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성사의 신비를 적용한 묵주기도를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다른 기도들이 있습니다.

22) ATP, n. 21, 각주 20 참조.

23) 저자 색인 참조.

사제는 자기 방식대로 사적인 성체 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장백의에 영대를 걸치고 알맞은 수의 초에 불을 켜 다음, 감실 문 위에 성반을 올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가나 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면 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종을 살짝 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운 일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와 일치하게 될 것이고 점차 성체흡수 시간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알려질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을 보좌신부가 그의 본당신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작한다면 합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사항. - 많은 사제들은 매일 성체조배를 같은 시간에 시행하면서, 비록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이끌 만한 표양을 보임으로써 많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본받도록 만듭니다. 일부 사제들은 사람들이 사제를 성당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해성사를 자주 보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7. 양심 성찰

중요 사항. - 어느 한 순간 했던 한 가지 양심성찰이 백 가지를 살립니다. 결점을 고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성찰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확실히 조만간... 정신에

있어서...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양심성찰은 바로미터
요 영혼의 참된 시계입니다.

방식. - 세 가지 성찰이 있습니다. 저녁 때와 고해성사 전에 하
는 '일반' 성찰, 저녁 때와 정오에 하는 지배적인 정욕에 대한
'특별' 성찰, 유혹과 그날의 위협한 만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
침에 하는 '예방'의 성찰.

미사에 대한 준비와 감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성찰을 하
는 것은 그날의 어려움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그리고 어
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위해
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제는 개인적인 결점에 관해 성찰해야 할 뿐 아
니라, 다음에 관하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기 죄의 '원인'에 관하여, 기회, 위협... 등에 관하여.
2. 항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찾고, 증오를 피하
며... 강론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애정을 담아 병자들을 돌보는
일 등에 전념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열성을 실행하
고 있는지.'
3. 죄가 되는 것만 피하면서, '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긍정
적으로' 덕성을 실천하는지.' 진실로 덕성 등에서 진보하고 있는
지...(*역주 '부정적인 덕'이란 '을 하지 않는 덕'을 말하고 '긍정적인 덕'은

'을 해야 하는 덕'을 말함)

성 이나시오를 포함하여 많은 성인들이 했듯이, 자기 잘못을
노트에 기록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일치
회' (Unione Apostolica)에서 제공했거나 또는 목적에 맞게 만든 기
록지에 메모합니다.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자기 결
점과 계속 투쟁하기 위해서, 진보 혹은 퇴보가 되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더욱 쉽
게 기억을 상기시키고 지성을 적용하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합
니다.

양심성찰은 참회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확고한 결
심을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양심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덕행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성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8. 사도 일치회²⁴⁾

비오 10세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Exhortatio ad Clerum」²⁵⁾(사제
들에게 보내는 권고)에서 사제들에게 특별히 이 조직에 가입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기도, 공부, 직무 활동을 통하여 사제
적 정신을 촉진시키는 것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양심성
찰'을 통상적인 수단으로 삼아, 매일 저녁 양심성찰을 하도록 하

고 정해진 서식에 작성해 두 달마다 한 번씩 교구 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름 대신에 숫자로 표기합니다. 내밀한 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지만,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수단' 이 됩니다. 일치회는 세상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됐고, 거의 모든 중요 교구에 서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서클은 총책임자(Direttore Generale)와 또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의장(Presidente)을 우두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9. 고해성사

중요 사항. - 고해성사는 일반 신자들보다 사제들에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

24) 1862년 오를랑(Orleans)의 명예 교구 참사회원인 몬시뇰 르베리에(Lebeurier)가 프랑스에서 설립한 사제 연맹으로서 연맹의 정식 명칭은 '예수 성심의 교구 사제의 사도 일치회' (Unione Apostolica dei sacerdoti diocesani del Sacro Cuore di Gesù)였다. 베네토(Veneto)의 일부 사제들이 프랑스 연맹에 가입하였고 1880년 11월 18일 몬테 베리코(Monte Berico)(비첸사)에 바싸노 디 베네토(Bassano di Veneto)의 L. 마리니(Marini) 신부의 활약을 통해 첫 이탈리아 단체가 세워졌다. 이 연맹은 교황청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아 풍요로워지고 축복을 받아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세속 사제들에게 상호 사랑과 형제적 우정을 보장하면서 수도생활의 이점을 활용할 가능성을 주는 것, 사제적 신심 실천에 충실함으로써 회원들의 성화를 도와주는 것, 모든 회원들이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을 통하여 예수 성심께 일치하고 열렬히 봉헌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생전에 그리고 사후에 형제들의 기도와 연맹의 회원들을 위해 거행하는 미사의 결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M. VENTURINI, 「Unione Apostolica」(사도 일치회), EC, XII, 1954, p. 794 참조.

25) PIO X, 「Haerent animo...」, op. cit., p. 576 참조.

하면서 쉽사리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주어야 할 말을 누구도 사제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고해신부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감히 진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죄 지은 사람처럼, 종종 형제들 발치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명령하거나 적어도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외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고해소 바깥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견해가 이기기를 바라고... 모두가 잘못을 저지르고, 무식한 자들이며, 나태한 자들... 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게으르고 소홀히 한 사람은 바로 나요, 내가 실수를 범했으며... 만일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대부분은 나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실천 사항. - 8일마다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보다 월요일에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만일 가까운 지방에 고해성사를 위해 간다면, 운동 삼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 그렇지만 나는 8일마다 고해성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줍니다. 정말 그렇게 온종일 바쁘니까? - 예,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 그렇다면, 차라리 약간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매주 고해성사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오. 만일 그대의 정신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 정신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고해신부의 선택. -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가장 '저명하신' 사제들이 성직자의 고해신부인 곳이 많습니다. 사실입니까?

고해신부는 '학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만 무식하지 않으면 되고 단순해야 합니다.

고해신부는 '거룩한' 사제여야 합니다. - 냉정한 사람들은 열기를 불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제들의 권고를 믿지 않습니다.

고해신부는 '열성이 많은 실천적인 사람'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소의 오른 쪽 창구와 왼쪽 창구를 통해 사죄경을 주는 것만 아는 고해신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부인하고, 경고하며, 고쳐주고, 질문하며, 뒤흔들 줄 모릅니다. 이런 사제들은 열성이 없습니다.

참회하는 사제들과 비교해서, 일반 신자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고해신부는 교회 차원에서는 큰 골칫덩이입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사제는 일반 신자들과 똑같은 고백자입니다('proportione facta' : *역주. 다른 이들과 균등한 입장). 고해신부는 자신의 존엄성, 책임, 의무를 느껴야 합니다. 내면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피하고 묵상에 충실하며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고, 깊이 감동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열성적이며, 진지하게 고백자-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백자-사제임을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고해신부가 될 수 없고, 적어도 정상적인 사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당신부와 사목자 사이에 고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호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 사제들의 고해처럼 이에 반하는 좋은 표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고해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까? 리켈미 추기경께서는 성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제들의 고해성사에 적합한 고해신부를 찾기 위해서 좀 불편한 여행을 감수해야 합니다. 종종 인근의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혹은 세 달마다 아주 진지한 고해성사를 하기 위하여 성인 고해신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성인 고해신부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줄 '참된 영적지도자'와 같습니다. 그와 서신왕래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 - 신자들에게 양심성찰, 통회 등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성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루어져야 합 29

니다.

통상적인 고해신부는 '참된 영적지도자' 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우리의 죄.' 2. '그 죄의 원인.' 3. '우리 삶의 환경.' 4. '우리의 경향.' 5. '맡은 책임과 의무.'

그러나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확고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해신부가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주고 고무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자주 본다는 것을 신자들이 아는 것도 좋은 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떤 기회를 통해 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할 수도 있고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

중요 사항. - 사제는 다른 신자들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 신심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수단입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돈독한 사람들과 그렇

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볼 수 있고 종종 의외라고 할 만큼 구별됩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제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실천 사항. - 보통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5월 성모성월과 10월 묵주성월, 토요일 성모 미사, 매일의 성모 신심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사제는 매일 묵주기도 3분의 1단 31을 바쳐야 한다는 원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사항도 실천해야 합니다.

1. 적어도 매주 한 번 성모 마리아에 관해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특권, 그분의 덕성에 관한 묵상을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적어도 토요일에는 영적독서를 바쳐야 합니다.

2. 토요일마다 강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록 청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성 알폰소께서 항상 하셨듯이 성모님에 관해 강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강론에서 성모님에 관해서 적어도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에서 이야기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묵주기도의 신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대화 중에, 병자들에게 성모님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3. 우리가 하는 말과 성무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도록, 사제 직

무를 성모님의 보호 아래 맡겨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축복이 효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즉시 입증됩니다.

4.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9일기도와 축일을 거행하고 설명하면서 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 신심의 표양을 보여줘야 합니다.

5. 특히 사제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신심실천은 그리뇽 드 몽포르 성인의 신심실천 방법입니다. 이 실천방법은 그리뇽의 ‘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논고’ (Trattato della vera divozione a Maria Vergine)(Roma, Libreria Ferrari(페라리 서점), Piazza Capranica, 102)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²⁶⁾ 또한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사제들’ (Sacerdoti di Maria Regina dei cuori)²⁷⁾이라는 신심연맹도 있습니다(위에 언급한 서점에 문의하십시오).

그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양식에 따라 성모 마리아께 단 한 번,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의 형태와 다른 형태들 가운데 나타나는 차이점은 영성체와 다른 신심 실천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똑같습니

32 다. 공덕을 쉽게 쌓게 하고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제들 사이에 보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성이 쉽게 활기를 얻

게 되고 그 효과가 증대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제들은 세세하게 보이는 어떠한 실천들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삼중기도’ (Angelus), 묵주기도, 폼페이 성모님께 대한 화살기도 등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실천행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더 나은 기도를 합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무심코 신심을 파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11. 성 요셉 신심

26) LUIGI GRIGNION DE MONTFORT (san), 「Trattato della vera devozione a Maria Vergine」(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논고), Ferrari, Roma 1908.

27)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사제들 연맹’ (Associazione dei Sacerdoti di Maria Regina dei cuori)은 1907년에 세워졌고 성 루이지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의 삶과 활동에 영감을 받았는데, 성인의 모토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연맹의 회규는 1907년 11월 15일자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통치’ (Regne de Jésus par Marie)라는 잡지에 부록으로 처음 발간되었는데, 이 잡지는 연맹의 고유 잡지가 되었고 나중에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사제들’ (La Revue des Prêtres de Marie Reine des Coeurs)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Regne de Jésus par Marie」, 몽포르탄 사제회 잡지, anno 1, n. 1, 1907년 11월 15일 참조. 연맹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완벽한 신심에 관한 매뉴얼 완성본인 「Le livre d'or」(황금서)도 준비하였다. 「Le livre d'or」, Manuel complet de la parfaite dévotion a la T.S. Vierge(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완벽한 신심에 관한 매뉴얼 완성본), a cura del Secéariat de Marie Médiatrice - Pères Montfortains, 3^e ediz., Typ. Brepols S.A., Turnhout (Belgio) 1942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가 1910년 4월 26일 이 연맹에 가입한 것이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 성당에 보관된 문서 76쪽 n. 217에 나온다. 「La Madre e Regina」(어머니요 여왕이신 분), mensile mariano(마리아 월간), anno(통권) 26, n. 1, 1972년 1월호 참조.

중요 사항. - 교황님께서서는 요셉 성인을 교회의 주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께도 의지해야 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이 신심에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 요셉은 아주 호감이 가는 성인이고,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사셨으며, 목수이셨고, 임종하는 자의 주보성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인께 대한 신심을 키워나갑시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무상 성 요셉과 아주 비슷합니다.

실천 사항. - 1. 적어도 성 요셉 성월인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성인의 덕을 본받으면서 축일을 지내야 합니다.

2. 특히 임종하는 자들을 돌볼 때 성인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3. 요셉 성인에 대하여 자주 강론하고, 성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소책자들을 보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키아바리노(Chiavarino) 신부의 '3월' (Il mese di Marzo)(Tip. Salesiana)²⁸⁾은 단순하면서도 대중적인 책입니다. 신자와 함께 3월 성월 전례를 열심히 지내야 합니다. 교리경시대회 상으로 성인의 상분을 주는 등 각종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28) L. CHIAVARINO, 「Il piccolo mese di marzo」(3월의 작은 달), Tip. Salesiana, Torino 1899.

4.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당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 요셉께 대한 존경심을 품고 9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12. 수호천사 신심

33

중요 사항. - 일반 신자들에게처럼, 우리 사제에게도 수호천사는 우리를 비추고, 보호하며, 지탱해주는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게다가 만일 강론하기 전에 수호천사에게 우리를 내맡긴다면, 어떤 죄인, 어떤 임종하는 자에게, 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면, 즉시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 수호천사가 우리를 비추고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을 활용해야 하고, 또 청중, 원수들, 임종하는 자들의 수호천사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만일 서로 증오하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Angelo di Dio)를 잘 바치고 10월에 수호천사 축일 미사를 드리고 9일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공동의 천사, 우리가 향하는 가족과 개인들의 천사들에게 인사합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심이 들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신심을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이 신심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유용하며 잘 받아들여집니다. 교리시간에, 강론 때, 고해성사 때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연옥영혼

연옥에 관한 교리는 우리 종교의 가장 위안이 되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연옥교리는 정화교회와 투쟁교회를 감미롭게 결속시켜 줍니다. 사제는 하느님 백성에게 죽은 불쌍한 영혼들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사제가 자기 직무를 통하여 거의 매순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면, 자기 자신도 언젠가 대리 기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애덕의 정신으로 대리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제들을 위하여 바치는 대리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는 교구마다 설립된 수도회에 가입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사제가 죽은 후에 신자들로부터 빨리 잊히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거룩한 연맹처럼, 그리고 특히 형제가 죽자마자 미사를 거행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굳은 협약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14. 성체흡송 사제회의 병설단체²⁹⁾

34

중요 사항. - 우리 세기는 성체성사의 시대입니다. 사제는 앞장 서면서 신자들에게 길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제 이 병설단체는 사제들 안에 그와 같은 신심을 고무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급시킬 수단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수도 단체입니다. 거룩한 성체성사 수도회의 제3회과 그렇습니다.³⁰⁾

의무 사항. - 유일한 '본질적인' 의무는 '성체 앞에서 지속적으로 주간 흡송을 한 시간씩 하는 것입니다.'³¹⁾ 성당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중단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가지 목표의 방법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미사 준비를 하고 30

29) 성 피에르 줄리아노 에이마르(Pier Giuliano Eymard)는 1859년에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의 병설단체' (Aggregazione del SS.mo Sacramento)를 설립하였는데, 이 연맹에서 사제들은 평신도 정신과 활동에 대한 '보급자' (multiplicatori) 같은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했지만, 일반적인 조직체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의 사후에 그의 영적 딸인 마리 드 라 루셀리에르(Marie de la Rousselière) (1840-1924)의 활동에 힘입어 '성체흡송 사제 연맹 또는 병설단체' (Associazione o Aggregazione dei Sacerdoti adoratori)가 조직되었지만, 그 다음에 파리의 성체성사 신부회(Padri Sacramentini)의 지도체계로 넘어갔다. 연맹은 1879년에 시작되었고 로마에 있는 성 클라우디오 성당에 본부를 두고 레오 13세에 의

분 동안 미사에 대해 감사를 드리거나, 미사성체를 거행하면서 성체성사적인 묵상처럼 활용하거나, 또는 미사 참례를 하면서 묵주기도를 암송하고 성체성사에 대한 생각에 따라 신비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 사항. - 1. 매년 죽은 형제들을 위해 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합니다.

2. 정기간행물 '성체흡송 사제회의 연보' (Annali dei Sacerdoti adoratori)³²를 구독해야 합니다(Vicolo S. Maria n. 3, Torino, 폴레티(Poletti) C. 신부에게 문의할 것). 하느님 백성 사이에 흡송하는 방법을 전하고, 성체성사 활동을 보급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실행해야 함

해 1887년에 대협회(arcisodalità)로 승격되었다. G. VASSALLI, 「Sacerdoti del SS.mo Sacramento」(성체 사제회)(Sacramentini), DIP, VIII, 1988, pp. 32-38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가 1907년에 이 연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AD 204에서 확인할 수 있고 A. F. DA SILVA가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증된다. 'Gli esercizi spirituali secondo don Alberione. Dipendenza e originalità'(알베리오네 신부에 의한 영신수련. 의존성과 독창성), in 「Conoscere don Alberione」(알베리오네 신부를 알기), 1 (1982), p. 10. "필자는 이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바이다. 사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연맹 기록문서 1907년 11월 3일 n. 8694, vol. IV, p. 16에 따라 성체흡송 사제회에 가입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30) 성 피에르 줄리아노 에이마르(Pier Giuliano Eymard)는 초기에 수도사제들뿐 아니라 세속사제들을 포함하여 유일한 성체수도회(Società del SS.mo Sacramento)를 만들려고 기획하였다. 그러나 교회법의 실천적인 관례는 세속사제들이 수도사제와 함께 동일한 수도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성체성사 병설회'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병설단체는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하였다. '성체 형제애'(fraternità eucaristica)는 공통적으로 소위 '제3회'라고 이르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 속하는 가입자들은 매일 한 시간의 흡송과 주간 성체성사를 의무로 한다. 이어서 '단순가맹'(semplice aggregazione), '명에 지킴이'(guardia d'onore) 등이 있다. F. GROSSI, 「I

니다.

3. 매월 또는 3개월마다 또는 매년 '흡송 노트'(libellum adorationis)에 흡송 시간을 몇 번 가졌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꺾었는지를 기록하여 보내야 합니다. 그 양식은 '연보'(Annali) 표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간 성시간을 늘 충실한 태도로 임하도록 하는 자극이 됩니다. 가입자들에게는 많은 대사와 영적 특음이 주어집니다. 그중 이른바 십자군 전대사를 적용하여 묵주를 축복하는 특음이 있습니다.

병설단체에는 사제 14만명이 가입하였고, 그중 2만 명 이상이 이탈리아인 사제들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전술한 폴레티 신부에게 문의하십시오). 최근 많은 교구 성직자들 사이에, 그리고 이를 반영해 신자들 사이에 성체성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15. 사제 보속 연합회³³⁾

Sacramentini」(성체회), in M. ESCOBAR (a cura di), 「Ordini e congregazioni religiose」(성직회와 수도회), vol. II, Società Ed. Internazionale, Torino 1953 참조.

31) ATP, n. 21, 각주 20 참조.

32) '성체흡송 사제회의 연보'(Annali dei Sacerdoti Adoratori)의 발간은 1895년에 시작되었고, 가입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성화를 위해서든 사람들 사이에서 전개해야 할 사도직을 위해서든 성체성사의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탈리아에서 '연보'(Annali)는 76주년을 맞이하여 1971년 '새로운 계약'(Nuova Alleanza)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쇄신된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F. GROSSI, 「I Sacramentini」(성체회), op. cit., p. 1384 참조. G. VASSALLI, 「Sacerdoti...」, op. cit., p. 37 참조.

사제 보속 연합회는 사제들로만 구성된 연맹으로서, 세속사제들, 수도사제들, 수도자들이 범한 죄를 보속하는 일을 목표로 삼습니다.

중요 사항. - 사제들의 죄는 당신 백성 위로 하느님의 징벌을 끌어들이니다. 그 이유는 사제의 죄는 공인의 죄이며 의무가 크고 많은 교육을 받았기에 사제의 죄는 중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슬픈 반향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directe vel indirecte) 일으키는 죄입니다. 실로 무미건조하거나 또는 죄 많은 삶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외적으로 열성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부에게 위협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제는 가까운 어른이 없고, 종종 고독 속에 살며, 가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예민한 사안을 다루거나 또는 다루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

33) '사제 보속 연합회' (Association Sacerdotale de Reparation)은 모 마리-에두아르(Mott Marie-Eduard) C.M. 신부가 프랑스에서 시작했고 수많은 교구로 확산되었다. 비오 10세는 이 연맹을 승인하였고(1908년 1월 22일 소칙서를 통하여) 성 빈첸시오 드 폴 선교회(Missionari di S. Vincenzo de Paoli) 또는 선교 사제회(Preti della Missione)의 총장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 연맹은 원칙적으로 특히 사제들의 죄의 보속과 회개 및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두 가지 양상을 통하여 실현한다. 즉 단순한 보속 또는 보속자의 회생이다. 연맹은 본질적으로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조회원' (Auxiliares)들이 봉헌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는 보속을 위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M. -E. MOTT (C.M.), 「La Reparation Sacerdotale」(사제 보속), Typ. Saint-Augustin, Lille 1902 e IDEM(상동), 「Association Sacerdotale de Réparation」(사제 보속 연합회), Typ. Firmin - Didot, Paris 1927 참조.

황에 처해 있게 마련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리노의 XX Settembre가에 있는 선교 성당의 체르비아(Cervia)³⁴⁾ 신부님에게 문의하십시오.

34) 체르비아 코르넬리오(Cervia Cornelio) 신부(1867-1930)는 1889년에 성 빈첸시오 드 폴 선교 사제회(Padri Missionari di S. Vincenzo de Paoli) / 선교 사제회(Padri della Missione)에 입회하였다. 토리노에서 지도신부, 원장, 교의신학 교수로서 사제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1905-1928). 수도회의 연보에는 이 신부의 특별한 활동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수난에서 영성을 길어내는 나자레나 수녀회(Suore Nazarene)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아마 이탈리아에서, 특히 토리노에서 연맹의 촉진자(프로모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Annali della Congregazione della Missione」(선교회 연보), Collegio Alberoni, Piacenza 1930, vol. 37, pp. 439-448 참조. 이러한 전기 자료는 로마에 있는 선교회의 총본부의 알베르토 피라스 신부가 제공해준 문서보관소의 자료이다.

신심의 열매 - 사제의 덕성

1. 순명

중요 사항. - 사제는 일반 신자들처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36 해야 합니다. 1. 순명은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덕이기 때문에 우리
 덕 중 가장 고귀한 덕입니다. 즉 의지의 덕입니다. 2. 순명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3. 순명은 완덕의 지름길이기
 37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로서 순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제는 사제 서품식 때 주교님 앞에서 순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영
 38 혼의 성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장상이 권고하는 수단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불복종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제로서 그는 이른바 성
 39 직자단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각 단체에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여
 태껏 보통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순명할 줄 모르고서는 삶을 이
 40 끌어내가지 못합니다.

실천 사항. - 교황께 대한 순명. 교황님의 지시가 우리의 이익과
 대립될 때도 (예컨대 본당신부들의 인사이동에 관한 교령), 교황님의
 명령이 우리 의견과 충돌할 때도 (첫영성체에 관한 교령, 잦은 영성체에
 관한 교령, 기틀릭의 사회활동에 관한 교령, 특히 어떤 물질적인 책임으로부터
 성직자를 제외시킬 때), 예를 들어 이미 주어진 경고나 혹은 이미 우리
 41 리에 의해 표명된 아이디어를 수정해야 할 상황을 맞아서 우리의 체면이
 손상을 입게 될 때도 교황님께 순명해야 합니다.

순명하기 위해서는 명령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교황님의
 '정신' 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제가 교황청 교령이나 문헌의
 '텍스트' 를 읽고 있는 '인쇄물' 이나 '잡지' 를 구독하는 것은 아주
 42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쇄물이나 잡지가 교령이나 텍스트를
 43 설명하고 있다면, 교황님의 '의중' 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야
 44 합니다(예컨대,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오세르바토레
 로마노(Osservatore Romano), 모니토레 에클레시아스티코(Monitore
 ecclesiastico: *역주- 카시미로 젤나리(Casimiro Gennari) 추기경 (1839-1914)이 창
 45 간한 월간지) 등).

교황님의 지침들을 공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표현된 명령이
 46 불분명할 때에도 거기에 순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황님의 뜻과
 47 바람을 무조건 간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책이나 신문 읽기를 중단
 48 해야 하고, 교황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하찮은 신

문 기사처럼 가볍게 대충 읽지 말아야 하고, 교황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명시되었을 때는 매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Roma locuta est, lis finita est.”¹⁾(*역주- “로마가 말하면, 그것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황님께 항상 가장 완벽하게 순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가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ega Sacerdotale pro Pontifice et Ecclesia²⁾(교황님과 교회를 위한 사제 협회).

- 교황님과 그분의 지침에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 설립된 사제 들로만 구성된 국제 협회입니다.

‘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매년 성 베드로 기금에 화폐 20리라 또는 적어도

1) 성 아우구스티노의 표현을 주목하라. 정확한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 hac causa (Pelagianorum) duo concilia ad Sedem Apostolicam missa sunt: inde etiam rescripta venerunt. Causa finita est” (Enchiridion Patristicum, n. 1507).
 2) ‘교황님과 교회를 위한 사제 협회’ (Lega internazionale Pro Pontifice et Ecclesia)는 비오 13세 재임기간 중인 1913년에 발족하였는데,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교황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고 혼자라는 느낌을 들게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예민하게 반응한 가톨릭 운동이 이 연맹의 시초가 되었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여러 분원이 생겼다. 이탈리아에서는 1915년에 설립되었고 피에몬테 지방에 본부를 두었다. 책임자는 규율 수도자(Canonico) 키아우다노(Chiaudano)였는데, 여러 사제들이 곁에서 도왔고 그 사제들 가운데 1923년에 창간되어 1963년까지 발간되었던 정기간행물 교황(II Papa)지를 주관하던 M. 벤투리니(Venturini) 신부가 있었다. 협회는 회원 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다. 1929년에 파시스트 정부와 맺은 조약에 의하여 강력한 타격을 받았다. (그 단체의 협력자인 P. F. 손친 <Soncin> 신부의 정보에 의함). De Regimine Foederis Internationalis ‘Pro Pontifice et Ecclesia’, ex Schola Tip. Salesiana, Taurini 1921 참조.

5리라를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2. 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암송해야 합니다. “Tu es Petrus et super hanc petram aedificabo Ecclesiam meam.”³⁾

V) Constituit eum dominum domus suae,

R) Et principem omnis possessionis suae.

Oremus: Deus, omnium fidelium...

3. 매년 교황 성하를 위하여 적어도 한 대의 미사를 봉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만일 본당 사목을 담당하고 있다면 신자에게 성 베드로 기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4. 고해성사 때 고백자들에게 성체를 자주 모시거나 매일 모시고, 매주 한 번은 교황님을 위한 지향으로 모시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5. 매년 한 번 교황님에 관한 강론 혹은 최근 교황청 문헌에 관한 강론을 사제가 직접 하거나 또는 다른 사제에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자유주의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문, 잡지, 도서를 읽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금지시켜야 합니다.

7. 신문과 관련된 교황청 지침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철학과

3) 마태 16, 18: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 역주- 이어지는 라틴어의 뜻은 대강 다음과 같다.

선창) 당신의 집을 주님께 지어드리세.

응답) 모든 것이 당신 소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신자들이...)

신학에 대한 연구, 로마에 관한 문제(*역주- 로마주교인 교황에 관한 문제), 국가와 교회 간의 일치, 학교 내 종교수업, 수도회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교황청 지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항에 대한 지침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총책임자는 토리노의 키아우다노 신부입니다.

주교에 대한 순명. -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로 이동해야 하느냐 또는 어떤 직책을 맡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한 순명입니다. 줄을 끌어서는 일, 우리 구미에 맞는 직무나 직책을 갖기 위해 책략을 사용하는 일은 커다란 악행입니다. 하느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quid valeant humeri, quid ferre recusent”⁴⁾(*역주-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사리 낙담하고 맙니다. 이러한 것은 신학교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젊은 사제들,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보좌신부들, 서로 경쟁하거나 주임신부가 되기 위해 애쓰는 보좌신부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에서 고집을 피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 동시키는 일에 관하여 장상을 비판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결정의 이유를 알고 싶을 것입

4) “Quid valeant humeri...”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고 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역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지 못한다.”

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를 장상들이 항상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부당하고 이상하며 논리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때도 순명해야 합니다! 순명해야 한다고 해서 장상에게 올바른 지향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조차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장상이 계속 그것을 고수한다면, 사제는 머리를 숙여야 하고 하느님께 순명하듯이 순명해야 합니다. 주교의 명령에 대한 순명뿐 아니라 나아가 본당 통치에 대한 지침, 부설 학원과 유치원 등에 대한 지침, 보좌신부에 대한 지침에도 순명해야 합니다. 주교는 성직록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공동 이익금 지출을 어떻게 동의해야 할지 등 물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시해주어야 하고, 행렬, 보속의식, 특별 상황에 대한 전례의식, 단식 등 영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해주어야 하며, 교구 순례, 모임, 가톨릭 액션 등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치해주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항상 주교에게 자녀다운 순명 혹은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과 동조해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명은 주교에게 충고를 구할 정도로 애정 어린 순명이어야 하고, 우리 직무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고통과 위안을 주교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명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교를 장상으로 아니라 아버지로 생

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결

중요 사항. - 정결은 평신도들과 수도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 40 그보다도 더 사제는 차부제품을 수여받을 때 약속한 대로⁵⁾ 신분상 순결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제는 사제 의무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한 힘과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제는 항상 영혼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만간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어떠한 결점도 이 정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 사항. - ‘몇 가지 일반 사항.’ 1.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강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뒤이은 전례개혁 이전에는 부제수품 전에 ‘차부제직’ 이 있었는데 ‘독신’ 서약과 결속되어 있는 신분이었다.

6) 1873년 E. 갈레티(Galletti) 몬시뇰에 의해서 추진된 알바 교구 시노드에서는 35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ynodale statutum respiciens cohabitationem mulierum cum Clericis, firmiori usque pleniorique robore stet: imo si deinceps perstrictum habeatur: Familiaris continua mulierum cum Clericis habitatio, excepta matre, numquam permittitur nisi re in singulis casibus a nobis diligenter expensa; illarum quae primo laterali consanguinitatis gradu ipsis sint devinctae facile cohabitationem concedimus; illarum quae secundo consanguinitatis gradu ipsis junguntur, difficilium: non tamen ita denegabimus, si integre famae sint, nec non saltem vigesimum quintum aetatis annum attingant; illarum quae primo affinitatis gradu ipsis evinciuntur, perraro. Famularum opera in ministerio domus ipsis uti concedimus, quae probatissimis sint moribus, nec triginta quinque annis iuniores sint, et

하게 이끌리는 것을 느꼈을 때, 또는 이러한 일이 알려졌을 때, 보좌신부나 지도신부라면, 즉시 대체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본당신부는 사람들 앞에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고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잘못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뜯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거나, 악을 선으로 보속하려 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스캔들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고, 사제에게는 새로운 추락이 될 것입니다. 가끔 뜯소문만 남기고 떠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남는다면) 가장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선들 어떻게 강론하고 고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장소, 사람, 환경, 삶의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직무는 끝나고, 그의 평화도 끝이 나며, 아마 그의 영혼도 끝장나 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수도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보좌신부 생활을 버겁게 시작하더라도 가능한 한 아직 젊은 신부들은 지도신부 자리를 맡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3. 사제관 봉사자(식복사)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관면을 요청하

non aliter absque expressa Episcopi venia. Exoipimus a domestico Clericorum servitio mulieres quae, quacumque causa, a proprio vivente viro separatam vitam degunt, nisi peculiares circumstantiae aliter Nobis suadeant.” (“시노드 회규는 사제와 함께 여인이 사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단언하는 바이다. 물론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다음에 나열하는 바와 같다. 사제와 함께 사는 여인 사이에 지속적인 친근함은, 어머니인

지 말아야 하고 시노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⁶⁾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통 가장 심각한 위험들 중 하나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봉사하는 사람과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식사 시간과 그 이후 바로 잇따라 오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 특별 사항.” 고해성사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1 위험요소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제6계명에 관하여 매우 음란하고 저속한 말과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요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제는 ‘들어야 할 의무’ 사항에 관하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들어야 할 의무인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에는 걸러 넘어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만일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그중 그와 일차적 혈족관계에 있는 신분은 함께 거주하면서 쉽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허용하는 바이다. 그와 이차적 혈족관계와 결부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와 같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평판이 나무랄 데 없이 완전하다면, 2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와 일차적인 인척관계에 있는 신분은 아주 드물게 허용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허가하기 위해서, 35세가 넘지 않은 젊은 여성은 안 되고, 주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사제관에서 여성의 봉사는, 어떤 경우든지, 떨어져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특별히 다른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M. 페아(Fea) 문시놀에 의해 1841년에 열렸던 이전의 시노드에서도 356조에서 이 주제에 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Appendix Novissima ad Synodum Dioecesanam Albensem」(알바 교구 시노드 최신 부록), edita in solemnibus

계 하는 위험이나 죄를 짓게 만드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무결⁷⁾을 지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알 필요가 없고’, 고백자에게 주제를 바꾸도록 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일일 수 있고 이미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고해소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됩니다.

해야 할 질문에 관해서 사제는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a) ‘걸러 넘어서게 하는 위험이나 죄를 짓게 만드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완전무결을 지키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는 편이 낫습니다.’ b) 한편으로 고백자 중에는 이 문제에 관하여 정말 물어보아야 할 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거나, 소년들이거나, 젊은 여성인 경우입니다. 반면 아주 순수하거나 정직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비록 아주 소수에 불과할 지라도, ‘사제를 유혹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고해신부가 다른 고백자들의 고백을 더 길게 듣는 것을 질투하거나… 자랑받고 싶거나… 그들 자신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

synodali conventu(시노드 준비 모임 위임), die V septembris 1873(1873년 9월 5일), Typ. Dioecessana Sansoldi, Albae Pompeiae 1873, pp. 69-70 참조. 「Synodus Dioecessana Albensis」(알바 교구 시노드), habita anno 1841, VI, V et IV idus septembris, Typ. Chiantore et Sansoldi, Albae Pomeiae 1841, pp. 117-118 참조.

7) 죄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완전무결’.

다. 반면에 결혼할 사람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하고 싶어하거나... 무서울 정도로 혈뜬던 신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경우는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서 실제로 사제에게 큰 압초 같은 존재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42 고해성사는 유능한 사제들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아주 내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목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주 진지하고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아주 달콤한 말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사제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쏟아 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 있고, 정말이지 큰 십자가가 되는 자식을 둔 어머니들이 있으며, 위험에 빠진 상태의 젊은이들과 악에서 벗어나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사제의 아주 예민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사제는 그러한 감정에 지배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상상도 못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해신부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a) 감정에 따라 이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이성으로 인도되도록 말해야 합니다. b) 고해성사를 너무 길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데 적합한 서적들, 하늘의 뜻, 다른 수단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c) 신심 깊은 영혼들에게는 적합한 영적독서를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d)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수단’: 사제가 온갖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애덕과 확고한 태도로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Sacerdos alter Christus’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시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레나, 자케오 등을 받아들여셨듯이 온화함, 연민을 가지고 말을 건네야 합니다.

실천적인 삶. - 가장 큰 위험은 사제관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데 있다고 많은 신부님들은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봉사를 하는 사람을 선별할 때 위에서 언급한 경고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관면을 청하는 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위험에 빠지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따라서 주님의 넘치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43

2. 봉사자와 친근하게 지내는 것을 일절 피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부엌이나 그녀가 일하는 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대한 이유가 아니라면 사제가 일하는 방에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제가 아플 때나 봉사자

가 아플 때에도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3. 혹시 누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퍼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랑으로 그녀를 대하되 하녀로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주 신뢰하기보다 엄하게 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긴 겨울 밤, 식사 후의 시간, 휴식 시간 등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녀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성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위험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온순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수녀들과 지나친 친분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그 수녀들이 병원, 객실, 유치원, 경당(오라토리오) 등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늘 짧고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마을이나 지역의 선생과 같은 이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누구와도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 아닙니다.

3. 성가연습을 한다면 성당처럼 공공장소에서 해야 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편애하는

것, 또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가나 악기 등을 가르치는 일은 항상 아주 위험한 일이고 적어도 스캔들이 됩니다.

병자들과 함께 있을 때. - 병자들의 침상에서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생기는 문제와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생기는 문제입니다. 방문은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간호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자주 와서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하더라도 방문시간은 짧아야 합니다. 뜬 소문을 만들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진지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손목, 이마, 등을 쉽게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병자가 고해성사를 할 때 특히 이성이라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둘이 머물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 고해성사를 주면서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들과 함께 있을 때. - 동성인 사람들과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도 경시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옷을 의젓하게 입었기 때문에, 또는 아주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다듬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들을 이유 없이 자기 방에 쉽게 들어오게 하고 온갖 친밀함을 표현하며, 그들과 단 둘이 머무는 것과 고해성사를 할 때나 교리교육을 할 때 달콤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마지막 강조사항. - 모두에게 공통된 위험요소들을 사제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즉,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유희를 즐기고, 위험한 독서를 하는 것 등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말할 기회도 피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유해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촌스러운 데다 세심하기까지 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3. 겸손

중요 사항. - 겸손은 진리, 명령, 정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덕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제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기를 바란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활동은 모두 하느님이 결실을 맺어주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소유물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 사항. - ‘젊은 성직자가 가져야 할 겸손.’ 최근 몇 년간 매우 고통스러운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능한 사제들이 지적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아집에 사로잡혀 순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준을 받지 못한 서적들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학식을 갖추고 약탈하는 늑대가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모르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제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뿐 아니라 젊은 사제들은 쉽게 자신들이 연로한 사제들보다 영혼을 지도하고 본당을 이끄는 방법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갓 나온 사제는 사제 직무에 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맨 끝자리에 앉아, 학생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끔 젊은 사제가 무식하다고 볼 수 있는 연로한 본당신부보다 어떠한 분야에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어떤 좋은 일들이라도 장상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연배가 높은 성직자가 가져야 할 겸손.’ - 높은 직책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에서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에게 머리를 숙이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기 아

이디어가 ‘숙고되고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 하다보면 그것이 ‘항상, 완전하고, 오직’ 참된 것이라고 믿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나 40대에 이르러 자신이 아직도 거의 ‘오류가 없다고’ 믿지 않는 사제를 찾아보기란 오히려 드문 일입니다. 교회와 영혼 사목에 관해서도 우연한 진보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아직 숙련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을 쌓으면 큰 힘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소중한 결실을 얻어내고, 미리 완고하게 억제할 것이 아니라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46 ‘겸손한 직무 수행.’ - 교만의 딸인 시기심을 피해야 합니다.

1. 시기심은 강론, 보고서, 강연하는 방식, 고해성사를 할 때, 직무상 동료들이 아니라 더 많은 고백자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천 가지 계락을 내놓습니다.

2. 시기심은 한 본당 안에서 여러 사제들로 하여금 형제들이 이룩한 업적을 두고 전쟁을 벌이도록 합니다. 또한 그 업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러한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3. 인접한 본당에 대한 시기심은 성직자들을 비판하게 하고,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함부로 나쁘게 말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이 마음 안에 자라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늘 참된 열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cor unum et anima una’⁸⁾(한마음 한정신)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탱해주어야 합니다. 완전한 업적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음 한정신을 가지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나중에 거기에서 시기심까지 보태진다면, 그의 과오는 그 수와 악의 강도에 있어서 갑절이 됩니다.

4. 사랑

사제는 사랑에 관해서는 신자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그 이상을 말해야 합니다.

1. 사제는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의 참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달콤한 사랑으로는 정말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학식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돈이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얻을 수 없고, 습관적인 노력을 통해서나 ‘정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

8) 사도 4, 32: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습니다. 거둬 말하지만, 오로지 상냥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변치 않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친절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47 다. 참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밀접하게 결속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힘' 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강론을 할 때 활용해야 합니다. 강론대에서는 “어떤 일의 증인입니다.” 등과 같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면, “나는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등과 같은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제는 자신의 생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고해성사 때, 사제관에서,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년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독설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2. 사제가 이러한 부드러움을 언제 어디에서든 유지하고 싶다면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자 노력하셨습니다(그리고 정말 ‘Sacerdos alter Christus’ 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해성사 때에는 자캐오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였고, 강론대에서는 산상설교를 하시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병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말씀

해보십시오. 이 경우에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하셨고,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그분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 해이의 표시

신학공부를 마치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신부들은 확실히 각자 나름의 소신에 따라 열정으로 가득 차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위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나타나고, 성무일도와 미사성제를 드리는 동안 가끔 사랑에 벅찬 감성이 묻어나는 신심 안에서 드러나며, 영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활기찬 열망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자주 이러한 열정이 줄어들고, 사라지며, 안이함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것에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까! 젊은 사제들은 이러한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가 나타나면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성 베드로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48

1. ‘어쩔 수 없다는, 악이 주는 체념’, 은밀한 교만, 일종의 대답성과 자기 힘에 대한 신뢰, 좋았다고 여겨지는 과거의 삶, 불행하게 쓰러진 다른 이들에 대한 경멸, 더 이상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은밀하지만 깊은 확신... 이러한 것들은 온통 열정에 가득 차서 다음과 같이 외쳤던 베드로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Etiamsi oportuerit me mori tecum non te negabo...”⁹⁾ et si omnes scandalizati fuerint in te, sed non ergo.”¹⁰⁾

2. ‘신심 실천의 포기’와 특히 (처음부터) 오직 공덕을 쌓는 일처럼 여겨지는 신심 실천, 즉 성체조배, 묵주기도, 양심성찰, 영적 독서 묵상, 미사의 준비와 감사 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 실천을 즉시 완전히 손에서 놓지는 않지만, 쉽게 그리고 늘 중대하지 않은 이유로 관면을 주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신심 실천을 하지만, 조금밖에 몰두하지 않고 지루해하고 하품을 하면서 건성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하루 일과 중 가장 무거운 일이 되어버리고, 가끔 간소화해버리며, 단지 게으름 때문에 이따금씩 빠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영혼에게 꺼져가는 빛의 광채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학생들에게나 적합한 쓸모없는 일로 간주하면서 습관적으로 단념해버립니다. 나아가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점차 뜸해져 양심이 크게 가책받을 때만 하게 됩니다.

이 같은 행로는 성무일도를 시작하기 전 주의력을 모으는 힘

9) 마태 26, 35: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10) 마르 14, 29: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도 약화시키고 기도를 바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는 노력도 하지 않게 합니다. 성급하게 해치우고, 혼동하거나 작은 부분들을 빠뜨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큰 이유를 대면서 통째로 생각합니다. 미사성제는 최대한 빠르고 급하게 거행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지만, 그 안에 숨은 아주 고상한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복음 말씀을 상기해볼 수 있습니다. “Petrus autem dormiebat!”¹¹⁾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스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Vigilate et orate ut non intretis in tentationem.”¹²⁾

3. ‘태만의 기회에 빠지도록 놓아둠.’ 태만은 나쁜 습관의 아버지인데 사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만의 기회에 빠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 다음 직무상 참되고 ‘분명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을 방문합니다. 게다가 이성들과 친근하게 지냅니다. 끝내 추락하게 되고 가끔씩 놀란 듯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다시 넘어지게 되고 혹시 약간의 신성모독을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영신수련을 하는 동안에는 다시 뉘우치는 마음이 들지만, 하느님께서 더 이상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종래에 쓰러지고 말 것을, 다시 말해 죽음의 침상에서만 통회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 이러한 이야기는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성 베드로께서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상기해볼 수 있

11) 참조 마태 26, 40: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12) 마태 26,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습니다. “Sequebatur eum a longe”¹³⁾,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4. 헤이함의 네 번째 표지는, 어쩌면 첫 번째 표지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목자가 ‘악을 퍼뜨리는 것 앞에서 태평하고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신심이 식어버리는 것 앞에서, 영혼의 파멸 앞에서! 이렇게 태평하고 무심한 모습은 모든 의무를 다한 후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태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파멸에 대해 무관심한 사제, 성인들에 대해 무관심한 사제, 모든 이들의 몰락에 대해 무관심한 사제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수천 가지 기술을 통해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며, 정말 자기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훌륭히 수행하였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제직에 필요한 자질이 없다거나 이미 헤이해졌

50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는 그보다 더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제 영혼은 제 소관이니 기도의 맛을 잃을 수야 있겠는가? 세상에 죄는 항상 있는 것이니 너무 놀랄 것도 아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 흘러가게 놓아두어야 한다.”

13) 마태 26, 58: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역주- 성서 텍스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걸 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혹시 밤낮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만을 생각하고 늘 열성의 새로운 수단을 창안해내는 가장 활동적인 동료들을 비웃고 비난할 시점에까지 이른 것은 아납니까? 의심할 여지없이 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이 확실합니다.

젊은 사제들은 양심성찰을 하면서, 또는 월 피정이나 영신수련 중에 마음을 모으면, 자신의 일상 삶 안에 이러한 표지들 중 어떤 짝이 자라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즉시 일 52 어서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고해신부에게 열어야 합니다. 신학 생이었을 때나 사제 직무를 막 시작했을 때 자기 마음을 열곤 하였던 고해신부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사흘간 피정을 하는 것이 좋고, 영신수련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시작했던 모든 실천 사항을 다시 이어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진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한탄할 만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하느님의 선하심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자비를 매일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믿지 않도록, 신심실천을 놓아버리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죄의 기회에 던져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1. 일반 면학에 대하여

중요 사항. - 사제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과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면학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배운 바를 잊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1

사제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고해성사에서뿐 아니라 강론대에서도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하고, 관계 안에서, 그의 활동 전반에서 영혼의 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병에 대한 진찰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적합한 치료법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제는 백성들 곁에서 하느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제는 심판관입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 교의적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면학은 해이한 삶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만일 사제가 면학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직무상 할 일도 적은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태만에 빠지기 쉬울 것이고 태만으로 인해 모든 악습이 생길 것입니다. “Multam malitiam docuit otiositas.”¹⁾

젊은 사제들은 더욱 더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많은 개념이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로한 사제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쉽게, 그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제 면학의 목표. - 사제의 최고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그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를 정해주는 지침은 이것입니다. “구령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과목들을 선택해야 하고, 쓸모가 없거나 나아가 그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과목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악화시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영혼들을 위하여 써야 할 아주 소중한 시간을

1) 집회 33, 28: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역주- 본문의 라틴어에 해당하는 구절은 사실상 28절이 아니라, 29절인 듯하다. 33, 29: “게으름은 온갖 나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낭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직무로부터 벗어난 자유시간의 많은 부분을 문학, 예술, 의학, 신문 독서, 음악, 등에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야 교수나 사제가 자신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53

이러한 과목들이라고 완전히 경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편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데 용이한 의상이 되어 영혼 구원에 필수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제의 활동 전부를 갖다바칠 정도로 몰두하는 것을 단죄하고자 할 뿐입니다. 사제는 ‘그 자체로’ 문학가, 예술가, 의사, 정치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그러한 일이 영혼의 구원에 유익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럴 ‘때에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공부할 것인가. - 수학 공식처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가 필요로 하는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시간을 희생시킬 정도의 위험과 열정을 갖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상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제는 공부하기 위해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54

영혼에 관한 문제를 뒤로 물리거나,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묵상 등을 소홀히 하기 위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지는 사제의 나이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더 많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요, 연로한 사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사항을 모르기 때문이요, 젊은이에게 게으름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당신부가 되기를 열망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본당신부가 되었을 때에도, 단순한 소임 담당신부일 때에도, 이미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오늘의 사람들과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요청과 구제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늘 공부해야 합니다.

시간을 활용할 줄 알 것. -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되뇌는
55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 후에 ‘레크리에이션이나 대화로 한 시간’을 보내고, 이어서 병자들이나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가정 방문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병자 방문이나 친구들 방문을 레크리에이

션 시간을 활용해 할 수 없습니까? 만일 친구들이나 병자로부터 돌아오면 저녁 시간까지 20분이 남는데 그 20분을 대화하며 보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시간을 아끼워하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을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산보를 겸해 인근 지역에 고해성사를 주러 갈 수 있습니다. 유익한 일이나 직무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하도록 화제를 지혜롭게 이끌어낼 줄 압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가장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십시오. 더 빨리 공부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때나 정말 자신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 시간을, 예를 들어 다음 주일 강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묵상하면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도와주면서도 강론에 필요한 소재, 예화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침에 성무일도 전체를 고해소 옆에서 바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길에서 성무일도서를 읽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아마 가끔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늘 신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면학. - 계속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아니면 면학 시간이 전혀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면학에 대한 항구성을 갖기 위해서는 큰 희생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이 하느님과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에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주실 것입니다. 사제 직무 초년 시절에는 더 많은 항구함이 요청됩니다. 책 위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은 나중에 먼지를 털어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며칠 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때라도 면학에 착수해야 합니다.

2. 과목 선택

필수적인 과목.

‘교의신학과 윤리신학.’ - 이러한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단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부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벼운 내용을 심각하게 말할 것이고, 의심스런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항상 고백자에게 모호함, 불안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마 청중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문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예컨대 모더니즘에 관하여, 교령 ‘de matrimonio’

〈결혼에 대한〉에 관하여, 성유 관리에 관하여 등). 이 때문에 모든 사제가 「La Civiltà cattolica」²⁾(라 치빌타 카톨리카)와 「Il Monitore」³⁾(일 모니터) 57 레를 구독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본당마다 한 부를 비치하거나 사제 4-5명당 한 권씩 구입해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잡지를 계속 읽으면 새로운 신학동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현안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의신학에 관해서는 5~6년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윤리신학에 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1. 먼저 강론에서 다루게 되는 교의신학이나 윤리신학의 큰 주제를 읽습니다. 2. 고해성사나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되는 가장 어려운 사례를 반복해 검증합니다. 3. 요약을 합니다.

2) 「La Civiltà Cattolica」는 이탈리아 예수회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교양 잡지이다. 창간호는 1850년 4월 6일 나폴리에서 C. 쿠르치(Curci) 신부(1810-1891)의 기획 논설을 실으면서 발간되었다. 쿠르치 신부는 1864년까지 잡지의 책임자로 역임하였다. 현재 「La Civiltà Cattolica」의 본사는 로마의 포르타 핀치아나 가(via di Porta Pinciana)에 있다. 잡지의 역사는 지역의 정치와 윤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P. PIRRI, 「Civiltà Cattolica (Ia)」, EC, III, 1949, pp. 1760-1761 참조.

3) 「Il Monitore ecclesiastico」는 가장 오래된 교회법 잡지이다. 마라테아(Maratea)(Potenza)에서 1876년 C. 제네리(Generi) 신부(나중에 추기경이 됨)가 성직자와 교구청과 교회재판소 사이에 교회법 제정 및 법규와 교회에 관한 민법 법규를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창간하였다. 1949년부터 데스클레 출판사(casa Desclée)에서 잡지를 편집하게 되었고, 로마 교황청의 사무국과 자문기관의 지도 아래 계간지로 출간되었다. 라틴어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잡지 이름을 「Monitor ecclesiasticus」로 수정하였다. Cf F. ROMITA, 「Monitore ecclesiastico (II)」, EC, VIII, 1952, p. 1296.

56 4. 동료들과 거듭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성서에 대한 공부는 모든 사제에게 필요합니다. 성서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요, 하느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들에 비하여 반딧불과 같고,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는 성체성사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론을 할 때 가장 주의를 끌수 있고 가장 큰 효력을 가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가 매일 적어도 몇 구절씩 읽으면 인간적인 일에 대해 초자연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신약성서부터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역사서로 넘어 가고, 이어서 예언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을 읽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가장 많이 권장되는 성서 봉독 방법입니다.

또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성향들’ ‘습관’ ‘덕성’ ‘결점’ ‘교육’ ‘성격’ 등에 관한 내용과 ‘하느님 백성에 대하여’ ‘고백자들에게 대하여’ ‘거주지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지’ 등도 연구해야 합니다. 사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항상 필요하지만, 특히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제토론을 하면서, 방문하면서 연구

해야 합니다. 병자 등을 방문할 때에는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잘 살피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강론을 할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대신에 꼭 적합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줄 때에는 아주 짧으면서도 참된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많은 결실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때, 방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할 만한 과목. - ‘교부들의 작품에 대한 공부’ 예를 들면 성 대 그레고리오. 또는 아주 유명한 성인들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공부. 예를 들면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성 가를로 보로메오, 성 알폰소, 아르스의 본당신부 등.

‘교회 역사’ 특히 가장 논의가 많은 문제에 관한 공부. 예를 들면 갈릴레오, 종교재판, 모더니즘의 역사 등... 프리메이슨, 자유주의, 중세의 연맹들, 프랑스 혁명 등.

‘교황 문서에 대한 공부, 가톨릭 액션에 관련된 조치들에 대한 공부, 주요 수도회의 규칙에 대한 공부, 매일 장상이 가르치는 작품에 대한 공부 등.’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 는 열성에 찬 활동을 쫓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공부이지만, 특히 그런 활동을 수행했고 그것도 아주 잘 이루어낸 인물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터득한 공부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본당을 방문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것만큼 실천하는 사람보다 더 잘 그리고 더 적합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부.’ 예를 들면 시골 본당에서는 농사에 관한 공부, 상식적으로 필요한 법률, 유산, 어음 등에 관한 공부, 도시 본당에서는 문학과 예술에 관한 공부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사제는 자기 직무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매번 추가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결정, 성좌의 문헌, 전례법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좌 관보」(Acta S. Sede)⁴⁾, 위에서 언급한 「모니토레 에클레시아스티카」(Monitore ecclesiastica)⁵⁾, 「라 치빌타 카톨리카」(La Civiltà cattolica)⁶⁾, 「아비사토레 에클레시아스티카」(Avvisatore ecclesiastica)⁷⁾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제가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신문들

4) 「Acta Sanctae Sedis」(성좌 관보)는 1865년 로마에서 P. 아반치니(Avanzini) 신부에 의해 창간되었다가 1904년에는 성좌의 공식 정기간행물이 되었다. 1909년 ASS는 이름을 바꾸어 「Acta Apostolicae Sedis」(AAS)(사도좌 관보)가 되었다. 교황의 행적과 교황청의 공적 문서 및 국가 원수나 대표자들의 교황 알현에 관한 소식,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부고소식과 치하소식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29년부터 바티칸 시국의 법과 규정에 대한 부록을 이탈리아어로 첨부하였다. P. CIPROTTI, 「Acta Apostolicae Sedis」, EC, I, 1949, p. 254 참조.

5) ATP, n. 56, 각주 3 참조.

은 의심에 찬 특별한 시각, 의혹 또는 필자들의 공개적인 신랄한 58
관점으로 해석하고 소개하게 마련입니다.

때로 정말 유익한 것을 알게 되면 표시해두었다가 사안에 따라 읽고 찾아보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책을 갖고 있지 않고 학자들처럼 많이 읽지도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골고루 잘 갖춘 도서관 수준의 장서를 가진다는 것은 허영이거나 자기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지만 제대로 읽지 않거나 엄선하지 않은 책을 읽습니다. 따라서 종종 아주 힘겹게 노력했지만 조금밖에 배우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규칙을 잘 따른다면 신학과 철학 지식은 신학교에서 다른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출하기 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어울리는 규칙입니다.

신문들. - 신문을 얼마간 읽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신문을 읽는 일은 ‘통상적으로’ 면학에 할당된 시간을 쓰지

6) ATP, n. 56, 각주 2 참조.

7) 「L'Avvisatore Ecclesiastico」는 1879년 창간된 성좌관보의 격월간 수록집으로, 통치에 관련된 회람서신, 참사회의 견해, 이탈리아 사제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자료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록하였다.

말아야 하고, 시간을 아주 조금만 할애해야 하며, 중요한 기사를 다룰 때만, 그래서 완전히 정신 집중을 해야 할 정도로 진지한 문
59 제가 있을 때에만 읽어야 합니다. 아! 영혼을 위해 일했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어떤 값을 치려야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 금지된 일부 일간지는 사제들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제는 자유주의나 모더니즘 경향의 신문을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어떤 때라도 읽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만 읽었다고 말할 때에는 변명할 구실을 찾습니다. 실제로 선호하는 신문이 내세우는 이념과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른 나머지 우스꽝스런 모습이 되거나 그런 부류의 세속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사제는 교구신문과 잘 결속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는 신문들을 구독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황님을 적극 지지하는 일간지들 중 일부를 읽는 것은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3. 레크리에이션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 모든 사람처럼 사제도 기분을 전환

8) '존경' (Ammirazione)은 '경탄' (meraviglia)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되었고, '스캔들' 보다 더 나쁜 의미로 비꼬아 사용된 것이다.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제는 몰입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완전히 기분전환을 한다는 것은 '영적 사치' 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무로 받는 스트레스를 즐거운 놀이로 푸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이 말은 항상 사제 자신이 레크리에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사제들이 채택한 레크리에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는 없을뿐더러, 사제와 레크리에이션의 궁합이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바쁘지 않을 때에는 성가수업을 조금 할 수 있고, 서클이나 기도모임을 주관하거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면 야간수업을 조금 할 수 있고, 특히 아주 멀리 떨어진 병자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읽고 느끼며 생각하고 공부한 사항들, 이를 잘 해나갈 방법, 직무상 어려움 등을 주제로 대화하면서 동료들과 산책을 할 수 있고, 윤리 문제, 전례 문제, 교회법 문제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산책할 수 있고, 성무일도서를 읽고 기도하면서 산책할 수 있고, 책이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거나 청소를 할 수 있으며, 정원에서 가볍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회가 있을 때, 성물들을 정리하고, 성당이나 제의실 청소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할 때 본당 신부들을 방문할 수도 있고, 교리를 배우러 오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거나 그들을 보살필 수도 있습니다. - 60

적당할 때 은인이나 자신의 농장을 방문할 수 있고, 신문 등을 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제는 무익하고 위험하며 나쁘게 해석될 방문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간을 낭용하는 등 목적이 없는 방문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게으름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태만은 항상 피해야 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은 필요합니다. 태만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은 정신과 육체를 북돋아 줍니다.

게으른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을 정원에서 계속해서 일하도록 하고, 작은 목공, 그림 그리는 일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레크리에이션. - 가끔 유익하지만 아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입니다. 모든 사제가 죽기 전에 루르드와 로마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은 아주 권할 만합니다. 이 두 가지 여행은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과 교황님께 대한 헌신을 일깨웁니다.

사제는 중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락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특히 카드게임, 체스게임, 타로 카드, 로또를 하느라 정열을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영혼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도가 지나치거나 건전성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사목자는 조금밖에 못한다거나 전혀 할 줄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한 발 빼야 합니다. 하느님께 단죄받기보다 사람들에게 건방지다는 말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사제는 다른 놀이들, 보치 게임(*역주- 이탈리아 북부에서 즐겨 하는 게임으로서, 보체라는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공 4개씩 가지고 보치아 또는 팔리노라는 작은 공 가까이 던져 가장 가까운 공에 1점씩 추가하여 먼저 12점을 내는 팀이 이기는 게임), 공놀이⁹⁾ 등을 즐길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하고 장소와 시간의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사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특히 노동자는 그러한 일을 스캔들로 받아들이고 입방아를 찧습니다.

신부가 훌륭한 요리를 좋아하고, 멋진 점심을 바라며, 산책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세속적인 파티 등을 즐기면 맹렬히 비난받습니다. 신부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부가 친구들이나 부모를 초대했을 때, 응접실이 풍성하고 호화로운 음식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주 고급스러

9) 여기에서 말하는 공은 '고무공'이나 '구기 종목 공'을 말하는데, 랑게지역(*역주- Langhe는 북이탈리아 피에몬테의 쿠네오 지역의 언덕을 지칭하는데, 이 지역 특산물로는 특히 알바의 와인이 유명하다)에서 많이 하는 스포츠다. 알바 시에는 아주 유명하고 자주 구기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있었다. 반대로, 오늘날 많이 하는 구기 종목(축구)은 신학생들에게 금지하였다.

운 와인을 대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62 좋은 사람들은 신부에게 절제력과 소박함을 기대합니다. 나쁘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때때로 신부 앞에서는 떠들썩하게 축하하고서는 나중에 험담을 합니다.

신부는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도 극기하셨던 하느님이신분의 교역자입니다. 언제나 영혼의 구원자이며, 모든 행동에 앞서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건설적인가 아니면 파괴적인가?

5장 재물의 관리

1. 일반적인 개념

먼저 몇 마디 언급할 게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재산 관리가 사제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은 ‘sine qua non’ (필요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사제가 모든 물질적 관리와 세속적인 관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인간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in humanis’ (인간에게는), 적어도 현 교회 체제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음식이 필요 없고 휴식도 필요 없는 상태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분리¹⁾ 이후, 어떤 측면에서 성직자의 처치는 더 나아졌는데, 우리 신부들 사이가 더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제들을 위하여 바치는 신자들의 모든 헌금은 주교에게 보내졌고, 주교는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공정하게 분

1) “국가는 어떤 종교적 공경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경제적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는 프랑스 공화국이 제정한 1905년 12월 9일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한 정교분리를 말한다.

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재물 관리를 할 때에도 영혼의 구원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심이나 면학과 같이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Salus animarum suprema lex.” (인간 영혼의 구원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원칙이 [유효합니다]. 사제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고 영혼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제들의 물질적 재산에 관한 교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한 법의 해석에 따르면 사제는 이제 상당히 관대해지고 훨씬 경제적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실천적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63 2. 소작농, 농지임대, 농지관리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 성직자들과 본당신부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동산을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입니까? 소작농을 들 것입니까? 아니면 농지를 임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농지관리자에게 맡길 것입니까?

a) 무엇보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부동산을 일용직 인부를 고용

해 경작하게 하는 것은 예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숙련되지 않은 농노(schiavendaio)²⁾를 두는 일도 안 됩니다. 사제의 활동을 너무 빼앗아 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주 비판, 소문, 불행을 자초합니다. 영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먼저 물질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b) ‘임대에 관하여’ 교회 재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재산이 악용되고 피폐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초원과 밭의 위험은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 ‘triennium frugiferum’ (3년간 수확) 이상 임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 64
다. 이와 같은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위탁하지 않고 초원과 밭을 임대하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임대하지만,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습니다. “만일 계약 만기 시 별도 논의 사항이 없다면, 본 계약을 항상 3년마다 한 번씩 세 번 갱신하는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성직자의 사적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 등, 어떤 식으로든, 좋은 조건의 농지 임대자를 찾게 되었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 부동산에 전념하게 될 때, 또는 어떤 성직자가 초원과 밭만 가지고 있을 때, 모두를 임대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입니다. 농부도 훨씬 자유로울 것이고, 사제도 훨씬

2)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schiavandarò’ 로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농사꾼인데, 결국 지주에게 직접 소속되어 경작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형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자유로워집니다. 충돌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c) 특히 포도원에 대해 말하자면 소작농에게 위탁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소작인은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면서 아주 쉽게 재산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지나친 방법은

65 쓰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나친 방법이란, 소작인을 위하여 너무 '거대한' 계약을 맺거나,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둠으로써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할 위험부담을 유발시켜서 혹시 빈곤함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길을 계속 갈 수 없게 되고 뜬소문만 일으키게 된다거나..., 계약할 때 소작인을 상대로 너무 인색한 조건을 내세워 거의 도적질을 하다시피 할 정도가 되거나(일하는 자는 먹기도 해야 함), 그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다고 싫은 기색을 내놓고 해서 이런 일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거나, 과일, 계란, 닭 등과 같은 아주 조그마한 수확물을 인색하게 나누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들이 일할 때 계속 거들면서 매순간 무엇을 하는지 감시한다거나, 봉사자나 자신의 부모에게 그들을 감시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소작인을 받아들일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도덕성과 신앙심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를 받아들인 후에는 세세하게 감시하지 말고 대범하게 감독하고 온화하게 대하며 신뢰를 해야 합니다.

다. 끝으로 정말 중대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를 해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50년 이상 같은 소작인을 두고 있는 성직자와 90년 이상 그렇게 하는 성직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방법을 통해 소작인과 성직자는 서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작인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그런 사람들의 충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직자는 온화한 태도를 갖고 농지 소작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답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d) 어느 한정된 기간에 단순 농노를 두거나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게 했다면 농지관리인을 두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제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인과 농부들을 감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이 받는 급여는 성직록에서 빼야 하고 이런 일로 인해 영적 선을 위한 수단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농지관리인은 검증된 사람이어야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익이 아주 많아졌을 때가 아니라면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부동산 또는 흩어져 있는 부동산이 이익을 낼 수 있을 때에만 모든 부동산을 한꺼번에 누군가에게 임대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임대하

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잘 돌보지 않게 마련 이고 아마도 일반적인 농지임대로 초래될 수 있는 적대감이 본 당사부에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의 관리

교회의 부동산이라면 성직자는 자기가 사용권만 가졌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본당신자들 영혼의 좋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본당신자들은 본당신부가 필요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편안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당신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 교회 재산을 잘 지켜야 하고 언젠가 몰락하게 되리라는 두려움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 부임한 가난한 본당신부가 교회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시골집, 즉 사제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경리신부가 여러분에게 성직록을 담보로 요구할 만큼 굴욕스러운 일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b)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성직록을 늘리든지, 예를 들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유산과 결부된 유언장처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든지, 재무관리를 철저히 해서든지 성직자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 리 시대에는 새로운 경작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본당신부는 시험을 거친 다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정 방식을 일반인들보다 앞서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역시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사목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 리적이고 집중적인 경작방법, ‘Diaspis pentagona’ (*역주- 1886년 Targiani가 등록한 학명 Pseudaula pentagona라는 해충의 일종. 직역하면 ‘5각 유충’) 방제 활동, 계란의 ‘Cocchilis’ (*역주- 확인하기 힘들지만, 아마 ‘연 지벌레’ 같은 유충인 듯) 박멸 활동 등도 그런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사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c) 그뿐 아니라 밭, 포도원, 집 등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불 명예스러운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성당은 쇠퇴시키거나 조금밖에 꾸미지 않으면서 사제관을 너무 값비싼 가구나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꾸 미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잘 차린 성찬을 자주 들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동산의 관리

먼저 일반적인 경고사항을 나열한 다음, 이어서 실천적인 법규 몇 가지를 일러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일반적인 사항.”: a) 사제는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항상 잘 정리해야 합니다. ‘사도 일치회’ (Unione Apostolica)³⁾는 회원들에게 매일 저녁 ‘정규 결산’ 을 하였는지 자신 성찰을 하게 합니다. 유명한 어떤 성인 주교님은 중요하지 않은 일도 분명하게 기록해두지 않았을 때에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제에게 자신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에 익숙하게 해주고, 죽을 때 후임자들에 대한 걱정을 없애줍니다. 따라서 매일 지출과 수입, 채무와 대출 상황을 볼 수 있는 금전출납부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은 무분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이 많아짐에 따라 확신을 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초기에 일종의 ‘예산’ 을 세우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덜 필요한 경비지출을 예방해주고 연말에 채무를 남기는 일을 막아줄 것입니다.

b) 개인적으로 사제는 절약근검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탐욕과 낭비를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세부사항까지 살펴보는

3) ATP, n. 27, 각주 24 참조.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신분에 적합하지 못한 옷을 입으면서 한 푼도 적선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의 식생활을 위한 모금,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성당을 꾸미기 위한 모금 등 유익한 행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인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 사람, 성당에서 수행하며 일을 거드는 사람에게조차 풍습으로 내려오는 축의금을 주지 않는 사람, 작은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 봉급과 식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부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사제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신에게도 필요한 만큼의 하위성직자를 두지 않는 사람, 사제관을 제 위치에 걸맞게 꾸미지 않고 내버려두는 사람, 그 대신에 사제의 권리 주장 등에는 까다롭게 구는 사람, 손님 접대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일 것입니다.

관례와 재원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이상으로 모금에 기부하는 것은 낭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의복, 가구, 장식품을 부자인 것처럼 꾸미는 것, 식탁에 아주 귀한 포도주, 아주 맛있는 술을 갖추려는 갈망, 필요 없거나 읽을 수 없을 수많은 서적들을 구입하려는 갈망,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여행과 관광을 하려는 갈망, 화려한 응접실 등을 가지려는 욕망 등은 낭비로 간주됩니다.

그보다는 의복, 침실, 식탁을 단순하게 꾸미는 것이 근검절약하는 생활입니다. 여행과 순례 중에서 무조건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지출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 자선행위를 할 때 올바른 기준에 맞게 하는 것, 아무 것도 허비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모든 일에서 꼭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만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절약생활입니다.

5. 자선과 절약

일반 원칙. - 여분으로 남는 재물을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잔돈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당에, 경건한 사업 등에 희사합니다. 또는 남은 재물을 나중에 모두 큰 액수를 요청하는 어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병원을 짓거나 증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자본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규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방식의 노예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노예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축적한다는 명분으로 탐욕스러운 목적을 감추고 삶에서 우리를 구두쇠처럼 지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룩한 의도로 시작한 기획을 무너뜨리게 하고, 유익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돈을 어떤 식

으로 써야 할지에 관해 확신을 못 가진 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아무런 선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제때 선행을 베푼다는 명분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덜 중요한 부차적인 활동에 모두 나누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주 고해성사를 하 69
기 위한 성찰시간, 또는 적어도 영신수련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였는지 각자 하느님 앞에서 성찰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유익한 것입니다. 즉 내가 죽을지라도 이 문제에 관하여 만족하는가? 죽음의 시점에서 나는 만족할 것인가?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일반적 지혜입니다. 일을 죽을 때까지 미룬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것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특별 원칙:

a) '정의의 지킬 것' - 이와 관련된 일이 가끔 그리고 자주 '너무 좋은 쪽으로' 일어납니다. 종종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본성적인' 덕이 부족하기 때

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과정에서 ‘그리스도교 덕성과 사제
70 적 덕성’ 만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왜 빚을 갚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빌려준 것을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선
물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언젠
가 받은 책과 성물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사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책값 때문에, 또는 기숙사비 때문에, 또는 군복
무 면제 때문에 신학교에 빚이 남았다면 꼭 변제하겠다고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직록 일부를 양도하고 신학교를 떠나지
만, 합법적인 권위가 정한 법규에 따라 배상할 의무로 갚을 필요
가 있습니다. 당연히 갚지 못할까 두려울 때는, 아주 거룩한 사업
과 관련된 일이라도, 채무를 지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정
의를,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일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또는 다른 이들의 죽
음 이후에 실행해야 할 유산 신탁에 관한 일을 명확하게 하지 못
할 위험도 있습니다. 거행해야 할 미사지향을 손에 가득 쌓아둔
채, 한편으로 자선으로 써버릴 위험, 아마 나중에 배상하겠다는
71 생각으로 교회의 돈이나 조합의 돈을 사용할 위험 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오! 때때로 상속자들에게 사기를 치지 않게 되지 않겠
습니까! 게으름으로 많은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지 않겠습
니까! 지금 양심의 중대한 의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
은 유산은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유산을 써서는 안 되고, 아마 가질
수 없을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건한 사업 자금, 자
선, 사유재산 등을 구분해 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두 가지 방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돈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두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많은 서랍장을 구하여 서랍마다 각
각의 항목을 써두거나, 돈을 혼동하지 않도록 장부에 기록하여
그 내용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방식으로 모두가 알
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죽었을 때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부에 기록해둔 만큼 정말 갖
고 있는지를 확실히 점검해야 합니다.

b) ‘자선.’ - 이익금의 잉여분이나 자기 몫의 잉여분을 분배하
기 위해 따라야 할 교회법과 규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교
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터이고, 여기서는 다
만 법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권고사항을 열거할까 합니다.

만일 친지들과 특히 부모들이 정말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
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해
가 되거나 심하게 방해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면, 특히 그들이 모
범적인 처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

다. 절대적으로 항상 방해를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항상 방해받는 일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료 사제들,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가톨릭 단체들, 선한 출판, 성당, 신학교, 병원,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의 숙박소, 교황과 주교가 권고한 단체와 같이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료 사제들’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깊은 병을 앓고 있거나 아주 불행한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사제보다 그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톨릭 단체들’ 과 ‘선한 출판’ 도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출판에 대한 방어태세를 견고히 갖추지 않는다면, 아주 아름다운 성당들을 많이 건립하고 수도회들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법관의 글 한 소절이 모든 것을 중지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백성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황특사를 제정해야 합니다.⁴⁾

저는 ‘성당, 가난한 사람들, 병원, 숙박소 등’ 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두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를 말씀 드렸는데, 그곳에서 은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배출될 것이고, 그러므로 신학교에 애덕을 실천하는 것

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것입니다.

저는 ‘교황과 주교가 권고한 단체’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 베드로의 기금(obolo di S. Pietro)⁵⁾, 전교회(opera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⁶⁾와 어린이전교회(della S. Infanzia)⁷⁾, 연로한 본당 신부 회(opera dei Parocchi vecchi)⁸⁾, 선한 목자 회(opera del Buon Pastore)⁹⁾ 등은 새로운 요청이 생길 때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권위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온순하게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두 배의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장상에 대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애덕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사항’ : 1. 가끔 온 지역을 일종의 ‘산업의 기수들’ 과

4) PIO X, 「Ad Andream card. Ferrari, archiepiscopum mediolanensem, et episcopos provinciae ecclesiasticae mediolanensis, pro annuis episcopalibus conferentiis Rhaudi congregatos,」(라우디 주교회의 승인을 위하여, 북이탈리아 대주교인 안드레아 페라리 추기경에게, 그리고 북이탈리아 관구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 1 julii MCMXK(1911년 7월 1일), AAS, III (1911), pp. 475-476 참조.
5) 중세 때에 ‘성 베드로의 돈’ 은 국가와 세력가들이 교황청에 지불했던 자금을 의미하였다. 이 자금은 로마로 옮겨져 교황청에 보관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과거 교황령이었던 영역에 대한 점차적인 강탈 이후에 ‘성 베드로의 돈’ 또는 ‘성 베드로의 기금’ 이라는 표현이 국가가 교회에 지불해야 할 수입금 혹은 헌납금을 대체하게 되었다. 1926년 12월 6일의 ‘자의 교서’ 를 통하여 ‘성 베드로의 기금’ 의 재무관리가 교황청 재산에 대한 전체 재무관리의 일부분이 되었다. G. PALAZZINI, 「Obolo di San Pietro,」(성 베드로의 기금), EC, IX, 1952, pp. 35-36 참조.
6) 전교회는 파올리나 야리코(Paolina Jaricot)에 의하여 프랑스 국가 보상의 수단으로 창건되었다. 이어서 1818년부터 해외 선교 원조를 위한 연맹이 되었다. 1922년에는 이 연맹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선교를 통해 이 회를 돕던 여러 연맹들 전체가 합류했다. 이탈리아에는 C. 다첼리오(D' Azeglio) 후작이 도입하였는데, 그는 그의 잡지 ‘이탈리아의 벗’ (L' amico d' Italia)을 통하여 이 회를 소개하였다. 1922년 5월 3일의 ‘자의교서’

‘기식자’ 등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제들은 그들의 낚시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들의 신세한탄 과 여행 계
73 획들은 대부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2. 적선하기 전에 가능한 한 도움 필요가 있는지 선한 사람인
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만, 작은 지역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자선행위에 대해 살펴봅시다.

3. 사실 얼마 안 되는 일부 본당에서 채택한 방법은 좋은 관례
가 아닙니다. 즉 성직자 혹은 본당신부가 부자이기 때문에 성직자

‘Romanorum Pontificum’ (로마 교황청)을 통해 회의 본부를 로마로 이전하였고 새로운
회규를 만들었다. S. PAVENTI, 『Opere Pontificie Missionarie』(교황청 전교회), EC, IX,
1952, pp. 162-164 참조.

- 7) ‘Opera pontificia della Santa Infanzia’ (교황청 어린이전교회는 낭시(Nancy)의 주교인 몬
시뇰 C. De Forbin-Janson(드-포빙-안송)(1785-1844)이 설립하였다. 이 전교회의 첫 최고
평의회는 1843년 5월 19일 파리에서 결성되었다. 1846년부터 교황들은 많은 영적 호의
를 베풀어 발전시켰고 비오 11세는 ‘pontificia’ (교황청)라는 명칭을 덧붙였으며, 비오
12세는 1950년 12월 4일의 서한 ‘Praeses consilii’ (평의회 수장)를 통하여 ‘어린이전교의
날’ (Giornata della Santa Infanzia)을 제정하였다. S. PAVENTI, 『Opera Pontificia della Santa
Infanzia』(교황청 어린이전교회), EC, IX, 1952, pp. 164-165 참조.
- 8) ‘연로하거나 일할 수 없는 본당신부의 경건한 회’ (Opera pia dei Parrochi Vecchi od
Inabili)는 해당 본당신부들을 위한 레오 12세의 1828년 5월 14일자 의 소칙서
‘Gravissimae calamitates’ (아주 심각한 재난)가 설립의 발단이 되었다. 『Statuto dell’
Opera Pia dei Parrochi Vecchi od Inabili』(연로하거나 일할 수 없는 본당신부의 경건한 회
의 회규), Artigianelli, Torino 1877 참조. 알바에서 1877년 7월 26일 설립되었다.
- 9) 신학교와 사제성소를 위하여 알바에서 시작된 교구 단체였다. 1867년부터 1879년까지
주교로 역임하였던 E. 갈레티(Galletti) 몬시뇰이 설립했고, 이 단체는 신학교를 위한 사
제 성소자들을 찾고 인도하며 양육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Il Seminario』(신학교),
bollettino diocesano dedicato a ‘Opera del Buon Pastore’ per le vocazioni sacerdotali per il
seminario(사제성소를 위하여 ‘선한 목자회’ 에 바쳐진 교구 팸플릿), anno XXXVII
(1986), 특별 호, p. 8 참조.

권리 일부 또는 전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험한
선례를 후임자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자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며, 가령 양로원이나 고아
원, 신문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본당을 위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c) ‘절약.’ - 정당한 이유로 기금(예비비 또는 선행을 위한 기금 등)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규범을 따라야 할까요?

교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외 잉여분을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경제거래는 허용합니다. 만일
다만 ‘propria-manu, seclusis scandalo et avaritia’¹⁰⁾인 것이라면
인위적인 거래도 허용합니다. 그 대신에 이윤을 얻는 거래는 사
제의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키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행위와 의
무’ 에 관해서는 교회법을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은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제가 전기회사의 일을
맡았는데 아주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많은 걱정거리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경우는 영혼의 이익을 위해서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지
역을 위해 열정을 불러일으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버
스회사, 방앗간, 교통조합 등을 세운다면, 영혼의 이익을 위해 오

10) ‘스캔들이나 탐욕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룩한 것에 대한.’

히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태로운 사업은 안 됩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이득이 ‘불확실한’ 많은 이득보다 낫습니다. 아주 많은 이윤이 된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가 비록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고 해도 전시장과 시장을 너무 자주 드나드는 일은 하여튼 부적절합니다.

비록 명령하고 촉진하는 일만 한다고 해도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방식으로 가톨릭 신자들로 이루어진 경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교황청의 최근 문헌이¹¹⁾ 사제에게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 자리에 걸맞지 않습니다.

사제는 자기 돈을 신용금고, 신뢰할 만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사제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사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결코 자기 본당에서 채무를 지거나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주 자주 원수가 되거나 반목하는 사이가 됩니다. 만약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빌려줄 수 있지만, 자기 활동 영역 밖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1) S. CONGREGATIO CONSISTORIALIS(추기경성), 「De vetita clericis temporalis administratione」(성직자 재산관리 금지에 대하여), 18 novembre 1910, CC, 1910, IV, p. 743 참조. 교도권의 차후 명령에 대해서는 S. CONGREGATIO CONSISTORIALIS(추기경성), 「De munere consilarii municipiorum vel provinciarum a sacerdotibus per Italiam suscipiendo」(이탈리아 사제들에게 허용되는 자치도시 혹은 관구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Decretum(교령), AAS, VI(1914), p. 313 참조.

대다수 경험 있는 신부는 보증인, 후견인 등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게다가 신부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익, 그의 소득, 그의 ‘열정’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다른 일은 오로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할 ‘때만 그리고 그만큼만’ 해야 합니다.

d) ‘사회보장.’ - 사회보장 단체들이 있습니다.¹²⁾ 사제가 거기에 가입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다스리시므로 미래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모든 열정을 다하여 영혼 구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사제들을 충만되게 돌보실 것입니다. “quaerite primum regnum Dei et justitiam ejus et haec omnia adiicientur vobis.”¹³⁾ 그러므로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지 마시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해주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각 사제는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74

12) 알바에서 생긴 최초 노동자 공제조합들은 기원이 1850년께로 거슬러 올라가 평신도로 구성된 자유 독립 단체였다. L. MACCARIO, 「Le società operaie di Alba 1847~1955. La Società degli Artisti ed Operai」(알바 노동자 조합 1847-1955년. 기술자와 노동자 조합), Famija Albeisa, Alba 1973 참조. 여러 조합들의 정관들은 많은 유사점을 보여준다. 그 단체들의 모델이 되는 정관은 로디(Roddi) 시(comune: *역주- 코무네는 12~13세기부터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에 있던 주민 자치 공동체를 말함) 「Statuto della Società di Mutuo Soccorso e Previdenza Economica fra i cittadini d' ambo i sessi del comune di Roddi」(로디 시민의 공제조합과 경제보험 정관), Tip. S. Racca, Bra 1891 참조.

그런데 알바 교구에서는 특히 ‘건강상황과 생활조건이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제들을 도와주기 위한 단체인 아주 유익한 ‘성직자 공제조합’ (Società di mutuo soccorso tra il clero)¹⁴⁾이 있습니다. 연간 회비는 5리라였고, 이미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회보장 단체들에 관해서 피에몬테 주교들이 몇 년 동안 열띤 권고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 단체에 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공제 및 교육조합’ (Società d’istruzione, d’educazione e di mutuo soccorso fra gli insegnanti).¹⁵⁾ 이 조합은 먼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을 모집하지만, 이제는 사제들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원들에게 종신연금을 지불하면서 회원들의 윤리적 경제적 여건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성직자 공제 및 보험조합’ (Società di previdenza e mutuo soccorso tra gli

ecclesiastici)이 토리노에 설립되었습니다¹⁶⁾(사무실: 토리노, Palazzo Arcivescovile(대주교관). 이 조합 역시 종신연금을 목적으로 하고 사제들만 받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규칙에 대한 설명은 문의하면 됩니다.

‘가톨릭 보험협회:베로나’ (Società d’assicurazione cattolica: Verona).¹⁷⁾ 이 단체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신연금과 생명 보험입니다. 책임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단체에 사제가 가입하면 아주 좋을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과연 지불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만큼 큰 채무를 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정도의 충분한 금액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 아주 적합합니다.

13) 루카 12, 31: “오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14) ‘성직자 공제조합’ (Società di Mutuo Soccorso tra il Clero)은 1893년 알바에서 결성되었는데, 그해에 가톨릭은 ‘특별한 기쁨’으로 교황 레오 13세의 주교서품 금경축(giubileo episcopale) 행사를 거행하였다. 첫 번째 총회는 몬시뇰 프란치스코 주세페 레 주교가 주관하였는데, 약 80명의 사제가 참석했고 조합은 이미 144명의 회원을 두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직자에 대한 상호원조를 목적으로 했다. 「Verbale di costituzione della Società di Mutuo Soccorso fra gli Ecclesiastici della Diocesi di Alba e della 1ª adunanza generale」(알바 교구의 성직자 공제조합 설립과 제 1차 총회 회의록), 1893년 9월 2일, in Archivio Storico della Diocesi di Alba(알바 교구 역사 보관소) 참조.

15)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공제조합’ (Società di Mutuo Soccorso per gli insegnanti Primari)이라는 명칭으로 1853년 토리노에서 생겼지만, 이어서 여러 종류 개인 교사도 모집하였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저렴한 가격의 도서출판과 ‘Saggiatore’ (분석가), ‘L’istruttore’ (교육자), ‘L’amico dei maestri’ (교사들의 벗)과 같은 교육 일간지들도 보급하였다. 「Statuto organico della Società di Istruzione e di dir Educazione e di Mutuo Soccorso fra gli Insegnanti」(교사들 공제조합과 교육조합의 정관), Tip. Scolastica di S. Franco e Figli e Compagni, Torino 1858과 「La Società di Istruzione e di Educazione e di Mutuo Soccorso fra gli Insegnanti」(교사들 공제조합과 교육조합), Tip. Camilla e Bertolero, Torino 1884 참조.

16) ‘성직자 공제 및 보험조합’ (La Società di Previdenza e Mutuo Soccorso tra gli ecclesiastici)은 토리노에서 1880년 11월 12일자 공정증서를 통해 결성되었고 1881년 3월 27일 R. Decreto(교령)를 통해 ‘법인’ (Ente Morale)으로 인가되었다. 「Statuto e Regolamento della Società di Previdenza e Mutuo Soccorso tra gli Ecclesiastici」(성직자 공제 및 보험조합의 정관과 규칙), 3ª edizione, Marietti, Torino 1911 참조.

2. 어떤 사제가 마음이 지나치게 좋아, 특별한 상황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노년에 쓸 적금에 들지 않았거나 노년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연금 보험에 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경우 많은 사람은 자신의 돈을 신용금고 등에 직접 저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죽어도 돈이 남겠지만 살아가기에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의사항’ : 오늘날 관례에 따라,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 봉사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2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아니면 적어도 매년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무료로’ 봉사하도록 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급여를 주는 일은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다른 직원들, 제의 실지기, 보좌신부 등뿐만 아니라 상점주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¹⁸⁾

17) 보험회사를 설립할 생각이 1893년께 이탈리아 가톨릭계 주요 인사들 사이에 일어났다. 계획이 실현된 것은 1896년 2월 28일 베로나에서 ‘Opera dei Congressi e dei Comitati Cattolici in Italia’ (대회 협회와 이탈리아 가톨릭 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가톨릭 보험협회’ (Società Cattolica di Assicurazione)는 시초에는 단지 재해보험과 화재보험 부분을 담당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삶에 관한 모든 종류의 보험으로 확장되었다. ‘Società Cattolica di Assicurazione. 60 anni di vita 1896-1956, cenni storici e dati statistici’(가톨릭 보험협회. 1896년-1956년 60년간의 역사와 통계자료), Scuola Tip. Nigrizia, Verona 1956 참조.

18) 이러한 제안을 했을 당시는 이런 종류 다른 일들과 같이, 새로운 노동조합법, 특히 사회정의의 필요에 대한 새로운 요청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6. 유언

모든 사람은 유언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77 상속자들에게 통고할 채무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자주 나타나는 중대한 양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 76제로 중요한 것은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가 설교하는 바지만 소수만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같은 일을 지킨다면 얼마나 많은 악을 피할 수 있게 됩니까! 죽음은 사람을 속입니다. 늙고 병이 들면 더 이상 정신의 명석함을 누리지 못하고 필요한 자유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원칙’ : 무엇인가 정리할 단계에 있다면 즉시 유언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유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제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유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속자로 지정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은 친족에게 남기고,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사제의 소유로 들어온 재산은 경건한 단체나 경건한 용도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예외가 있겠습니까! 친족이 아주 가난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들을 더 많이 도

와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친족이 아주 부자라면 적게 주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제가 가족의 재산을 취하지 않았을 때에도 만일 가까운 친족이라면 ‘전적으로 친족들을’ 잊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건한 활동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특별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먼저 본당신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병원 원목신부는 먼저 병원을, 78 복지관의 원장은 복지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와 같은 법인이 필요한 만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필요성을 고려한 후, 살아있는 동안 자선을 하던 행위를 언급하면서 위에서 제시했던 순서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이러한 경건한 단체를 상속자 또는 유산 수취인으로 삼아 유산을 남기는 것에 관해 알아야 할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체가 민법상 법인체로 인가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상속세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친족들이 유언자의 관대함에 대하여 수백 번 비난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은 왜 이런 사항들을 적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약간의 충고사항을 하는 것으로 그칠까 합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양심적인 전문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민법을 잘 알고 교구 권위기관에도 정통한 인물

이 좋습니다.

2) 법인체로 인가받았거나 또는 인가받지 않은 경건한 단체를 상속자로 지정하기를 원할 때에는, 부동산이라면, 거의 항상 매매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고, 동산이라면 돈이나 증권을 ‘brevi manu’ (직접) 전달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개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익금과 소득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합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자신의 재산을 유언장을 통해 남기기를 원한다면 공식적으로 밝히고 싶은 내용과 알리고 싶지 않은 나머지 내용 혹은 적어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산 수탁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첨부사항이 민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친족에게 위탁하는 것은 권할 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때때로 의심스러운 일을 하게 합니다.

4) 자신의 유언을 글로 쓰거나 받아쓰도록 할 때 중요 유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선언서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뒤이은 유언장에 의해 무효화되지

사목과 사목의 일반적인 수단에 대하여

않는다. 만일 그 유언장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유언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유언장 안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누구보다 관계자가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부를 준비하여, 한 부는 관계자가, 다른 한 부는 유언자가 보관해야

79 합니다.

유언장 보관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유언장이 사라집니까!

제2부

서언

제2부에서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의 사목 직무에 대하여 말할 것이고, 특수사목 직무를 맡게 된 사제들이 수행하는 몇 가지 활동에 대하여 다룰 것이며, 사제가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것이고 그중 오늘날 현실적인 요청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만 선별하여 언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적인 열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연구와 성찰을 통해서만 잘 배울 수 없는 활동과 실천방식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저서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도서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상당히 권할 만하다고 봅니다.¹⁾

FRASSINETTI, 『Manuale pratico del Parroco novello』(초임 본당신부의 실천적인 매뉴얼) (Libreria del S. Cuore<성심서원> - Torino), L. 1,50(1.5리라).

81

YVES LE QUERDEC, 『Lettere di un Parroco di città』(도시 본당신부의 편지)(Ufficio della Rassegna Nazionale, Firenze), L. 1,75(1리라 75).

YVES LE QUERDEC, 『Lettere di un Parroco di campagna』(시골 본당신부의 편지)(상동), L. 1,50(1.5리라).

DUBOIS, 『Pratica dello zelo』(열성의 실천)(G. Marietti, Torino), L. 2(2리라).

1) 저자 색인 참조.

일러두기

사목활동 전반에 대하여

KRIEG,²⁾ 「Teologia Pastorale」(사목신학), 4권.

1권 「특별한 영혼에 대한 사목」(Cura d' anime speciale). - 2권 「교리」(Catechetica). - 3권 「강론」(Omiletica). - 4권 「전례」(Liturgia) (Cav. Pietro Marietti, Torino), 각 권당 L. 7,50(7리라 50).

GIBBONS, 「L' ambasciatore di Cristo」(그리스도의 대리자)(Cav. Pietro Marietti, Torino), L. 5,50(5리라 50)

SWOBODA, 「La cura d' anime nelle grandi città」(대도시에서 영혼 사목)(F. Pustet - Roma), L. 4(4리라).

J. BLANC, 「Appunti di un parroco di campagna」(시골 본당신부의 개요) (Castaeggio - Pavia - Tip. "Giovanna d' Arco"), L. 1,25(1.25 리라).

사목이란 무엇인가. - 사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요, 사제직에 의해 실행되는 영혼들의 구원을 통한 당신 교회의 활동입니다.'¹⁾ 사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팔레스타인에서 실행하시기를 원하셨던 직무입니다. "Veni ut vitam habeant et abundantius habeant."²⁾ 또한 당신이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의해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Sicut misit me Pater et ego mitto vos."³⁾ 사목활동은 인간적인 생각, 과학, 철학 등이 그리스도교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망, 애정, 의지,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교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두 일어나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그 장소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Vado parare vobis locum."⁴⁾ 여기서 사목활동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

1장

2) ATP, Prefazione alla 2a edizione(제2판 서언), p. XI, 각주 1 참조.

1) H. SWOBODA, 「La cura d' anime nelle grandi città」(대도시에서 영혼 사목), Pustet, Roma 1912, p. 11 참조.

2) 요한 10, 10: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3) 요한 20, 2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4) 요한 14, 2: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다. 즉 인간을 정신, 마음,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이란 예식, 외적 행위, 예배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은 인간을 붙잡아주고 통합시켜주며 축성시켜줍니다. 따라서 사제는 성당 안에 빛나는 전례가 펼쳐지고 거기에 적합한 성가, 많은 신심행위 등이 뒤따른다고 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매년 영성체를 모시고 성당에서 결혼하고 장례미사를 한다고 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순례여행과 행렬과 같은 '일종의 퍼레이드'에 흠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백성이 강론에서 사제의 달변 등에 탄복하게 되고, 일부 아름다운 영혼들이 아주 영성적인 주제를 길게 묵상한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단들이 될 수 있지만, 목표는 인간적인 생각을 그리스도교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인간적인 애정을 그리스도교적인 애정으로 바꾸며, 인간의 활동을 그리스도인의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례성사 때나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목은 그와 같은 활동을 지향합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귀한 종교를 우스꽝스러운 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이신 하느님을 참으로 높은 단계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칙. 사목활동을 조정해야 할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83

a) '일치 활동.' 일치 활동을 해본 사람은 이러한 원칙의 의미와 그 활동이 널리 적용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치도시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당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본당은 첫 조직이요 근간입니다. 본당 주변에 부차적인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첫 조직의 활동을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또한 첫 조직이 본당신부를 주축으로 하고 관리되듯이, 이 조직 구성원들은 본당신부를 으뜸으로 삼아 이끌어 나가도록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그 모양새는 머리를 따르는 지체들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사제이든 평신도이든, 본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활동에 있어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당신부가 동력원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본당신부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구원하려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고무하고', '최고도로 깨어 있으며', '이끌어야 하는' 3중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당신부가 지혜를 다하여 이러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분투해 이룩한 활동을 서로 파괴하는 추잡한 광경을 보게 되는 무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혼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쁜 영향을 받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일치될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게 있지만, 화합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서로 전달하지 못하면, 합치점을 이루어야 하는 동일한 문제에서 늘 부딪히며 싸우게 되기 쉽습니다. 또 이러한 화합은 낮은 단계에 있는 성직자로부터 또는 특수 단체로부터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화를 화해시키고 길을 벗어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춘 구심력과 우위성이 없는 성직자나 특수단체는 참된 화합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의 참된 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본당신부가 추진해야 합니다. 본당신부들은 성직자나 평신도가 불러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본당신부가 그들에게 가야 하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믿는 바를 전달해주어야 하고, 충고와 협조를 부탁해야 하고, 그들을 잘 다독여야 합니다. 활동 양상과 상식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사목 특강을 여는 게 아마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누가 “나는 찬성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요. 협조자들에게 정말 결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협조자들의 결점 때문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전략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종 최상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자부하고, 아랫사람에게서 그 어떠한 단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고,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신의 관점만 ‘늘 어디에서든 강요하려’ 하고, 개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을 분배하려 하며, 오히려 나쁜 쪽으로 교정하고 아주 세세한 일들에 개입하여 고치려 들고, ‘무보수로’ 일하게 하며, 끝내는 항상 불만스런 표정을 드러냅니다. 본당신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점을 피하면서 사목활동 안에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자신의 협력자들 중에서 아주 고집스러운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든 작전에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이 때문에 하위 성직자, 특히 교육담당 신부들과 담당 신부들로 하여금 드러내 놓고 또는 비밀스럽게 전쟁을 치르게 하면서 그들에게 부담이 될 무거운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본당신부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충분히 권고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본당신부는 적어도 양심상, 소통을 끊기보다는 차라리 자주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b) ‘개인적인 접촉.’ - “다시 말해서 본당신부와 양떼 사이의 긴밀한 일치입니다.” 하느님 백성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번 사제관에 들어가

를 망설입니다. 성당에서는 완전히 자기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수준 높은 강론을 듣고, 고해성사에는 ‘가장 특권을 누리는’ 몇몇 여인네만 가고, 바깥에서는 신부를 알지 못하고, 가끔 보더라도 스치듯 지나가버리며, 드물게 인사를 나누는 경우에도 간신히 인사하거나 관에 박은 듯 형식적으로 인사하거나 귀족처럼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혹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인 목자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가? 이것이 교회의 정신입니까? 이것이 본당신부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가르칩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목활동을 했던 시기와 장소에서는 과연 어떤 결실이 있었습니까? 1789년의 끔찍한 재난(*역주- 1789년 7월 14일에 시작한 프랑스 혁명은 1799년 11월 9일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음)이 폭발하기 전에 파리에서 유행되었던 것만 떠올려 봐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실, 그 재난은 종교에 대한 무지와 뿌리 깊은 부도덕성이 원인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목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

고 있는 필요성, 결점, 덕성 등을 모두 알기 위해서는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게 됩니다.⁶⁾ 그 다음으로 ‘가톨릭 단체’, 특히 젊은이들의 서클과 성인들의 모임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제관에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맞아들임으로써’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들어줌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요청 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c) 모든 사목활동에서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성사생활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제는 사목계획을 세울 때 영혼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것이면 아무것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물질적인 일, 선거, 농사, 음악, 체조 등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 계층, 지식인 계층, 예술가 계층, 노동자 계층, 농부 계층, 젊은 계층, 성인계층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하여 다르게 각각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일을 하면서 사제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최종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들을 성사생활로 이끈다는 최단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과 영혼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적어도 일치활동이 시작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치를

5) SACROSANCTUM CONCILIUM TRIDENTINUM(트리엔트 공의회), sessio XXIII(23차 회기), 「Decretum de Reformatione」(교회개혁에 관한 헌장), caput 1, in J. D. MANSI (a cura di), 「Sacroru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공의회 문헌 수록집), vol. XXXIII, Akademische Druck, Graz 1961.

6) 본당신부와 가정 사이의 관계: ATP, nn. 127-134 참조.

얻지 못한다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외관적인 것, 감상주의, 과시할 것은 얻겠지만, 참된 종교심은 거의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하루 만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들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접근하기 86 도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성사를 베풀어야 할 죽음의 순간에야 겨우 그러한 일치에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성사에 참여토록 하지 않고 몇 차례 연중 코스를 통해 인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여 모든 노력과 영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d) “대중 전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지역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사목활동을 할 때 이와 관련해 아주 잘못된 점이 눈에 띕니다. 본당신부가 신심 깊은 소그룹, 피정 그룹, 양로원, 병원의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가 아주 긴 시간 고해성사로 사제를 묶어두고, 시시한 일로 수천 번 방문하거나 또는 매순간 본당신부 협담을 해대고, 자주 자기 집으로 본당신부를 초대합니다. 이러한 일은 아마도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서로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할 것입니다. 본당신부를 더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당신부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름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

니다. 노동자 무리이고, 여직공 무리이며, 소위 지식계층이고, 지배계층이며, 불운한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셨을 사람들입니다. 뿌리 깊은 선입견이 많은 악을 일으킵니다. 노동자, 직공, 교육 받은 이들은 본래 종교를 중오할 것이라고 믿거나, 또는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만 87 붙잡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는 데 익숙해져 있거나, 또는 종교가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어려움, 투쟁, 유감스러운 일과 부딪치지 않으려는 안이한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대중을 위해 일하고, 침착하지만 강인하게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지혜로운 열성 등을 비판하는 사람 앞에 저항할 용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본당신부 소질이 있고 본당신부의 성소와 자세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당신부는 모든 이의 목자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안전한 아흔아홉 마리 양을 놓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안전한 양들이 ‘pusillus grex’⁷⁾이고 잃어버린 양들이 더 많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당신부는 자기 본당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모두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처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 자주 기도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아버지처럼, 필요한 것이 가장 많은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고, 좋

7) 루카 12, 32: ‘작은 양 떼.’

은 의사처럼, 가장 위중한 병자를 더 많이 보살피야 할 것입니다.
“Veni salvum facere quod perierat.”⁸⁾

한 가지 ‘예’ 를 들어보는 것이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본당에서 신심 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매일’ 영성체를 하는 사람

88 이 늘고 있지만 신자 전체적으로 부활절 영성체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당신부는 분배된 성체를 계산하
고 나서 자기 본당의 영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기뻐합니다! 이는
진정한 표지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며, ‘전체’ 신자를 목표로 삼
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적합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열렬한 영혼의
목자가 본당의 신심 깊은 사람들(150명)에게 보름이 지나기 전에
는 고해성사를 보지 말도록 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시
간을 나머지 신자들에게 할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늘 그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목활동을 할 때 알아야 할 일반 원칙들입니다.
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다음에 이어질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
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사항들도 따지고 보면 이러
한 원칙에 따라 전개되고 적용됩니다.

누군가 더 광범위한 설명과 교도권의 가르침을 보고자 한다면

8) 루카 19, 10: “Venite enim Filius hominis quaerere et salvum facere quod perierat - 사람의 아
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카타네오가 번역한 스보보다(Swoboda) 몬시뇰의 「대도시에서 영
혼 사목」(La cura d' anime nelle grandi città)⁹⁾이라는 훌륭한 저서를 읽으
면 충분할 것입니다.

Cav. P. Marietti - Torino에서도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장

9) 저자 색인 참조.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한 성직자 일반 규범

1. 열성과 지혜의 조화. - “이미 지혜는 무기력한 모든 사람들의 핑계가 되어버렸고, 열성은 모든 무분별함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예! 그 사람들은 젊고, 어제 태어났고...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지만, 열정이 식고 말 것이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뿌리 깊은 타성을 덮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없이 안이한 정신... 등을 커버하려는 표현입니다. 다른 한편 노인이나 아주 조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처럼 순하게 보이면 늑대 같은 강자에게 먹힌다.”(*역주 이탈리아 속담) 이렇게 말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미명 아래, 어떤 충고도 듣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으며 행동에 투신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은, 열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분별함을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다.

연구하고 기도하며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상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면 장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단념하고 미루고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믿고 항상 두려워할 정도로 영원히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선은 지루함, 방해, 불편을 수반합니다. 성무일도를 바치고, 미사를 드리고 인간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언제나 불완전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확실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아무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성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업적을 인정해주기를 기대하셨다면 그들은 위대한 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자체로도 좋고 전체적으로도 좋을 때, 장상이 승인할 때, 용기를 가지고 항구하게 행동하고 투신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직무에는 온갖 방법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열성입니다.” 그러나 열성을 가졌다고 스스로 장상들의 선생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성을 가졌다고 상황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어

떠한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되는 대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노인은 지혜를 가졌고 젊은이는 힘을 가졌다고 들 합니다. 일치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고, 분열은 모두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모든 것을 붕괴시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겸손해야 하고 충고를 청해야 하며, 노인은 젊은이의 에너지를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2. 선을 선택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은 것을 선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들에 대해 물질적인 도움과 윤리적인 도움을 주며 지원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들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에게 새 협조자가 없어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종종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호감을 덜 느낍니다. 그러한 일들은 드러나지 않고 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거나, 더 큰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이거나,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 아니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사제는 ‘coeteris paribus’ (다른 조건과 똑같다면) 같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더 선호해야 합니다. 더 넓은 선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이점을 가질 것이요, 하느님 앞에서

더 큰 공덕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으로 기우는 경향이 없어질 것입니다. 90

3. 사용한 수단들, 패배한 방법들과 승리한 방법들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경험도 활용해야 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경험을 얻기 위해서 아주 긴 세월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당히 분별력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가끔 아주 긴 시간에 걸쳐 터득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개월 안에 더 많이 배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서로 유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자주 다른 이들의 경험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모으고 묵상하며 규칙을 깨닫기 위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해본 주요 수단들, 얻은 결과, 체득한 깨달음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목 일기를 쓰는 분당신부는 아마 10년 동안 책으로 공부한 것보다 1년의 사목활동을 통한 경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제직무 안에서 항상 이성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제 생각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종교는 신부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종교는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윤리규범을 설명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제에게는 책이나 신문 읽기를 금지합니다. 가끔 그는 악한 정당에 대하여 선한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에게 이 책 읽기를 금지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이러한 독서가 신앙심을 감퇴시킬 수 있고 윤리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책을 읽고난 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지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인 참된 발전에도 맞설 것이 아니라 늘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전화시설, 전기시설, 전차노선 등과 같은 좋은 계획들에 온화한 호감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 ‘laudatores temporis anteacti’ (과거에 대한 향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제는 하느님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식층으로부터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 대중적인 교육과 과학에 대해서도 친근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제가 변호사에 대하여, 의사에 대하여, 교

사 등에 대하여 자주 험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오늘날 모두가 알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과학의 원수란 말입니까? 결국 교육받은 사람은 자연히 반종교적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이 많아지면서 좋은 수단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종교를 알게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읽으면 유익한 책을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강론할 때에는 독설을 배제해야 하고, 결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애쓰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던 실천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거나 또는 모두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말에 상응하여 행동하게 되었다고 자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조용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과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긴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속이 비고 감상적인 신심주의가 아니라

92 훌륭한 삶이요, 종교의식 덩어리가 아니라 덕성의 총합이며, 기도 도와 성사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욕정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고, 종교생활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 가능하면 본당신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 이러한 점은 특히 북이탈리아의 성직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거의 모든 본당신부들이 보좌신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나아가 많은 교육담당 사제들과 성직록을 받는 성직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공동생활은 많은 희생을 수반하고 ‘우연한’ (per accidens) 작은 불편들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얻는 점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삶은 선의 아주 강력한 수단인 행동의 일치성을 가져오고, 슬픔과 낙심의 원천이 되고 때때로 죄의 원인이 되는 성직자의 고독을 방지하며, 생활비를 절감하고 ‘quod superest’¹⁾(남은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해 줄 뿐 아니라, 물질적인 근심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활동에 현대적인 방향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 종교, 교의, 윤리, 수덕은 변치 않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깊숙이 침투하고

1) 마르 12, 44: ‘풍족한 데에서’ 또는 ‘넉넉한 데에서’

시대의 요청과 사회계층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연한 발전을 수용하였고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10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의’ 세상과 사람들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너무 과장한 나머지 어제 사용한 수단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과장된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톨릭 교의, 가톨릭 윤리, 가톨릭 수덕을 숨기거나 부정하기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 93
지만 인간들의 잘못으로 무언가를 남용했다 해도 그 남용이 그 일 자체의 악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천적인 단계로 내려가 이것을 살펴봅시다.”

고아원, 요양원, 양로원, 기숙사 등에서 교육할 때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앞에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시설에서 나온 젊은이가 비록 수도자나 성직자로부터 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이보다 세상에서 더 못한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과장된 언급이지만,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교육자들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교육자들이 너무나 자주 이들을 ‘억압하고’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삶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너무 많이

가르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통한 ‘윤리의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원칙들, 영원한 진리를 깊이 던져줌으로써 윤리의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피교육자들의 미래 처지에 적합한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윤리의식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진영으로 나뉘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사제와 평신도를 조직하는 교회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파괴를 일삼는 집단들의 ‘방해’를 총지휘하는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적들의 교활한 술책, 젊은이들을 향한 계략, 앞에 내세우는 감언이설, 교회를 대항하여 퍼붓는 비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는 하느님의 도시, 선

94 을 위한 정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거룩한 동기로 일하도록 훌륭한 원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수단들을 그들에게 자주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두 편이 대립한다는 말만 하면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근면하게 훌륭한 전투에 임하도록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론과 권고를 통해 마리아의 딸들(Figlie di Maria)²⁾, 루이지회(Luigini)³⁾,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제3회⁴⁾ 등과 같은 수도

단체를 돌보게 될 때에는, 오늘날의 요청과 위험에 관하여 강조해야 하고, 회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상황 안에서 성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며, 오늘날 어떻게 열성을 다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요청에 따라 고대 수도 단체의 목적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덧붙여 말했습니다. 제3회의 형제애는 오늘날 나쁜 신문을 없애버리고 좋은 신문을 보급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혼을 위한 법률계획에 대항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학교 내 종교교육 철폐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촉진시키는 책임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리교사를 육성하고 기도모임 등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모들을 늘리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2) 규율수도자의 성직자 신심회(Pio sodalizio dell' Ordine dei Canonici Regolari). 12세기에 복자 피에트로 데 호네스티스(Pietro de Honestis)가 포르토 아 라벤나(Porto a Ravenna)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 안에 ‘마리아의 아들과 딸 회’(Pia Unione dei Figli e delle Figlie di Maria)를 설립하였다. 비오 9세는 이 회를 대사와 특권을 통해 풍요롭게 하였고 1870년 2월 4일자의 ‘소칙서’를 통하여 수위권 직속 통합(Unione Primaria: *역주- 으뜸가는 회라는 뜻이지만, 천주교 용어집에 의해 Unione는 통합으로, Primaria는 교황청을 이르는 수위권으로 번역)으로 승격시켰다. F. DEL PIANO, 『Manuale delle Figlie di Maria』(마리아의 딸들의 지침서), Ed. Santa Lega Euacaristica(성체성사 연맹), Milano 1902 참조. ‘Compagnie delle Figlie di Maria’에 관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 BUGNINI, 『Figlie di Maria』(마리아의 딸들), EC, V, 1954, pp. 1270-1273.
- 3) 루이지니 회(Pia Unione dei Luigini)는 성 루이지 곤자가에 대한 신심과 성인의 표양을 본받음으로써,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교 덕의 실천에 봉헌토록 하며, 거룩한 종교에 대한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회원은 회의 회규와 규칙을 알아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E. NADDEO, 『Il vero Pastore d' anime』(영혼의 참된 목자), Ferrari, Roma 1922, pp. 270-273 참조.

원칙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문제는 사제의 활동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각자 그러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당신부의 계획을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 교회 안에 세워진 으뜸가는 조직은 바로 본당입니다. 본당신부는 직무상 본당의 권리와 의무상 중재자입니다. 다른 사제들은 다소 직접적으로 본당신부의 협조자들입니다. 교육담당 사제들이거나, 담당 사제이거나, 성당담임이거나, 원목이거나, 병원, 교아
95 원, 교도소의 영적지도신부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신부들 모두 협조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본당신부의 팔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충고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본당신부는 자기 본당을 운영하는 데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그가 자기 협조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의 특수 의무에 따른 필수적인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본당신부는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당신부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지침이나 공개적인 불화는 영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사람

4) 신자들이 수도 조직과 형제회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12세기에 눈에 띄게 늘었다. 프란치스코 제3회는 1221년에 시작된 조직으로서, 1221년에 첫 규칙서를 가졌다. D. CRESI, 『San Francesco e i suoi Ordini』(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 성직 수도회), Ed. Studi Francescani, Firenze 1955, pp. 281-285 참조.

들을 분열시키며 모든 성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아랫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느님과 백성 앞에서 항상 가장 훌륭한 일은 바로 일치입니다. 삶의 모든 경우에서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8. 선을 위한 몇 가지 전략.

1)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구호품을 분배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 최근에 죽은 이들의 이름을 큰 글씨로 써서 성당 뒤편에 게시합니다. 신자들이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고 구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 시골의 여러 지역에 구조물을 세우고, 가정집 담벼락에 성화를 걸게 하여 언제나 좋은 생각을 깨우치게 노력합니다.

4) 선행을 실천할 적절한 기회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그에게 영성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슬픔에 잠겨있을 때 좋은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유순해집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위로를 받았을 때 더 긍정적으로 교정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만일 신심실천을 소개하는 일이라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96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공적인 고통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등입니다.

97

9. 여러 교정자를 가져야 합니다. - 교정해주는 말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이 신부는 강론은 잘 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텐데! 다른 신부는 영성적으로 자기 신자들을 육성하지만, 이익이 되는 일은 저버리고 마는군. 셋째 신부는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구먼 등.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잘못을 지적해주는 2명의 교정자를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벌써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 명이 될수록 훨씬 도움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직무를 관찰할 수 있고 한 사람이나 한 부분을 교정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을 지적해줌으로써 더 많은 결점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해보신 분들만 이러한 모든 방법이 유익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겸손이 요청됩니다. 더구나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입니다.

3장 사제의 관계

서언. - 사제는 영혼의 낚시꾼으로 세상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의 빛을 통하여 비추어져야 하고, 세상은 사제의 거룩한 직무를 통한 은총의 소금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사제는 아주 훌륭한 사도이므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제할 줄 알게 됩니다. 그가 맺는 관계는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거룩한 관계여야 합니다.

신부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새삼 되풀이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Mitto vos sicut agnos in medio luporum...: estote ergo prudentes sicut serpentes et simplices sicut columbae...”¹⁾ 이 말씀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요, 되는 대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기롭고 순박해지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구분. - 사제는 자연적인 경향, 환상, 관심, 명예, 또는

1) 마태 10, 16: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더 나쁜, 천박한 정욕에 있어서도 관계의 질과 양, 관계의 가짓수, 빈번도, 방식과 한계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와 사람들의 영혼에게 악마의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제 원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영혼들을 위한 지혜롭고 열정적인 열성만을 완전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관계들은 사제들과의 관계와 신자들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고, 그 대

98 신에 오로지 영혼들의 구원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만 다루게 됩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본당신부와 보좌신부의 관계

보좌신부에 대한 본당신부의 처신 - 본당신부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곧 “장상이요, 아버지며 힘든 일의 동료입니다.”

‘장상’ 으로서 외적 직무의 진행상황을 통제할 의무와 권리를 지닙니다. ‘외적’ 직무에 관해서는 보좌신부에게 폭넓은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해성

사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좌신부의 직무 진행상황을 통제해야 하지만, 맡은 일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보좌신부가 정말 바른 정신 상태가 아니라면, 폭넓게 자유를 허용하는 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의심에 찬 경계, 너무 세밀한 명령, 계속적인 불신은 모든 열성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킵니다.

장상으로서의 권한은 보좌신부가 느끼지 않게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명령조의 지시를 일절 하지 말고, 봉사자를 통해 지시를 내리지 말아야 하며,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명령투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좋은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좌신부에게 결코 명령하지 않는다.” “보좌신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충분히 알아야 해.” 그 대신에 예를 들어 ‘무엇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늘 청하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주 권할 만합니다.

본당신부는 보좌신부에 대하여 철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그를 바로 잡아줘야 하고 공적인 장소에서는 결코 아랫사람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심각한 결점이 있다면, 아주 확고한 사랑과 신뢰로 주의를 줘야 합니다. 만일 고칠 수 없다면 은밀히 주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99 본당신부가 상사로서 가지는 우월권을 보좌신부의 개인적인 일들에까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잡을 지나친 일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젊은 사제에게 있어서 크게 잘못된 일 중 하나가 할 일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종종 한 사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당신부는 이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신부님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이 점에서 약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임 사제들 중에는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당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보살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성가수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보좌신부에게 특별 강론을 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윤리신학 등을 그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좌신부의 자질과 능력을 발견해 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그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 활동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봉사자들이 하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장작을 꽤게 하거나, 포도주 저장창고에서 일하게 하거나, 물을 운반하게 하거나, 요

리를 시키는 것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봉사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친구 사이에 하는 봉사처럼, 그리고 사제 품위에 걸맞은 봉사 같은 것은 몰라도,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고하는 ‘동료’처럼 보좌신부를 격려하고 특히 공동으로 완수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믿고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보좌신부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미래 직무 전체의 열성과 방향지침에 다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첫 경험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막 배출된 젊은 보좌신부는 어떤 형태로도 빚어질 수 있는 밀랍과 같습니다. 또 본당신부가 그 틀입니다. 본당신부의 강론하는 방식, 사제관에서 생활하는 태도, 열성을 실천하는 방식 등에서 본받습니다. 본당신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어느 누구도 완전히 본당신부를 본받는 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당신부가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젊은 동료의 직무 중 대부분이 그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과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열성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고, 모범적인 강론을 하고 고해성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사목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절한 때 지적해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하는 등 얼마나 많이 배려해야 합니까!

보좌신부와 직무에 관해 자주 상의하는 것은 아주 유익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거나, 산보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가르쳐주고, 본당생활을 하면서 크게 유의할 점과 전체 신자들의 기질과 특별한 신자들의 성격 등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의 제안, 관찰내용 등을 경청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기조차도 무엇인가 유익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실천하려는 열망이 있고 하느님께 빛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를 잘못을 저지르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애정이 부족하다는 표시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그를 비판하거나 봉사자가 그를 아랫사람 다루듯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 신자들이나 다른 동료들이 그에 대하여 험담 또는 비판할 때 그를 지켜주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한 일에 대해 한 번도 칭찬하지 않는 것,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에 대하여 결코 만족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모두 애정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아버지처럼.’ - 본당신부는 보좌신부를 사랑해야 하고 그의 사랑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a) 주거지와 식사,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마련해줄 때 사랑은 드러납니다. 결코 자신보다 못하게 대우를 하지 않고, 예의상 더 나은 처우를 해줘야 합니다. 식사를 예로 들면 본당신부가 경

제적인 이유 또는 건강상 이유로 가정용 포도주(*역주- 비넬로 <vinello>)는 이탈리아 농가에서 포도를 팔고 남은 찌꺼기에 물과 설탕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를 즐기더라도, 보좌신부가 중대한 희생을 치르고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런 식생활에 적응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 통상적인 일을 할 때에 보좌신부에게 복종하도록 봉사자에게 지시해야 하며, 신자들과 제의실지기에게는 보좌신부를 본당신부와 똑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해두어야 합니다.

b) 보좌신부에게 결실을 맺지 못할 정도로 버거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좌신부에게 보직을 바꾸는 것이 좋거나 본당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면,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일에서 그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본당신부에 대한 보좌신부의 처신 - 만일 본당신부가 손윗사람이라면 보좌신부는 그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그는 본당신부의 활동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본받아야 합니다. 본당신부가 자기 생각과 경향을 강조하고 그것에 입각해 자신의 지침을 내리는 것은 쓸모없고 헛된 야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화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본당신부

가 모든 책임을 지므로 보좌신부는 그에게 맡깁니다. 본당신부는 고정적이지만, 보좌신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쉽사리 새 방법을 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당신부가 노령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직무를 태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보좌신부는 열성과 거룩한 지향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장상이나 적어도 성덕이 출중한 고해신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일러주는 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말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열성처럼 보이는 것이 무분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 보이는 활동들도 안정성이 없다면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훌륭한 정신을 가진 보좌신부들이 그 전에 했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가장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본당신부의 영혼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보좌신부는 우연한 기회처럼 자기 견해나 지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단순하게 언급하거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동의 일치는 보좌신부가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할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1) '시간의 희생.' 아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당신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본당 신부가 원하거나 기회가 되면 지혜를 발휘하여 사목방문 때 동반하고 산보도 같이 합니다. 2) '자기애의 희생.'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일에 대해 칭찬할 기회를 본당신부에게 돌리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일에 충고를 청할 정도로 기지를 발휘하고, 지역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강론하기 전에 먼저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해야 할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고 강론 후에는 실수가 없었는지 지적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3) '편안함의 희생.' 본당신부의 숙식 방법과 시간표 등에 맞추도록 합니다. 나아가 본당신부가 원하는 모든 일을 미리 알아서 하도록 노력하고, 정말 아주 불편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반적으로 불일치가 본당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훌륭한 사목생활을 위해서 나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말의 희생.' 결코 봉사하는 사람이나 신자들, 동료사제들에게 불평하지 않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아가 아주 뚜렷한 잘못이 아니라면 언제나 본당신부를 지지하고 변명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능한 한 강론대와 사석에서 본당신부를 치켜세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제대] 앞에서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발치 앞에서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수고하는 동료’이지만, 보좌신부는 더 귀찮은 일을 하겠다고 각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자들을 위하여 밤에 일어나야 하는 일, 아침 일찍 성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일, 불편한 미사를 거행하는 일, 본당신부가 맡기고 싶어 하는 직무를 수락하는 일 등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이행하도록 연구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본당신부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봉사자, 제의실지기, 신자들에게 불만이 있거나 꾸중할 일이 있다면 본당신부가 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만일 본당신부가 그들을 감싸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본당신부는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보좌신부는 그를 아들의 도리로서 사랑해야 하고 그의 고민에 대해 위로하며 필요한 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본당신부가 병에 걸렸을 때 도와주어야 하고, 그가 가진 결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나 그 자신에게나 해롭고, 정말 고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결점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좌신부는 하느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성찰하고 긴 시간 기도를 한 다음, 고해신부에게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고해신부의 조언을 구한 후, 비밀리에 장상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상들의 의견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강하지만 부드럽

게’ (fortiter et suaviter: *역주- ‘태도는 부드럽게 행동은 깨끗하게’ 라는 라틴어 명언) 해야 합니다.

또 보좌신부 자리를 옮기려는 부적절한 열망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에서든지 십자가와 불행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결점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소임지에 적응할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사리 애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본당신부와 인근 본당신부의 관계

인근 본당신부들 간의 순수한 일치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커다란 선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만나면서⁹⁾ 불화로 인해 많은 해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4

A) 일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목신학의 주제에 관하여 사제들끼리 자주 의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액션의 명칭을 정하는 일, 시의 권위기관과

2) ‘만나면서’ (all’ incontro)라는 표현은 ‘반대로’ (al contrario) 또는 ‘상호간’ (viceversa) 대신에 사용한 표현이다.

106 의 관계 등과 같은 사제의 외부 활동에 관한 내용이나, 같은 죄를 반복하는 고백자들을 다루는 방법, 춤추러 자주 가는 여자아이들과 같은 사제의 내부 활동에 관한 내용도 의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려진 일을 다루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목 강연회를 개최해 두세 명의 사제에게 실천적인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고, 1시간의 성체조배를 공동으로 바치며, 신자들과 함께 성체조배를 할 수도 있고, 각자 조금씩 회비를 걷어 경비로 씁니다. 경험을 한 곳에서는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2.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동료사제 중 가장 연장자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교와 장상들에게 문제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성직자가 부족하고 큰 일을 치러야 할 상황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피정에 들어가야 할 때 서로 도움 필요가 있고, 어른들을 위한 고해성사나 어린이 고해성사, 장엄미사 의식 등의 경우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 알폰소께서는 가까이 있는 신부들끼리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서로 바꾸어 고해성사를 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부 사제들이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피정 지도나 성시간 강론 등을 서로 바꿔가며 하고 있는 일부 본당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본당들에서는 지구장

신부가 각 사제들에게 농사, 알코올중독, 교리교육 조직 등과 같은 특별주제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과제를 주어 경쟁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부가 각자가 맡은 분야를 연구한 다음 모든 본당으로 돌아가면서 경우에 따라 강론, 수업, 강연 등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고와 경비지출을 줄이면서 성직자끼리의 화합과 신자들의 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5

4. 가끔씩 서로 왕래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큼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요란한 식사와 너무 잦은 방문이 아니라, 애덕과 충고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는 방문이어야 합니다. 방문 빈도수는 필요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동료가 병에 걸렸을 때, 특히 그의 주변에 고용된 봉사자와 탐욕 많은 친지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필요에 따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환자가 극한 상황이라면 영적 도움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육체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전력을 다하여 배려하고 적절한 때 유언을 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가끔 사제가 많은 임종자들을 도와준 다음, 정작 자신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는 경우가, 소름끼치는 일이지만 실제 발생합니다.

5.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Hospitales invicem sine murmuratione.*”³⁾ 다시 말해 친근하고 순박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 초대하고 항상 잘 환대해야 합니다. 먼저 봉사자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 베드로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sine murmuration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장상에 대해, 동료에 대해, 형제에 대해 이러한 경고를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제들 사이에 이러한 나쁜 습관이 아주 공공연하고 만연해 있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B) 불화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온갖 시기심의 그림자를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거룩한 경쟁심을 가꾸어야 합니다. 만일 이웃 본당신부가 가톨릭 액션 활동, 자선사업, 열성적인 교리교육 등을 잘 해냈다면, 비록 가끔 잘못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결코 저급한 시기심, 비평, 특히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는 밑바닥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행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 일 것입니다. “Si iste et ille cur non ego?”⁴⁾ 나 또한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 본당에 필요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 할 것입니다.

2.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본

3) 1베드 4, 9: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4)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VIII, 11. 텍스트에 실린 표현은 다음과 같다. “Si isti et illae, cur non ego?”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왜 나는 안 되는가?)

당으로부터 멀리 있고 다른 본당에 가까운 마을을 돌보는 일에 관한 내용일 때, 이웃 본당신부가 다른 구역 신자들을 자기 본당으로 끌어들이려 열성을 다할 때, 우선권과 성직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권한에 관한 의문이 발생했을 때 불화를 피해야 합니다. 어떠한 권위보다 앞서 사랑과 일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애덕과 일치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권리 자체는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존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3. 본당신부와 본당에 거주하는 사제들과의 관계

이들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뤄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본당 사제들 사이의 일치된 행동은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오고 불화는 아주 큰 파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본당신부는 ‘자신에게 속한 신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온갖 전략으로 그들을 부추기며 그 신부들의 모든 다양한 성향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제들도 그들 편에서 ‘모든 사목활동의 중심이 본당신부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몸의 지체가 머리에게 하듯이 본당신부에게 운운 107 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한 본당에 있는 사제들을 여러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합니다. 시골본당 '담당사제', 자기 성당이 있거나 또는 없는 '성직자', 교육담당사제, 자기 직무가 없는 '사제들', 다시 말해 원장들이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이 모든 이들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존경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순명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권한을 갖는 본당신부는 그들을 감독하고 바로잡아주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주교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신부는 이 모든 일과 모든 이들을 사랑과 지혜로 대해야 합니다.

'담당사제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직무의 본질상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교회회의의 법령에 의거해서도 이 신부들은 본당신부에게 순명해야 하고, 그의 협력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사제 직무에 '전념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들에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자들 교육과 성사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

109 자들에게나 담당신부에게나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영혼들이 파멸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양쪽 모두 조금씩 희생하면서 모든 것이 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협상을 통해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담당 사제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들 또한 본당신부에게 순명해야 하고 직무 수행을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이들이 본당신부의 진짜 십자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맡은 책임이 없는 사제들', 이른바 원장들에게는, 위에서 교 108 육담당 사제들에 관해 언급된 내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 본당신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고, 특히 본당신부와 대립하는 정치 권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본당신부를 잘 보필해야 합니다. 불화는 모든 사목활동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또한 종종 쓸모없는 이유와 우스꽝스러운 외교집에서 불화가 생겨난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그러므로 훌륭한 본당신부가 되려면 마찰을 일으키는 모난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권위적인 행동은 모두 그만두고, 온갖 시기심과 질투심은 멀리해야 합니다. 선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이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존경심과 애정을 드러내야 하고, 그의 사목 활동 무대 안으로 그들을 'sensim sine sensu'³⁾(깨닫지 못할 정도로) 끌어들이야 합니다. 프로젝트 중 일부를 맡도록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강론을 하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시작한 활동이나 이제 시작해야 할 활동을 그들

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의 영적지도와 같은 일입니다. 가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목받는 활동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있고, 잘 이루어낸 일에 대해서는 칭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을 혼자 해낸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항상 소원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져버리거나 본당신부와 전

110 생을 일으킬 기회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좋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inter te et ipsum solum.”⁵⁾(단둘이 만나)라는 원칙입니다. 자기 수하 신부들의 영혼을 얻은 본당신부는 본당의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최상의 교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심이 부흥할 것이며, 성체성사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고, 가톨릭액션이 활성화되고, 장엄한 전례의식을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4. 사제와 평신도, 본당신부와 친지의 관계

사제가 성품성사를 받더라도 본래의 유대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5) M. T. CICERONE(키케로), 「De senectute」(노년에 관하여), 11: ‘insensibilmente’ (느낄 수 없게) 참조.

6) 마태 18,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다. 하지만 사제는 공동선을 위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사제는 공동선을 위하여 사적인 선을 희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지들과도 본당신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친지들은 본당신부에게 진짜배기 위험이요 걸림돌입니다.” 구별하자면, 앞에 언급한 위험이 되는 사람들은 ‘사제관에 있는 친지들’ 이요, 뒤에 언급한 걸림돌은 ‘사제관 바깥에 있는 친지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지침으로만 여겨지는 시노드에서 규정한 법규에 따르면 (적어도 많은 교구에서) 경험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제관에 있는 친지들은 본당신부에게 심각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지들은 본당신부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금세 알아챱니다. 더욱이 본당신부가 자선을 줄이거나 또는 친지들이 재물관리를 하면서 일부를 끌궜 삼키거나, 또는 과도한 사치를 일삼거나, 그들의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 때문에 종종 우스꽝스럽고 요란스러운 생활습관을 보일 때는 한층 심각해집니다. 그와 같은 친지들이 끝없는 탐욕 때문에 본당을 망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특히 젊은이가 가벼운 처신으로 나쁜 표양을 보이고 심지어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며, 결혼을 빙자하여 사제관을 시시덕거리는 연애장소로 변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때 본당

신부가 강론대에서 악습을 버리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악습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백이면 백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악습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노예의 사슬을 매는 것입니다. 형제와 누이를 언급하는 것이고 특히 조카들과 매부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으며 ‘덕이 입증된’ 아버지나 어머니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당 운영에 관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분들을 본가에 머물게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다 해도 부모 중 한 분은 본가에 두고 한 분은 사제관에 모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제관에 받아들여야 할 때는 부모를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식탁에 같이 앉게 하고, 하찮은 일 등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친지를 봉사자처럼 일하게 하면서 함께 살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친척이 하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성당 재산을 취해서도 안 되며, 또는 본당신부와 함께 사는 사제들에게 장상인양 행세해서도 안 되며, 본당신부와 여행을 같이 하며 그와 더불어 온갖 종류의 자유 등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사제관 바깥에 있는 친지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가족을 망각상태에서 이끌어내어 유다의 권좌에 앉히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 당신의 자매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인 사제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기금을 나눌 때 본당신부는 똑같이 필요한 처지에 있다면 친척을 일차적 가난한 이들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며 그들의 사업과 가게에 연루되고, 형제들과 조카들의 결혼에 얽혀들게 하는지를 살펴보아 마땅히 검증해야 합니다. 유언서를 쓰거나 유언서를 대충 작성하는 일은 마땅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태만은 교회의 재산이 친지들 손에 넘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검열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트리엔트 공의회에 반대되는 일이요(capo 1, 「De reform.」, sess., 24)⁷⁾, 사제 직무에 지나친 방해로 하게 되고, 급기야 사제 직무를 2차적인 사항으로, 마지막 일로 미루게 만들어, 사람들의 비판과 악담까지 듣게 만들고, 종종 같은 친척들의 가장 나쁜 배은망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느님 111
께서 그러한 염려를 당신의 징벌을 통하여 드러내신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종종 신부들이 연결해준 결혼생활이 파탄으로

끝나고 유산이 분쟁, 불화, 악습으로 낭비되고, 급기야는 가족의 재산까지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⁸⁾라는 말씀이 좋은 규칙입니다.

5. 본당신부와 봉사자의 관계

사제관에 적합한 봉사자를 찾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봉사자가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자* (역주- 식복사, 가사 도우미 등의 표현이 더 알맞을 수도 있음)에게는 완전히 검증된 덕이 요구됩니다. 지성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말할 때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고, 지혜로우며,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제관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믿고 일을 맡김으로써 직무에 더 충실해질 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일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봉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봉사자를 만나게 되면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봉사자 직무와 관련해서는 자유를 주어

7) SACROSANCTUM CONCILIUM TRIDENTINUM(트리엔트 공의회), sessio XXIV, 「Decretum de Reformatione」(개혁에 관한 교령), caput 1(제1장), in J. D. MANSI (a cura di), 「Sacrorum...」, op. cit. 참조.

8) 루카 9, 60.

야 합니다. 그래서 경비지출, 주방일, 양계장, 밭 등에 관한 아주 작은 일에 봉사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 봉사자가 사제관에 거주하는 사제들을 경애한다면 항상 존경심으로 말할 것이고, 성사생활에 열성을 다한다면 좋은 표양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자기 본분을 지킬 것이고, 본당신부는 훨씬 쉽게 신뢰하게 될 것이고, 신자들과 사제관 성직자의 사랑과 본당의 사랑뿐 아니라 인근 지역 모든 사람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⁹⁾

(이 점에 관한 다른 사항들은 다른 곳에서 언급하였습니다.)

6. 본당신부와 권위기관의 관계

의심할 여지없이 본당신부는 지역에서 최고 권위를 가집니다.

9) 알베리오네 신부를 상기시키는 최근 수도단체들 중 하나가 본당 안에 있는 ‘성직자의 가족’을 위한 ‘Ancilla Domini’ (주님의 여종) 단체이다. 설립자는 개인적으로 한 젊은 여성에게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녀가 회의 첫 지원자가 되어 그 회를 시작하였고 ‘예수사제회’가 운영책임 맡았다. 새로운회는 트리에스테(Trieste)의 주교인 에우제니오 라비나니(Eugenio Ravnani) 몬시뇰의 교령을 통해 1997년 6월 1일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푸리오 가우스(Furio Gauss, IGS) 신부가 영적지도를 맡았다. 2001년에는 회원이 131명에 이르렀다.

본당신부에게 사목활동의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권위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지고한 직무에 관한' 그의 뜻에 온순하게 순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당신부에게 여러 가지 미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의 순전히 물질 관련 일에는 통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된 도움말을 주거나 관리들이 하느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르치거나 사제관에 거주하지 않는 사제 등이 중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당신부의 참된 사명은 '그와 같은' 하나의 파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다리 건설을 준비하거나 [또는] 청사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성적 이해득실을 따져 그가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프로젝트가 '모든' 대중의 감동을 끌어내는 일이라면, 비단 간접적으로만 도덕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일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대신 그 일이 반목, 파벌, 불화를 조장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또한 납세자 중 한 사람인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나쁜 재물관리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영적 피해나 생길지도 모를 영적 손실을 무릅쓰면서 '다만 물질적 이득'만 따져야 한다면 영성적 이득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당신부는 가능한 한 관리들, 특히 그들이 영향력 있고 정직한 관리들이라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마땅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고, 적당한 기회에 칭찬도 하면서, 사제들이 참석하기에 적합한 자리라면 그들의 파티와 점심 초대를 수락하고, 그들 또한 교리경연 대회 시상 자리나 예를 들어 사목방문, 축일 파티 등과 같은 중요한 기회에 갖게 되는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영성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가 생긴다면, '격론'을 벌이거나 강론대에서 풍자하고 신문에 기사화하기 전에 먼저, 중개자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호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불화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실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으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칩니까! 만일 좀 더 앞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사적인 기회를 활용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서', 관리들에게 직접 선을 베풀 수 있다면, 그들은 본당신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이 쓸모가 없고 사람들의 영적 선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당신부가 감수해야 하거나 또는 공개적인 투쟁을 벌이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악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사제나 본당

신부는 혼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조언, 특히 장상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언을 통하여 사제는 그가 바라는 바가 사람들 간의 싸움이나 재물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양심과 영적 선을 이루고자 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투쟁임을 분명하게 114 밝혀야 합니다. 강하지만 동시에 관대하게 임해야 합니다. 악담을 해서 안 되고, 적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득의양양해서도 안 되며, 보복해서도 안 됩니다. 패배하였다면 굳셈의 모범과 희생 정신을 보여야 합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들조차 너무 자주 교회 안에서 보이는 덕과는 사뭇 다른 더 많은 겸손과 극기 정신을 요청하는 '사회적 덕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면 선으로써 악을 이길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 본당신부와 교사의 관계

교사들이 젊은이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은 시간에 또 많은 116 시간 동안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학문을 통하여 신앙과 윤리를 가르치거나, 또는 종교와 반대되는 내용과 부도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생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당신부와 그들이 일치할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 시대를 지탱하는 법과 정신은 무신론적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반대됩니다. 본당신부와 모든 사제는 이러한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본당신부가 지자체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는 일은 영적 이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선생들을 선발할 때 양심의 규칙을 따르는지 분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모두 그리스도교 신자 교사들을 뽑아야 합니다. 노조와 이사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제는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자기와 연결해야 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지휘해야 합니다. 사제가 작전을 세워 경쟁자들에게 어떤 교사의 좋은 수업원칙을 소개하도록 하면, 이러한 거룩한 사업에서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강론과 아마도 긴 세월의 열성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선택되더라도 사제는 그와 가장 친밀하고 진심어

115 린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문, 점심, 칭찬, 초대, 기부 등도 필요하고 종종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몸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아마 가끔씩 어떤 악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존경심과 호의를 많이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략을 통하여 그들 사이에 최상의 활동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침범하는 일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기술을 동원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작은 양 우리에 약탈을 일삼는 늑대가 되는 선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장상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긴 시간 ‘전략을 짜고, 배치를 잘 하고’, 다시 말해 전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해를 끼치는 일을 못하도록 하거나 그를 멀리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해를 끼치는 일을 못하도록 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명예로운 자리에서 종교적인 담화를 하도록 하거나, 운동서클을 맡겨 그에게 좋은 활동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거나,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차적인 일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하고, 조용히 처리해야 하며, 때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을 지키면 스캔들이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독설을 내뱉어야 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코 강론대에서 ‘격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변화를 바라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사랑과 열성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덕망 높은 본당신부는 좋은 교사들을 두기 위해서는 사제들이 좋은 화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은 독일 음악을 통한 화음이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세 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위험이란 곧, 사람들의 뜬소문, 사제에 대한 윤리적 손해, 교사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나이자 더 많은 나’ (alter ego et amplius: *역주 아마도 교사들이 사제를 거명하며 마치 권한대행을 하듯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음)로서 행할 자유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신뢰가 남용될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8. 본당신부와 제의실지기의 관계

제의실지기의 직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아 보이지만,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궁정에서는 어떤 봉사도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당신부는 사목활동을 하면서 그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제의실지기가 훌륭한 삶을 산다면 좋은 표양이 될 것이요, 만일 성당에서 헌신적으로

일한다면 건설적인 일이 될 것이고, 만일 성당과 비품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리정돈을 잘 한다면 경비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일을 하므로 사람들이 하느님 성전에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본당신부는 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어야 하고, 성당에서 마땅한 존경심을 받도록 해야 하며 전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물을 거룩하게 다루는지 지혜롭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거나, 특히 복사 소년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성사생활을 자주 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할 것을 알리도록 시켜야 하지만 그는 '통상적으로' 본당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봉헌금을 모금하는 방법과 전달하는 방법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부당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너무 낮게 책정된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거나, 성당에는 오래된 비품밖에 없으면서도 화려한 장식을 원하거나, 또는 매순간 경고를 주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때에 종을 울려야 하고, 성당 문을 일찍 여는 일 등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도록 요청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9. 본당신부와 병자들의 관계

117

학식이 많은 사제는 존경을 받고, 강력한 사제는 두려워하며,

말을 잘하는 사제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만, 많은 사랑을 주는 사제만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사제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특히 병자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병자들을 하나의 짐처럼 여기거나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돌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만일 사제의 삶이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라면, 영혼이 영원의 문 앞에 있을 때, 영혼을 가진 시간이 조금밖에 없을 때, 악마가 마지막 공격을 하기 위해 움직일 때 가장 열성적으로 일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일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의 돌봄과 영혼의 돌봄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이고, 첫 번째는 수단입니다.

1. 육체의 돌봄. - "Quidquid fecistis uni ex his, mihi fecistis."¹⁰
 육체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 의사가 되고, 해결책과 치료 방법을 처방하고, 병의 전개상황에 관하여 확고하게 판결을 내리고, 의료 관계자가 병자를 다루듯 방문하는 등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많은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 번 중 한 번 실수해도 끝없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고 의사들의 중요성을 초래합니다.

10) 마태 25, 40: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일반적인 병에 대한 개념을 갖추고 위급한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구급에 대한 상식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제 때 성사를 베풀고, 종종 혼란스러워하고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자와 가족을 안심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의사에게 병자를 데려가서 의사 말에 따르도록 설득해 결심하게 하고, 병이 위중하고 병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성사를 받도록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병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가족은 입을 다물고, 의사는 병자를 혼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자를 속이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118 계다가, 사제는 항상 위생 수칙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농부들의 집에서는 청결을 유지하지 않고, 종종 의사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청소, 환기 등을 항상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경고문이 대체적으로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가끔 정말 실제적으로 가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나 충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제는 가난한 이들과 빵, 고기, 포도주, 담요 등을 나누어야 할 적어도 '긴박한 적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편지를 보면 정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 재산을 '가난한 이들의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제들의 수입이 이미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가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더 고통스러운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자선을 하기 위하여 자선을 요청했던 B. 세바스티아노 발프레(Sebastiano Valfré)와 다른 성인들의 표양을 상기해야 합니다. 본당에는 훌륭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120

좋다고 믿는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 안토니오의 빵의 자선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¹¹⁾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면 좋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병인이 없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사제의 부드러운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가장 필요한 봉사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복지기관에 그들을 도와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수도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에 있다면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¹²⁾ 등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버림받은 병자들을 위한 주간 및 야간 간병 단체'인 듯합니다. 이 단체는 신심 깊은 남녀(젊은 사람들은 아님)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열성

11) 성 프란치스코와 성인의 초기 동료들의 모범을 따르는, 콘벤투알 수도회는 항상 사회·사랑 활동의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가난한 이들의 빵의 자선회'(Opera del pane dei poveri)는 1887년 파도바(Padova)에서 시작하였다. G. ODOARDI, 「Conventuali」(콘벤투알 수도회), DIP, III, 1976, pp. 2-94 참조.

적인 삶을 봉헌한 미혼여성과 과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부양할 사람들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로서, 가장 불행한 병자들을 간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된 종교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믿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규칙을 지킬 때, 많이 모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들은 분명히 큰 선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본당 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소위 '수치심을 가진 가난한 이들' 이 있다면, 사제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수많은 전략을 동원하여 다른 이들의 눈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배려를 덧붙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육체의 돌봄은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바, 즉 영혼에 다가가기 위하여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세를 물으러 들어가서 병자와 그의 병과 치료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미 까다로운 병자들에게 다가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정말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2. 영혼의 돌봄. -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사제에게 있고 특히 본당신부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자주 병자들과 가족들이 병의 심각성에 대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이 '그야말로 희망이 없을 지경' 으로 믿어지면 사람들은 신부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은 도시와 일부 시골지역에 있는 사제의 활동에 끝없이 슬픈 결과의 원인이 되고 최악의 입장이 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끔찍한 시스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본성적인 태만과 병자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사랑' 을 변명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가끔은 사제 안에 잠재해 있는 태만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게으름은 불편한 시간, 밤 시간, 비가 오는 와중에 방해를 받았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또는 아직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닌데 불렀을 때 책망을 하거나, 또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초대하게 만들거나, 또는 가능한 한 병자를 건성으로 아주 신속하게 방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병자가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으로 넘어간 후에 성사를 베풀다는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게다가

1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Società di San Vincenzo de' Paoli)는 A. F. 오자남(Ozanam)과 다른 7명의 동료의 활동을 통하여 1833년에 시작하였다. 이회는 그들 거주 지역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는 일을 위하여 결성되었다. 그들의 회합에서는, 기도과 영적 독서 후에 방문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고 나누어줄 구호품을 전달하고 그들 사이에 모금활동을 벌였다. 오자남은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회를 지침 없이 알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P. PASCHINI, 『Ozanam Antoine-Frédéric』(오자남 안투완느-프레데릭), EC, IX, 1952, pp. 488-489 참조.

122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제가 병자에게 갔을 때 자녀에게 용기와 위로를 가져다주는 좋은 아버지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압박한 죽음을 알리는 선포처럼, 공포의 대상 같은 존재로, 무덤 파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장의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본당신부는 그와 같은 시스템의 가동이 중지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론대에서 자주 강론이나 공지사항을 통하여 사제를 조속히 불러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평화를 가져다주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분을 모셔가기 때문에, 사제를 늦게 부르는 것보다는 일찍 부르는 게 훨씬 낫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줄 때 언급하고, 병자들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태만한 사람들을 부드럽게 고쳐주며, 모든 것을 동원하여 조속히 사제를 부르도록 온화한 태도로 걱정스런 마음을 전해주고 부르지 않았다면 이를 알려 깨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늦게 사제를 부르는 것보다 더 큰 후회할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특별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제때에 사제를 부르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밤이든, 불편한 시간

121 준비되어 있는 신부는 청송받을 만합니다. 결코 화난 모습을 보

여서는 안 되고, 결코 병자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퍼붓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뜻과 결코 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야 합니다. 먼저 의사에게 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받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마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폐병 환자는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일피일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중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병자를 방문했다면 언제나 그를 고해성사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사를 통하여 영성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평화와 안정이라는 육체적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고 기대되더라도 가능한 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적당한 때 노자성체를 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엄숙하게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하고 가족이 동반하도록 해야 하며, 침묵의 강론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병자성사를 받기에 너무 늦지 않도록 하여 ‘빈사상태와 의식 불명 상태’의 성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병자성사는 영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하느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면, 육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자성사를 집행할 때에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적으로 묵상과 양심성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성사를 주는 것으로 사제가 영혼을 돌보는 일을 모두 마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병자사목은 여전히 유익하고 때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가끔 병자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처를 기억하고 아마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한 유혹으로부터 자주 공격받게 됩니다. 병자는 거의 항상 위로, 충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느낍니다. 병자의 상태, 거리, 병자의 나이 그리고 사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 등을 따져보고, 가능한 한 자주 병자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문이 산보를 하듯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 수가 많은 본당이라면 자신의 집무실 안에 있는 칠판에 병자들의 명단을 써두어 항상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사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병자 방문이 사람들을 알 수 있고 가족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알았다면 예를 들어 파티를 할 때, 신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항상 환대를 받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다가섬으로써 많은 전략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병자 방문이 하느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활동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가 오래 걸리는 만성질환이라면, 사제는 가

능한 한 영성체를 자주 모시라는 최근의 교황청 문헌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의 요청이나 가족의 제안을 기다릴 필요 124
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사제가 제안해야 합니다.

병자사목을 보좌신부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본당 신부가 하는 게 낫습니까? 이 일은 '우선적으로' (Per se et primo loco: *역주. 직역하면 '그 자체로 그리고 첫 번째로') 본당신부가 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보좌신부에게 전달시키는 관행은 단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본당신부가 참된 책임자입니다. 본당신부는 통상적으로 모든 사목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하고 본당에 이로운 모든 것에 전력을 다하는 영혼이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겠지만, 본당신부는 병자들에 대한 생각을 한쪽에 밀쳐놓고 소수의 '열성 신자들'이나 정원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남편은 닭장을 돌보아야 하니까 아내에게 물건을 팔고 집이나 받을 사는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본당신부가 보좌신부의 활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찍 보좌신부를 가르쳐야 하 123
고, 병자가 보좌신부를 요청할 때뿐 아니라 더 자주 보좌신부를 병자에게 보내야 하고, 가끔 병세가 급속히 나빠질 때 그리고 특히 노자성체를 모시고 가야 할 때 그를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본당신부는 모든 병자를 적합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관장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섬세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보좌신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히 보좌신부가 사제직무 초기라면 본당신부는 가끔 그를 동반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자 방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짧게’ 방문해야 하고 특히 집에 딸이나 여인들만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능한 한 ‘영적 방문’ 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쓸데없는 수천 가지 일을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제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에 관해 신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더 많이 존경을 받을 것이고 영적 이익도 커질 것입니다.

‘사제가 병자에게 유언을 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목적인 측면, 사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측면만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제가 판단해야 할 유일한 기준으로 다른 일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가족이 사제에게 병자더러 유언을 하도록 통고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병자 스스로 유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청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

지만 병자가 의당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무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유효한 법률 관례를 알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 재산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감스러워 할 수 있고 핍박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experientia docet.*”¹³⁾ 가족도 묻지 않고 병자도 묻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병자에게 대략적으로 그의 재산과 재물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유언을 하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나 다른 전례행위를 위해 남길 게 없는지 물어본 다음, 지나치게 유산에 대해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산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병자들의 두 번째 범주로’ 넘어가 봅시다. 이들은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곧 ‘무신론자들, 악습을 지닌 자들,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morieris tu et non vives.*”¹⁴⁾라고 통보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제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당신부는 약간의 시간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희생해가며 의사와

13) TACITO(타치투스), 『Historiae』(역사), I, 5-6: “경험이 가르쳐준다.”

14) 2열왕 20, 1: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의사에게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 알려주기를 부탁하고 위급할 때에는 환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알리도록 당부해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의사가 정말 사제가 병자를 사랑하고 가족 앞에서 그를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봉사를 본당신부에게 쉽게 해줄 것입니다.

일부 도시에 있는 큰 본당의 본당신부는 ‘병자들 담당 수녀들’ 과 일부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병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위급 환자들을 아는 본당신부는 의사, 양친, 봉사자들, 병자의 친구들에게 사제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병자에게 상기시키거나 적어도 본당신부나 혹시 더 멋진 다른 사제가 그를 방문하고 싶어 하고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고 병자에게 알리도록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병자가 바라는 사제를 병자에게 보내는 것은 친분 때문이거나, 또는 더 완숙한 나이 때문이거나, 학식과 지혜가 출중해 보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제를 먼 곳에서 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제를 잘 받아들인다면, 그 사제는 자신을 소개한 뒤,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방문을 통해 병자를 일반 친구처럼 대하고, 즉시 성사를 베풀지 말고, 사제 직무를 원할 때 그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

한 말을 대화 중에 약간 섞어서 환자의 마음을 맛보듯이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은총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병자 자신이 사제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가신 것처럼 대접을 받더라도, 그에게 돌아가야 하고, 수차례 되돌아가서, 죄인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것 외에 지상에서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온갖 방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급한 경우라면,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즉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127

그뿐 아니라 가족이나 병자가 성사를 거부하면 사제는 침착한 태도로 하느님께서 주신 권위와 자유를 활용하여 만일 병자가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더라도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에 있게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병이 위중해 마지막 가는 길에 있는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아주 큰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 물러나서 아주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병자 앞에 설 수 있다면, 병자가 의식을 잃었다라도 ‘조건부’ (sub conditione) 사죄경을 하고 병자에게 성유를 바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와 같은 병자들을 종종 공포에 떨게 합니다. 따라서 사제는 그 일을 쉽게 하는 거룩한 묘책을 126 짜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환자가’ 저질렀을 모든 중죄들을 언급할 수 있고, 그런 다음 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분명히 후회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모두 말씀하신 것이고, 모두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고해성사할 의향이 있지요... 용서를 청하십시오.” “당신께 사죄를 베푹니다...” 이 밖에도 다른 수많은 유사한 작전이 있습니다. 각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죄를 통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립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병이 지속되면, 나중에 환자 자신이나 사제가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와 처음에 하던 작업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병자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총괄적인 죄를 고백한 다음 편안함을 느낍니다. 의무사항을 그들에게 알려줄 때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심각한 병은 ‘중증’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10. 본당신부와 가정들의 관계

사제는, 특히 본당신부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 128 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께서는 당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러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거룩한 자부심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고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¹⁵⁾ 아버지가 된 것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영적 삶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삶을 양육했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죄로 잃었다가 보속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안전한 하늘나라에 들기까지 영혼들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영성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로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영원한 선을 위해 영혼들과 완전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일반 규범’이 있습니다.

1. 사제, 특히 본당신부는 사람들 안에 흐르는 어둠이나 감정, 즉 위험, 기쁨, 고통 등에 무감각하고 차단된 삶, 사제관의 담을 사이에 두고 거의 모든 것을 소모할 정도로 고독한 삶을 피해야 합니다. 아버지요 목자로서 그래서 안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15) 1코린 4, 15 참조.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목지는 자신의 양들을 잘 압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⁶⁾ 복음을 선포하고 경고하시기 위하여 집집마다 다니셨습니다. 거룩한 사제들은 피정과 기도의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과 맺는 긴밀한 관계 안에는 넘치는 사랑과 부지런한 열성이 함께 녹아있습니다.

2. 사제는 또 다른 지나친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즉 인간적인 목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매력적인 대화를 찾기 때문에, 그곳에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고 술병을 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위도식하고, 남을 헐뜯으며, 129 시시한 일이나 더 나쁜 일로 긴 밤을 보내거나 혹은 긴 시간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혼인성사나 세례성사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사제에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 그러한 사람들 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할 수 있을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사목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사목생활을 황폐화시키고, 두 번째 경우는 사목생활을 거의 완전히 과멸시킵니다.

이제 다양한 ‘실천 규범’을 살펴봅시다.

16) 로마 12, 15 참조.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일반적인 규칙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독일, 영국과 오늘날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도 본당신부 또는 본당신부를 대신하는 사람, 특히 보좌신부는 매년 여러 차례 모든 가정을 방문합니다. 오히려 많은 지역에서는 매월 방문하거나 더 자주 방문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방문합니까? ‘개인적으로 가정들을 알기’ 위하여,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성, 위험요소들, 종교교육 수준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안에 어떤 신문과 서적들이 있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교리교육을 위한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좋은 말씀과 충고 등을 가정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전례생활과 피정 등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에게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만큼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본당이 대개 작을수록 본당신자들을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시골보다는 도시 본당에 방문이 더 필요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수단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그와 같은 방문이 이탈리아에서도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0 a) 만일 본당신부가 각 가정과 개인의 필요사항을 ‘올바르게’ 알고 싶다면, 그리고 치명적인 환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와 같은 방문이 적합합니다. 본당신부는 신자들을 고해성사하는 좋은 습관으로 판단하거나 성당에 자주 오고 머무는 모습을 봄으로써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b) 강론 때와 고해성사 보속 때에 신자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만을 말하고 싶다면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판에 박은 듯 늘 똑같은 보속과 탁상공론 같은 강론, 책에서 자료를 베낀 강론은 청중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느낌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시간만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c) 만일 소수의 신심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특히 병이 깊어 더 이상 통증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이며 영적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전개하기를 원한다면 방문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안전한 지대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 양들을 놓아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셨다는 것을 사제는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¹⁷⁾

d)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범을 본받으려면 그분께서 영적 병자들에게 가시는 것처럼 가야 하고, 그분께서 가정에 가시는 것처

럼 가정을 방문해야 하고, 그분께서 ‘초대받지 않은 곳에도 초대 받은 것처럼’ 가시듯 가야 합니다.

e) 사람들 사이에 참된 결실을 보기를 바라다면 방문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종교적이던 프랑스를 현재 모습의 프랑스가 되게 만들었던 것은 일부 프랑스 성직자의 귀족을 상대로 한 사목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프랑스인 사제는, 자기들에게는 영위되는 ‘삶’으로서의 종교는 없고, 세례식, 혼인식, 장례미사 같은 어떤 상황에 걸치는 ‘사치스러운 옷’ 같은 종교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음악 밴드를 초대하듯 신부를 초대하며 성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갖춰야 할 비품을 채우기 위해 초대합니다. 그러나 개인, 가정, 국가는 실상 종교가 없는 관습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좋지 않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제보다 더한 열정으로 못된 생각을 품고 대꾸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1

근본적인 악을 치유해야 하고, 집에 들어가, 심문하는 사람처럼 기다리지 말고, 아버지로서 연구하고 검토하며 메모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신문을 바꾸어나가거나 또는 적어도 나쁜 신문 옆에 좋은 신문 하나를 두는 식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문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신자 수에 따라서, 사제의 업무량에 따라서, 본당에 대해

17) 마태 9, 12 참조.

이는 정도 등에 따라서입니다. 예를 들면 본당 입구에서 본당신부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싶다고 선언하고, 모두를 방문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런 다음 자유로운 날을 택하여 사회적으로 유리한 장소 순서대로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1년에 두 세 차례 다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정기구독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본당신부가 직접 본당주보를 갖다주기 위하여 방문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영신수련에 초대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또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방문하고, 가끔 보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당신부가 자신의 영적 자녀들과 그들의 위험도를 개인적으로 알아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년 사이에 윤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변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몰랐던 악이 집안에 침투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불시에 되는 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척 힘이 들 것이고 아마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방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며 대부분 적게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의 한목소리’ 나서지 말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a) 일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시할 만한 목적을 잘 정하고 수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 사제들은 분류카드를 만들어 기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 작성합니다. 그와 같은 분류카드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은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방문과 비교했을 때 그 가족에게 변화가 있었는지, 종교에 관한 상태가 어떤지(잘 실천하는지, 냉담인지, 나쁜 상태인지), 종교생활을 하는 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지, 누가 성당에 자주 오는지, 경제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도움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어떤 오류가 휘감고 있는지, 어떤 악습이 더 만연한지, 어떤 윤리적인 선을 그들이 할 수 있을지, 어떤 봉사를 본당신부에게 해줄 수 있는지 등 특별한 관찰사항들도 기재해둡니다. 일부는 정말 기록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된 가족 분류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부와 분류카드는 방문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모여 있는 시간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앞서 방문했을 때 기록해 두었던 내용을 먼저 읽은 다음, 몇 가정을 방문합니다. 방문은 ‘짧게’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마실 것이나 다른 음식을 대접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강론대

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것에 관해서는 알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와 악수를 하며 애정 어린 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두려움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고, 신뢰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치 있고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말 한 마디씩 해주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귀여워해주어야 하고, 상본 메달과 과자를 선물로 주어야 하며, 그들의 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133 기꺼이 말을 건네야 하며, 사람들 마음이 제일 많이 품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대화해야 합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끔 마구간, 포도 창고 등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서 나오면, 잊어버리기 쉬운 사항은 즉시 메모한 다음 다른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그 자체로 긴 시간과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작업을 짧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다른 가정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사제관으로 돌아오면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본당신부가 예를 들어 병원과 같은 어떤 단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어떤 서클 등을 지원할 의도를 가졌다면, 그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의 의향과 편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말 호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

은 사람은 무익하고 해로운 일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사목 직무 초기에 한 번 시도해 본다면, 이어서 좋은 결실을 보게 된다면, 방문을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하는 본당신부는 그와 같이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고, 신자들을 이끌어갈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이며, 참된 아버지요 목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을 더 잘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항상 품위와 자상한 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자들이라면 아버지답게 대해야 하고, 본당신부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가오거나 그를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 왔을 때,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례의 식이 끝나고 성당 앞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품위 있고 자상한 부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인 기쁨과 불행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이라면, 강론대에서도 느낀 바를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라면 사석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때때로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포도주 한 병이 선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점을 떠올리거나 들추어내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제관에 세속인들을 초대하여 ‘파별’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저녁시간에는 초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134

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을 기해서, 특정 가정과 특정한 등을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향력이 더 크고 겉보기에 품위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장, 교사, 의사 등과 같은 사람들을 더 자주 방문하는 일입니다.

요컨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받들게 만들 수 있는 위풍당당하고 오만하며 관료적이고 매물찬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상냥한 면을 갖춘 초인 같은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존재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이요, 모든 이에게 신뢰받을 것이요, 모두가 찾는 사람이 됩니다.

보좌신부가 이 같은 방법을 시작하거나 단순하게 어느 지역 일부 가정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은 본당 신부만 할 수 있고, 특정 가정을 방문하고, 글을 써 보내는 일 등은 항상 위험하고 해로우며 경솔한 일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본당신부를 거슬러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나 보좌신부가 본당신부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려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유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겼을 때는 더욱 해롭고 위험하며 경솔한 일이 됩니다.

11. 본당신부와 수녀들의 관계

수녀들은 보조자들이며, 본당신부의 열성 있는 자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학교에서, 기도모임에서, 일터에서 이루지 못할 선한 이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수녀들이 진정으로 '깊은 신앙과 순수한 덕'을 갖추었을 때 크게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본당신부와 수녀들의 관계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들이어야 합니다. 1) '존중의 관계.' 다시 말해 너무 친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여성들과의 관계보다 수녀들과의 관계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녀들을 방문할 때는 오히려 드물게 방문하고, 낮에 방문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짧게, 진지하게, 공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로비에서, 복도에서, 공동 응접실에서 만납니다. 만일 성당 세탁물을 수선하거나 빨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저분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매순간 필요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2) '참된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해 사제는 요청을 받게 되면 '내면에서'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수도회 정신에 따라 수녀들을 이끌어야 하고, 너무 쉽게 수녀들의 규칙을 관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희생과 겸손의 정신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수녀회 규칙과 교황청 명령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기회에 고해

성사를 하도록 자주 '요청해야' 합니다. 최고의 신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 권유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단점들을 건디어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선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훈련시킨다면 덕을 더 많이 쌓기 때문입니다. 종종 수녀들은 지역의 특수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가끔 완수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당신부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녀들과 함께 모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다른 수녀들이 있다면 수녀들을 그들에게 보내 숙식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지역에 수녀들이 없다면, 수녀들을 사제관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서류가 잘 증빙된 다음이어야 하고 또 본당 신자 중 수녀들에게 친절을 베풀 만한 신심 깊은 사람이 없는지 검토한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있다면 본당신부 스스로 또는 수녀들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사제가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당신부가 이런 어린 묘목 주변에 가능한 한 빨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일이고 그의 노고의 결실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믿는 대로 따르게 할 수 있고 신앙과 신심의 소중한 보석을 접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신심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과멸로부터 지켜주는 방향제가 될 것입니다.

흔히 가장 훌륭한 교육은 가정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학교는 가정교육을 보조할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엄마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교육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들이 무관심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종교교육에 대해 잘 돌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광장에, 거리에, 가정 안에서조차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대신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에서는 교리교육의 기본원리, 기도, 윤리교육과 종교교육의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신부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첫영성체를 부모들과 사제보다 훨씬 잘 할 줄 아는 좋은 선생이나 수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첫영성체 연령에 관한 최근 교황청

문헌이 반포된 이후 첫영성체 준비를 잘하는 일이 오늘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본당에 유치원이 없다면 사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열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거리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돈과 활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제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고 그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재를 찾아 자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임무를 나누어 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적합한 인물을 두되 교장이나 적

137 어도 책임자의 직무는 본당신부와 그의 후계자들이 맡도록 합니다. 미래에 일반 세속 재단 혹은 거의 일반 사업체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목 생활에 중대한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때때로 본당신부는 ‘이미 설립된’ 유치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유치원은 정말 그리스도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고 본당신부가 교장을 하도록 위촉받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꺼이 그와 같은 직위를 수락하고 모든 일이 잘 진척되도록 열성을 다하여야 하고, 특히 종교교육을 하기 위해 아주 훌륭한 인물을 물색해야 합니다.

또 만일 ‘이미 설립된 유치원이 평신도에 의해 관장되고, 순전히 프뢰벨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¹⁸⁾, 자유롭게 운영되고, 수녀들을 배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일종의 명예직

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때, 또는 활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면 본당신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금방 물러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인색하다고 비난받을 것이고 그 어린 꼬마들은 거기서 자라나면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주주처럼 수락해야 하고, 만일 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기꺼이 수락하십시오.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는 좋은 말씀을 건네줄 수 있고 교사들을 지혜롭게 지도할 수 있으며, 정관의 내용도 조금씩 그리스도교적 원칙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사랑, 상냥함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이러한 목표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만일 본당신부의 노력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치원의 교육이 완전히 세속적인 내용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밝히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돈이나 자기 사업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거저 된 원칙을 심어주려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138

13. 본당신부와 병원의 관계

18) F. FROEBEL, 『L'educazione dell'uomo』(인간교육), Paravia, Torino 1852 참조. 그리고 또한 다음의 작품도 참조하라. 『Manuale pratico di giardini d'infanzia』(유년기라는 정원을 위한 실천적 매뉴얼), Civelli, Milano 1871.

병원은 수많은 인간적인 비참함의 피난처입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시험하시고, 당신 손으로 때리기도 하시며, 자비로우신 섭리를 통해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제가 병원에서 영혼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병원에서 사제는 하늘을 가리키며 위안을 주고 고통을 견디도록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들을 소중한 연옥으로 변화시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마지막 행보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신부는 병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많은 방식으로 그의 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성적으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집에서 도움을 받은 것보다 더 낮게 도와주어야 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마음을 준비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평신도든 수도자든 봉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를 할 때도 그렇게 함으로써 완치된 병자들이 그들 집으로 돌아간 이후 무질서한 삶에서 벗어나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본당신부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진리에 대해

서 그리고 윤리 원칙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기회는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병원 원목이든 아니든, 비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본당신부는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항상 행사해야 합니다.

‘자기 활동을 통하여’: 운영관리의 일원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정신이 병원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무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몹시 어려운 일이고, 부자와 은인들이나 큰 유산을 기부한 사람이 없는 지역 이라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섭리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in re o fundamente in spe’¹⁹⁾ ‘적어도’ 무엇인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통 본당신부와 사제는 병원, 신심단체, 학교 등의 운영책임을 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목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아주 신중해야 하겠지만, 주주로서 수락해야 하고, 음악 밴드, 트롤리버스 회사 등과 같이, 그 자체로 ‘중성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관리자가 되는 일은 드물

게 수락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수락해야 합니다. 즉 사제직무를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장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직책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허가서에서 교회는 먼저 그 직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도록 명령합니다.

14. 본당신부와 슬픔을 겪는 이들 혹은 적대자들의 관계

“Omnibus debitor sum.”²⁰⁾ 모든 이를 돌보아야 한다고 성 바오로께서 쓰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하느님께 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은 영혼의 목자를 위한 모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두를 구원할 것, 모두를 위하여 일하고 기도할 것.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나 또는 십자가를 세우는 형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를 사랑하고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조차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열어야 하는 한편, 그들이 행한 악과 그들이 흘뿌려 놓은 오류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19) “in re... in spe”: ‘실제로 또는 희망에 바탕을 두고’

20) “다 빛을 지고 있습니다.” 로마 1, 14 참조: “Graecis ac barbaris sapientibus et insipientibus debitor sum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빛을 지고 있습니다.”

양떼를 아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Pereant errores, vivant homines.”²¹⁾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실천 규범이 있습니다.

1. 슬픔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²²⁾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한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 뜻을 굽히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요청하고, 또 이러한 일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내심을 동원하여 회개시키는 애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좋은 사람이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삶의 원인을 연구해야 하고 사례별로 작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불신앙이 원인이라면, 종교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서적들을 전달해주고 연구하도록 하는 등 그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신문을 구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친근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

140

21) “오류는 없어져야 하고,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

22) “tristo”에서 유래한 ‘trisci’는 ‘윤리적으로 불행한’, ‘비참한’, 또는 ‘사악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다. 다른 경우, 즉 그러한 사람들이 본당에 많을 때는, 능력 있고 적합한 사람에게 강연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악담이나 괴로운 열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관대하고, 아주 관대하게'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결점이 원인
142 이라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민법상으로만 체결된 결혼이라면 부부를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나쁜 관계라면 둘 중 한 사람을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게 하는 등 멀리 떠나 보낼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의 해로운 행위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선을 위한 에너지 넘치는 행위'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방탕한 사람이 신앙을 거슬러 오류를 전파한다면, 본당신부는 교리를 잘 설명하여 반론을 잠재워야 하고, 나쁜 출판물을 보급한다면 좋은 출판물을 보급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강연회를 개최한다면 다른 강연회로 맞서야 합니다. 만일 나쁜 자들이 수가 많거나 세력이 강하고, 단체, 서클 등을 결성한다면, 본당신부는 다른 조직을 구성하되 가톨릭 조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분야에서 항상 최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모든 개성,²³⁾ 모든 독설을 피해야 하지만, 무기에 무기로 맞서면서 악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들 안에서 본당신부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여전히 자녀처럼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너무 가까이 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태도에서 그들 잘못에 대한 암묵적인 단죄를 사람들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들을 중
141 오하듯이, 완전히 그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본당신부는 낙담해서는 안 되고, 마음 아파해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 섭리의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는 슬픔도 하나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덕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무랄 데 없이 행동하기 위하여 자기 태도에 관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타성을 털어버리고 선한 행동을 풍부하게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와 같은 일 앞에서, 낙심과 타성은 분노와 독설처럼 결점이 됩니다.

2. 적대자들과의 관계. -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본당신부는 두 가지 작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감에서 올 수 있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를 위해서나 후자를 위해서나 사건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즉각적이고, 폭력적이고, 상스러운 '성격' 때문에 범하

23) '개인주의', 또는 '인신공격'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사용한 표현.

게 되는 본당신부 자신의 잘못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느님 앞에서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 “내 탓이요.”(mea culpa)라고 읊조리기 위해서는 거의 영웅적인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을 교정하고 자제하기 위해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부하지 말고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의 적대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보도록 의무를 주어야 합니다. 그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스캔들이 되기도 합니다. 영혼들이 아니라 자기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본당신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집단과 대항하여 어떤 ‘파벌’을 조성했기 때문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제의 직무가 순수하게 지역적이거나 또는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는 영혼을 위한 사람이지만 다른 것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이익을 위한 당파와 결부될 수 없고 어떤 류의 당파로부터도 절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신부는 서로 존경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아버지여야 하고, 사랑의 교역자요 평화의 사절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악한 당파에 대항하여 선한 당파 편을 들 수 있

습니다. 본당신부는 한가하고 무관심한 방관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양들의 대학살을 보면서 수수방관하면 그 대학살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그는 공개적으로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좋은 이들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를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143

예를 들면, 분명한 남용이나 악습을 근절하기를 바랄 때,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그런 원수 같은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는 그러한 적대감을 알아채지 못하는 척, 개의치 않는 척, 수치스러운 집착을 보내지 않는 척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 모순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고요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제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제는 선의 교역자요, 그들은 악의 줄개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평화롭고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144

정말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본당신부는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적을 행하셨고 당신의 선하심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당신께로 이끄셨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고 투쟁하셨습니다. 박해는 아주 빈번하게 활동의 표지가 되고, 하느님께서 사제 직무의 내용이라는 표지

가 되며, 악한 영이 내몰리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조롱 당하셨고 박해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1. 본당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하여

I. '어떠한 목표인가'. "본당신부의 직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제는 어떤 목표를 제시해야 하겠습니까?"

1. 무엇보다 먼저 단순하게 '인간적인' 시각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각은 세속인들이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이를 수 있는 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노리는 것처럼 이러한 직무를 열망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본당을 원칙적으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는 게 될 것이고, 그 지역과 성직자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일상 삶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자유를 누리려 하고, 힘든 공부와 초기 직무의 노고에서 벗어나 휴면을 취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2. 결심해야 할 긍정적인 기본 목표는 '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편지'¹⁾에 나오는 글을 빌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본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시키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제 직무에 덧붙여지는 십자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제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곳곳이 일하는 것과 같지만, 본당신부는 그보다 더 긴밀하고, 더 정확하

4장

여러 부류 사제들의 사목활동에 대하여

며, 더 엄격한 의무를 가집니다. 사제는 일정량의 외적 의무규정만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소진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만, 신부는 그의 직무를 온 정신, 마음, 힘, 시간을 다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본당신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책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해가 되는 모든 책임을 떠맡습니다. 그는 종들의 종이요, 지상에서는 더 이상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양떼의 악습을 대항하여 투쟁을 벌여야 하고, 둘러싸고 있는 오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종교적인 진리를 전파해야 하고, 신심과 덕을 심어야 합니다. 그의 열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의 생각은 영혼을 위한 것이며, 그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성품성사를 통해서뿐 아니라 정의를 통해서도 본당신부로서 존재하려고 애씁니다.” 본당신부의 직무는 여러 가지 사제 직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본받을 수 있는 참된 직무입니다. 본당신부는 가장 참되고 효과적인 영혼의 지도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보좌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는 고해신부의 단순한 직무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당신부만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들과 사소한 잡무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1) Y. LE QUERDEC, 『Lettere di un Parroco di campagna』(도시 본당신부의 편지), Ufficio della Rassegna Nazionale, Firenze 1895, pp. 1-7 참조. 텍스트를 설명할 때 비인칭을 사용하여 전개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혼을 이끄는 이러한 열망을 스스로 깊이 느낀다면 그러한 직무를 열망할 만합니다. 필요한 수단을 잘 이해해야 하고, 학문, 덕, 열성, 요청되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I. 작업 계획. - 본당을 맡기 전이나 본당을 맡자마자 ‘정확하고 잘 확정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합한 일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실행할 수 있고 적합한 일입니다. 실상 첫 번째 경우는 ‘해로운 선협주의’를 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신부가, 특히 본당신부가 자신이 가진 사명 자체 안에 간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떤 본당에 완수해야 할 일의 목록을 가지고 들어가서 즉시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모든 것이 ‘항상’ ‘실제로도’ 좋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본당에서 혹은 어떤 도시에서 최상으로 입증된 것이 다른 장소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에 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며, 여러 가정을 방문해야 하고, 영향력 있는 신심 깊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껴야 하며, 영적이고 물질적인 비참함과 취약점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단체를 확정적으로 설립할 때도 ‘새롭고 장엄한 바람을 일으키며’ 시작할 필요 146

가 있습니다. 위대한 단체들의 원칙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오늘날 특별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단체를 세우게 될 것이고, 내일 필요성이 더 많아지고 도움이 증대한다면 더 많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필요성이 없어지고 도움도 부족해지면,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아무에게도 피해주는 일 없이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선을 행하려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단계까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체성사에 더 자주 참여하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촉진시키려는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항상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선협적으로’ (a priori) 설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연구해야 하고, 동료 교역자들에게도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활동에 착수해야 합니다.

III. 첫 활동. - 성 프란치스코 드 살께서는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어느 본당을 운영하도록 사제들 중 한 명을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하게 하

십시오. 사랑받게 되면, 사랑받지 못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1년 안에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게 하기 위한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칭찬할 만한 모든 것을 ‘칭찬할 것’, 특히 처음으로 하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 즉 선임자, 협력자, 지역 사람들, 권위기관 사람들, 교사들 등을 칭찬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단점들을 꾸짖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을 개혁하기 위하여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없애거나 바꾸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들로부터 비난, 선한 이들로부터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아무런 성과도 이룰 수 없을 위험요소가 많은 토대 위에 바로 재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성을 동원하여 ‘어린이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은 불신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전체가 신부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떼어놓고 생각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제는 즉시 정상적인 업무에 착수해야 하고 교리를 가르쳐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병자를 방문해야 하고, 방문할 때에는 상냥하고 현명하고 짧게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다른 ‘활동들’에 관해서는, ‘먼저’ ‘대부분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활동에’ 만족해야 합니다. ‘강론’ 할 때에

는 가장 흔한 악습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주제를 골라야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엄 미사와 연옥영혼들을 주제로 한 강론을 자주 하고, 때로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영원한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성가 지도 등에 관심을 가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호두를 따라오고 사람들은 모두 선을 따라오는 법입니다. 사제는 말을 잘하도록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식을 드러내고 사치를 과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내세우지 않고, 어디에서든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연구해야 하며, ‘진정한 선을 행하도록’ 연구한다면, 언제나 사랑받고 크게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좋은 충고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줌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도록 해 줌으로써 육신에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어린아이들과 병자들을 돌봐줌으로써 가정에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도와주고, 고해성사를 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며 기꺼이 시간을 내주면서 영혼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무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부를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의 사제직무 활동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차라리 양심성 148
찰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이유 혹은 베풀지 않는 이유를 자문해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신부를 사회에서 추방하기를 바라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사회에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강론을 듣는 청중이 소수에 불과하고 고백자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고 한탄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고해성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강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열성적인 전략을 모두 동원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하기보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불가피한 활동 주제’ 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IV. 어떻게 일할 것인가. -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당신부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혼을 돌보는 본당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공정하게 분배’ 해야 합니다. 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150
을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당의 본성에 따라, 그리고 교회법에 따라 본당신부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

겨주신 모든 영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본당신부는 어떠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보좌신부가 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 그가 하
고 있는 일이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제관에 함께 살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제들, 교육 담당 사
제들, 기타담당사제들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서클에 대하여, 선거에 대
하여, 출판에 대하여, 지역에 만연된 남용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교사들에 대하여, 자치제의 권위기
관에 대하여, 학생들에 대하여, 종교 학교 등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협력자들 중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활동을 맡기는 시스템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시 시도되고 있습
니다. 예를 들면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 사람에게 일임하거나,
모든 성사집행을 한 사람에게 맡기거나, 모든 종교 학교에 관한
149 문제나 서클 책임을 한 동료에게 맡기거나 제3의 가톨릭 단체에
맡기는 등의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방법을 쓰면서 젊은 사제를
동원할 때에는 두 가지 부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참된 사
목활동으로 훈련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쉽사리 그들을 사람들에게
게 해를 입히는 존재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고
령이 된 사제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작은 잘못을 일으키는 화근
이 될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본당신부가 져야 합니다. 본당신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주고자 하는 특별
지침과 프로그램에 따라, 사목활동의 선을 위하여 각 사제의 활
동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방법으
로만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협력
자들 사이에 활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
니다.

이러한 말은 본당신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일을 나누어주어야 할’ 협력자
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신도에게 제공된 선행의 기회,
특히 사제들에게 선행할 기회와 일을 주는 애덕이 빵을 나누어
주는 애덕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는 지혜롭게 평신도와 그의 협조자 사제들에게 적합한 책임
을 배정해주어야 하지만, 그들의 ‘성향과 적성’ 오랫동안 연구
한 후 맡겨야 합니다. 그의 보좌신부들과 협력자들을 과도하게
역압함으로써 그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일을 피해야 하고,
모든 사제와 모든 에너지가 좋은 일에 사용되도록 경계심을 늦
추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직 자기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다면 교만입니다. 젊은 사제들을 사목활동에 파견하지 않는 것
은 하느님께 단죄를 받을 만한 아주 막중한 죄악입니다. 물론 직
무의 가장 민감한 부분, 이를테면 교리교육, 병자사목 등에 관한
부분은 본당신부가 직접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 이

들의 활동 결과와 결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항상 감독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개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유와 책임’을 허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협력자 중 한 사람이 항상 감시당하기 때문에 교리 수업에 자유롭게 임하지 못한다면, 병자의 영혼이 본당신부로부터 그들의 손에 맡겨졌음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강론, 야간학교, 성가수업을 잘 진행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면, ‘매번’ 본당신부의 허락을 받으면서 그의 책망을 두려워 한다면, 이 협력자는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온 영혼을 다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결실도 적게 볼 것이며 그의 능력과 에너지는 항상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본당신부는 그에게 분명한 말로 일을 맡겨야 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주님께 결산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다른 한편 나중에 그 결과를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자신이 전체적인 방향제시를 해주고 싶어 하고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그를 지원해주려는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사제들 스스로의 평화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당신부는 “자신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

람을 활용해야 합니다.” 본당신부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능력을 이용할 줄 알 때 본당신부에게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본당마다 훌륭한 여인들, 노인들과 미혼여성들이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예를 들어 병자들에 대하여 조속히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냉담과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교육에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세탁물을 빠는 일 등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에 이 같은 목적으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²⁾가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빈에는 사제의 영향력을 매우 싫어하는 노동자들에게 다가서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평신도 단체가 있는데, 이 모임은 151

신문을 통해, 좋은 단체에 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강론에 초대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시의 어떤 본당신부는 남녀 직공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장장 아내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른 본당신부들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제 3회³⁾를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ATP, n. 119, 각주 12 참조.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리셉션, 극장, 자선 바자회 관련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본당신부가 의사, 약사, 교사, 조합장 등의 역할을 유익하게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지 않을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끔은 그 자체로 무관심하고 나쁠 수 있지만, 그들의 좋은 측면을

153 연구한다면, 아마 믿을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자기 지역에 반성직주의자이지만 농사 전문가가 있는데, 몸을 낮추어 가끔 그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본당 위원회가 좋아하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그를 초대했더니, 그의 친구가 되었고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나무랄 데 없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본당신부는 음악과 운동을 좋아하는 무신론자 교사에게 젊은이들의 서클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란한 행위와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 공장주나 제작소, 방적공장의 소유주, 아니면 어떤 사람의 대리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제관에 완전히 숨어 있는 생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 모든 이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있습니다.

152 사람들 중에는 아주 넓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게 되겠지만 전자는 사제의 활동을 도울 수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 ATP, n. 94, 각주 4 참조.

V. 사목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호할 것. - 좋은 대화, 특히 우리의 발전과 다른 사람들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대화는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을 줍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도록 만듭니다. 각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각성시킵니다. 생각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만듭니다. 만일 두 가지 모두 목자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매일 책상에서 회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윤리적인 사례나 사목적인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사제들끼리 책상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종종 이미 실행한 활동에 관하여, 결과에 관하여, 해야 할 일 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전략을 세우는 본당신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본당신부들은 동료들 방문하여 무익한 잡담을 길게 나누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많은 내용을 질문하고 제안하며 조언을 구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열성적인 본당신부라면 매년 평균 두 번 정도 보좌신부를 데리고 아주 활발한 본당을 방문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나 혹은 수단을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제의 이야기가 비판, 여행, 시시한 유머, 물

질적인 이득, 외교집 등이어야 합니까? 혹시 더 중요한 일이 없어 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느님 덕택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권장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지역에서는 매주 성직자가 본당에 모여 사목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서로 우정을 다집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이 함부르크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월 피정의 하루 동안 사목강연회를 통해 모이고, 본당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프라시네티(Frassinetti)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덕이 있고 열성적인 사제들의 특별한 요청을 고려하여 모든 성직자에게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만일 수용된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직자들이 자신의 정신을 배양하고 그리스도교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열성을 촉진하는 이종의 목적으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모든 장소에 적합하고 아주 단순한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우정의 모임이어야 하고, 훌륭한 성직자들은 그들 중 어떤 본당신부의 사제관에서 일주일 한 번 또는 여러 차례 모일 수 있고, 거기에서 대화 형식으로 함께 정신에 관한 문제를 상의할 수 있을 것이고,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최상의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대화와 비슷한 모

임에서 정치, 예술, 문화 등과 관련된 소식을 읽고, 각자 읽은 내용에 관해 자기 의견을 발표한 후 공동체에 관한 문제, 가족, 친구, 유행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제로 다채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비슷하게, 훌륭한 성직자들은 어떤 영적 도서를 읽을 수 있고, 영적독서에 관하여 적절한 숙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열성을 불러일으킬 수단에 관해, 본당에서 촉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선에 관해, 뿌리 뽑을 수 있는 악에 관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⁴⁾ 그러므로 성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자의 작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책에는 신심 실천, 덕의 실천, 사목에 도움이 되는 수단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직자가 이러한 거룩한 실천을 촉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당신부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돌보는 일에 일치하는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쓸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제도 그렇게 쉽게 그러한 수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2. 감목대리(지구장 신부)의 사목활동을 위한 전략

4) G. FRASSINETTI, 『Manuale pratico del parroco novello』(초임 본당신부의 실천적인 매뉴얼), Tip. della gioventù, Genova 1871, pp. 531-533 참조.

I. 사목 협의회. - 다른 곳에서는 본당신부들과 일반 사제들이 그와 같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감목대리(지구장 신부: Vicario foraneo: *역주- 교회법 553~555조에 의하면 감목대리로 번역되어 있지만 현재 서울교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중심제의 지구장 신부가 더 어울리는 듯)들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목협의회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제들의 모임, 특히 본당신부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목과 관련해 아주 어렵거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빈에서는 아주 많은 모임이 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제들 156 의 연장자들 모임, 학교 교사들의 모임, 모든 성직자 모임 등을 감목대리가 주재해야 합니다.⁵⁾ 논의해야 할 주제는 대부분 주교가 지정해줍니다.

밀라노에서는 모든 성직자들 모임을 매월 한 번씩 대주교가 주관해 개최합니다.⁶⁾ 에센에서도 매월 연장자 신부나 감목대리 지도로 열리고⁷⁾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모임을 갖습니다.

특히 그러한 협의회를 촉진시키는 것은 감목대리가 할 수 있고 이미 피에몬테 지역 본당들에서는 시작된 지 오래돼 벌써 많

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감목대리는 관할 사제들을 관저에 모아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주제를 상정할 수 있고, 그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회를 공고하고, 토의내용이 실천되도록 하며, 근거 없는 소문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피해야 하고, 부차적인 것은 각자 믿는 바대로 생각하도록 놓아두더라도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에 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겸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고질병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견해를 수락할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요, 모든 155 이의 의견을 듣고, 수줍은 이들, 겸손한 이들, 젊은 사람들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는 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는 순전히 이론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단의 필요성을 아는 데 필요한 수단 같은 이야기는 수천 가지 난해한 이론으로 흘러가고, 그러는 사이 본당에서는 어떤 수단도 채택하지 못하고 교리교육에 젊은이들을 모을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한편 교리교육 자체는

5) H. SWOBODA, 『La cura d' anime...』, op. cit., p. 113 참조.

6) 상동, pp. 130-131 참조.

7) 상동, p. 161 참조.

학교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같은 협의회에서 보다 실천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벌써 무엇인가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목협의회를 합당하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II. 월 피정. - 사목협의회에 월 피정을 합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벨기에의 열성적인 성직자단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이제 프랑스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그들의 감목대리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 중 한 사람이 강론을 하거나 묵상에 도움이 되는 영적독서를 한 다음 30분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통상적으로 각자 고해성사를 보는데, 특히 참석자 중에 자기 고해사제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몇 가지 사목 주제를 다루는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사제들 자신을 위해서도 신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풍성한 날 중 하루입니다! 그 속에서 싹트는 거룩한 경쟁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성덕이 더 출중한 형제의 훌륭한 말씀이 얼마나 위안을 주며, 아주 노련한 사제의 조언이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추어줍니까! 그 대신에 어떤 곳에서는 성직자 사이에 일종의 '인간적 존중'이 있어서, 아무도 감히 서로 방문하려 들지 않고 영성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나 영혼을 돌보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정해진 모임에서는 입을 떼지 않습니

다! 그러한 문제를 이끌어내려는 사람은 형제 사제들 가운데 누군가의 얼굴에 반쯤 아이러니한 미소가 번지고 거의 연민에 가까운 표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교 신자의 유일한 영광, 유일한 생각, 유일한 열망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에게 있어서 존재할 이유와 사제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것, 즉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 자신의 삶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III. 성직자 사이의 영성적, 지성적, 사목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한 서클. - 뮌헨에서는 성직자 사이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맹이 존재합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이란 곧 사제의 성화, 학문적인 소양, 그리고 '현대의 큰 중심지역에서 영혼의 사목에 필요한 특별한 요청과 지원해주어야 할 수단에 대한 연구'입니다.⁸⁾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를 위한 신문을 글을 발표해야 하고, 특히 감목대리가 주관하는 본당 간의 협의회를 활성화하며, 적어도 가끔씩 공동으로 월 피정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저녁 성직자는 본당신부를 중심으로 모여 매우 어려운 학술적이고 사목적인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감목대리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전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인 성직자가 경비를 각출하여 잡지와 서적을 모으고, 공동 도서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다른 지역에서는 감목대리가 자기 지구의 여러 사제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해결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 젊은 이들 동호회 등과 같은 주제들을 배정해줍니다. 각 사제는 정해진 내용에 있어서 말하자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 요청에 따라, 각자 자기가 한 작업을 모든 지구 사제들 앞에서 ‘무상으로’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입증해줍니다. 아무 것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매우 지성적이고 실천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아주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3. 담당사제에 대한 규범

시골 공소를 늘리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경당의 유일한 쓰임새는 주민들을 축일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실천한다

8) 상동, p. 142 참조.

는 것이 아주 불편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부에게도 불편한 일이고,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일입니다. 그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면서 사사건건 그에게 명령하러 드는 몇몇 농부들의 불쌍히 여기는 눈빛 속에서 자기 품위가 실추되었다 여기는 신부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종종 극심한 가난으로 위축되고, 고독하고 슬프며 위협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해야 하는 사제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약간의 미사에 대해 보수를 계속 지불해야 하고, 주일에 참석하기가 더 나빠진 신자들에게도 불편한 일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종교에 무지하고, 성사생활을 내팽개치며, 더 이상 본당신부에게 인도되려 하지 않고, 축일을 악습과 위험한 유흥거리로 보냅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교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⁹⁾

1. 주민들은 그들을 담당할 사제의 조건과 보수에 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말고 교구청에 상정해야 하며, 교구청은 충분한 수입료와 선금을 징수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사제를 지명해야 합니다. 오늘날 담당 사제와 전례 시간 등을 주민들의 힘으로 바꾸는 일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9) 타자원고 출판 본에서 저자는 문시놀 스보보다에 의해 추진된 설문조사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에 인용된 주제와 사목적인 제안들을 다루었지만 그의 작품 안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다. H. SWOBODA, 「La cura d' animo...」, op. cit., pp. 239-242, 254.

2. 담당 사제는 본당과의 거리와 주민 수를 감안해 “가능한 한 적절한 때에는 본당신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축일에 경당에 가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3. 특히 성직자가 많은 곳에서는, 더 나은 경당(*역주. 아마도 공소 158 를 말하는 듯함)에 가기 위해 일종의 경쟁이 벌어지도록 합니다.

4. 중심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더 크고 경당 수가 많은 마을의 담당 사제들을 위해서는 관사가 있어야 하고, 연중 주일에 본당 전례의식을 완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5. 그와 같은 경당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이들 경당이 준 본당으로 승격하도록 담당 사제는 노력해야 하고 본당신부는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사제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신의 안녕, 명예, 이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책들을 채택하는 것이 대개 담당 사제의 손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훨씬 쉬운 사항들을 담당 사제들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사제들은 자신의 삶과 직무를 축일 미사에 한정하지 말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a) 자신의 경당에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명하게 숙고하여 허용할 수 있다면, 성당을 하루 종일 개방해 둡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다면, 사제로서 열

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b) 휴일에도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으로 자주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c) 축일에 저녁기도 전례의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사제는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할 특별권한이 있습니다.

d) 강론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e) 계속해서 인근 사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유익한 일에 시간을 쏟고, 면학을 통해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 교사신부들에 대한 규범

자신들의 사제 생활 전체를 통제해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임명받은 것입니다. 학교수업을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상 누군가가 지극히 고귀한 최상의 사명을 다른 하등의 가치들보다 뒤로 밀쳐둔다면 아주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제의 자질보다 교사의 자질을 더 높이 평가한다면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

일 것입니다. 한편 종교적인 감각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교사신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효과적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모들에게 얻을 수 있는 상승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의 동료들 사이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훌륭한 원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본당신부들은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교사신부들은 종종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학교수업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일이고, 하루에 6시간씩 강의에 전념한 사람은 나중에 영적 독서, 성체조배, 묵상, 묵주기도, 고해성사, 병자 방문, 강론 등 한마디로 말해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둘째, 교사들은 쉽사리 “평생 교사로 임명된 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본당신부를 겨냥한 ‘반-제대주의’ 세력을 만들게 합니다. 셋째, 학교는 그 자체로 최상의 장소이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상황 안에, 넓은 관계 안에, 간접적인 감독체계 안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은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주교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 안에 교사신부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많은 가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160 따라서 몇 가지 규범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교사신부는 묵상, 영적 독서 등을 통하여 위험한 일, 특히 여 교사들과 친하게 지내는 일 등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성화에 치열하게 힘써야 합니다.

2. 교사신부는 다른 이들의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학교를 자기 직무의 장소로 여겨야 하고, 학문의 씨앗을 뿌려 직무를 통해 덕성과 신앙의 싹이 트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해성사와 강론과 같은 외적 교역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교사신부는 일치를 이룰 뿐 아니라 본당신부가 비록 젊더라도 복종하는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죽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즉 “나는 읽고 쓰도록 가르쳤지만, 완고한 성격과 불순종 때문에 영적 파멸을 일으켰습니다! 불행한 삶을 모면할 목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나의 기본적인 사명을 배신하였습니다.”

본당신부의 활동에 관하여, 감독대리의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다른 사제들의 활동에 관하여 언급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일부는 사제들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일부는 짧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여백으로 남겨두는 바입니다.

제3부
사제의 열성에 관한
일부 특별 활동에 대하여

제2부에서는 일반 성직자, 특히 본당신부의 사제적 열정과 사목활동 중 갖추어야 할 실천적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에서는 영혼들의 선을 위하여 하느님의 훌륭한 교역자가 힘을 기울여야 할 특별활동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 고해성사, 영성체, 강론, 교리교육, 가톨릭 액션 등 기본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다른 실천적인 규범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chiridion parochorum seu institutiones Theologiae pastoralis」(본당신부 안내서 혹은 사목신학 지침서). - Berencio¹⁾(베렌초) - (Pavia, Tip. del Seminario vescovile <파비아, 주교 신학교 출판부>), 그리고 Krieg(크리그)의 작품 등.

1장 고해성사

1) 아마도 다음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J. BERENGO, 「Enchiridion parochorum seu institutiones Theologiae pastoralis」(본당신부 안내서 혹은 사목신학 지침서), Typ. Aemiliana, Venetiis 1877.

1. 중요성과 일반 원칙

‘중요성’. 종교의 목표는 인간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그분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곧 교의, 계명, 권고, 강론, 가톨릭 액션 등 외에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치는 성사들을 통하여, 특히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통하여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사제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목활동입니다. 강론이나, 사람들이 참석하는 미사와 같은 수많은 외적 활동이 인간 영혼을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끌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과의 일치를 고백할 수 없다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강연, 담화 등을 하면서 외적으로 야단법석을 떨며, 이 점에 대해서는 실수를 범하는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서는 아무런 실효도 얻지 못하고 때때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의 목표는 바로 성사를 통하여 영혼들을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수단’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목표’로서 ‘완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치는 성사를 자주 할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자주 할수록 일치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교로서 깊어져야 할 수천 가지 십자가와 수많은 사목활동이 있겠지만, 죄인들을 돌보는 사목을 버려두기보다는 차라리 바로 그것들을 놓아버리겠습니다.” “Da mihi animas, caetera tolle.”¹⁾

‘일반 원칙’. 고해신부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고해신부는 고백자들을 사랑과 온유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특히 참을성 있게 대해야 합니다.

“의사입니다.” 따라서 병과 병자를 잘 파악한 후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듯, 고백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처방을 해주어야 합니다.

“스승입니다.” 따라서 고백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165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사도적 열성으로 한껏 고무된 그리스도교 신자는 영혼들을 얻는 일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 문장은 이미 전통적인 문구가 되었다. 참된 열성은 일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만족을 찾지 않을 것이며, 비록 공덕이 많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승리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영혼들의 선을 추구할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것이다... 영혼의 이와 같은 자세에 놀랄 만큼 적합한 표현이 바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이다. “Da mihi animas, cetera tolle tibi.” (장세 14, 21: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교황청 성서대학의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산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그대를 위해 가져가시오.” G. RICCIOTTI, 『Bibbia e non bibbia』(성서와 비성서), Morcelliana, Brescia 1935, pp. 106-108 참조.

다.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모습,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다른 사람들 안에 그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식이 높고 신심이 깊으며 경험이 풍부한 어떤 고해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심판관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서 죄를 사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고해신부님들 중 가장 경험이 풍부한 분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훌륭한 고해신부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이 100이라면 그중 인내가 60, 학식이 10, 현명이 10, 수덕은 20이 필요합니다.”

이주 많은 사제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고해성사를 가꾸어나가고, 다른 사제들은 인내가 부족한 탓에 결실을 적게 봅니다.

2. 고해성사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A) 사제들과 많은 사람이 고해성사와 같은 성사를 너무 물질적인 의미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외적인 예식’으로 여기거나, 수염을 깎듯이 죄를 말살하는 것으로 여기고, 고해성사가 ‘죄에 대한 단순한 사죄요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단자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죄경에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단지 ‘영의 쇠신’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고, 사죄경을 통하여 사제는 고백자의 마음자세를 ‘외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편에 따르면 사죄경이 모든 것이며 고백자의 행동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한편에 따르면 사죄경은 순전히 예식이며 고해성사의 모든 가치는 통회에 있다고 봅니다.

고해성사에서 ‘영의 쇠신과 사죄경’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영의 쇠신을 통해서 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성찰). 제 삶은 비난 받을 만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저는 죄를 미워합니다(통회). 저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변하기를, 즉시 변하기를 바랍니다(결심). 하느님께서 이러한 용서의 수단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제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해성사하러 갈 것입니다.” 마음 깊

이 심오하게 느낀 이러한 마음자세가 부족하다면 사죄경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은 가라앉히겠지만, 죄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영의 쇠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주의사항이 생깁니다.

1. 다음과 같은 규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선 “나는 죄를 사해 주기를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통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고해성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로 사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사죄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고해성사가 하나의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기 때문에 존중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강력한 경고 받을 것이며…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 고백자가 통회를 하는 만큼 죄의 내용을 낱낱이 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하지만… 생각, 감정, 열망을 바꿀 필요가 있고 정말 변화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득해야만 합니다.

고해사제는 아버지, 친구여야 하고, 그 또한 자비가 필요하고 그것도 아주 많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

에게 있어서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소매 자락을 넓힐 정도로 관대해야 하지만, 결코 자락을 찢을 정도로 원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167 고해성사는 “엄격하고, 힘들고, 신비로운 성격을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약효가 있고, 교정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영혼을 훌륭한 길로 들어서게 할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특별한 은총을 가져다주며, 고해사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혼에 필요한 것, 수행해야 할 의무들을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신뢰의 활동이요 교정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사제는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교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제는 무례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되고, 고해성사를 할 사람과 지나치게 친근해서도 안 됩니다. 사제가 본당에서 너무 많은 음모와 얽혀있을 때, 비록 필요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은인들이나 가난한 이들의 이익옹호를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다른 고해사제들을 초대하여 고해자를 돕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몇몇 신부들을 특정한 날, 예를 들어 월요일을 택하여, 고해성사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유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고해성사는 종종 사제들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 사제는 가능한 한 고해성

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해주기’ 위해서 사제는 자기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본당신자들의 일반적인 결점뿐 아니라 특정인들의 단점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단지 고해성사에 의해서만’ 신자들을 아는 사제는 자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따라서 주의를 줄 때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고백자가 자기 양심을 ‘솔직하게’ 표명할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진지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아는 바를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도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아주 자주 실수를 합니다. 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속된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어긋난 권고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권리를 허용하게 되고, 고백자들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외적으로도 조금밖에 알지 못함으로써 혼화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지나친 친근함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지나치게 멀리 지내는 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을 앗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용을 지킬 필요가 있고, 사람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를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해성사에서 여러 종류의 고백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A) 젊은이들

전반적인 면을 다루어야 하고, 주의를 줄 때에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나간 고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고함’ . -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보았던 시기와 보속과 영성체를 했는지 물어본 다음, 적합한 질문을 통해 그들을 도와 주면서, 젊은 참회자들 스스로 죄를 고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비인칭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관해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2. 고해사제가 참회자를 나쁘게 판단하고 있다고 의심할 여지를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덜 심각한 내용부터 더 심각한 내용으로 서서히 주제를 옮겨가야 하고, 또 고백자를 지나치게 수치스럽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가 예를 들어, 여자아이²⁾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추어 섰다고 죄를 고한다면,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좋지 않은 농담을 했나요?” 라

고 물을 수 있지만, “추잡스러운 말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3. 전반적으로 보아 그 젊은이가 진지하지 않고 모고해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한편으로 그 젊은이가 진지하지 않게 보이고 모고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게다가 모든 것을 이 169 미 일반 규범의 형태로 이해했다면, 최악의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완전무결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가장 있을 법한 스캔들을 피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가장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백자들이 아주 자주 악의를 ‘명백한’ 죄의 일종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회자들이 죄를 고한 다음,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면 많은 경우에 고해사제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지나간 삶의 죄들, 잊어버렸던 죄들, 알지 못했던 죄들, 설명할 수 없었고 잘 고백하지 못하였던 죄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 그대에게 사죄를 줍니다.” 고백자를 심각한 모고해의 위협에 노출시키느니 오히려 특정 죄들에 관해 간접적으로 사죄를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계책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 본문에서 사용한 ‘Figlia’ (피에몬테식의 표현: 딸: *역주- 우리 식으로 딸아이/딸애는 ‘ragazza’ (소녀)를 대신 사용한 표현. - 여기서와 다른 곳에서 저자가 1900년대 초기의 사목적 민감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계명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질문을 젊은이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에 관해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등을 가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자주 그렇습니까? 미사에 신심 깊게 참여하십니까? 그리고 교리교육도 받으십니까? 또 부모님을 힘들게 한 일이 있습니까? 동료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까? 동료들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자친구와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이 점에 관하여, 비록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대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조금 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우 10번, 또는 15번... (성알폰소)³⁾. 동료들에게 무엇인가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금요일에 금육을 지키지 않고 고기를 먹었습니까? 더 고할 죄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르러,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는 젊은이들이라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고해성사 후에 만족스러웠고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모고해를 범했다는 의심이 약간이라도 들면 즉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편안하지 못했습니까? 몇 살 때부터 그랬습니까? 고해성사를 잘 보았던 마지막 때가 몇 년 전

입니까?” 그러므로 좋은 일반 고해성사를 쉽게 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통회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까.” - ‘질의·응답’을 통해서 ‘짧고 생기 있는’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을 때 한 손으로 천국 문을 닫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지옥문을 연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죄를 지은 어린아이가 아침에 엄마 옆 침대에서 싸늘하게 식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면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불에 그슬리기 위해 연옥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면 아주 작은 죄들도 피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피를 흘리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성체에 감히 가시를 심어드리시렵니까? 소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고사항.” -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해줍니다. 두 가지도 가능하지만 셋은 피합니다.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 고함을 ‘마친 다음에’ 주의점을 말해주되 모든 죄, 아니면 거의 모든 죄의 뿌리를 없앨 방안을 찾으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선택합니다. 형태는 짧고, 생기 있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생활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

3) ALFONSO M. DE' LIGUORI (성), 'Istruzione pratica pei confessori, Opere ascetiche', dogmatiche e morali, vol. IX, Marietti, Torino 1887, p. 630 참조. '여러 종류의 고백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의 이탤릭체 구절은 같은 텍스트에서(pp. 609 - 635) 발췌한 것처럼 보이고 재구성한 것이다. 방법은 유사하다(*역주: 이탤릭체 부분은 ''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극히 기록하신 마리아와 요셉 성인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이것 또는 저것을 하라.’ 고 말씀하신다면 순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쉽게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저녁 기도를 바친 다음에 성모송 세 번을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대 오른 쪽에 그대의 생각, 말과 행동을 모두 지켜보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동료는 썩은 사과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만일 그것을 좋은 사과들이 담긴 광주리 안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료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을 피할 수 없다면 이야기 주제를 바꾸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그대가 목장에 있다면 동료에게 몇 시에 집에 갈 것인지 물으십시오. 만일 그대가 학교에 있다면, 수업을 어디에서 하는지 등등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속.’ - 보속은 짧아야 하고, 가능한 한 ‘즉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처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하여, 순명하기 위하여 ‘주님의 기도’ 세 번을 바치십시오. 통회의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오. 교리교육에 한 번 참가하십시오 등.

‘결론.’ - 어린아이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아야 합니다.

때때로 시골 어린아이들이 도시 어린아이들보다 나쁜 행동을 먼저 배우고 고해성사를 볼 때 더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외부 고해사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여러 명씩 이런 고해사제나 또는 저런 고해사제에게 보내는 심각한 남용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사제는 그들에게 친근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지만, 쉽사리 손을 어깨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죄를 미리 고하라고 말하거나 적어도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내게 질문하십시오… 생각이나 말 등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등.” 그런 다음 사제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도록 합니다.

b) 세심한 사람들

세심한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사항, 즉 고해성사의 완전함, 소죄와 대죄의 구별, 진짜 죄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고해성사를 보면서 거의 모두 말하지 않았다고 믿거나, 또는 겨우 소죄에 불과한 죄를 대죄로 보거나, 또는 신앙에 대한 단순한

172 ‘의심’, 나쁜 ‘생각’, 악에 대한 ‘민감성’을 죄라고 판단합니다.

고해사제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면에서 세심한 사람은 보통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이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의력을 집중하여 정말 잘못된 사항에 관하여 그가 성찰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결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짧고, 단호하며, 확실하고, 항상 ‘한결 같은’ 충고, 명령, 판결을 거의 명령조로 말해야 하고, 지나친 ‘이유’와 설명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죄가 아니니까, 영성체를 하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속으로 15일 동안 고해성사 보지 마시고 영성체를 하십시오. 고해사제를 바꾸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다음에 관한 사항을 돌보아야 합니다.”

1.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앞서’ 필요한 것은 순명입니다. 대죄를 지었다는 확신이 분명하다고 해도 고해사제의 말을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은 고백자의 양심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들은 대개 지나치게 성찰을 하는 경향, 고독, 허약한 체질, 고질병, 엄격주의자가 지은 책 독서

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고해사제는 해이한 점에 관해서만 그리고 너무 집중적으로 성찰하지 않도록 지시하면서 악에 관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한 일에도 전념함으로써, 고독이나 공상에 빠지는 일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들의 생애에 대한 독서 또는 성 프란치스코 드 살과 성 알폰소의 정신에 따른 영성서적의 독서를 권고하고, 고해사제를 바꾸지 않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심중에 빠지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에 대한 더 나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해사 173
제는 참회자가 기억하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오늘 그대에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범했으나 전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C) 신심 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들입니다.

1. “이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들과 고해소에서 2시간이나 3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제는 '신자들 대다수'를 목표
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고해성사를 볼 때는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익하다고 여겨진다면 보름마다 그
들의 고해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들의 시시한 일을 듣
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175 많은 도시들, 특히 프랑스의 도시에서 보이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본당신부가 신자들 100분의 1, 즉 '신심 있는'
이들만의 신부라는 점입니다.

2. 한편 신심 깊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일은 아주 나쁜 일이기
도 합니다. 특히 신심 생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제들끼리 그들을 비웃는 일도 나쁘
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빈정대거나
풍자로 강론하는 것도 나쁩니다. 그러한 일은 그들을 실망시키
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신심을 잃게 만들며 아무도 변화시키
지 못합니다. 참된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신심실천
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3. 고해사제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덕을 쌓도록 돌보아
야 합니다. 오늘날 가끔 강론에서 듣듯이 그저 감성적인 신심이
나 우리도 자주 기울어지곤 하는 외적 신심이 아니라, 먼저 습관
적인 욕정을 교정하도록 하는 신심을 쌓아야 하고, 그 다음 차츰

차츰 다른 덕성을 쌓아야 합니다. 참된 겸손, 애덕, 극기정신에
이르게 하는 신심,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생각을 배양시키는 신 174
심을 쌓아야 합니다.

4.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a)
가볍거나 고의가 아닌 내용이라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지난 삶의
죄들에 대해서도 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b) 가끔 고해사제를 바
꾸도록 권고해야 하고 비록 습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하고 주장할지라도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세심한 사람들만 예외로
해야 합니다.) c) 그들 신분에 맞게 신심을 신장시키도록 해야 하고
특별한 한 성인을 본받도록 채근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사랑하고, 열성적인 활동, 묵상, 성사생활을 자주하고
특히 영성체를 자주 모시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5. 열성적인 고해사제는 신심 깊은 이들에게서 그 자신도 도
달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선을 베풀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한 도
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딸들을 통하여 형제들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내들을 통하여 남편들을, 어머니를 통해
가족 전체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을 통하여 사제는
많은 훌륭한 활동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은 종종 윤리
적, 육체적, 경제적 활동을 통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성 예로
니모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뜬소문과 고해성사에서 혼란을 주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6. 사제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두려워할 만한 위험들 중 하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짧고 강경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cum mulieribus sermo brevis et durus.)

D) 소심한 사람들

고해사제가 만일 강론대에서 진지함에 대해서 자주 강론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가르침으로써 두려움과 소심함을 떨쳐낼 수 있게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죄를 고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고백하기 힘든 죄를 지었습니다. 제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해사제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진지함에 관한 강론은 항상 거의 즉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강론 후 고해성사를 보러 간다면 실효를 거둡니다.

고해성사에서 참회자들을 격려해줄 필요가 있고, 생각, 이야기, 열망, 활동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작은 것부터 점차 큰 것으로’ (a minori ad majus) 점진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항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형태로 죄를 지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만족감을 드러내야 하고 가끔 참회자가 솔직하게 표현할 때에는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고해비밀의 엄수를 보장해주면서, 그들처럼 고백하는 일은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덕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솔직한 고백은 좋은 의지를 입증해주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격려 해주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숨긴 죄가 심판 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고백을 한 다음에는 마음에 평화가 넘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놀랐다는 표시를 내서는 안 되고, 중한 죄상을 들을 때 즉각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되며, 결코 가혹하게 책망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죄를 고할 때까지 전체적인 교정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죄는 없애야 하되, 죄인은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죄를 꾸짖어야 하고 동시에 죄인을 강렬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E) 회의적인 사람들

고해사제는 회개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회개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176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고백한다면 그와 같은 비참한 영혼도 용서받게 될 것이고, 성 베드로, 막달레나, 성 아우구스티노도 처음에는 큰 죄인이었지만 나중에 위대한 성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F) 죄를 잘 고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불필요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고백을 듣고 마지막에 부드럽게 고백해야 할 내용과 고백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가려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2. 속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성사의 품위가 침해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고백자에게 알맞고 명확한 표현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스러운 죄를 너무 길게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고백을 즉시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고쳐주고 절대적으로 주어진 규칙에 따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뻔뻔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즉시 그에게

부드럽고 단순하며 강한 생각을 가지도록 제안하면서 숙고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자리에 하느님과 우리의 썸을 따져보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은 채 죽는 사람들은 하느님 법정에서 슬픈 상태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기다리지 않을 때 갑작스레 다가옵니다. 만일 우리가 벌써 임종의 고통에 있다면 양심에 걸리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죄경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입게 됩니다. 성인들은 이러한 일을 아주 잘 이해했고,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다가서기 178 를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G)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덕으로 나아가거나 부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기는 9세에서 19세 사이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개인의 성격, 교육, 환경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양성기간이기 때문에 삶에서 가장 섬세한 기간입니다. 마치 묘목이 받은 상처를 자라서도 늘 간직하듯이, 어떻게 양성 받았는지 나중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나이에 악에서 구원 받 177 은 영혼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나이에 파멸된 영혼은 지나간 세월 동안 그리고 아마도 전 생애 동안 망가져 있을 것

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시기는 1년 내지 2년 정도 지속될 것이고, 또는 조금 더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짧게, 어떤 사람들은 더 길게 지속됩니다. 일부 작가들은 이 시기를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울, 슬픔, 급기야는 건강 악화 등 외적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나 고해사제는 고백자가 고하는 내용 중에서 특히 신앙적 회의, 나쁜 생각, 욕망, 상상, 악에 따른 흥분, 꿈 등과 같은 것으로 고백자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죄가 되는 욕망을 품었다고 표명하는 것으로도 이 시기를 추론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경향에 의해서도 추론할 수 있으며, 또는 악을 알지 못한 채, 이미 정말 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나, 또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일종의 예감을 겨우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성에 대해 품는 자연적인 경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고해사제는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고백자를 자식으로 여기며 아버지처럼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기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이 179 시기는 삶과 영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는 대로 처신해서는 안 되고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을 피할 것. 나쁜 친구들과 이성, 나쁜 생각과 상상, 나쁜 신문이나 서적의 독서, 태만 등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와 특히 지극히 거룩한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고, 매일 ‘성모송’ 세 번을 바치며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돈독히 하고, 성모님께 모든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아주 훌륭하고도 대중적인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GUGGINO, 「Dell' impurità e dei mezzi per vincerla」(불결한 행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들), 1리라 (Cav. Pietro Marietti - Torino).⁴⁾

이 점에 이르러 우리 시대에 격렬히 야기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1. 가르쳐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2.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 3. 누구에게 그래야 하는지, 4. 소위 ‘생명의 신비’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모든 것에 대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많은 훌륭한 저술가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고 봅니다.

1. 젊은이가 이러한 ‘생명의 신비’를 모를 때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 이를 알게 되기 때문에, 또는 다만 위험하고 추하고, 아름답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완전히 모르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모르면 유혹도 적게 받을 것입니다. 복되고 순수한 무지여!

이러한 가르침이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부연해 둡니다.

2.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예방적이고, 보호적이고, 강압적인 수단 등을 채택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3. 이론적으로는 “부모들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유 때문에 부모들은 자연적인 교육자이며 자기 자녀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 규칙에 관한 교육을 다른 이들이 한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인물이 고해사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백지는 고해사제를 섬세하고도 친밀한 마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방법에 관하여 고해사제가 가장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해성사는 영적 광채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저속한 일도 초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방법.’ 사제는 모든 사람에게 강론을 하면서 항상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열정을 일깨

울 수 있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무기, 즉 죄지를 기회를 피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자 개인에게 알맞은 방법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젊은이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선보다 악만 알고 있다면,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고해소 밖에서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제는 가능한 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며 엄숙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소년으로서가 아니라 성숙한 남자로 대하고 싶고, 가족, 사무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너의 진지함과 총명함에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아주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려 노력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그에게 설명해주며,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이 창세기 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과, 남자와 여자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며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인간 육체에 관한 하느님의 최고 권리를 보여줄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교 질서를 주관하는 위대한 희생 법규를 설명해준 다음, 점차적으로 정결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윤리적, 육체적, 사회적 생각을 짧게 설명하며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De

4) G. GUGGINO, 『Dell' impurità e dei mezzi per vincerla』(불결한 행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들), Marietti, Torino 1907.

Gibergues.)⁵⁾

이에 비해 고백자가 ‘생명의 신비’ 전체 또는 거의 전체에 대해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해사제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알아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꽃술에서 꽃가루가 암꽃술 위에 떨어져 수분이 이루어져 번식되고, 씨방에서 열매가 맺히고, 마침내 씨방이 부서져 열매를 소출하게 된다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을 아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류 안에 서로 다른 성에게 그러한 부드러움을 선사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이러한 일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도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품성사처럼 영적 자식을 가지는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미사 등을 거행할 수 있지만, 누가 사제가 되기 전에 미사를 거행하였다면 신성모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인성사도 육체적 자식을 가지는 권한을 주지만, 혼인성사를 받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종의 신성모독입니다.”

고해사제는 마지막으로 인간은 극도로 연약하고, 생각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쁜 것들을 읽음으로써, 친구에 의해, 다른 성

5) M. DE GIBERGUES, 『La Castità. Conferenze』(정결에 관한 강연), traduz. del sac. E. Valenti(발렌티 신부의 번역), Artigianelli, Monza 1913, p. 53 참조.

별을 가진 사람과 친밀함으로써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피와 기도라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반드시 깊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교육을 ‘딸들에게도’ 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2

1. 그것을 하기 이전에 각 사제는 자신의 고해사제와 그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사제 자신이 ‘6계명에 관해서’ (de sexto)⁶⁾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평판은 어떤지...

2.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더 늦은 시기로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3. 어머니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설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권한 만한 최상의 서적은 바로 루이즈 신부의 책입니다. Ruiz, 『l' Educazione della Castità』(정결 교육)⁷⁾, 2리라(Cav. P. Marietti, Torino). 이 책은 사제들도 읽으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1

주의사항. 한 젊은 여성이 합법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해사제는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를 최대한 발휘

하여 결혼생활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고백자에게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만일 어떤 의심이 생긴다면 고해성사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해사제는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써, 신학자로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H) 모고해 또는 효과 없는 고해성사를 했던 사람들

일반 고해성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자가 마지막 고해성사(세속적 고해 또는 모고해)에 대해 고하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좋은 고해성사를 한 게 얼마나 됐는지 물어야 하고, 대략적으로 항상 마지막 고해성사가 세속적인 고해성사 또는 모고해 같은 것이었다면, 말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또는 고해성사에서 발생하는 결점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얼마나 자주 그런 식으로 성사에 임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우에 신부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죄의 종류와 횟수보다 ‘고백자의 상태’를 아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I) 준비가 안 된 사람들

6) 윤리신학에서 사용하는 표현: ‘제6계명에 관해서.’

7) A. RUIZ, 『Educazione della Castità』(정결 교육), Marietti, Torino 1909.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면 필수적인 ‘수단’이나 ‘규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보상해야 하는 것’, ‘불필요한 기회를 없애는 것’ 등과 같이 어떤 의무사항을 완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고사항은 다 해주되, 그들이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사죄경을 보류해야 합니다.

또는 ‘참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해사제는 죄를 고하는 것보다 통회에 더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를 자극하여 죄를 지었다고 여겨질 경우에 통회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죄경을 유보해야 합니다.

또는 ‘양심성찰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고해사제는 질문을 통하여 고백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명의 순서를 따르면서 그리고 고백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질의내용을 각자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시했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솔직하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

른 사람들의 물건이 혹여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4. 보속

규칙들:

1. “한 가지 종류만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에게 ‘주님의 기도’ 를 보속으로 주도록 합니다.
2.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낸 것에 대한 교정으로 주님의 기도를 다섯 번 바치도록 합니다.
3. “죄에 대한 처방이어야 합니다.” 가령, ‘탐욕에 대해 회사를 하도록 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강론을 듣도록 하고, 신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조배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결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서적의 일부를 읽도록 하고, 사흘간 양심성찰을 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흘간 아침기도를 바치도록 하는 등입니다.’

183

5. 훈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고백자가 죄를 고한 다음’, 일반적인 훈화를 합니다.

2. ‘적게’ 해야 합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아주 드물게 세 마디만 해야 합니다.

3. ‘짧게’, 그러나 ‘함축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인 여러분은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썸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신심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서적을 권할 수 있고, 긴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4. ‘먼저 준비해야 하고’ 보상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친구는 좋은 사과와 함께 있는 썩은 사과와 같으므로 피해야 한다.”

5. ‘죄를 알려주고 두려워하게 해야 하지만’, 그 대신에 결코 고해성사나 고해사제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면서 마쳐야 합니다.

6. 사죄경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제시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단지 고해성사의 실천적인 면에서 유

익하고 선호할 만한 것으로 여겨졌던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준비자세가 미심쩍을 때에는 아주 드물게 고해성사하는 사람에게 사죄경을 줍니다. 그러나 위에서 나열한 규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되는 대로 그리고 항상 사죄경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해성사가 효과를 냅니다.”

의심이 들 때에는, 자주 고해성사 보러 오는 ‘신심 있는’ 사람들과 ‘항상, 늘 같은 죄를 집요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따금 사죄경을 늦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184

7. 가장 통상적인 일반 경고

1. 죄의 회피: 나쁜 동료들, 태만, 나쁜 신문, 위험한 유흥.
2. 기도: 다시 말해 지극히 거룩한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기,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좋은 서적과 신문의 독서, 매 주일 하느님 말씀을 경청할 것, 일을 하면서도 자주 종말의 실재를 생각할 것.

8. 가장 통상적인 특별 경고

‘젊은이들에게’ (위를 보시오).⁸⁾

‘부모들에게’ : 강화, 교육, 교정,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

‘여성들에게’ : 참된 희생정신, 진지한 애정, 일종의 순명 정신을 가졌을 때, 남편, 자녀,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 게임, 논쟁, 술집을 피해야 합니다.

9. 고해사제의 행동

1.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 중 이루어지는 일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목상 태도가 하느님 백성에게 최상의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고, 때때로 고해하려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고해사제가 모든 필요와, 모든 경우에,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이 아주 필요한 여러 가지 특징적인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고해소가 사제에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한 번의 ‘성모송’, 한 번의 ‘수호천

186

8) ATP, nn. 177-181 참조.

사에게 바치는 기도' (Angele Dei), 한 번의 '오소서 성령이여' (Veni Sancte Spiritus), 한 번의 '주님의 기도' 등일 수 있습니다. 또는 "Adiuva me, Domine Deus, ut alios salvem, me ipsum non perdam"⁹⁾라고 기도하거나, 지혜서에 나오는 기도의 말씀을 기도로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Da, domine, sedium tuarum assistricem sapientiam."¹⁰⁾ 다음의 기도를 덧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Domine, esto in corde meo et in labiis meis, ut digne ac competenter hoc sanctum ministerium exercere valeam."¹¹⁾ 그리

185 고 마지막으로 'Actiones nostras'¹²⁾ 등과 같은 기도를 덧붙이고, '성모송' 을 한 번 암송합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며 고해성사 때 자주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고 친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도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경고사항' 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대기하고 있는 고백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짧고 생생하며 실천적인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해소에서' 사제는 많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말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 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 또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

9) "주님, 다른 이들을 구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제 자신을 잃지 말게 하소서."

10) 지혜 9, 4 참조: "당신 어좌에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11) "주님,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임하시어, 이 거룩한 직무를 합당하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야 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규정은 또 다른 규정을 낳습니다.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즉, 정말 권한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행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소박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연민을 가져야 하고 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행동하는 것만으로 모두를 위해 충분합니다.

3. '고해성사 후에' 그 내용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든(정말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에 관해 187 이야기하던 절대 금물입니다. 오! 고해성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특히 엄밀하게 말해서 '제 6계명에 대한' (de sexto)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사의 비밀이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가정된 경우에도 그러한 죄악이 발생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사제를 위해서도 나쁘고, 세속인들을 위해서도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 사제관에서, 업무 중에, 영신수련 등을 하는 와중에 그와 같은 잘못을 항상 피하고 있습니까? 고해성사의 내용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

12)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어, 모든 활동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제의 예식 다음 목요일 본기도: *역주: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님, 저희의 활동에 영감을 주시고 당신의 도움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의 모든 활동이 항상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라면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원로 사제들, 그리고 가끔은 그다지 연로하지 않은 사제들이라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향이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애덕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제들에게서 쉽게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 스스로… ‘제6계명에 대해’ (de sexto) 해이해져 있다고 지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조할 수 있는 서적들이 있고, 의논할 수 있는 진지하고 가볍지 않은 사제들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식탁이 아주 개별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식탁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자에 대해 의심하기보다는, 고해성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기보다는, 계속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차라리 어떤 경우를 잘못 해결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10. 실천을 위한 두 가지 해결책

1. ‘실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자로 하여금 우리가 외적 학문을 우리의 학문인 양 물리적 확실성의 확실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본 다음 우리가 고해성사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의심할 기회를 결코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해성사는 그 자체가 일상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고백자가 죄를 고할 때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요, 고해소로부터 나오면 모든 것을 두고 나오고, 고해소에 결코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은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고해사제들로부터 매우 유익하다고 평가받는 실천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2. 젊은 여성에게 수도자가 되라는 조언을 결코 하지 않거나 젊은 청년에게 사제직을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절대 하지 않는 고해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가 많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결론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사제들은 ‘너무’ 쉽게 수도자가 되려고 하는 데 동의하고, 마찬가지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녀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성소는 부족하고, 신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훌륭한 작가의 글로 마무리짓는 것이 아주 좋으리라 믿습니다. “성직자가 많은 것이 나은지, 적은 것이 나은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

된 성소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소가 있다면 가꾸어야 합니다. 성소를 잃거나 성소가 없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성소도 주시지 않으시고 너무 적은 일꾼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당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지 깨어 지켜봐야 하고 부르심 받은 이들이 바깥에 남아 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수도 성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긍정적이라면 호의를 가지고 힘껏 지원해야 하고, 부정적이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제직에서 물러서도록 하면서 단념시켜야 합니다.

11. 고해사제와 독신자

여기에서는 세속 한 가운데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189 프라씨네티¹³⁾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공동생활을 이해하였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물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그와 유사한 강론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사제직을 대중적인 명망

에서 드높일 수 있기 때문이요, 성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비록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너무도 힘든 덕성, 곧 정결의 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가끔 그런 유형의 강론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사제의 고상한 사명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 188 부를 여느 직장인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비록 세속에 살더라도 독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독신을 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1.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2. 정결하게 “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가끔 이들 독신자가 고해사제들에게 가장 성가신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수나 또는 처남, 매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는 기회가 잦기 때문이고, 혹은 ‘고독으로 인해’ 과실을 습관적으로 범하면서 교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3. 일반적으로, 특히 여성에 대해 말하면, ‘살아갈 바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집에 머무는 삼촌들 또는 고모나 이모들’ 이 얼마나 자주 모든 이들, 조카들, 형제들, 자매들

13) G. FRASSINETTI, “Il padaciso in terra nel celibato cristiano” (그리스도교 독신 안에서 지상의 낙원), in 「Letture cattoliche」(가톨릭 문학), anno IX, fascicolo IX, Paravia, Torino 1861, pp. 77-81 참조.

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적어도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상속 받을 희망이 있다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홀로 살면서 병이 들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독신자가 아주 좋은 [하나의] 신분이지만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므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독신자들이 본당신부에게 종종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독신 남성의 경우라면, 제의실지기를 하거나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는 일을 할 수 있고, 독신 여성이라면 때때로 젊은 여성들을 인도하고 재봉일을 하게 하거나 190 일하러 오는 모든 젊은 여성들을 신심의 길로 이끄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정신을 갖추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한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덕행을 쌓기 위한 수단은 통상적으로 순결의 덕을 위하여 제시된 수단들입니다. 곧 위험의 회피와 기도입니다.

12. 고해사제와 기혼자

여기에서는 오로지 이 신분에 관한 ‘몇 가지’ 특별한 경고사항만 암시하고자 합니다.

1. 사도 바오로의 경고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elius est nubere quam uri.”¹⁴⁾ 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혼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면..., 이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위한 행보를... 지혜롭게 권고하는 것은 아름다운 애덕입니다.

2. 결혼을 바란다고 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서로를 소개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불장난에 빠지게 되면 상당한 지혜가 요청됩니다. 결혼해야 할 사람인 이상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종종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비슷한 희망 속에서 속고 맙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경우에는 늘 죄를 지을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은 다음과 191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약혼을 하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고 약혼할 의사가 없을 때 육체적 연애는 항상 해롭습니다... 약혼을 결심했을 때, 그리고 외적인 상황이 결혼을 허용할 때 서둘러야 합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약혼자들은 함께 있지 말아야 하고 그들끼리 머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그런 다음 사제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약혼 기간 중에, 이미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구실로 자녀들에게 눈을 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충분

14) 1코린 7,9: “육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결혼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구실을 붙여 온갖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입관이 많은 지역에서 만연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을 다룰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4. 사제가 젊은 남녀를 결혼시키는 책임을 떠맡게 되면 대체적으로 심각한 속임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친척일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깁니다.

5. 사제는, 특히 본당신부는 결혼과 관련해 나쁜 정보를 말하기 전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정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이 훨씬 나올 듯합니다. “다른 사제들에게 그들을 보내는 편이 훨씬 나올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좋게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사제를 통해서라도 말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다른 사제에게 보내지도 않고 입을 다물어버린다면,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6. 결혼을 통하여 결합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제는 혼인성사의 신성함을 상기시킬 수 있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합당하게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킬 수 있고, 그가 지켜야 할 의무와, 동반자와 미래의 자녀들에 관련된 의무들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

기해 주어야 합니다.

7. 신랑과 신부가 충분한 종교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사제는 통상적으로 고해성사 중에는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그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신랑은 혼자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낫고, 신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 앞에서 질문을 해 시험을 봅니다.

8. 어떤 젊은 여성이 결혼하기에 합법적인지에 [관하여] 질문한다면, 그녀의 어머니나 진실한 친지에게 그녀를 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편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위에서 다른 사항을 보시오[n. 181]).

9. 일부 여성들이 남편의 무관심, 불신을 두고 불평할 때, 의심을 깨끗하게 버리기 위해서든, 남편의 온 마음을 얻기 위해서든, 가능한 한 남편을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하라고 아주 간결하게 권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 어려움이 새로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평소대로 권고를 해준 다음, 평판이 좋은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어떤 시기에는 임신하기가 아주 어렵고, 희생도 필요하며, 이러한 시기에는 아이를 가지는 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권고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가 품위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 주시는 주님을 이처럼 기만하였으니 여러분은 하느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던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점이 고해사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사제들이 오나니즘(onanism: *역주-창세기 38장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흔히 자위행위와 혼용하고 있지만 본뜻은 질외사정을 의미하는 성교중단을 말함)을 중죄라고 거론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을 주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점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는 거의 아무런 결실을 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일입니다.

13. 고해성사를 자주 하도록 준비시키는 방법

원칙들. - 위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 즉 종교의 목표와 사제의 목표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혼들을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사제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사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제는 정치가도 아니요, 음악가도 아니며, 문학가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은행가도 아닐뿐더러 곡예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것일 때에는, 이 모든 직책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제가 하는 모든 일은 사제의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제의 고유한 목표란 성사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사제가 최대한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192

수단들. - 1. ‘강론대로부터.’ 고해성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해성사의 이로운 점과 고해성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주제로 한 강론을 자주 해야 합니다(복음에 대해 말할 기회, 교육할 기회,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 봉헌된 특별 축일, 성탄, 부활 등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월중 기회(5월, 6월, 10월, 11월 등), 성모님 축일 등의 기회 때, 비록 다른 시기처럼 강론 전체를 할애하지 않더라도, 고해성사를 하도록 아주 단순한 초대를 종종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교리를 가르치면서 소년들을 많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때때로 고해성사를 하도록 이끌어야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

해성사하는 것처럼 모두 함께 볼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빨리 보는 방법을 잘 설명한다면 그들은 고해성사를 보는 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두 달마다 한 번씩 그들 모두가 고해성사를 볼 기회를 마련하여 그들을 뜨겁게 초대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2. ‘고해소에서.’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고백자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고백자가 성인 남성들이라면 어떻게 고해성사를 할 시간을 찾아야 할지 가르쳐주어야 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것이 성사를 빨리 잘 보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증명해보여야 합니다. 남성들은 더 바쁘고 인내심이 적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고해성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본질적인 사항들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¹⁹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사람들을 호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자녀들과 남편들로 하여금 고해성사를 보게 하는 목표를 가지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기업주들에게는 그들의 종업원들을 고해성사를 보게끔 권면하고 시간을 주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고해성사가 교정 수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불행한 죽음의 위협에 대항하는 보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고해성사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이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 a) “성당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야 합니다.” 프

라씨네티(Frassinetti)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해사제가 여러 명이 있는 성당이 있지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임), 또는 먼저 미사성체를 거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는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는 고해소에 소수의 고해사제만 있거나 아무도 없습니다.”¹⁵⁾ 성당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는 일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골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도시에서는 여유있게 기다릴 수 없는 일꾼들, 가정부,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고해소에 옵니다. 시골에서는 이른 시간에 고해성사를 많이 하거나 대다수가 더 이상 고해성사를 보지 않게 됩니다. 아주 열성적이고 상당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 보좌신부가 있는 동안 신자 3,000명가량이었던 어떤 본당에서는 매주 영성체하는 사람이 2,000명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보좌신부가 바뀌고 나서 영성체하는 사람이 매주 8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고해소가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제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묵상을 하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고백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고해소 근처에 무릎을 꿇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거기에서 고백자를 기다리는 동안 원한다면 묵상을 시작

15) G. FRASSINETTI, 『Manuale pratico...』(초임 본당신부의 실천적인 매뉴얼), op. cit., pp. 356-359 참조

195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 “한결 같아야 합니다.” -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고백자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혹시 몇 달이 지나면, 몇 명이 고해소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본당에서는 교리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방과 후에 성당에 가면 고해사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떤 본당에서는, 목요일 아침에 30여 명이 영성체를 하고, 주일에는 50~60명 이상의 아이들이 영성체를 합니다. 그 본당은 아주 작은 본당인데도 말입니다!

c) ‘정해진 시간.’ - 이 세상의 모든 직무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명령에 속박되지 않으면서도 직무를 어느 정도 확고하게 유지해나갈 줄 아는 실천적인 사제들의 생각은 상당히 칭송할 만하다고 봅니다. 조금씩 사람들은 습관을 들여갑니다. 고해사제들이 많은 본당에서 고해사제들은 본당신부의 인도 아래 항상 고백자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잘 이해해야 할 사항: 고백자가 올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 준비함) 그들끼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¹⁶⁾ 한 명 또는 2명의 사제만 있는 본당에서는 ‘사람

들에게 공통적으로 편리한 시간에’ 고해소 근처에서 고해사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자리 잡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제들은 고해소 곁에서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해, 묵상을 하기 위해, 영적독서, 성체조배, 묵주기도를 하기 위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아침에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저녁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조금씩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짧게나마 1년 내내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본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간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이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희생정신, 영혼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보다는 다른 이들의 편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만 고해소에 가는 것과 그곳에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것에는 196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감히 사제를 부를 엄두를 못내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낌없이 사제를 찾습니다. 어떤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해소 옆에 벨을 달아놓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제가 고해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어야 하는 상황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해소 가까이에서 머

16) “합의할 수 있습니다(accomodarsi).” “동의할 수 있습니다(accordarsi).”

물 수 있다면 상당히 좋고, 고해소에 계속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d) “외부 고해사제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한 내용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인근 본당의 사제들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본당에서 특별 고해성사의 기회가 있을 때 몇 번 집중적으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주간의 하루 또는 보름마다 서로 장소를 맞바꾸거나 하든지(잘 이해해야 할 사항: 한 명 혹은 두 명의 사제만 있는 지역에 대한 사항임).

e) “충고해성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회는 사람들도독으로 만들고 가끔은 성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신수련, 40시간, 사흘간의 성체대회, 9일기도, 주님의 축일(성탄대축일, 성령강림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사순절, 5월 성모성월, 6월 성심성월, 10월 묵주성월, 월간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최근에 사용된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은 성체흡송 사제회의 병설 단체 방법입니다.¹⁷⁾ 그 방법에 따르면 공적인 성체흡송의 시간을 아주 장엄하게 보내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한 달 동안 주일마다 남성들, 여성들, 젊은 여성들, 젊은 남성들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으로 삼습니다. 수도자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에 다가가도록 주어진 규칙을 통하여 회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 프란치스

코 제3회처럼 교육하는 것입니다.¹⁸⁾

어떤 사제는 매년 자기 본당에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부활을 보내거나 또는 최근의 거의 모든 주일을 준비되지 않은 채 보내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위한 유산을 제정하고, 강론을 사순절 각 주일마다 하나씩 하도록 나누어 정하고 성지주일 이전 주간에는 매일 두 개씩, 즉 아침에는 묵상, 저녁에는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순절 전체 기간에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직 한 주간의 강론에만 참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흘간 외부 고해사제를 초대하였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은 만족스럽게 부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동안 3주간의 강론을 나누어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교리교육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흘간의 부활 준비, 젊은 여성들을 위한 사흘, 세 번째는 더 이상 교리교육을 받지 않는 젊은 남성들을 위한 사흘, 네 번째는 여성들을 위한 사흘, 다섯 번째는 남성들을 위한 사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 각 주일마다 강론 하나씩 유지하도록 분배를 합니다. 각 주간 마지막에는 신심 깊은 양형 영성체를 하도록 합니다. 각 그룹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의사항과 숙고내용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들과 직공들을 구분해서 교육합니다.

17) ATP, n. 34, 각주 30 참조.

18) ATP, n. 94, 각주 4 참조.

그러나 물론 그와 같이 나눈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더 용기있게 나서서 며칠 사이에 하도록 짜인 매우 피곤하고 효과도 적은 일 무더기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2장 영성체에 대하여

1. 어떻게 성체를 자주 모시도록 할 것인가

고해성사는 우선적으로 하느님과 영혼의 일치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영성체를 하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제 직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교황청의 최근 지침 이후 더욱 절실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부각되었습니다.¹⁾ 영성체가 개인의 삶,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에 대한 열렬한 염원을 중시한다면, 하느님과의 일치는 그만큼 더 참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수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저는 주요한 요소들만 열거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참된 열성과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다른 수많은 수단들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1. '기도': 교황 비오 10세께서 대사를 내리신 '매일 영성체 습관의 보급을 위한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또는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암송하게 하거나, 또는 이 기도를 미사 중이든 장엄한 성체흡송의 시간이든 신자 전체가 바치도록 합니다.²⁾

2. '열심한 연구': 영성체에 관한 교황청 문헌들과 주교 문헌들에 대한 열심한 연구.

3. '성체성사 연맹(Lega Eucaristica)'의 회원이 되고 성체흡송 사제회에 가입할 것.

1) EX S. CONGREGATIONE CONCILII(교황청 교령), 「Sacra Tridentina Synodus」(트리엔트 시노드), XX decembris 1905(1905년 12월 20일), ASS, XXXVIII (1905), pp. 401-406 참조.

4. ‘강론대를 활용할 것’: 자주 성체성사를 주제로 강론하고, 복음을 설명할 기회와 다른 수많은 기회를 잡아 강론을 합니다. 매일 영성체와 잦은 영성체를 위해 요청되는 마음자세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축일, 성월, 9일기도의 특별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론은 많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강론하는 사람에 대한 평판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순절 특강, 9일기도와 성월의 기회에 하는 강론이 전체적이고 장엄한 영성체로 결론을 맺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표시가 됩니다.

잦은 영성체를 촉진시키는 강론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2) ‘매일 영성체의 경건한 습관의 보급을 위한 기도’: “오 가장 감미로우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모든 이에게 당신 은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생명을 인간 영혼 안에 보존하시고 성장시켜주시며, 그들의 일상적 고질병에 대한 매일의 약이요 그들을 위한 매일의 양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기도드리오니, 지회의 사랑에 대해 그토록 불타는 당신의 성심을 통하여 모든 이 위에 당신 성령을 내려주시어, 불운하게 대죄에 빠진 이들이 당신께로 회개하도록 이끄시어, 잃었던 은총의 삶을 다시 얻도록 해주시고, 당신의 선물을 통해 이미 이러한 신적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할 수 있을 때마다 매일 열심히 당신의 거룩한 잔치상에 다가서도록 하시어, 거기서 매일 영성체를 통하여 날마다 그들 일상의 소죄에 대한 해독제를 받아 모시고 당신 은총의 생명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항상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침내 당신과 더불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 EX S. CONGREGATIONE INDULGENTIARUM ET SS. RELIQUIARUM, 「Indulgentiae tribuuntur recitantibus quamdam orationem pro propagatione pii usus communionis quotidianae,」(매일 영성체의 경건한 습관의 보급을 위한 기도문을 암송할 때 대사를 부여함), ASS, XXXVII (1905), pp. 794-795 참조.

있습니다. a) 40시간의 성체조배. 양형 영성체를 하도록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합니다. b) 사흘간의 성체성사 행사. 정확한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 두 개의 강론을 합니다. 즉 아침에는 묵상을 하고 저녁에는 강의를 합니다. 양형 영성체로 마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장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유지하는 곳에서는 정말 아주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골 마을에서 영성체의 잦은 습관을 확립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이전에 그 마을은 일주일에 3명도 영성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80여 명이나 영성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매월 성체흡송의 시간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영명 축일에 영성체를 하도록 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고해소를 활용할 것.’ - a)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지런히 강조해야 합니다. b) “질문을 통해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몇 번이나 영성체하러 나갔습니까, 왜 더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성체 못할 이유를 없앨 수 없습니까?” 201 주의사항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조심하도록 강조해야 하고, 며칠 동안 영성체를 못할 장해요소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자마자 영성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죄인이었던더라도, 다음 주일에 각자 자주 영성체를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모셔둔 제대에서 전례를 거행하러 갈 때나, 다른 곳에서 거행하기 위해 성체를 모셔갈 때나, 성당 문을 일찍 열 때나, 정확하고 편리하며 익히 알려진 시간에 미사를 정할 때나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체성사 공경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구 및 장식, 전례음악, 신선한 꽃들 등 장엄한 외적 요소들도 돌봐야 하고 특히 양형 영성체와 성체흡수 시간과 같은 기회에 주의를 기울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앞서 이미 고해성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언급한 모든 수단들을 활

200 용할 수 있습니다.

7. ‘출판물을 통해.’: 성체성사에 대한 공경과 특히 영성체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이고, 매력적이며, 실천적인 인쇄물과 소책자들을 보급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들의 보급은 사흘간의 성체성사 행사 후나 또는 양형 영성체 후에 할 수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병자들과 함께.’: 병자들을 위해 쉽게 하도록 해주는 교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노자성체를 아주 일찍 모셔가고 또한 영성체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마 교황님께서서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도달한 어린이들이

이 첫 영성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 (semi-fatui)에게도 영성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점은 어린이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절실히 요청됩니다.

주의사항. 많은 본당에서 사용하는 최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영성체를 한 인원의 자료를 작성하여, 한 해와 다른 해를 확실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부활절 준비에 필요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매년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두 분의 본당신부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 본당신부님은 그 숫자를 85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 잦은 영성체를 위한 연맹³⁾

202

중요성. - 연맹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즉 열성적인 교회활동(고해소, 강론대, 방문, 교리교육 등)을 통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병자들, 어른들, 젊은이들의 잦은 영성체에 관한 교황님의 교령을 실행하기 위한 사제들의 모임입니다.

실천. - 사제는 다음과 같은 일보다 더 중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인간 영혼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활동은 이러한 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사제라고 말하더라도, 사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들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됩니까? 특별히 고해성사와 영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이러한 성사에 자주 참여할수록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천상에서 더욱 결정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사제는 인간 영혼들을 성체성사로 이끄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맹의 '정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유로운 의무사항이 아니라 중대 의무사항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폴레티(Poletti)⁴⁾ 신부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제들이라면 이에 연관된 모든 의무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3) 1905년 12월 20일의 교령 'Sacra Tridentina Synodus' 에 이어서 C. 젤나리(Gennari) 추기경은 영성체를 자주하고 나아가 매일 영성체를 하도록 신자들을 초대하면서, 교령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체성사 사제연맹' (Lega Sacerdotale Eucaristica)을 설립할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교황 비오 10세의 뜨거운 호응 속에 허가를 받았고 연맹은 로마에 있는 성 클라우디오 성당에서 결성되었다. 1916년 8월 10일자의 교황 소칙서를 통하여 수위권 직속 연합(Associazione Primaria)으로 승격되었다. G. DOMENICALI, 「Congregazioni religiose e leghe eucaristico - sacerdotali」(수도회와 사제 - 성체성사 연맹), in A. PIOLANTI (a cura di), 「Eucaristia」(성체성사), Desclée, Roma 1957, pp. 975-982 참조.

다. 그렇지만 가입을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영적 특은을 누리게 됩니다.

'성체흡송 사제 병설단체' (Aggregazione tra I Sacerdoti Adoratori)⁵⁾의 계열회입니다.

3. 어린이들을 위한 성체성사 교육

묘목들을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낡은 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낡은 사회를 쇠신시키기 위해서, 교황 비오 10세기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영성체에 관한 교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성체성사의 성찬 203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신적 피와 혼합된 순수하고 관대한 피가 유년시절부터 흐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갖은 영성체에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황 비오 10세기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요,⁶⁾ 어린아이들에게 세상, 육체적 유희, 악마 등이 무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토리노의 성체성사 신부회의 회장인 카를로 마리아 폴레티(Carlo M. Poletti) 신부를 말한다. 5월 27일자의 「Gazzetta d'Alba」, XXX (1911), n. 21 참조.

5) ATP, n. 33, 각주 29 참조.

첫영성체 - 알바 성체성사 첫 모임⁷⁾(1911)에서 발원한 서약과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첨부사항과 더불어 옮겨 적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삶에서 아주 잘 치른 첫영성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순진무구함을 잃어버리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순수의 원천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숙고하면서, 서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본당신부들, 사제들과 고해사제들은 첫영성체 나이에 대한 규정에 관한 교황님의 염원과 의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열성과 영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시적 준비는 집에서 어머니가 준비시키고 사제나 그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교리공부와 설명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미시적 준비는 적합한 강론을 통해서 준비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 3일기도와 고해성사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준비는 그들로 하여금 준비행위와 감

사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령의 규범에 따라 어린이들을 첫영성체에 준비시키고 이끌어주는 의무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은 능력을 갖추자마자 첫영성체에 참여할 자격을 개별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 본당마다 대상자가 얼마이든지 첫영성체를 위한 특별한 전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대상자가 아주 소수라면,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다루되, 이들에게 적어도 특별한 지위나 차별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가능한 한 이 축제가 본당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들과 친지들을 초대하고 모든 신자들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전례의식을 장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정신과 마음이 산만하지 않도록 외적인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내적 묵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날을 그들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첫영성체 준비자들(neo-comunicandi)의 친지들과 신자들이 첫영성체 축제행사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허락된 대사들⁸⁾을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1. 첫영성체를 하게 되는 어린이들에게 전대사를 줌 2.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

6) S. CONGREGATIO DE SACRAMENTIS, decr.(교령) 「Quam singularis」, AAS, II (1910), pp. 577-583 참조.

7) 1911년 5월 3일자 「Gazzetta d'Alba」에서 성체흡송 사제회의 교구 책임자인 G. 프리에로(Priero) 신부는 6월의 주님의 성체성혈 대축일 8부 축제 중에 거행될 알바 성체성사 첫 모임에 대해 선포하였다. 그런 다음 5월 27일에는 그 모임의 의장직을 토리노의 성체성사 신부회의 원장인 카를로 마리아 폴레티(Carlo M. Poletti) 신부가 맡았다고 선포하였다. 「Gazzetta d'Alba」, 5월 13일자와 27일자, XXX (1911), nn. 19, 21 참조.

체를 한다면, 3대에 걸치는 친지들에게 전대사를 줌 3. 적어도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7년과 40일씩 7번 (sette anni e sette quarantenne: *역주- 30, 50, 100일 등과 같이 대사, 전대사의 효력일자) 전대사를 준다.

외적인 요소도 매력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당장식을 5월 성월의 장엄축제처럼 꾸미고, 축제 전야에도 종을 경쾌하게 울리며, 특별 저녁기도 노래와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고, 첫 영성체 대상자들에게는 특별석을 지정하고, 가능한 한 어린이들의 행렬을 실시하고, 각자에게 자기 성과 이름과 첫영성체 일자 등을 새겨놓은 기념 상분을 나누어주며, 기존 세례자들을 위해서는 세례서약 갱신과 그들을 위한 저녁기도 전례를 실시하면서 가벼운 성체조배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봉헌하는 예식 등을 치룹니다. 이러한 외적인 매력 요소는 비교적 덜 중요한 것이지만, 잘만 한다면 나름대로 효과를 가집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족에게도 특별한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하며, 어떤 표식을 달도록 해주고, 오후에 가벼운 파티를 준비하여 초대하는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경험과 지역 상황에 따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Enchiridion Indulgentiarum」(대사 편람), Typis Polyglottis Vaticanis, Ed. altera, n. 151 참조.

다른 종류의 영성체들:

어린이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영성체를 자주하여 참된 성체 성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들에게 1년 동안 여러 차례 양형 영성체(*역주- comunione generale는 전체 영성체라는 의미보다 의미상 양형 영성체를 뜻한다 204 고뵐)를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교구에서는 3개월마다 한 번 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본당에서는 2개월마다, 그리고 매월, 특히 축제, 9일기도 등의 기회가 있을 때, 양형 영성체를 모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영성체를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끔씩 3일기도 또는 영신수련 일주일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무상의 선교사 연맹(Legata I Missionari gratuiti)⁹⁾의 훌륭한 강사들의 강론을 활용하거나 인근 본당의 사제들끼리 서로 바꾸어 강론할 수 있습니다.
3. 젊은이들이 개인적으로도 성체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역할도 유용하고 교사들과 교리교육의 보조자들의 도움도 소중합니다. 성체흡송의 시간, 연말, 특별 축제 등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4. 강론, 주의사항, 교리교육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하고,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해주며... 간단하게 말해, 젊은이들에 대한 사제직무의 방향을 짚은 영성체의 실천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 지루함, 고통 등으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성체성사 3일 기도

206

40시간 기도 신심(*역주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던 40시간을 공경하기 위하여 40시간 동안 성체를 장엄하게 현시하는 신심으로 16세기에 시작됨)의 일종이지만, 성체를 자주 모시도록 촉진하는 것을 특별한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중요성은 이미 목표와 교황청의 권고사항에 의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일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5 1. 1906년 7월 27일의 교령과 같은 해 8월 10일자의 소칙서를 통해 제정된 성체성사 사제 연맹(Lega sacerdotale eucaristica)의 3일기도가 있습니다.¹⁰⁾ 이 2일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a) 적합한 시기라고 믿으면 언제든지 거행할 수 있습니다. b) 영신수련 3일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 묵상과 강의로 이

9) '소개글', 각주 34 참조. 교구 사목의 시도라고 보이는 일부 알바 사제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교구에서 어느 감독대리(지구)의 사제들은 인근 본당에서 거행한 미사의 예물만 받고 며칠 동안 선교활동을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루어집니다. 강론 주제에 대한 사항은 아무 것도 규정된 것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날은 악에 대해서, 대죄의 징벌과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죄인의 상황을 다룹니다. 둘째 날의 묵상과 강의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를, 특히 고해성사 안에 드러난 자비를 다룹니다. 죄를 의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과 갖추어야 할 마음자세와 은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명해줍니다. 이어서 셋째 날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c) 3일기도가 끝난 후, 그 다음날 아침, 가능한 한 축일을 택하여, 틀림없이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양형 영성체의 기회를 잡아, 강사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와 같은 영성체는 그날만의 행사가 아니라 종종 되풀이되어야 하고 매우 자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권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강론을 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간을 택하여 성체현시를 한 다음, 잦은 영성체의 보급을 위한 기도를 암송하고, 모든 신자에게 기도문을 나누어주어 성당에서나 집에서 때때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d) 양형 영성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강사가 '연맹에 가입한 사람' 이라면 영성체 후에 신자들에게 십자 표시로 강

10) EX SECRETARIA BREVIUM(교황청 소칙서), 「Associato "Sacerdotale Eucaristici Foederis" (성체성사 사제연맹)», 27 Julii-10 Augusti 1906(1906년 7월 27일-8월 10일), ASS XXXX (XL)(1906), pp. 531-533 참조.

복을 주어야 합니다(1906년 8월 10일 소칙서).

2. 교황청에서 대사에 대하여 제정한 3일기도(1907년 4월 10일)¹¹⁾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a) '주님의 성체성혈 대축일'에 연이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거행하거나 또는 주교단이 허용하는 연중의 다른 시기에 거행해야 합니다. b) 지시된 목표에 따라 사흘 동안 공식적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c) 3일기도 중 날마다 성체성사와 영성체를 할 마음자세에 관하여 강론해야 합니다. d) 성체현시를 한 상태에서 강론 후, '성체강복 성가'(Tantum Ergo)를 부르기 전에 잦은 영성체를 위한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e) 주일에는 해당 복음에 관한 강론을 하고 양형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정화된 영혼들에게 허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일기도 중 매일 7년과 40일씩 일곱 번 대사가 주어 집니다. 2. 적어도 한 번 신심 깊은 마음으로 영신수련(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정확한 영신수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선택한 날에 전대사를 줍니다. 3. 주교좌 성당이나 본당에서 주일에 고해성사를 하고 양형 영성체에 참가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전대사가 주어 집니다.

그와 같은 3일기도는 필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권장할 만한

11) EX S. CONGREGATIONE INDULGENTIARUM, decr.(교령) 「De quotidie SS.mae Eucharistiae」(매일 드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에 대하여), ASS, XL (1907), pp. 317-320 참조.

것입니다. 40시간 기도처럼 성체현시를 해야 하고, 성당과 중앙 제대를 잘 꾸며야 하며, 매일 한 시간씩 장엄 흠숭 등을 드려야 합니다.

성체성사 3일기도에 대한 강론을 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발간된 최상의 서적은 자르디니(Giardini)의 저서입니다.¹²⁾ 즉 「Triduo Eucaristico secondo lo spirito di S. S. Pio X」(교황 비오 10세의 정신에 따른 성체성사 3일기도). L. 0,75(0.75 리라)와 「Ore Sante dinnanzi al SS. Sacramento」(성체 앞에서 바치는 성시간). L. 1,25 (Cav. Pietro Marietti, Torino).

5. 영성체의 결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우리 시대에 이르러 잦은 영성체를 위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잦은 영성체가 오히려 일부 미지근한 사람들로 하여금 성체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두려워 207
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문헌에 포함된 다른 표현들은 주의하지 않더라도, 영성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은총의 상태와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교령이 정한 대로만 지킨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사효성(ex opere operato: *역주- 누가 집전 하든 성사의 집행에 의해 효과가 주어진다)는 뜻. 행위 자체에서 주어지는 효

12) L. GIARDINI, 「Triduo Eucaristico secondo lo spirito di S. S. Pio X」(교황 비오 10세의 정신에 따른 성체성사 3일기도), Marietti, Torino 1913; 「Ore Sante dinnanzi al SS. Sacramento」(성체 앞에서 바치는 성시간), Marietti, Torino 1914.

력에 의해 효과가 산출될지라도, 새로운 율법의 성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큰 만큼 성사를 받는 이들의 마음자세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체를 모시려면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하고 각자의 상황과 의무와 능력에 걸맞게 합당한 감사를 드리려야 합니다.’

찾은 영성체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인간 영혼들을 조금씩 소죄와 죄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¹³⁾

다음 이야기는 보나(Bona) 추기경께서 언급한 바 있는 ‘영성체 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그 이유’입니다.

1. “Quia aliud comedimus, aliud esurimus.”¹⁴⁾ 다시 말해 가난한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 인내하시는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한편으로는 부, 명예, 쾌락, 복수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매번 조금씩 강론대와 고해소에서 사람들 영혼에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염원은 신자들이 매일 성찬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결속된 신자들이 욕정을 절제할 힘,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잘못을 정화시킬 힘, 인간적 연약성이 직면하게 되는 중죄를 피할 힘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13) EX S. CONGREGATIONE CONCIL II, 「Sacra Tridentina Synodus」(트리엔트 시노드), op. cit., pp. 401-406, art. IV. 참조.

할 흠숭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요, 각자의 덕에 대한 상이나 보수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잦은 영성체의 목적이 됩니다.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각지는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어떤 결점을 고치겠다는 목표, 부족한 덕목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고치겠다는 열렬하고 활기찬 의욕을 가지고 영성체에 임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즉 “일부 속된 영혼들에게 있어서… 영성체는 모든 소죄를 지닌 채 끝나고 맙니다.”

2. “Omissio necessariae praeparationis.”¹⁵⁾ - 이러한 [준비]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특히 성체를 자주 모시는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적어도 15분 정도 준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일로 바쁜 곳에서는 영성체의 목적을 정하고, 영성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전날 저녁까지 준비하며 좋은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지금 하려고 하는 위대한 행위를 즉시 상기하고, 덕행을 실천하며, 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성당에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성당에서 그렇게 긴 형식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

14) “먹는 것 다르고 갈망하는 것 다르기 때문입니다.” J. BONA, 「De Sacrificio Missae」, Tractatus asceticus continens praxim, attente, devote et reverenter celebrandi」(「미사성체에 대하여」, 실천적이고, 주의 깊으며, 신심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덕신학과 존경할 만한 집전자에 관하여), Marietti, Taurini 1900, p. 211 참조.

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즉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책을 지참하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과 '통회의 기도' 를 바치도록 합니다. '주님의 기도' 와 다른 기도 문도 바치도록 합니다. 영성체 전이나 후에, 장엄한 설교를 하는 관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청중의 마음속에 영성체에 대한 생각과 애정이 깊이 들어가도록 단순하고 분명하게 천천히 말해야 하고, 다른 기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자주 들려주어야 합니다.

영성체 준비와 감사와 같은 적당한 기도문을 담고 있는 부활 기념품과 상본을 인쇄하는 관례는 칭송할 만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러한 기회에 실천할 수 있는 결심과, 결실을 보존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곁들여 인쇄해야 합니다.

3. "Quid ad exteriora statim divertunt."¹⁵⁾ 준비를 위하여 언급된 내용을 감사를 드릴 때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감사는 하루 종일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고, 덕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온종일 아침의 영성체를 기억해야 하고 적

15) "필요한 준비의 누락 때문에." J. BONA, 「De Sacrificio Missae...」(미사성체에 대하여), op. cit., p. 211 참조.

어도 짧은 영경기도를 바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성사를 통해 머무시고 그러한 시간에는 사랑과 감사와 희망과 질문의 행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6. 영성체로부터 얻는 이익의 표시

성 프란치스코 드 살께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감미로워지고, 온유해지면, 영성체가 빚어내는 참된 표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다른 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에 비길 만합니다."¹⁷⁾

성 프란치스코께서 감미로움과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는 모든 덕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인내, 애덕, 정결로 확장할 수 있고, 자식을 교육하고 순명하며,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각자 신분의 의무사항에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16) "즉시 외적인 일로 마음이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J. BONA, 「De Sacrificio Missae...」(미사성체에 대하여), op. cit., p. 213 참조.

3장
예식

1. 전례 예식 전반에 대하여

사제는 하느님의 교역자로서 외적 공경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17) FRANCESCO DI SALES (san), 「Lettere spirituali...」(영적 편지), Tomo II, Stamperia Baglioni, Venezia 1748, p. 570 참조.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경은 하느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주님께 대한 예속성을 육체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면, 이를 앞장서서 해야 하고 백성을 대표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사제입니다. 더구나 사제는 영혼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외적 공경을 할 수 있는 모든 광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가톨릭 예식의 품위와 위엄은 신앙을 보존하고 재각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므로 훌륭한 삶에 대한 최상의 제안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교 정신을 굳건하게 하고 북돋아줍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본 후 특별한 사항을 살펴봅시다.

1. 교회법과 시노드 규정. 전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식에서 ‘일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단조로우며 권태롭기까지 한 예식은 참석자들을 싫증나게 할 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도 못합니다. 외적인 공경은 감정을 움직입니다. 다양한 외적 공경이 감정을 자극하는데 그중 중요한 형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성체흡송의 시간, 강론대에서 신자들이 도와주도록 이끄는 방식의 미사, 다양하고 매혹적이며 대중적인 성가, 엄숙한 장례식, 기근, 가뭄, 전쟁, 교황 축일, 100주년 기념, 교리경시대 회 시상식, 순례 등을 기회로 지내는 특별 예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쏟는 사람은 각 부문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외적 공경도 인간 영혼을 은총을 통하여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공경의 본질’에 결코 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외적 공경은 ‘공경의 본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고해소로 이끌어야 하고, 사람들의 정신 안에 종교의 위대한 진리를 최대한 스며들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교 덕을 최대한 촉진

212 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제가 성대한 행렬, 수많은 순례, 시끄러운 음악만 목표로 삼는다면,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그와 같은 외적 효과만 산출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제의 주요 부분은 장엄한 영성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심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순례자들은 헛된 것을 좇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3. 예식의 방법에 대한 일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식에 있어서 “모든 전례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고 신성한 것에 어울리는 중후함을 가지고 그 규칙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는 그 규칙들을 옮겨 적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일반 규범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도 준수할 것입니다. 그 규범이란 “풍성한 신심의 정신을 통하여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심에 유의하는

사람은 매번 조금씩 다른 모든 전례 규범을 깨닫고 실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필수불가결한 것을 얻고, 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반면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비록 모든 전례와 예식에 지시된 세부 동작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결핍되고 영혼이 거의 없는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도 결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4. 또한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규칙은 “조금이더라도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환상으로 들뜨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거룩한 영신수련을 하고, 매주 장엄한 성체흡송 시간을 갖는 일은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예식을 위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쓸 수 있습니다.

a) 성당 내부와 제대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장식해야 합니다.

b) 모든 사제는, 비록 작은 성당과 경당에서 치를지라도, 가능한 한 거룩한 전례 의식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도 신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복음 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 수행하는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하고, 동료처럼 믿을 만하다 213
면, ‘꼬마 성직자단’ (piccolo clero: *역주 바오로 6세가 1964년 4월 25일 신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표현을 하심)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의 소책자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케라(Guerra)의 'I chierichetti, loro qualità, loro ufficio' (소신 학생, 그들의 자질, 그들의 직무) (Società Buona Stampa. Torino).¹⁾

d) 훌륭한 성가학교를 개설하여 가끔 성가수업을 함으로써 장엄미사 음악에 모테트(*역주- 성서 본문에 기반을 둔 합창곡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반주 없이 둘 이상의 화음으로 구성됨)를 실행할 게 아니라, 성가대로 하여금 합창을 하도록 하고 적어도 신자들 전체에게 일반 성가를 조금씩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신자들에게 전례를 교육하기 위하여「그리스도교 전례 매뉴얼」(Manuale Liturgico del Cristiano), L. 1 (Cav. P. Marietti, Torino)²⁾이라는 아주 훌륭한 서적이 좋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모든 기도문과 교회에서 거행되는 통상적인 예식의 라틴어로 된 본문 옆에 이탈리아어 번역을 나란히 두었고, 각 예식과 의식의 전례적인 의미에 대한 짧은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이 작품을 갖고 신자는 성무일도와 미사성제, 성사집전과 성체강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주교님들은 여러 성당에서 거룩한 예식을 하는 데 있어 이 서적을 활용하라고 권장 하셨습니다. 사실 예절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고, 수많은 은총의 보화를 잃어버리는 성당이 수없이 많습니다.

1) A. Guerra, 'I chierichetti, loro qualità, e loro ufficio'(소신학생, 그들의 자질, 그들의 직무), Tip. Salesiana(살레시안 인쇄소), San Benigno Canavese 1902.

A) 1. 무엇보다 먼저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실전 경험자들은 두 가지 점을 특히 주목합니다. 우선 오로지 미사만 드리는 게 목적이려면 '젊은' 사제를 잡아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제는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의 없이' 미사 214를 드린다면 사람들이 신앙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젊은 본당 신부가 지나치게 일하면서 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신부가 나중에 그러한 불편을 더 이상 감수하려 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두 배로 일한다면' 더 많은 급료를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사제가 더 이상 두 배로 일할 수 없게 되어도 그것을 용인하게 될 것입니다.

2) '그리스도교 전례 매뉴얼' (Manuale Liturgico del Cristiano), 또는 '로마 전례 의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전례' (La liturgia che ordinariamente si usa nelle chiese secondo il rito romano), 어느 티치노(*역주-롬바르디아 서부지역) 본당신부의 작업, Marietti, Torino 1913.

3) 여기에서 성체성사 거행의 사목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고대의 전례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켜야 할 기회라고 본다. 고대의 미사 전례에 따르면, 집전자가 라틴어로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동안, 신자들은 '경청하거나' (가능하다면) 또는 그 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다른 기도를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새로운 전례 개혁에 의해 사라졌다.

2. 두 번째로는 성직자의 편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미사를 분배해야 합니다. 여러 성당과 본당에서 예식을 하게 되는 중심지와 도시에서는, 여러 미사가 동시에 집전되거나 또는 미사 없이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제들 사이에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축일미사 시간을 정할 때에는, 두 대의 미사만 있는 본당이라면, 본당에서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들도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다른 식구들을 성당에 보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작은 본당에서는 주일에 강론대에서 시간 변경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사와 저녁기도 시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규모가 좀 더 큰 중심지 본당에서는 성당에서 공지사항 시간에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성당 정문에 안내문을 붙여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중심지 본당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수단 외에 신문이나 지역 후보의 광고란을 통해 알리기도 합니다.

또 종을 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을 칠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긴 소리로 215 조그마한 표지를 주면서도 분명하고 구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의실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본당신

부나 성당담임(rettore della chiesa)입니다.

4. 그 다음에 미사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리 온다고 해서 앞당기거나, 기다리기 위해서 늦추어서도 안 됩니다. 전자의 경우 부지런한 이들을 벌주는 꼴이고, 예식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게으른 자들에게 상을 주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는 서로 늦게 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 엄수는 모든 이를 조심하게 만들고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B) 신자들이 모든 신심을 동원하여 미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사제의 열성에 달려 있습니다. 미사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미사를 이해해야 하고 다소간의 감각적인 수단을 통하여 도 217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규범을 열거해봅시다.

1. 가끔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할 때 미사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는 바에 대하여 깨닫는 것은 참으로 느리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되풀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사제가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의 모두가 물질적인 관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으며,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2. 가끔 실천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는 만큼 우리가 몇 차례 더 설명해주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한 사제가 강론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미사를 경청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묵주기도,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처럼, 통상 기도문을 큰 목소리로 바칩니다. 또는 미사를 네 가지 희생제사의 목적에 따라 네 부분, 즉 하느님을 찬양하는 부분(처음부터 복음봉독까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복음봉독부터 성체거양까지), 용서를 청하는 부분(성체거양부터 영성체까지), 은총을 청하는 부분(영성체부터 끝까지)으로 나눈 다음, 각 부분에 관하여 짧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회중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v. adoro), ‘감사의 기도’, ‘통회의 기도’, ‘주님의 기도’ 등을 바칩니다. 또는 미사를 그와 같이 나눈 다음, 사제 자신이 강론대에서 이 네 가지 목적을 표현해주는 네 가지 기도를 주도하여 약간의 기도 또는 알맞은 성가를 회중과 일치하여 바치면서 각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수없이 되풀이하다가 보면 결국 훌륭하게 교육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중을 도와주는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a) “찬미 받으소서…”(Lodato sempre sia...)⁴)라는 성가 또는 “매순간 찬미 받으시고 감사드리나이다.”(Sia lodato e ringraziato ogni momento) 등의 성가를 곁들이든지 아니면 성가 없이 묵주기도를 바칩니

다. 만일 어떤 사제가 기도를 주도하여 바칠 수 없다면, 제의실지기 또는 어떤 적합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그룹을 형성하여 교송으로 바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파트가 인도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여러 곳에서 이미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또는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이탈리아어로 바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Videant singuli et meliores.”(*역주- “각 경우에 따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b) 다른 방식은 큰 소리로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바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사이에서 사제가 주도를 하거나 또는 신자들 중 한 사람이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른 기도문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 요셉의 기쁨’,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바치는 코론치나’, ‘예수 성심께 바치는 코론치나’, ‘순수함을 얻기 위하여 성 루이지에게 바치는 기도’⁵), 연옥영혼들을 위한 De profundis(*역주- 데 프로퓌디스: 흔히 ‘깊은 곳에서’라는 말로 알려진 시편 130편의 첫 단어.

4)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은 항상 찬미 받으소서.”

이 시편은 예부터 참회와 망자를 위한 위령기도에 사용된 시편임) 등.

c) 어떤 본당신부가 사용하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즉 ‘미사를 경청하는 방법’ (Modo di ascoltare la Messa)이라는 제목의 신심서적에 나오는 기도문들을 신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천천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아이들이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또박또박 소리 내어 되풀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정말 놀랄 정도로 신심 깊게 축일 미사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가 신심서적을 성당에 가져올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219 어떤 본당신부는 상당수 신자들에게 신심서적을 구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어디에서든’ 그러한 습관을 유지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신자 전체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또는, 비록 집전하는 사제를 방해할지라도, 어떤 신심 깊은 사람이 특별 기도를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의 기도로 알려진 유명한 대중 기도로서 ‘Massime eterne’ (최대의 영원: *역주-종말실재와 같은 의미)라는 신심 매뉴얼과 다른 기도서에 포함된 기도문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나중에 이 기도문을 여러 차례 출판하기를 원했다.

d) 아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무엇보다도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 미사를 두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미사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모두 같은 미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당 안에서 흩어져 있도록 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적합한 장소에 모여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내진(presbiterio)이나 난간 아래 또는 벽면 제대에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런 다음 신부 한 명 혹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첫째 줄 가운데 앉고, 여교사나 모범이 될 만한 젊은 여성이 둘째 줄에 앉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심 깊은 사람들이나 신부가 묵주기도나 기도문을 신자들과 함께 바친다면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아주 열성적인 본당신부들은 미사 전에 아이들에게 218 소책자를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도서를 살 수 없고 또는 기도서를 성당에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본당신부들은 그런 방법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도서를 가져오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어서 책이 금세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책값이 너무 비싸고 이미 상으로 다른 책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교육상 좋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짠 가격으로 공동구입해 이 책들을 직접 팔거나, 제의실지기가 판매하거나, 봉사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래서 각자 자기 책을 미사 때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교리교사와 보좌신부에게 책을 가지고 미사에 참석해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에게 평점을 더 주도록 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평점이 많아지면 나중에 상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들도 자녀들이 책을 지참하고 성당에 가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3. 미사성제(평일)

220 시골 본당에서는 적어도 아주 이른 아침에 미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본당들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러 본당에서 같은 시간대에 미사를 드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을 위한 미사, 노인들을 위한 미사, 또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시간에 드리는 미사, 아주 늦은 시간에 드리는 미사가 있으면 최상입니다. 여러 미사를 드리는 장소를 잘 알려야 합니다. 만일 미사를 라틴어 경문을 읽는 것으로 드린다면, 묵주기도나 다른 기도를 바칠 수 있고, 특히 겨울에는 모든 신자가 함께 기도를 바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일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래도 미사시간은 정한 시간에 드릴 수 있게 제대로 공지하고 철저히 엄수해야 합니다.

4. 저녁기도

저녁기도를 묵주기도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본당신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성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가대원이 너무 적은데다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있거나 졸거나 잡담을 합니다. 하지만 묵주기도로 대체하면 모두가 같이 바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신비 사이에 ‘찬미 받으소서.’라는 성가를 삽입하면 더 좋은 기도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실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교육을 받는 소년소녀들에게 아주 통상적인 대역섯 편의 시편을 가르치면서, 신자들 대다수에게 성가를 연습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리 전이나 후에 한 번씩 실행하면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인 실천행위와 가장 보편적인 관례가 저녁기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깊이 숙고한 뒤 합법적인 권위의 허락을 얻어 묵주기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5. 성체 흡송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경의를 받으시기 위하여, 은총을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당신 사랑의 성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느님께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눈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성체성사에 대한 사랑과 열성으로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불의 사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체 흡송의 시간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흡송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간 성체 흡송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A) 주간 성체 흡송

감실 옆면에 6개의 초를 밝히고 감실 문 앞에 성합을 현시합니다. 분향을 할 필요도 없고, ‘성체강복 성가’ (Tantum Ergo: *역주- 성가 제목을 따라 ‘지존하신 성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부를 필요도 없으며, ‘본기도’ (Oremus: *역주- 성체강복 때에 바치는 본기도로서 “기도합시다.”라는 말로 시작함)를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소백 의를 입고 영대를 걸쳐야 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다면 성체

를 물리기 전에 성합을 베일로 감싼 채 강복해야 합니다.

성가, 기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사제는 성체 흡송을 혼자서 하거나 종을 쳐 신자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참여한다면 사제는 기도를 인도할 수도 있고, 각자 기도하도록 놓아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혼자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사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성체 흡송을 30분으로 줄이거나, 기도와 성가를 신자들과 같이 함으로써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간 성체 흡송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월간 장엄 성체 흡송 시간을 위하여 마련된 규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 월간 성체 흡송

모든 지역에서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병설단체’ (Aggregazione del SS. Sacramento)⁶⁾를 설립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입자 각자가 맡은 의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당을 장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앙제대를 가능한 한 싱싱한 생화와 여러 개의 초로 장식해야 합니다.

가장 편한 시간을 택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저녁 늦

은 시간을 제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월 첫 금요일 아침을, 다른 이들은 주일 아침을 제안합니다. 만일 아침을 선택한다면, 성체를 현시한 다음, 영성체를 하도록 성체를 분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자들이 많이 참석해야 합니다. 미사성체를 거행하는 동안 특별 기도를 바치도록 해야 하고, 성체성사에 관한 짧은 강론을 하며 미사 후에는 호칭기도를 바치고 성체강복을 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녁기도 시간에 성체 흡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성체 흡수 시간에 신자들에게 본당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담화를 몇 개 하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정말 기도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네 가지 목표를 갖고 하는 방법. 즉 흡수하고, 감사하며, 용서를 청하고,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할 때에는 시간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분마다 짤막한 내용의 말을 할 수 있고, 또는 위에서 미사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기도와 성가만 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다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성심께 바치는 코론치나’, ‘성심께 바치는 호칭기도’, ‘묵주기도’, ‘신덕송’, ‘망덕송’, ‘애

덕송’ 등입니다. 성가 가운데에서는 특히 ‘사은 찬미가’ (Te Deum), ‘성모의 노래’ (Magnificat: *역주- ‘마니파캣’ 또는 ‘성모의 찬가’ 라고도 부른다), ‘성체 찬미가’ (Pange lingua: *역주- ‘뵤제 린과/판제 링과’ 는 ‘찬미하라, 내 혀야’ 라는 뜻으로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유명한 성체 찬미가와 베나시우스 포르투나투스의 십자가 찬미가가 있다), ‘미세레레’ (Misereere: *역주- ‘자비를 베푸소서’ 를 뜻하는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참회시편들 중 하나인 시편 51편을 가리킨다).

3.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먼저 ‘주님의 기도’ 에 대해 설명하고 신비마다 ‘성모송’ 에 대한 설명을 신자들에게 해주는 담화형식을 빌려 약간의 해설을 곁들이거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에 대한 기도들을 바칩니다.

222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성체 흡수 시간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단조로움은 신심의 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들을 싫증나게 하는 것보다 그와 같은 예식을 되풀이 하기를 바라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성체 흡수 시간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의 장엄한 현시, 분향, ‘성체강복 성가’ (Tantum Ergo)와 ‘본기도’ (Oremus)를 바친 다음 성체강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C) 여러 그룹 사람들의 성체 흡수

6) ATP, n. 34, 각주 30 참조.

시간이 된다면, 신자들을 네 그룹, 즉 남성, 여성, 젊은 남성, 젊은 여성으로 나누어 성체 흡수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인도하는 사제는 각각의 청중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찾으려 노력한다면, 40시간 때, 영신수련 때, 예수 성심성월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들은 방과 후를 좋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교사가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 남성들은 늦은 저녁 시간을 선호할 것입니다.

물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성체 흡수 시간을 짧게 하도록 애쓸’ 필요가 있으며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합한 성가와 음악을 통해 한층 더 즐겁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진 젊은이들은 다양한 그룹 회원끼리 유니폼을 맞추어 입도록 하면, 훨씬 더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4 특히 잘 준비된 젊은이와 성인 남성들은 신심을 주제로 한 연극을 선보일 수 있고, 이러한 무대는 그동안의 모든 노고를 보상해줄 것입니다.

D) 특별한 성체 흡수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

뭉, 스캔들, 전염병, 특별한 은총을 염원하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영혼을 뒤흔들고, 모두가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발적으로 많은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많은 규칙보다 생생하고 열렬하며 항구적인 열성이 필요하고,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아주 생생한 사랑이 필요하며,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염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만족시킬 자질을 갖춘 사제는 그와 같은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아주 유익한 방법과 기회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규칙들은 냉담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열성적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6. 40시간⁹⁾

거의 모든 본당에 정착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천을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시간의 특은을 잃게 되고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시행하는 본당에서는 본질을 보존하면서 외적 형태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아닌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시간에 3일기도를 도입하여 ‘성체성사 3일기도’ 형태가 되도록 합니다… 부활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3일기도를 설정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에 다가서기 위해 특별한 날을 정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세 번째 3일기도는 남성들만을 위한 40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법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인간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기부금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기를 바라고 어떤 성당에서는 거의 아무런 목적 없이 매우 가난한 교회로 기부금을 보내거나 본당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교회 권위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2. 모든 강론처럼 40시간의 마지막은 ‘양형 영성체’ 로 마무리

7) ‘40시간’(Quarantore)은 지속적이거나 중단되었다가 이어지는 40시간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를 흡수하는 것이다. 1534년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1577년 6월 27일에 성 가롤로 보로메오는 이러한 신심 실천에 관한 이른바 ‘지시’라는 분명한 훈령을 공포하였다. 이 훈령은 나중에 교황청에서 교시한 내용의 모델이 되었다. 교황 클레멘스 8세는 1592년 ‘Graves e diuturnae’(중대하고 지속적인)라는 칙서를 통하여 이 신심 실천을 승인하였다. 40시간을 위한 의식은 170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출간한 ‘Instructio Clementina’(클레멘스 훈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L. CATTANEO, SSS, ‘L’ adorazione eucaristica’(성체흡수), in A. PIOLANTI(a cura di), ‘Eucaristia’(성체성사), Desclée, Roma 1957, pp. 943-956 참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거나 공지를 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목표를 얻지 못한다면 최상의 결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 ‘가능한 한 가장 장엄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성체 흡수 시간을 가지려면, 성가, 음향, 장식, 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적어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 여러 명의 동료들이 쉽 없이 연속적으로 흡수 드리는 방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행할 때는 시간을 분명하게 하여 개인적인 초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체현시를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연장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고해성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성체흡수의 시간을 가질 때 신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근 본당 사제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지나치게 융숭한 점심대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시골 중심지역에서 이러한 40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곳에서 40시간은 종종 영신수련의 효과와 비견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주로 얼마나 현명하게 조직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7. 다른 성체성사 예식

여기에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리는 다른 예식들을 열거해볼까 합니다. 이미 실천이 돼 유익하다고 인정된 예식들입니다.

1. '성체성사 3일기도'. 남성, 여성, 젊은 남성, 수녀, 젊은 여성, 루이지니(*역주- 1583년 11월 9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의 서한에서 최초로 언급된 성체성사 형제회. 성 루이지 곤자가를 표방하는 듯) 등의 특수 계층에서 실행되고, 축일, 9일기도 등 특별한 상황에서도 실시됨.
2.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 흠숭을 위한 삼일기도.'
3. '성체성사 피정 주간.'
4.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 병설단체의 개회식' 을 위한 예식.
5. 강론의 달, 영신수련, 사순절의 성체성사 폐막.

8. 5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만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굳건히 세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을 한층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쉽고 확실한 수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

게 한다면, 마귀의 환상처럼 거부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층 완벽하게 찾고, 감미롭게 사랑하며, 충실하게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 외에 아무 것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복자 몽포르의 그리농 *역주- 1947년 시정됨)⁸⁾

일부 사람들의 영혼이 '지나치게 성모님께 대한 신심'에 젖어 있다는 사실에 쉽게 스캔들을 일으키지 맙시다!!! 만일 사제가 교회의 정신에 따라, 그와 같은 신심을 잘 이끌어준다면, 그 영혼들은 해악보다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신심이 덕의 실천으로 인도되어야 하고 성모 마리아께 '특히'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청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같은 신심의 가장 감미로운 현상들 중 하나요 촉진시켜야 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 중 하나가 바로 '5월 성월'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이미 많은 결실을 보며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성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약간의 세부사항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1. 시골 지역에서는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8) LUIGI M. GRIGNION DE MONFORT (san), 『Trattato della vera devozione alla Santa Vergine e Il Segreto di Maria』(동정 성모에 대한 참된 신심과 마리아의 비밀에 대한 논고), a cura di S. De Fiore, San Paolo, Cinisello Balsamo(MI) 2000¹¹, n. 62 참조. 새 이탈리아 편집본에서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견고한 신심을 세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을 한층 완벽하

아직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을 성사생활로 이끄는 강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마칠 단계에서 사람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편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론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관해서는 ‘무차렐리’(Muzarelli)⁹⁾가 말한 방법과 성모님께 대하여 항상 말하는 방법 중에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차렐리의 방법론에 관한 유익한 저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¹⁰⁾

ALESSI, 「Rosa Mistica」(신비의 장미), L. 3.

BERSANI, 「Mese di Maggio」(5월 성월), L. 2,50 (Società Buona Stampa - Torino).

FINCO, 「Virga Jesse」(이새의 동정녀), L. 3.

MAZZINI, 「Nel più bel mese」(가장 아름다운 달에), L. 1.

「Mese di Maggio pel popolo」(신자들을 위한 5월 성월) (10° migliaio: 만부)¹¹⁾, L. 0,40.

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쉽고 확실한 수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마귀의 환상처럼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제가 이미 증명한 것처럼 아주 거짓된 것으로서 조금 뒤에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층 완벽하게 찾고, 감미롭게 사랑하며, 충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Raccolta di Sermoni pel Mese di Maggio」(5월 성월을 위한 설교 모음집)¹²⁾, L. 2,50. (Cav. Pietro Marietti - Torino).

또 성모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주제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호칭기도’에 대한 설명, ‘하늘의 별이신 아베 마리아’에 대한 설명, ‘성모의 노래(마니피캣)’에 대한 설명, ‘성모송’에 대한 설명, ‘여왕이시여’ (Salve Regina)에 대한 설명, 혹은 ‘성모님의 생애’, ‘묵주기도’, ‘마리아의 덕성’ 등. 그와 같은 방법에 따른 아주 유익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orona di Maggio」(5월의 화관)¹³⁾, ed. IV, L. 1,50.

FALETTI, 「Maggio a Maria」(마리아께 5월을), II ediz., L. 3,75.

- 「Profili Mariani Contemporanei」(당대 마리아의 프로필)¹⁴⁾, L. 3.

SICCONE, 「Pregi della Vergine. 39 Sermoni」(동정 마리아에 대한 존경. 39개 설교)¹⁵⁾, L. 2.

227

9) 무차렐리(Muzarelli)는 그의 방법론에서 마리아의 달을 거행하기 위하여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매일 묵주기도의 세 번째 부분을 바치거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께 드리는 코론치나를 바친다. - ‘표양’이라는 특징을 가진 짧은 숙고를 한다. - ‘작은 꽃다발’을 제안한다. -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라는 성 베르나르도의 기도문과 호칭기도를 바친다. 무차렐리의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가장 애용되는 방법이다. 그의 저서는 150편에 달한다. A. MUZZARELLI, 「Il mese di Maria」(마리아의 달), 8a ediz., Facciadori, Parma 1910 참조.

10) 저자 색인 참조.

11) 다음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Mese di maggio del popolo」(신자들의 5월 성월), opera di un parroco di campagna(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작품), Marietti, Torino 1915.

- 「Vita di Maria SS. in 31 Sermoni」(31개의 설교에 나타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생애)¹⁶⁾, Ed. VII, L. 1,50 (Cav. Pietro Marietti - Torino).

- 「Litanie spiegate」(호칭기도 설명)¹⁷⁾, L. 0,40.

PENTORE, 「Nostra Madre」(우리의 어머니), L. 1,50.

BERSANI,¹⁸⁾ 「Vita di Maria」(마리아의 생애), L. 2,50.

CORNALE, 「La Rapiitrice dei cuori」(마음의 약탈자), L. 3. (Buona Stampa - Torino).

4. 개막일과 마찬가지로 폐막일은 가능한 한 주일에 맞아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28 5. 실행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매일 강론을 할 수 있고, 마리아 제대에서 드리는 미사, 음악, 거대한 장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덜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성당에서도 본당신부가 마리아 상을 장식할 마땅한 인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종소리를 울려 신자

12) 다음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Raccolta di sermoni per ciascun giorno del mese di maggio sulle prerogative di Maria SS.ma」(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특전에 관한 5월 성월 매일 설교 모음집), Paolo Cappello 번역, 2a ediz., Marietti, Torino 1864.

13) 작품 저자는 다음의 저자를 말하는 것 같다. M. CASANOVA, 「Corona di maggio」(5월의 화관), 혹은 「Mese di Maria per le parrocchie」(본당을 위한 마리아의 달), Marietti, Torino 1905.

14) 작품 저자는 아마도 다음의 저자를 말하는 것 같다. L. FALLETTI, 「Profili mariani contemporanei」(당대 마리아의 프로필), Marietti, Torino 1914.

15) 작품의 저자는 본문에서처럼 Siccone와 동일인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의 저자인 것 같다. T. PICCONE, 「I pregi della Vergine Madre di Dio, esposti in 39 sermoni」(39개 설교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녀에 대한 존경), 7ª ediz., Marietti, Torino 1893.

들을 초대하고 묵주기도의 세 번째 부분이나 신비 한 단이라도 마치도록 하고, 기도를 드리고 무차렐리의 짧은 매일 묵상을 읽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그와 같은 독서는 아주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서적들 외에 5월 성월에 신자들의 독서에 적합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aria al cuore della Giovane」(젊은 이들 마음에 계신 마리아)¹⁹⁾, 20° migliaio(2만부), L. 0,50 - BUETTI, 「I Misteri del Rosario」(묵주기도의 신비), L. 0,80 - 「Mese di Maria delle anime di virtù」(덕을 갖춘 영혼들의 성모 성월)²⁰⁾, ediz., V, L. 0,80 (Cav. Pietro Marietti, Torino).

9. 마리아의 정월

아주 많이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신심실천입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작품의 저자는 다음과 같다. T. PICCONE, 「Vita di Maria SS.ma esposti in 31 sermoni」(31개의 설교에서 나타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생애), 6ª ediz., Marietti, Torino 1893.

17) 본문은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다음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A. CARMAGNOLA, 「Le litanie della Madonna」(성모님의 호칭기도), Ufficio delle letture cattoliche(가톨릭 문학 사무국), Torino 1906.

18) 작품 저자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Bersani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을 말하는 것 같다. C. BERTANI, 「Vita di Maria Santissima」(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생애), Tip. De' Paolini, Monza 1902.

성모님의 상을 성당 가운데 마련된 큰 의자 위에 모신 다음, 주변을 조명과 장식물로 꾸밈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제대 위에 현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실 위에 직접 안치하지 말아야 하고 약간 뒤편에 설치합니다. 또는 난간의 한쪽 면에 두거나 성당 안에 있던 곳에 그냥 둡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기울여 흠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초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구입하거나 제의실에서 미리 준비해두거나, 성모상 옆에 가격을 적어 진열해 구입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촛대와 깔때기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뚜렷하게 구분된 여러 계층 사람들을 정해진 시간에 초대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젊은 남성들, 젊은 여성들, 성인 남성들 한 부류만 초대하거나, 또는 신자 전체를 섞어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시간과 인원을 분배할 때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사제가 열성을 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특별 성가를 부르면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가와 기도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각 그룹 사람들을 한

19) 다음의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Maria al cuor della giovane』(젊은이들 마음에 계신 마리아), meditazioni per ogni giorno del mese composte da un sacerdote della Congregazione della Missione(한 선교 수도회의 사제가 집필한 매일 묵상), Marietti, Torino 1907.

20) 다음의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H. L. SACERDOTI, 『Mese di Maria delle anime di vita interiore』(내적 삶을 사는 영혼들의 마리아 성월), ossia la vita della SS.ma Vergine proposta per modello alle anime di vita interiore(다시 말해 내적 삶을 사는 영혼들의 모델로 제시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생애), Marietti, Torino 1910.

시간씩 머물며 기도하게 할 수 있고, 30분만 기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자들이 뒤죽박죽 모였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앞에서 드러야 할 신심행위를 하기 전에 강론대에서 신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성모님 정원(*역주-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성모의 날 행사)을 열 수 있습니까? 적합한 기회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성월의 폐막 일에 할 수 있고, 9일기도 동안 혹은 원죄 없이 잉태하신 축일 또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존경심을 드리는 다른 특별한 축일에 할 수 있고, 영신수련의 결말에 할 수 있으며, 성모님께 특별한 은총을 청해야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0. 묵주기도

적어도 겨울 동안, 한 가정의 신앙정신을 드러내주는 가장 좋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일입니다. 오! 이러한 관습이 전래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와 같은 신심 실천을 위하여 사제의 열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제는 강론대에서 강론과 주의사항을 전하면서 묵주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고해소에서 모든 이에게 주는 충고를 통하여 가르칠 수 있

230

229 하지만, 특히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묵주기도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를 통하여 설명해주고 젊은이들에게 묵주기도 바치는 일을 이끌도록 가르치고 신비를 연구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보급 수단 중 하나는 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매일 저녁 또는 늦은 시간에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고, 종을 울려 신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최상의 방법입니다. 약간의 양심성찰을 곁들여 다함께 기도를 바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럴 때 사제는 양심성찰을 하는 동안 성찰의 요점을 분명하고, 간결한 질문 형태로 천천히 말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보급 방식은 신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5월 성모성월이나 10월 묵주기도성월에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녁기도와 강론을 하는 대신 어느 주일 저녁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현시해 놓고, 사제가 강론대에서 신비를 선포한 다음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청해야 할 은총이 있는지, 묵주기도를 통하여 배울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 후 사제는 신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송' 열 번을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호칭기도를 노래로 하고 강복을 줍니다. 모든 예식은 정

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급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아주 신심 깊은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묵주기도' (Rosario perpetuo)²¹⁾ 모임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즉 각각의 사람이 매월 시간을 정해 한 시간씩 이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주기도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묵주기도 책임자' (Direttore del Rosario perpetuo)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Convento di S. Maria Novella, Firenze). 조금 불편한 사람들 사이에는 '살아있는 묵주기도' (Rosario vivente) 모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묵주기도 단체는 매일 신비 한 단만 바치도록 하고 매월 각 회원에게 신비가 표시된 상분을 발송합니다.(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Roma, Via dei Chiavari, N. 6에 있는 책임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단체는 성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인들이 일찍부터 기도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16세 이하) 사이에 '어린이들의 활발한 묵주기도회' (Rosario vivente tra i fanciulli)를 만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 단체는 묵주기도 신비 한 단만 바치게 하고 매월 '살아있는 묵주기도' (Rosario vivente) 모임처럼 상분을 발송합니다. (Convento di S. Domenico, Torino〈토리노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문의할 것.)

다음과 같은 것도 유익한 수단이 됩니다. 저녁기도 전이나 후에 마리아의 딸들(Figlie di Maria)²²⁾이 성당에서 바치는 묵주기도, 미

사성제 동안 바치는 묵주기도, 묵주의 성모 축일 또는 품페이 성모 축일을 준비하는 15주간 토요일 단체를 만드는 일로서, 여기에서는 신비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또 소책자, 상본, 묵주 등을 보급하는 일도 유익합니다.

11. 성모 마리아의 축일과 장엄미사

잘 거행하기만 한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향한 신심을 각성시키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공경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항 외에 늘 기억해야 할 일은 모든 축일의 주요 부분은 신심과 영성체라는 점입니다. 성당의 외적인 행사에서 사제가 현명하게 위험한 유흥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영원한 진리에 관하여 강론하고 가끔 신문, 영화, 슬라이드, 연극과 같은 순수하고 유쾌한 기분전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좋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신심행위 외에, 그에 선행해야 할 9일기도와 3일기도에 대해서는, 미사 중 또는 강복을 줄 때 아주 편하게

21) 도미니코 영성을 주된 영성으로 삼는 형제회 옆에 몇 가지 특수 연맹이 설립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맹은 '지속적인 묵주기도' (Rosario perpetuo) 연맹이다. 이 연맹에서 가입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한 시간을 선택하여 중단 없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묵주기도를 바치는 일을 의무로 삼았다. 이와 유사한 다른 단체들로서는 파올리나 아리코(Paolina Jaricot)가 설립한 도미니코 제3회인 '살아있는 묵주기도' (Rosario vivente) 연맹과 어린이들의 '활발한 묵주기도' 회와 젊은이들의 '활발한 묵주기도' 연맹이 있다. L. A. REDIGONDA, 「Fratr Predicatori」(설교가 신부들), DIP, IV, 1977, pp. 923-970 참조.

22) ATP, n. 94, 각주 2 참조.

좋은 생각을 신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만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영원한 진리에 관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덕성 등에 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2분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실제적인 생각이라면, 강론 전체 내용보다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12. 꼬마 성직자

여러 본당에서 '꼬마 성직자' (piccolo clero)나 '소신학생 서클' (circolo dei chierichetti)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개 보좌신부가 지도하는 모임의 일종으로서 행렬, 장엄미사, 강복, 노자성체, 장례예식 등의 여러 예식에 복사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모임의 본질은 거의 어디에나 있지만, 알맞은 조직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장엄미사뿐 아니라 모든 예식에서 복사를 잘 서도록 해야 합니다. 복사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전례의식 수업을 할 수 있으므로 복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곳에서는

쓸데없이 빈둥거리는 일이 너무 많고 제의실과 성가대에서 말다툼을 벌이곤 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스스로 미래의 신학생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특별한 기회에 복사를 서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일부 본당에서는 오랫동안 냉담했던 부모들이 스스로 성당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성사생활에 이끌리게 됩니다.

어떻게 조직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성당에서 복사를 서는 소수 인원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신심이 깊고 똑똑하게 보이는 10명 이하 인원을 모집합니다.

과자, 과일, 장난감, 권고를 주면서 이끈 다음, 그들에게 미사에 봉사하도록 가르칩니다. 예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말을 분명하게 발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복사단으로 조직하겠다는 의향을 설명해주고, 조금씩 그들에게 다른 예식들, 즉 강복, 미사, 장례예식에 복사 서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 그들 가운데 단장과 부단장을 뽑습니다. 제의실에 게시판을 부착하여 순서대로 회원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식이 많을 때, 이 미사는 그들 가운데 누가 복사를 서야 하고, 저 미사는 누가 복사를 서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과 세례식 복사에 대한 소량의 봉사료를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

다. 복사단 회원이 아닌 사람은 봉사활동에서 뺍니다.

이러한 초기 핵심 그룹을 성 루이지의 보호 아래 맡기거나 다른 젊은 성인의 보호에 맡기고, 이 그룹에 차츰차츰 명예회원이든, 정규회원이든 다른 이들을 추가합니다. 회원 이름을 적은 게시판에 그룹의 은인들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은인들은 어린 소신학생들을 위하여 과자, 과일을 제공하거나 산보 등을 함께 하는 신심 깊은 사람들입니다. 본당신부가 복사들을 특별히 잘 관리하는 곳에서는 회원이 80여 명에 이릅니다. 그들 가운데 성가대 부서도 있습니다. 복사 부서가 사제단석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면서' 미사에 봉사하는 동안, 성가대 부서는 장엄 축일마다 '천사' 미사곡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이들은 교리 보조자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일은 그러한 일을 통괄하기를 원하는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루이지회의 셔츠를 입고, 다른 지역에서는 작지만 검정색 수단을, 다른 곳에서는 빨간색 수단을, 다른 곳에서는 수단의 절반 길이 옷을 입혀 회원들을 결속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4

다른 모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매주 또

는 거의 매주 전례 의식 수업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약간의 새로운 것, 상품, 즐길 것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예식에 대해 훌륭한 봉사를 하려는 열성적인 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13. 성가 학교

교회의 정신에 따라 모든 신자는 성가를 불러야 하고, 미사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성가대의 주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끌며 가장 어려운 파트를 맡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므로 가장 잘 가르치는 성가 학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어울리는 정신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성가를 요청하기 위해 반포된 교황 비오 10세의 '자의교서'²³⁾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Roma locuita est, lis finita est."²⁴⁾ (*역주 '로마가 말하면, 그것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라는 말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연로한 사제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짐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든, 나이 많은 성가대원의 과도한 민감성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든 지혜

롭고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젊은 사제는 본당신부의 뜻을 거스르고 그에 반대하여 충돌하기보다는, 신자들과 함께 투덜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제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본당신부에게 복종함으로써 사랑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을 얻게 됩니다. 또 이러한 규정을 다른 모든 명령이나 영혼 사목을 위해 점차적으로 주어지는 현대적인 지침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로한 성가대원들의 마음 내키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유 235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님의 뜻을 이유로 들고 새로운 성가를 맛보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이 뜻을 굽힌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일부 나이 많은 이들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은 멀어지게 되고 젊은이들도 이끌지 못합니다. 주님의 정신은 폭력이 아닙니다.

성가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열거해 봅니다. 이것들은 경험에 의해 유익하다고 인정된 요소들입니다. "성가대는 본당에서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23) PIO X, 「Inter plurimas pastoralisi officii sollicitudines」(*역주- 이탈리아어 'Tra Le Sollicitudini' : 성음악에 관하여), 자의교서, ASS, XXXVI(1903), pp. 329-339. 이와 같은 문헌을 통하여 그레고리안 선율이 부활하였고 성당에서 사용되는 음악과 합창곡이 법규로 제정되었다.

24) ATP, n. 37, 각주 1 참조.

활동해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회와 다른 곳에서 하는 공연은 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보수는 같이 나누거나 공동기금으로 남겨둡니다... 성가학교는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날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에 빠지는 사람은 모임을 위하여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성가 학교는 무상으로 장례미사를 지내줍니다.”

성가 학교의 시간은 가장 편한 시간을 택해야 합니다. 젊은 남녀는 낮에 모일 수 있고, 성인 남성들은 저녁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 장소는 성인 남성과 젊은 남성들은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젊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성당이 나올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정결에 관해 말하면서 위에서 주목한 바 있는 처신과 지혜로운 사항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활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사제들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가 학교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됩니까!

그렇지만 성가 학교를 주도하는 사람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자금, 시간, 불편 등 희생이 클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적은데다 모순되는 점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젊은 사제는 성가 학교를 열기 전에 다른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윤리적인 지지와 재원 보조가 부족

하다면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재원 보조는 본당신부로부터 받는 지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신자들과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성가대원들을 초대하고, 장소를 물색하며, 젊은이들을 보내도록 부모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당신부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당신부는 큰 힘이 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결코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품을 줄 때 꼭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이들은 가장 매혹적인 다성 음악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런 다음 차츰 차츰 그레고리안 성가를 배우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레고리안 성가부터 시작해야 하고 필요할 때에만 다성 음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가장 주된 부분으로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부분은 교회의 참된 성가요 쓰임새가 가장 많은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많은 사제들이 불평하는 지대한 부당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가대가 절정을 이루고 아마 음악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수많은 본당에서 신부는 저녁기도 때만 노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두 성가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항이 사제의 열성과 경험에 의해 제시될 것이고, 어떤 일은 상황에 의해서, 또 다른 일들은 성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만나는 난관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활동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가는 성당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성당으로 이끌고 성사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에게 다가서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선을 베풀기 위해서 사제가 손에 쥐고 있는 큰 수단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많은 본당신부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성가 학교를 '신학교에서 방금 배출된 사제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열 중 일곱의 경우에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뜬소문이 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학교를 수녀들이나 마땅한 전문가인 젊은 여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당신부가 직접 맡을 수도 있습니다. 보좌신부도 할 수 있지만, "몇 년간의 사제직무를 한 다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즉시 책임을 맡기고 싶다면, '반드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당신부가 학교를 보조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어느 본당에서 소녀들과 신심 깊으면서도 한가한 사람 몇 명이 소위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미' (domestiche di Gesù in Sacramento)라는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돌아가며 성당마당을 쓸고 거미줄을 걷어내며 먼지를 털어내고, 제대에 싱싱한 꽃을 바치며 성당의 세탁물을 빨고, 벽 장식물을 돌보고 제의를 수선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제의실지기에게 급여를 충분히 혹은 전혀 지불할 수 없는 곳과 수녀가 없는 본당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심이 깊어야 하며 또 그들 사이에 역할분담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활동하지 않도록 하고, 성당에 신자들이 있을 때 활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신부와 이야기하려고 성당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신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의심이 있을 수 있다면 이 활동을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성당이 사제관과 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사제가 성당에서 나간 뒤에 활동하러 간다면 모든 위험이 사라질 것입니다. 5분간 성체조배를 한 뒤 활동을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15. 노자성체의 동반을 위한 어린이들의 모임²⁵⁾

여러 본당에서는 병자들에게 모셔가는 노자성체(봉성체)에 교대로 동반하는 의무를 맡은 어린아이들의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일이 ‘꼬마 성직자’ (piccolo clero)의 의무 중 하나이고, 다른 곳에서는 특별한 단체가 맡습니다. 많은 어린이들, 특히 시골지역 아이들은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만일 항상 어른들이 긴 행렬을 하며 예수님의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곳이라면, 적어도 이 꼬마들을 그분을 호위하는 병사들처럼 그분의 벼들로 삼아야 합니다.

줄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이들은 행렬을 매혹적으로 만들며, 풍족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는 예수님과 성모께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행렬을 보기 어렵습니다.

행렬은 잘 인도되어야 하되 품위있는 바구니를 들고 풍성한 꽃을 뿌리며, 건전한 품행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를 조직하는 사람의 열성과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 꼬마 들러리들은 로마 12사도 성당(basilica dei SS. Dodici Apostoli)에 세계 본부가 있는 형제회에 병합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하십시오.

16. 꼬마 들러리²⁶⁾

이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또는 꽃을 뿌리면서 성모상을 앞서서 행렬하는 남자 어린이 또는 여자 어린이들입니다. 종종 꼬마 성직자 회원들이 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자성체에 동반하기 위한 모임 회원들이 이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한 제복이 있다면 좋고 어머니들이 그들에게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마련해

25) 이 단체는 5세부터 15세까지 남녀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성체성사의 ‘명예 꼬마 들러리’에 대한 첫 아이디어는 피아첸차(Piacenza)의 주교인 G. B. 스칼라브리니(Scalabrini) 몬시뇰이 1889년 교구 시노드에서 제안하였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옆에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제대 옆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두려는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을 실행하는 책임을 교구참사위원 C. 몰리나리(Molinari) 신부에게 맡겼고, 그는 첫 규정을 제정하여 1904년 1월 1일 상테우페미아(Sant’ Eufemia) 지역에 있는 본당에서 성공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여러 교구로 퍼졌고 외국으로 퍼져나갔다. 1908년에는 가입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E. DEGANO, 『Paggi d’ onore del SS.mo Sacramento』(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의 명예 꼬마 들러리), EC, IX, 1952, pp. 555-556 참조.

26) 앞의 각주 참조.

4장 복음 선포

1. 필요성

복음 선포의 사명이 구세주의 으뜸가는 직무였던 것처럼,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도 그것을 으뜸가는 직무로 삼아야 합니다. “Euntes, docete omnes gentes.”¹⁾ 복음에 눈길을 주고, 사도행전에, 서간에, 초세기 교회 역사에 눈길을 돌린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사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자들이었고 복음 선포자 직무 외에 다른 것은 거의 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직무를 미사와 강복과 약간의 공부 등으로 한정짓는 사제들은… ‘참된 신부들’ 이 아니지 않은가? 어떤 답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 교회를 표상하는 투쟁 교회에는 많은 본분이 있습니다. 사제들도 다른 일들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제는 될 수 있는 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사제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임무는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사제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사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우선해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는 일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선포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신앙을 보급하고 보존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fides ex auditu, auditus autem per verbum Christi.”²⁾

따라서 성 바오로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나 모든 사제의 규범이 될 것입니다. “Predica verbum, insta opportune, importune; argue, obsecra, increpa, in omni patientia et doctrina.”³⁾ 교부들은

1) 마태 28,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에너지 대부분을 복음 선포에 쏟았고, 교부들을 이어 성인 사제들도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제거하면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 선포를 빼면 그리스도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Semen est verbum Dei.”⁴⁾

오늘날 이러한 말씀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오류를 아주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노 241 (Antonino)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든 시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으뜸가는 직무입니다. 특히 오류가 퍼지고 악이 승리할 때, 신앙이 흐려지고 사랑이 식을 때 더욱 더 필요한 직무입니다.”

복음선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1. 무엇보다 앞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당신부, 보좌신부, 담당사제나 직책을 맡지 않은 신부는 강론대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어린이 대상 교리교육 시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할 만큼 성직록을 받지 않았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선포하는 직무가 당신에게 주어졌기 때

2) 로마 10,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3) 2티모 4,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문에 당신이 사제가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맡기셨고 그대는 그 의무를 완수해야 할 위대한 사명에 대한 셈을 요청하실 때 쉽게 변명하지 못할 것이요.” 많은 이들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면학을 통하여, 신심을 통하여 이를 준비해야 하고, 자유 시간에 강론 원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능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사제 한 사람이 교리교육을 도맡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복음선포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 중의 하나이지만 말씀 직무상 꼭 해야 할 일입니다.

2.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열성적인 사제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아주 많고 때때로 이런 기회를 통해 위대한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는 결혼식에서, 시상식에서, 견진성사에서, 운동 경기에서, 성당 축성식에서, 장례식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불운한 재난에서, 지진에서... 주제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모든 축일 미사 때 강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연중 평일 미사 때에도 강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느님의 말씀은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묘지를 방문했을 때 강론을 하면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겠습니까?

4) 루카 8, 11: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242 어떤 사제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는 아주 고통을 주는 진리를 주제로 한 강론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곳에서는 술주정이나 춤바람 같은 나쁜 습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곳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강론한다면, 모두가 알아듣고 수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전략은 두 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게 하는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혼을 해치지 않으면서 참된 진보, 과학, 물질적인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말한 내용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준비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적인 위엄으로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복음 선포자의 재능

거룩한 웅변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목적인 관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세

가지 사항만 말하고자 합니다. 신부란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말을 항상 되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의 웅변은 이러한 목표를 둔 게 아니라면 결코 직설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올바른 지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이지만, 키우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만 찾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실을 맺어 주지 않으십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데 파치(Maria Maddalena de' Pazzi)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동에 대해 얼마나 순수한 지향을 가졌는지에 따라 보상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n omnibus et super omnia Deus.”(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주가 교양을 갖춘 복음 선포자가 아니라 소수의 단순한 복음 선포자에 의해 회개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243 말씀을 하셨던 성 바오로께서 이를 입증해줍니다. “Non enim nosmetipsos praedicamus, sed Jesum Christum.”⁵⁾ 어찌하여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오늘날의 복음 선포자들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을 띠입니다.

a) ‘세속적인 영광’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신의 학식, 문학, 교양을 과시하려고 애를 쓰고, 특히 아주 중요한 장소에 초대받기 위하여 간계를 쓰며,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늘리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칭송받기 위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느라 강론 전과 후에 고안하고, 이미 박수갈채를 받은 ‘회개의 기적들’을 성가실 정도로 모든 이에게 되풀이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표시입니다. 즉 회개시키지 못하는 강론들입니다.

b) ‘이익’을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사제도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을 테고 일꾼이 자기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et haec omnia adjicientur vobis”.⁶⁾ 모든 것에 앞서 보수를 생각하는 것, 적게 받을 때 불평하는 것, 많이 받으면 칭송하는 것 등은 올바른 지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c) ‘오직 자기 경향’을 따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경향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고 초자연적인 목적을 통하여 성화시켜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을 낮추지 않는 태도, 우리를 대체할 외부 강연자들을 절대로 부르지 않으려는 태도, 강론 때문에 다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과도하게 치우친 열정을 토로하려는 태도는 직무

5) 2코린 4, 5: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을 피하기 위하여 복음 선포자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기치로 들어야 합니다. “Da mihi animas, caetera tolle.”⁷⁾ 코스타마냐(Costamagna) 몬시뇰께서 요한 보스코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 보스코께서는 당신의 첫 선교사들을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교황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파견하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보냅니다. 가십시오. 그러나 돈이 아니라 영혼을 기억 하십시오.”⁸⁾

2. 열성. 열성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만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성은 복음 선포자들이 가진 재능에 생명을 주고 꿀을 갖추게 합니다. 열성은 최상의 효과를 빚어 냅니다. “나에게 정신을 갖춘 열 명의 사제를 주십시오.”(정신을 갖춘 사람은 참된 열성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회개한 세상을 주겠습니다.”라고 성 필립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로와(Mullois)는 말하기를, “사랑이란 바로 웅변의 첫째이며 가장 본질적인 규칙입니다. 이것은 특히 복음의 힘, 말씀의 생명과 효과, 즉 웅변의 마술로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열성이 있는 사람은

6) 루카 12, 31: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7) ATP, n. 164, 각주 1 참조(*역주- 창세 14, 21: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지시오.”).

뒤흔들고, 불타오르며, 빛을 밝히고, 움직이며, 회개합니다. 차가운 자는 소리가 나는 팽과리일 수 있지만, 영혼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⁹⁾

뜨거운 열성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고, 고통으로 절규하며, 슬픔에 깊이 잠기고, 애정을 담은 애원을 합니다. 차가운 사람은 율법대로 실행하는 것 외에는 할 줄 모르고, 냉철한 논증만 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얼음을 녹이는 태양이요, 자연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지만, 차가운 사람은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회심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무엇보다 하느님께 열성을 청해야 합니다. 열성은 성령의 선물이요, 사제에게 가장 본질적인 은총 중 하나이고, 매일 청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빛을 비추어주시고, 인류의 비참함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며, 신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듯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애정을 주시고, 아버지로서 꾸중도 해주시지만 벅으로서 격려도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사를 드리면서, 성무일도 중에, 성체조배를 하면서
245 기도해야 합니다. 일부 사제들은 한 번도 이러한 은총을 청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면 경솔한 태도일까요? 비록 경솔한 태도일지

8) E. CERIA, 『Annali Società Salesiana. Dalle origini alla morte di San Giovanni Bosco (1841-1888)』(살레시오회 연보. 초창기부터 성 요한 보스코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841-1888>), SEI, Torino 1941, pp. 254-255 참조. 저자는 256쪽에 교황 비오 10세의 편지를 실었다.

연정, 정말 그렇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참된 의미에서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은총을 늘 청해야 합니다!

b) 참된 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열성은 하느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참된 것이 됩니다. 죄에서 멀어지기를 바랄 때, 영혼들을 천상으로 이끌기를 바랄 때, 영혼들을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로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참된 열성을 갖추게 됩니다. 순수한 지향을 가질 때 참된 열성이 됩니다.

c) 지혜로운 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쓰라리고 포악한 열성은 모두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는 열성의 눈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성찰과 충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밀히 암시하는 것, 꾸짖을 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수치스런 나쁜 습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특히 당한 모욕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더욱 경솔한 일이므로 우리는 쓰라린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털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을 광 닫고 나가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잠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코고는 사람 때문에, 부채질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심하게 야단치고 폭발하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편 가

9) I. MULLOIS, 『Corso di sacra eloquenza popolare, ossia saggio sul modo di parlare al popolo』(‘대중적인 거룩한 웅변 코스’, 즉 대중에게 말하는 방식에 관한 논문), Paravia, Torino 1855, pp. 1-18 참조.

르기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건드리는 일, 고해소에서 들은 말을 강론대에서 퍼뜨리는 것도 경솔한 일입니다. 강론대보다는 사석에서 훨씬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떠든다면, 나중에 제의실 지기에게 말하거나, 보좌신부에 일러두는 것이 나을 것이므로, 다른 기회에 개입합니다. 만일 교리교사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강론대에서 풍자하거나 야단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다정하게 대하며, 성체조배나 친교를 통하여 봉사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또는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중재자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제는 중상모략이나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충하면 안 되고 따끔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진리로써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속담이 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며칠 전에 말해야 할 사항을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메모를 해두고, 성체 앞에서 이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안의 정의가 돋보이도록 준비를 하여, 정말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이고 종교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

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어느 본당신부가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세례받는 아기의 대모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거의 신자 전체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자기 대신 젊고 열성적이며 달변가요, 신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좌신부에게 강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방어 효과는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본당신부가 자기 의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영웅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 대한 애정이 아주 커졌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사제는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의 강론이 사람들을 분열시킴으로써 선을 얻지 못할 것 같을 때는 그런 강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in humanis) 기대할 수 없는 바를 획득하려는 것과는 긴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는 일을 ‘즉시’ 얻으려는 것은 지혜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본당에서 모든 신자가 미사 때 책을 갖고 오고, 모두가 매월 영성체를 하며 모두가 본당신부가 설립한 단체나 모임에 가입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활동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모임 방식이 모든 이에게 [승인] 받으며, 모두가 우리를 신뢰하는 등과 같은 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을 과도하게 하는 성당에 서는 침묵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성사를 자주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3. 준비. 다음과 같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강론가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강론대에 오르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강론하는 도중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강론하고 난 후에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관절 강론대가 당신이 장난하는 곳입니까? 당신에게 강론은 30분 동안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합니까. “정말 말 많네?! 무언가 말해야 하겠어!”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탁에 초대되었는데, 정작 식탁에는 아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어떤 사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능력껏 준비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복음 선포가는 절대 사죄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태만이 수천 명의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 해악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판결이 엄중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것처럼 게으르다면, 심판 날에 우리는 썸을 치러야 합니다! 굶주린 양을 장기간 굶겨 죽게 내버려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준비는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는 대중에게 강론하기 위

해 더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후자의 경우에 더 필요할 것입니다. 대중에게는 잘게 씹어주고 보다 풍부한 실례를 곁들이는 등 한층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론을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준비는 긴 강론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아주 짧은 강론을 위해서 더 필요하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 필요하지만, 아마도 후자의 경우 더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도 명확하고, 적합하게 온 힘을 기울여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강력한 담화 안에 깊고 구체적인 확신이 흘러넘쳐야 하고, 생각에 더욱 부응하고 더욱 정확하게 표현해 청중의 주의를 이끌고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성인들처럼 많은 웅변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또 많은 준비도 없이, 가끔 ‘사도로서’ (all apostolica) 강론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강론은 ‘사도로서’ 라기보다 ‘조심성 없이’ (alla carlona) 하는 강론이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론은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로써’ 강론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스의 성자가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진실하게 준비한 삶 전체의 강론이지만, 사랑의 규칙 외에는 다른 웅변 규칙이 없는 강론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a) 강론가가 성인이어야 합니다. 말하는 만큼 큰 설득력을 가지는 이들은 성인들뿐입니다. 이는 긴 묵상과 꾸준한 실천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나타나는 설득력이요, 갑작스러운 말에 도유의 인장을 새기고 영혼을 뒤흔들 정도의 불도장을 찍어주는 설득입니다.

b) 연설가는 이미 많은 강론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실습을 통하여 모든 경우에 꼭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c) 이는 곳에서 강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장소에서는 그의 거룩한 삶의 후광과 대중으로부터 받는 존경심이 청중의 주의를 호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설가의 말씀이 마치 성인의 말씀처럼 여길 것입니다.

또한 젊은 사제들은 그러한 종류의 강론을 하려 해서는 안 됩

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할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오히려 몹시 꺼릴 것입니다.

게다가 “준비에는 두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즉 미시적 준비와 거시적 준비입니다.

거시적 준비(*preparazione remota*: *역주- 멀리 내다보는 준비)는 거룩한 삶을 살고 열심히 연구하며, 특히 신학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준비(*preparazione prossima*: *역주- 시급한 준비)는 강론을 하기 전에 하는 준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주제에 관하여 생각을 잘 해야 하고, 거의 소화하고 동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요 부분을 정하고 메모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에 내용을 전개하고 작성해 봅니다.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본당 교육에 관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에 복음을 읽고 그 내용에 관해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즉시 선택해야 할 주제와, 할 수 있다면,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방법과 실제사례를 통해 확실히 검증해봅니다. 하루의 남은 긴 시간,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 가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본당신부나 다른 사제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생각과 실행방식을 듣고, 혹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개념을 소개합니다. 유사한 예를 찾고 신문이나 책에서 사건을 읽고, 설명, 증거 등을 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메모를 해두고 대략적인 전체 구도를 잡아봅니다. 그런 후 목요일에는 설명과 교육을 하면서 전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외우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실천적이며, 함축적인 내용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강론의 본질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요소들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은 '현대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형태에 있어서 그리고 비유에 있어서, 예화에 있어서, 적용방법에 있어서 모두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생각과 언어 등이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시기에는 우리의 삶을 군대에 비유하고, 그리스도교 신자와 영적 원수 사이의 투쟁으로 비유하면서 적들의 무기, 계략 등을 열거해보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오늘날은 성모님에 관하여 루르드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돌발적인 죽음의 예처럼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난에서, 축제에서, 시위 등의 사건에서 주제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자수를 놓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자수와 같은 것이어서, 뜨개질한 옷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망치고 말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확기에 있는 농부에게 말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계

은 사람은 수확을 조금밖에 못 거둘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수확의 날, 곧 심판 날에 우리의 수확물도 그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두 가지 특별한 경우에 관한 유의사항

이제 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두 가지 사항을 부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51

1. 복음 선포자에게 지급되는 급료. 복음 선포자들은 그들이 받는 금액을 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불하는 사람은 불평의 소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론하는 사람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론료는 다소 충분할 정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께 대한 9일기도 때처럼, 가끔 9일기도를 꼭 채우고 찬양기도를 마치고도 여행 경비와 숙박비를 지불하기에도 부족한 18리라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강론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외부 강사' 를 초대하지 말

거나 일이 이러저러하다고 미리 이야기를 한 다음 초빙해야 합니다. 강론에 대해 애덕을 청해야 하고, 신자들이 더 많은 회사를 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 선포자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자칫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고가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관대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인색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질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섭리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급료에 대해서든지 식사에 대해서든지, 획일적인 규칙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규칙이 들어맞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2. 복음 선포 전문가. 자신들의 전 생애를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직무이지만, 주의
253 해야 합니다.

a) 무엇보다 먼저 이들 복음 선포자들은 명예, 이익, ‘오로지’ 취향과 같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일을 할 위험이 큼니다. 그와 같은 직무에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생계비용을 얻어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서 칭송받습니

다.

b)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를 요구하므로,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qui saepe vagantur, raro sanctificantur.” (*역주-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치고 성인인 경우가 드물다.”)¹⁰⁾ 때때로 기도를 빼먹기 일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게을러집니다. 80개 또는 100여 개의 강연을 하면서 모든 강론대를 돌고 모든 영신수련, 월 피정, 9일기도의 강의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4세께서 어떤 신부를 질책하신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가십시오, 여러분은 일개 복음 선포자처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252

c) 이들은 하느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매번 강론대에서 사용한 경망스러운 방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성서 말씀을 농담으로 인용하는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을 노는 일로 만들어버리며 그렇게 해서 더 나쁜 일이 생기는데 강론을 통해 신자들을 고해소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해 때 드러내는 것은 그런 반감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떤 사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늘 보았던 사실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지 않는

10) 정확한 인용은 다음과 같다. “Sic et qui multum peregrinatur, raro sanctificantur - 순례를 하며 항상 떠도는 사람들이 성화되는 일은 드물다.” J. GERSEN, 『De imitatione Christi』(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대하여), libri quattuor(4권), ex off. Salesiana, Augustae Taurinorum 1899, liber I(제 1권), caput XXIII(23장) 참조.

사제 복음 선포자들이 상당히 더 열성적이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들 가운데에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위험 요소들을 피해야 합니다.

4. 강론의 재능

이에 관한 논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천적이고 필수불가결하며 세밀한 주의사항만 열거하겠습니다.

1. 주제에 관하여. 진리여야 합니다. 종교적 진리, 실천적인 진리, 청중의 능력에 적합한 진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론의 주제를 생활 자료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음식을 바꿉니다. 어린 아이의 음식, 어른의 음식, 병자의 음식은 서로 다릅니다. 숙되고, 경박하며, 별나고, 모호하며, 극단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제들은 제외해야 합니다.¹¹⁾ 교황청도 복음 선포를 강의로 변화시켜버리는 오늘날의 잘못을 분명하게 비난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¹²⁾ 가끔 필요하다면, 서클에서, 회의실에서, 또는 성당에

서도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특히 여러 강론의 ‘결론 부분’에서, 종말실재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잦은 성사 참여에 대해서, 주요 신심실천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사람들, 또는 ‘통상적으로’ 호교론적인 주제를 기꺼이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종교를 ‘실천할’ 생각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종종 호기심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들이거나 애호가들일 뿐입니다. 우리 사제들처럼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실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지를 움직이는 것보다 토론거리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통하는 이른바 진리입니다.

주제를 선별하는 데 참고할 만한 것은 이탈리아의 어느 교구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모든 본당신부는 도표에 그의 협력자들이 강론을 할 때 강조해주시기를 바라는 주제들을 적어둡니다. 영신수련이나 40시간을 지도하기 위해 오는 사제들에게

11) 트리엔트 공의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강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던 ‘호교론적 강의’는 초자연적인 가치와 인간적 가치 사이의 일치를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졌고, 그리스도교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학문적 연구를 폭넓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강론은 ‘preambula fidei’ (신앙의 전제)에 대해 집중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엇보다 세속적인 것으로 기우는 듯 보였다. 여기서 성좌는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G. ROCCA, 「Predicazione」(복음 선포), DIP, VII, 1983, p. 549 참조.

12) PIO X, 「Acerbo Nimis」(*역주- 1905년 4월 15일에 반포된 그리스도교 교리교육에 관한 회칙), CC, 1905, II, pp. 260-270 참조.

그 도표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항상 염두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뿐 아니라 강론을 한 각 사제에게 선택한 주제를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당에 가장 필요한 주제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과 너무 자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면서 유익한 주제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2. 배치에 관하여. 문단이 잘 나뉘어져 있고 의미가 명확한 강론은 복음 선포자가 준비하고 설명해 나가기가 훨씬 쉽고 청중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54 시골사람들조차 오랫동안 그런 강론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잘 구분된 내용은 묵상에서가 아니라 교육에서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배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의 사항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a) 모든 생각, 감정, 내용에 걸맞은 사례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강론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청중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강론의 제목 옆에 짧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b) 글을 써나가면서 “청중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중이 어린이라면 어린이를 위하여 쓸 것이고, 대상이 어른들이라면 어른을 위해서 쓸 것이요, 지식인들을 염두에 둔다면 지식인들 위해서 쓸 것입니다. 주제들, 예화들, 응용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할 것입니다.

c)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대립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적으로는 적지만, 분명하고 명확하며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강론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너무 많은 기쁨은 등잔의 불을 꺼뜨리고, 과다한 빛은 눈을 멀게 합니다. 식탁에 필요한 것은 가능한 모든 요리가 아니라 허기를 채울 정도의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3. 설명에 관하여

a) 강론을 하기 전, 미사, 성무일도, 묵주기도를 할 때에도 강론에 지향을 두고 아주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사도의 모후와 우리의 수호천사와 청중의 수호천사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허를 이끌어주시고 신자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준비와 작업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요, 복음을 선포할 거리를 찾으려고 온

255 세상을 들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때 온갖 것을 요구하고 온갖 예법을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찬바람을 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파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지귀는 새들도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의 사도들도 돌보아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대우를 받으려는 일부 복음 선포자들은 이제 누구도 초빙하기를 꺼릴 만큼 버거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본당에 가게 되더라도 봉사자들의 십자가가 됩니다.

b) 나아가 강론은 꾸밈이나 과시 없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명쾌한 스타일, 짧은 시간,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어야 합니다. 은총과 단순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표시인 것처럼, 전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으뜸인 분으로 밝혀야 하고, 열성을 다하고 분명하게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목소리는 장소에 어울려야 합니다. 귀를 찢을 정도나 화가 났다고 여길 정도로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하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지 잘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모든 청중에게 전달되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끊어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말의 끝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

니다. 단조로운 목소리 억양, 음조, 문장을 피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을 너무 자주 되풀이하기 때문에 ‘아무튼’ (laonde: *역주-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이탈리아 성서 요한 18, 37; 히브 2, 17에서 사용되었다고 추정됨)이라는 별명을 얻은 어느 복음 선포자도 있습니다. 거의 울먹이다시피 하는 어조, 천박하게 침 뱉는 행동, 코담배를 맡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 기침을 할 때나 재채기를 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야 하고 연극무대의 제스처처럼 우스꽝스러운 몸동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은 “기교의 최고봉은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⁵⁾ 몸은 똑바로 곧추 세워야 합니다. 강론대에서 산책하듯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짜거나 지나치게 흔드는 것도 결점이 됩니다. 머리는 항상 똑바로 유지하거나 가슴에 기대듯 숙여야 합니다. 얼굴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웃음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그렇다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억지 표정을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입을 비틀고 너무 크게 벌리며, 입술을 깨물고, 코를 훌쩍거리며, 목을 길게 내밀거나 주름지게 굽히는 것과 같은 표정입니다. 눈은 온순하게 떠야 합니다. 눈을 감거나 한 부분만 응시하는 것은 결점이 되고, 만일 그쪽에 여성들이 있다면 최악이 됩니다. 청중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발로

차거나 손으로 강론대를 너무 자주 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신성한 연설가가 하기에는 너무나 웃기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규정을 숙지한 후에는 한 유능한 복음 선포자의 실천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강론을 할 때 두 가지 외에는 결코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청중이 주의를 집중하고 감명을 받도록 청중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실천을 할 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료들, 특히 우수한 복음 선포자들에게 우리의 강론에 귀를 기울이고 드러나는 결점을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 선포자의 결점은 모든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알아야 하는 사람만 정작 이 사실을 모릅니다.

c) 강론을 한 후 잠시 마음을 집중해 준비하는 동안, 설명하는 동안, 지향에 있어서 범한 모든 잘못에 대해 하느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 마음으로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께 뿌려진 씨앗을 성장시켜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5. 몇 가지 실천적인 주의사항

13) FRANCESCO DI SALES (san), 『Lettere spirituali...』(영적 편지…), op. cit., p. 413 참조.

1. “강론을 길게 쓰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사제 직무 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기에는 시간도 많고 강론을 잘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젊은 시절에 했던 작업들이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복음 해설에 관한 두 가지 코스에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본당 교육 코스와 ‘종말실재,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예수 성심 등’에 관한 가장 대중적인 묵상 코스를 들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써야 합니까?” 처음에는 대략적인 개요를 정한 다음, 그것을 전개하고, 마지막으로 강론 내용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메모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장소, 연, 월, 일.

‘날씨’ - 맑음, 흐림, 변화무쌍 등.

‘준비’ - 기도를 했는지, 연구를 했는지 등.

‘표현’ - 분명한 말투, 차분한 말투, 혼란스러웠는지 등.

‘지속시간’ - 몇 분.

‘효과’ - 좋음, 나쁨, 만족스러움 등.

이러한 것들을 메모하면서 복음 선포자는 하나의 규범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런 강론을 되풀이할 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발생했던 결점은 보완하고, 좋았던 점은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259

3. “강론을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면 기존 강론을 모방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원칙상 강론은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고 강론이 한층 구체적이고, 한층 생생하며, 한층 실천적일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곧 속도를 낼 수 있고 실력도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담화의 본질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방한 강론이 낫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60%인 우리의 강론이 100%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른 이들의 강론보다 효과 측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258 혹자는 학식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의 공부, 독서,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강론 하나 하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습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강론에는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법이고, 그러한 기술을 갖추면 일반적인 강론을 구상할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강론을 준비하는 사람이 연구해야 하는 거의 모든 노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입을 만한 책을 소유하는 것도 좋은 규칙입니다. 그러나 그 책 저자는 학식이 뛰어나고 성덕이 출중해야 합니다. 그 책 저자들은 우리에게 연설가의 모델이요, 열성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강론을 글로 쓴 후 몇몇 사람에게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을 훨씬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4. “사제는 자신의 강론이 좋은 결실을 봤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면전에서 그 점에 관해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in humanis)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이고 진정한 친구라면 예외이겠지만, 그러한 친구를 찾기도 아주 드뭅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으로 미루어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해소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청중의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고해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의 강론의 반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향은 죄에 대하여 고통을 절실히 느끼게 해줄 것이고, 잘못된 내용을 더욱 조목조목 열거하게 해줄 것이며, 훨씬 확고한 결 260 심을 가지게 할 것이고, 강론을 잘 했을 때 고해신부에게 더 큰 신뢰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최상의 기준입니다. 사

제가 신자들에게서 그와 같은 효과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자기 강론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것인지, 또는 차가운 것인지, 아니면 고상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중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이해했을 때, 청중이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려갔을 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에서 선한 의지와 만족감을 읽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좋은 강론이 아닙니다. 강론을 바꿔야 합니다.

6. 어디에서 자료를 얻을 것인가

논문들은 원천을 명시하여 열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원천: 성서와 성전, 그리고 부대적인 원천: 역사, 과학, 문학, 세속적인 권위.’ 여기에서 두 가지 실천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열성적인 사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 선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곧 ‘인간 영혼에게 영적인 이익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선호할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서의 말씀입니다. 거의 준성사라고 할 수 있는 성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특별한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서

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학가나 비평가의 눈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말씀을 마치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강론을 할 때 성서 말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 길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원천은 바로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naturam magistrum praemisit Deus.” (테르툴리아노).¹⁴⁾ 예수 그리스도의 예화, 상징, 비유는 자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이 풍성하다는 것은 로씨(Rossi) 몬시뇰의 「Il mondo simbolico」(상징의 세계) (Società Buona 261 Stampa - Torino <토리노의 선한 출판회>에 문의하십시오)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¹⁵⁾

7. 여러 시기를 위한 주제

여기 아래에 표시한 주제들은 ‘정확한 선정 주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장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림시기’: 구세주에 관한 주제, 이를테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떤 표양을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등.

‘사순 시기’: 영원한 진리, 악습과 싸울 것, 덕을 설명할 것.

‘9일기도와 3일기도’ : 영원한 진리 또는 축일에 관한 내용을 청중에게 잘 설명할 것.

‘5월 성모성월’ :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진리를 주제로 지정한 무차렐리(Muzzarelli)¹⁶⁾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어떤 이들은 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5월의 성모성월을 제정한 정신은 첫 번째 방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은 영혼들과 그다지 깊지 않거나 또는 아예 없는 영혼들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 성심성월’ : 예수 성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표양, 그분의 은총 등.

‘3월 요셉성월’ : 성 요셉의 생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관련하여 묵상할 것.

‘10월 묵주성월’ : 묵주기도 전체와 각각의 신비들.

‘11월 위령성월’ : 연옥.

8. 열성으로 이루어진 강론의 상세한 내용

14) M. T. TERTULLIANO, De carnis resurrectione, in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vol. XLVII, G. Freytag, Lipsiae 1906, p. 41: “하느님께서서는 자연을 스승으로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15) G. B. ROSSI, 「Il mondo simbolico」(상징의 세계), G. Speirani, Torino 1890.

1. ‘5분간의 복음 설명.’ 어떤 교구에서는 모든 축일 미사에서 복음 설명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른 교구에서는 적어도 복음서 봉독을 이탈리아 번역본에 따라 읽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록 명령으로 하달되지 않았더라도 아주 많은 본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성에 찬 활동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한 의지와 활동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본문을 글자 그대로 설명하고 짧고 간결한 실천적인 숙고를 곁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철필처럼 진리를 새기고 진리가 살아나고 승리하도록 숨결을 불어넣는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도, 다른 사제가 제대에서 계속 미사를 드리는 동안 강론대에서 그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미사 초반부터 또는 서간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고 ‘거룩하시다’ 부분에서 또는 적어도 성체축성 이전에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집전 사제가 직접 제대에서 미사를 잠시 중단한 채 그러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Monitore ecclesiastico’¹⁷⁾(*역주- 카시미로 젤나리(Casimiro Gennari) 추기경 (1839~1914)이 창간한 교회법에 관한 월간 잡지)에

16) ATP, n. 227, 각주 9 참조.

서 제시한 아주 중요한 답변에 따라, 처음의 방식대로 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일 좋은 생각’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이나 신자들이 성당에 많이 올 시기에 좋은 묵상거리를 줍니다. 2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반드시 힘 있고 함축적인 생각이어야 하고 아주 짧고 명확한 응용을 곁들여야 합니다. 주변에서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카니발 축제에서, 사순시기 등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서 또는 미사 독서에서 발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론 전체보다 짧은 생각과 훈계가 더 풍성한 결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3. ‘성당에서 독서.’ 많은 곳에서, 특히 겨울 동안, 연중시기에 매일 성당에서 짧은 묵상서를 읽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일부 본당에서는 집전 사제가 복음 후에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본당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동안이나 미사 후에, 다른 사제가 이를 주도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도록 합니다. 많이 읽히는 서적으로는 성 알폰소의 ‘L'apparecchio alla morte’(죽음에 이르는 길)¹⁸⁾,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의 ‘La filotea’(신애론)¹⁹⁾, ‘성서’에 관한 윤리 서적들, 대중적인 성인의 생애에 관한 작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7) ATP, n. 56, 각주 3 참조.

다.

4. 많은 곳에서는 본당신부가 신심 깊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당에서나 또는 집에서 ‘좋은 독서를 하거나 형식을 갖춘 묵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상의 실천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시되는 권고 사항마다 약간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를 보탠다면, 묵상을 위해서나 기도하기 위해서나 서적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신자들의 편의에 교회가 적절하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9. 강론에서 춤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이론상으로는 아주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곤란한 이 주제에 관해서는 바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 사제들과 가능한 한 같은 감목대리구(지구) 사제들, 그리고 같은 교구 사제들은 고해소에서, 강론대에서, 신자들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충실하게 따라야 할 규범을 사목협의회 또는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정하여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18) ALFONSO DE' LIGUORI (san), 「Apparecchio alla morte」(죽음에 이르는 길), Tip. Salesiana, Torino 1891.

19) FRANCESCO DI SALES (san), 「Filotea, Marietti」(신애론), Torino 1864.

그런 다음 이 주제에 관해 복음 선포자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켈미(Richelmi) 추기경은 일반적으로 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²⁰⁾ '간접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춤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기회와 나쁜 유흥거리를 피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자주 말해야 합니다. 주로 춤을 추게 되는 축제나 상황이 다가올 때, 죽음이나 지옥에 관한 아주 신랄한 강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흥을 즐기던 중에 죽은 사람의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춤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고 그러한 축제에서 사람들을 성체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성체강복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하도록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춤을 추는 시기나 그 전에, 그 기간에 범한 죄를 보속하는 차원에서, 한 시간의 성체조배나 '십자가의 길' 을 하도록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의상 춤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마리아의 딸들의 회' (Compagnia delle Figlie di Maria)²¹⁾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 아주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들에게 강연 하나쯤은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언합니다. 가연성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화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본당 신부는 어쩌면 외부 복음 선포자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 축제를 춤을 추는 관습으로 시작하면, 어떤 구실을 내세워 춤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의 증오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전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권위 있는 충고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맞을 때 성지순례를 공포하거나, 가뭄 때문에 비를 내려주십사 청하는 다른 의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행렬을 생략하면서 단순한 서약을 통해 춤의 남용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마 거룩한 지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시장, 호텔 지배인,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20) 주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리노의 대주교인 A. 리켈미(Richelmi) 대주교의 사목서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주교는 이 서한을 1909년 시순절을 계기로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서한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순수, 정직, 품위라는 이름으로 규명되는 덕성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초대하고 있다. A. 리켈미 대주교의 'Lettera 11 febbraio 1909' (1909년 2월 11일자 서한), in 『Raccolta Lettere Pastoral』(사목서한 모음집), biblioteca del Seminario Arcivescovile di Torino(토리노 대주교 직할 신학교 도서관), pp. 3-20 참조.

21) ATP, n. 94, 각주 2 참조.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위 신뢰하는 좋은 친구로서 한마디를 건네면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즉, 그들을 가끔 본당신부 사제관에 초대하고, 호의로 대접하고, 가끔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 이런 사람들은 본당신부의 부탁을 아마도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일부 축제에서 달리기, 영화, 슬라이드 등과 같은 아주 매력적인 오락들을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의 수요만큼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언급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 영신수련을 위하여

1.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괴정을 위한 기부금이 마련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좋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당신부나 성당 담임이 보조금을 줄 의향이 없을 때, 돈을 모으기 위한 전략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성당 안에 성 이냐시오나 다른 성인의 성화 앞에 등록 신청자 기입 장부와 ‘영신수련을 위한 회사’ 모금함을

놓아둡니다. 따라서 영신수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가끔 권고하거나, 또는 1년에 두세 차례 상기시켜줍니다. 시골이라면 과일이나 돈을 내고 참가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상속자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합니다.

일부 교구에서는 가난 때문에 영신수련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곳에서 영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상의 선교회’ (Missionari gratuiti)²²라는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신수련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주는 활동을 칭찬해주는 것만으로도 바라던 기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을 얻은 본당신부들을 알고 있습니다. 265

2. “몇 년마다 한 번씩 영신수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규칙 상 실천적인 사람들은 4년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자주 하면 중요성을 잃을 수 있고, 큰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드물게 하면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괴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풍성한 선을 지나치게 먼훗날로 넘겨버리는 일이 됩니다.

3. “영신수련은 며칠 동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평균 기간은 12일입니다.

4. “영신수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영신수련 효과의 반, 그리고 종종 결실의 4분의 3이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a) 열성적이고 실천적인 복음 선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신수련에서는 거품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당신부들이 영신수련을 실행하는 데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b) 신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합니다. 시급한 일이 없어야 하고, 너무 불편한 계절이 아니어야 합니다. c) 아주 일찍 통보해야 하고, 여러 달 전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층 명료하게 알려주고 목적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하여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어떻게 전개해야 합니까?” 본당신부는 강사들과 함께 시간
267 표와 전례 예식 방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할 때 ‘충고나 명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피정을 주관하는 것은 본당신부가 아니라 피정강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많은 자유와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신뢰를 줄 수 없다면 그들을 초빙하지 말아야 합니다.

22) ‘소개글’ (입문) 각주 34와 ATP, n. 204, 각주 9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맹과 같은 것을 말하는 듯하다.

강사들은 본당신부에게 그 지역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만연된 단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본당신부는 그 기간에는 주관하고 이끌어내야 할 자신의 직무를, 말하자면, ‘버려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주의사항도 강사들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당신부는 고해신부들을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본당신부가 고해소에 들어가는 일을 자제하고, ‘참으로’ 의심스러운 자들만 제외하고, 참회자들을 다른 고해신부들에게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강
266 사만 초빙하고 그에게 여러 명의 동료들이나 또는 특정 동료의 선택권을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강론의 성격과 질서를 정하는 데 더욱 쉽게 일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사람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강론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들을 나머지 신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이미 공통된 관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남성들도 분리하고, 드물게는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을 분리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유념하여 살펴야 할 사항은 동일한 강사를 두 번 연이어 초빙하지 말아야 하고, 강사들이 영신수련을 시작하기 전이나 영신수련을 하는 도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들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저녁 시간을 오락으로 너무 많은 시

간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요란스럽고 호화로운 점심을 대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좋은 표양을 주지 않은 그런 강사들은 한 손으로
268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것을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즉 “대화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소가 신성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고 부당하므로 일절 배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을 사항을 납득하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통된 견해는 중용에 있습니다. “하더라도, 필요한 학식, 지혜와 열성의 규칙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스승과 제자처럼 준비를 해야 하고, 이의제기와 답변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성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조잡하고 속된 농담을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답변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영신수련 후에는 어떻게 통제해야 할 것인가.” 강사가 떠나는 동시에 결실도 떠나지 않도록 신속히 돌보아야 합니다. 병자의 회복은 병에 대한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발하는 것은 발병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인내의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들은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즉 결심했던 바를 자주 상기하는 것, 강사가 제시했던 기록과 자료들을 기억하는 것, 무엇보다 죄의 기회를 피하고,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며,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강화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사들과 협의하여 주된 악을 척결하는 외부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젊은이들의 서클, 월간 성체 흠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성은 다른 일들을 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스보보다(Swoboda) 박사는 자신의 탁월한 저서 ‘La cura d’ anime nelle grandi città’(대도시에서 영혼 사목)에서 복음 선포를 위하여 그룹을 구분하여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논문은 대규모 본당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우리 시골 중심 본당도 적용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²³⁾

11. 특별 계층에게 말할 것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미 입증하고 있는 바 특정 계층에게 말을 할 때는 한층 흥미롭고, 한층 매력적이며, 한층 유익한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계층 구분은 규칙상 자연적인 요소로 합니다. 즉 남자 어른, 여

자 어른, 젊은 여성, 젊은 남성. 가끔 큰 중심지에서는 사회적인 조건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 노동자, 방직공장 일꾼 등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언제’ 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신수련 시기가 가장 적당한 기회인 듯합니다. 영신수련의 각 일정마다 또는 적어도 사흘 동안 특별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찬가지로 사순시기에도 각 계층에게 일주일 또는 사흘 간 강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부활절 양형 영성체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떤 시기에 특별 코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본당에서는 저녁 기도 후에는 항상 성당에서, 또는 서클 또는 오라토리오 등에서 강연을 마련하고, 계층별로 매월 특별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단체 안에 그룹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단체의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알려주며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계층의 고유한 의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는 자녀 교육을 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신앙의 진리와 윤리의 진리를 펼쳐야 하고, 끝으로 오늘의 오류와 적절하게 투쟁해야 하며, 지역의 오류를 지혜롭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와

23) H. SWOBODA, 「La cura d'anime...」, op. cit., pp. 280-281 참조.

같은 강연에서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주제’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교회에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서적, 신문, 사람들과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강연에서 신부는 재판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 270 부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인 분야에서 벗어나야 하고 신자들에게 사회적인 공동 삶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오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제는 매월 ‘국민일치운동 회보’²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강연회의 목적은 반대자들의 책략을 ‘방어하는 것’ 이요, 각자의 의무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하는 것’이며, 사회의 공동선과 종교의 부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단순해야 하고 대중적이며 매혹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생한 이야기여야 하고, 가능한 한 그날의 사건에서 인용해야 하며, 아주 강렬한 이야기, 증거, 그리고 불신자들의 고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인 주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오늘날 사회 원칙에 대한 영신수련 자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것으로는 충분하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교육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주제를 누군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혜가 269 필요하고, 더구나 교회 바깥에서 이러한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더 많은 지혜가 요구되지만 아주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12. 강론과 독서를 위해 유익한 서적들²⁵⁾

6월의 성심성월을 위하여: 비록 아주 개념적이지만 아름다운 PP. 체르보니(Zerboni)²⁶⁾의 저서들, 반누텔리(Vannutelli)²⁷⁾, 프랑코(Franco)²⁸⁾, 페레리(Ferreri)²⁹⁾의 작품들. 그 다음으로 민네오-잔니(Minneo-Janni)³⁰⁾, 케라(Guerra)³¹⁾, 리시(Lisi)³²⁾의 저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의 'La novena in preparazione alla festa del Sacro Cuore' (성심 축일을 준비하는 9일기도)³³⁾와 P. 보르고(Borgo)³⁴⁾의 다른 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비록 최근에 아주 비슷한 P. 아르투시오(Artusio)³⁵⁾의 신애론이 있지만, 아주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3월의 요셉성월을 위하여: P. 마르코니(Marconi)³⁶⁾의 저서들, P.

24) 'L' Allarme' (경종)라는 회보를 말한다. 매월 국민일치운동의 공식 기관지인 'La Settimana Sociale' (사회주간)의 부록으로 나왔다. P. PALAZZINI, 'Unione Popolare'(국민일치운동), EC, XII, 1954, p. 830 참조.

파트리냐니(Patrignani)의 'Divoto di S. Giuseppe' (성 요셉께 대한 신심)³⁷⁾, 마리스타회의 P. 후게(Huguet)³⁸⁾의 아주 신심 깊은 작품들, 브라촐리(Brazzoli)³⁹⁾, 베르키알라(Berchialla)⁴⁰⁾, 보나차(Bonaccia)⁴¹⁾, 민네오-잔니(Minneo-Janni)⁴²⁾, 마르티넝고(Martinengo)⁴³⁾의 'Fabbro di Nazaret' (나자렛의 노동자), 비탈리(Vitali)⁴⁴⁾의 'Vita e gloria di S. Giuseppe' (성 요셉의 생애와 영광), 티린초니(Tirinzi)⁴⁵⁾의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10월의 묵주성월을 위하여: 몬사브레(Monsabrè)⁴⁶⁾의 'Piccole meditazioni sui misteri del Santo Rosario' (묵주기도 신비에 관한 작은 묵상), 몬시뇰 살차노(Salzano)⁴⁷⁾와 로타(Rota)⁴⁸⁾의 'Il mese di ottobre dedicato al SS. Rosario di Maria Vergine'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 바치는 10월 성월), 몬시뇰 가이(Gai)⁴⁹⁾의 'Il S. Rosario' (묵주기도), 리시(Lisi)⁵⁰⁾의 'Il Rosario'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을 위하여: 'Il dogma del purgatorio' (연옥에 대한 교의)⁵¹⁾가 있습니다.

271

25) 이 단락에서 열거하고 있는 작품 인용은 모두 완전하지 못하다. 강론 주제를 언급하는 내용을 텍스트와 확인해가며 해당 작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26) G. ZERBONI, 'Il Sacro Cuore di Gesù maestro e modello e conforto dei cristiani'. Discorsi morali per il mese a Lui consacrato,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스승이요 모델이시며 위로인 예수님의 성심'. 그분께 봉헌한 성심성월을 위한 윤리 설교), Tip. Immac. Concezione(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출판사), Modena 1887.

27) F. VANNUTELLI, 'Il mese di giugno consacrato al Sacro Cuore di Gesù Cristo'(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에 봉헌된 6월), 7ª ediz., Tata Giovanni, Roma 1901.

28) S. FRANCO, 'Il mese di giugno consacrato al Sacro Cuore di Gesù'(예수님의 성심에 봉헌된 6월), Tip. Oratorio San Francesco di Sales, Torino 1872.

주의사항. 이 서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가톨릭 서점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서점들은 그 책들을 책임지고 찾아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서적들은 아주 실천적이고 매우 존경받는 설교학(옹변술) 코스의 최상의 저자인 제로미니(Geromini)⁵²가 추천하였습니다.

13. 짧은 복음 선포자들을 위하여

-
- 29) S. FERRERI, 「Il Cuore di Gesù Studiato nel Vangelo: letture-prediche」(복음에서 연구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독서-강론), Marietti, Torino 1875.
- 30) 해당 작품을 찾을 수 없음.
- 31) A. GUERRA, 「Il predicatore secondo il Cuore di Gesù」(예수 성심에 따른 복음 선포자),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87.
- 32) S. LISI, 「Che fa il Cuore di Gesù nell' Eucaristia? Trenta sermoni da servire per un mese al Sacro Cuore di Gesù」('예수 성심께서는 성체성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 성심성월을 위한 30개의 설교집), Tip. F. Castorina, Giarre 1887.
- 33) ALFONSO DE' LIGUORI (san), 「Novene ed altre meditazioni per alcuni tempi e giorni particolari dell' anno」(연중 특별 시기와 특정일 위한 9일기도와 묵상), Marietti, Torino 1826.
- 34) C. BORGIO, 「Novena in preparazione alla festa del Sacro Cuore di Gesù Cristo' ad uso delle persone religiose secolari」('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축일 준비를 위한 9일기도' 재속수도자용, G. Fenoglio, Cuneo 1854.
- 35) M. ARTUSIO, 「La Filotea divota del Sacro Cuore di Gesù」(예수 그리스도 성심께 헌정된 신애론), 4^a ediz., Tip. S. Lega Eucaristica(성체성사 연맹 인쇄소), Milano 1920. 초판은 1905년 판임.
- 36) G. MARCONI, 「Mese di marzo consacrato al glorioso patriarca San Giuseppe sposo di Maria Vergine」(동정녀 마리아의 신랑이신 영광스러운 성조 성 요셉께 봉헌된 3월 성월), Tip. Contadini, Roma 1842.

1. 주제에 돌입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은 예상 밖으로 매혹적이어야 합니다. 실화를 주제로 선택했을 때가 최상입니다.

2. 강론을 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청중 가운데 아주 무지한 자가 있는데 나는 내가 지

-
- 37) G. PATRIGNANI, 「Il divoto di San Giuseppe」(성 요셉께 대한 신심), Roma 1866.
- 38) J. HUGUET, 「Glorie e virtù di San Giuseppe modello delle anime interiori」(내적 영혼들의 모델이신 성 요셉의 영광과 덕), Tip. Salesiana, Torino 1884; 또는 「La devozione di San Giuseppe in esempi」(귀감이 되시는 성 요셉께 대한 신심),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85.
- 39) A. BRAZZOLI, 「Il glorioso patriarca San Giuseppe」(영광스러운 성조 성 요셉),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64.
- 40) V. G. BERTHIALE, 「San Giuseppe. Manuale di letture e contemplazioni sulla vita del Santo Patriarca Sposo di Maria」(성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신 성조의 생애에 관한 독서와 묵상 매뉴얼), Stamperia Società Tip., Nizza 1860.
- 41) P. BONACCIA, 「Il perfetto manuale di San Giuseppe」(성 요셉께 대한 완벽한 지침서), composto per l' uso dei suoi devoti(성인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구성됨),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72-1896.
- 42) J. M. MINNEO, 「San Giuseppe e la somma dulia che gli è dovuta. Studio intorno ad un accrescimento di onori nel pubblico culto al Santo Patriarca」('성 요셉과 그분께 드려야 할 최대의 경배.' 성조께 대한 공적 공경에서 성장한 존경에 대한 연구),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90; 또는 「San Giuseppe」(성 요셉), 또는 「Il più grande dei Santi. Studi sulla sua vita, sulle sue grandezze, sul suo culto」('가장 위대한 성인.' 성인의 삶과, 그분의 위대함, 그분 공경에 관한 연구), 2^a ediz., Tip. Dell' Armonia, Palermo 1889.
- 43) F. MARTINENGO, 「Il fabbro di Nazaret modello degli operai e patrono della cattolica chiesa' : racconto dell' autore del Maggio in campagna」(가톨릭 교회의 주보이시요 노동자들의 모델이신 나자렛의 노동자' : 5월 성월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 Tip. Salesiana, Torino 1880.

금 하고자 하는 강론을 그에게 이해시킬 능력이 있겠는가?

3. 강론을 글로 쓸 때 기억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강론 부분을 큰 숫자로 표시하며 시작하고 여러 부분을 구분되는 글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4.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갑자기 강론을 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준비하지 않고도 강론할 줄 안다고 말할 정도의 야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5. 학식을 과신하지 말아야 하고 첫 성공에 자신만만해하지 말

-
- 44) A. VITALI, 「Vita e gloria del gran Patriarca San Giuseppe sposo purissimo di Maria」(마리아의 가장 순결하신 배필이신 위대한 성조 성 요셉의 생애와 영광), Saraceni, Roma 1885.
- 45) P. TIRINZONI, 「Il prototipo e il protettore di ogni stato」(모든 신분의 원형이시요 수호자), Marietti, Torino 1908.
- 46) J. MONSABRÉ, 「Il santo rosario」(거룩한 묵주기도),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98.
- 47) T. SALZANO, 「Il mese di ottobre dedicato al santo rosario di Maria Vergine Madre di Dio e Madre nostra」(하느님의 어머니시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의 거룩한 묵주기도에 봉헌된 10월 성월), Tip. Patronato, Udine 1886.
- 48) 작품을 찾을 수 없음.
- 49) C. GAY, 「I misteri del santo Rosario」(거룩한 묵주기도의 신비), Tip. Salesiana, San Pier d' Arena 1888.
- 50) S. LISI, 「Il rosario di Maria e i bisogni della società moderna」(마리아의 묵주기도와 현대 사회의 요청), Tip. F. Castorina, Giarre 1892.
- 51) F. SCHOUPE, 「Il domma del purgatorio, illustrato con fatti e rivelazioni particolari」(특별 계시와 사건을 통해 설명한 연옥에 대한 교의), Versione italiana del Sac. A. Buzzetti, Artigianelli(사제 부체티, 아르티자넬리 신부의 이탈리아어 번역), Torino 1900.

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했다거나 원하는 만큼 교육하지 못했다고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은 “복음 선포자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지 않으려 할 때 항상 그 기량을 발휘하게 됩니다.”⁵³⁾라고 하셨습니다.

6. 항상 강론 주제에 관한 묵상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성체 앞에서 하는 묵상은 놀라운 효과를 가집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에게 위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감도합니다.

272

7. 강론 주제에 관해 훌륭한 작가의 글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8. 시기가 좋지 않을 때 준비하기가 낫습니다. 그럴 때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와 아주 매혹적인 비유를 끌어들이어야 합니다.

9. 최상의 복음 선포자는 가르친 바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층 더 경청의 자세를 갖추었고, 한층 더 균형이 잡혔으며, 한층 더 고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즉시 얻어냅니다.

52) E. GEROMINI, 「Corso divelguenza ad uso dei seminari」, Bazzi - Cavalleri, Como 1888.

14. 강론의 결실을 맺고 지속시킬 것

강론하고, 고백성사를 주며, 교리교육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을 보장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상인과 다소 비슷합니다. [상인은] 많은 교역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윤을 남기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벌어들인 수입을 잘 보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osui vos ut eatis, et fructum afferatis et fructus vester maneat.”⁵⁴⁾

정작 강론에서 결실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변화 없이’ 결실을 보지 못하는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결실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단들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 강론은 다음과 같은 요소 없이는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a) ‘꾸준히 그리고 잘 강론해야 합니다.’ 종종 원칙에 따른 강론은 결실이 적습니다. 청중도 부족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더 잘하려는 거룩한 책임감을 줍니다.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하느님 말씀의 물방울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이에 더해

53) FRANCESCO DI SALES (san), 『Lettere spirituali...』, op. cit., p. 405 참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이틀 안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상이나 회개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이 요청됩니다. 아주 훌륭한 마음과 광대한 정신의 소유자 성 아우구스티노도 죄에 빠진 세월을 몇 년이나 보냈습니까? 아마도 몇 년에 몇 년을 거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활동을 할 책임을 맡았을 때에는 회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 적응해야 하고 10년, 15년, 20년 동안 결실을 볼 수 없다는 것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항상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활동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볼테르의 문장을 번역하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오, 복음을 선포하시오,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무엇인가 남을 것입니다.”

b) ‘기도와 인내.’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씨앗이요, 그 씨앗의 발아는 모두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 알폰소께서 말씀하시길, 거룩한 설교가는 허보다는 무릎으로써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mirabuntur sed non convertuntur.”⁵⁵⁾ 말씀은 준비된 토양을 찾아야 하는 씨앗입니다.

54) 요한 15,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마음을 준비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이요, 그 씨앗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천상 빛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태동한 다음에는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주변에 가시가 많다면, 그리고 원수가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린다면, 오직 하느님만이 특정한 위험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c) ‘좋은 표양.’ 이러한 표양 없이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오른손이 세운 것을 왼손으로 파괴합니다. “verba movent, exempla trahunt.”⁵⁶⁾

좋은 표양이 부족하다면, 복음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274

2. 결실이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a) 우리의 강론이 강조점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가히 전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 삶의 실천은 예를 들어 기회의 회피, 성사생활의 잦은 참여와 같은 강조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특히 본당신부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의와 윤리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활용할 줄 안다면, 모든 강론마다 선호하는 내용에 관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경고, 한 가지 수단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론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5월의 성모성월, 6월의 성심성월, 사순시기, 3일기도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강론

은 우선 영성체로 결실 맺어야 하고 항구한 성사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b) “여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성은 그 자체로 사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순한 도구요, 인간 마음을 움직이는 막강한 수단입니다. 여성은 인류에게 과멸과 구원의 원인이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cherchez la femme.”⁵⁷⁾ 여성은 좋은 일에서도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여인은 성인들을 만들어내고, 나쁜 여인은 불운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연약한 여성을 참으로 신심 깊고 덕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제, 남편, 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지대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딸들의 동반자요 그리스도교 신자 어머니들 중 한 사람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강연회에서, 그리고 수많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선을 실행하고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전략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교리교육에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톨릭 단체에 가입하도록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쁜 신문은 멀리할 수 있게 하는지와 같은 기회를 살

275

55) “청중이 감탄하겠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56)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고, 표양은 이끍니다.”

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은 여성을 거룩하게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여성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c) “위험에서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기회는 사람을 도둑이 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나은 제안을 받으면, 위험에 빠지고 거둬들여서 빠집니다. 훌륭한 강론을 듣고난 후도 마찬가지로, 종종 영신수련을 아주 잘 마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시금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젊은이들과 어른들은 교육할 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처음처럼 야심에 차 있고 영적 독서를 하고, 수많은 전략을 통해 환심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문과 책에 위험이 있고, 극장과 춤추는 장소에 위험이 있으며, 모임과 식당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위험을 멀리하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험한 술집과 유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고, 그들에게 음악, 연극, 보치, 공놀이, 당구 등과 같은 건전한 오락을

57) “여성을 찾아라.”는 말은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 padre: *역주- 후대의 동명 프랑스 소설가 소 뒤마 또는 아들 뒤마와 구별하기 위해 대 뒤마 또는 아버지 뒤마라고 부름)가 희곡 ‘Les Mohicans de Paris’ (파리의 모히칸) (1864)에서 파리 경찰관의 입을 통해 발설한 유명한 표현이다. - 이 주제에 관해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주장하게 될 것이다. 『사제의 열성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1. AA.VV., 『Donne e uomini oggi a servizio del Vangelo』(복음을 위해 일하는 오늘의 여성과 남성들), ed. Centro di Spiritualità Paolina, Roma 1993 참조.

함께할 수 있는 서클을 추천해주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동료’(compagnia di Maria)⁵⁸⁾와 같은 수도회의 훌륭하고 좋은 규율을 통해 나쁜 악습의 유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한 규율을 통해서 젊은 여성들을 적합한 장소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건전한 오락도 즐기게 해야 합니다. 나쁜 서적들과 신문들을 못 보게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좋은 서적들을 사서 보도록 이끌어주거나 또는 그런 서적들을 빌려줘야 합니다. 또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수녀들에게 맡기거나, 훌륭하고 똑똑한 아가씨 사서를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Contraria contrariis curantur.”(반대되는 처방으로 병을 치유한다: *역주- 히포크라테스의 말. 뜻은 이열치열).

d) ‘서적과 신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쁜 서적과 신문은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요인입니다. 반면, 좋은 서적과 신문은 선의 벽난로입니다. 따라서 사제는 이와 관련해 영혼들을 최대한 보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유익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작은 도서관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언급

276

할까 합니다. 10월이나 12월께에는 모든 사제가 좋은 출판물과 나쁜 출판물에 관한 강론이나 강연을 한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서적과 좋은 신문을 거명하면서 주의

를 줄 수는 있지만 나쁜 서적과 신문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고해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나쁜 서적

과 신문을 거론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을 그들에게 ‘광고’ 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출판물을 선호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쁜 출판물을 멀리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말까지 좋은 신문의 ‘견본’을 나쁜 신문을 구독하는 가정, 좋은 신문에 무관심한 가정, 좋은 신문을 정기구독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배달할 수 있게 한다면 영성적으로 아주 유익한 회사요, 상당히 큰 선이 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신문의 ‘기증본’을 이발소, 호텔, 상점 등으로 발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좋은 활동을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문을 읽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읽도록 건네주는 일도 유익합니다. 상점 주인과 담배가게 주인들이 물건을 팔 때 나쁜 신문지로 포장하지 않도록 좋은 말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정을 느끼며 그 신문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당신부는 이러한 일이 최선책이라고 직설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동원하여 보살피야 합니다. 만일 서클이 나쁜 모임이라면 인쇄물을 조금만 들여보내는 것이 좋고, 서클이 중립적인 성격이라면 조금씩 더 많은 인쇄물을 나누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77

58) ATP, n. 94, 각주 2 참조.

그렇지만 신문은 ‘지역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쇄물의 내용이 지루해도 잘 읽는다고 주장하는 일은 쓸데없는 착각입니다. 신문을 흥미롭게 만들어야 하고, 많은 제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e) “어떻게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풍성한 강론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도시의 영혼 사목에 있어서 오직 ‘이미 회개한 사람들’ 그룹만 사목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회개해야 할 훨씬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목표로 삼지 않는 일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친구로서 몇 마디 말을 건넬 수 있겠지만, 특히 인쇄물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급되었고 우리 이탈리아의 많은 본당에서도 모든 가정에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 격월간지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쇄물에서 각자 좋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아주 특별히 영향력을 가지는 사목자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인쇄물에 예식 시간표를 인쇄할 수 있고, 어쩌면 지역에 관한 소식도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네롤로(Pinerolo)의 주교 로씨(Rossi) 몬시뇰은 스스로 이러한 출판사업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고 사목방문 때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바라(Novara)에서는 주교회의 총무인 바르베로(Barbero) 추기경께서 소위 「Angelo delle famiglie」(가정의 천사)⁵⁹⁾라는

주보를 발행하였고, 마치 진짜 천사가 글을 쓰는 형식으로 편집했습니다. 볼로냐(Bologna, via Marsala, 8)에서는 「La Semente」(씨뿌리기)⁶⁰라는 최상의 인쇄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이제 정기구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본당신부가 자기 본당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부수를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4분의 1페이지를 자기 본당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지면에 돈을 받고 ‘광고’를 싣거나, 특별 소식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본당신부는 가정에 정기구독을 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배달 소년을 통하여 각 가정에 무상으로 보내주면서 약간의 기부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도시 본당신부는 4분의 1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 얻는 수입으로 지출경비 전체를 지불하고 있고, 또 다른 본당신부는 매년 강론대에서 지출 경비와 기부금 결산을 발표하는데, 항상 또는 거의 항상 같은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분기마다 각 가정에 약간의 기부금을 내도록 초대하는 편지를 우편배달 소년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보내야 하고, 특히 그런 인쇄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영국과 독일의 본당에서 실행되고 있는 일을 떠올리는 것이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주제이든 윤리적 내

지 종교적인 주제이든,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소책자들을 사무실(sacrestia: *역주- 제의실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 의미상 사무실이나 성물 판매소에 해당됨)에 계속 진열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소책자들은 비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두 푼 도서관’ 또는 ‘한 푼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비싼 다른 서적들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토리노의 선한 출판사(Buona Stampa di Torino) S.A.I.D.의 ‘기톨릭 독서’ (Lecture cattoliche)⁶¹, 그리고 국민일치운동 사무국(Ufficio Centrale dell’Unione popolare)에서 발간된 많은 소책자들도 취급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본당에서는 최상의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le biblioteche circolari’ (이동도서관)⁶²끼리 서로 서적들을 대여해줍니다. 이러한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 넘겨주게 될 적절한 도서목록과 기록부를 만듭니다. 이렇

59) 「L’ Angelo della famiglia e la voce di San Andrea」(가정의 천사와 성 안드레아의 목소리), bollettino parrocchiale diretto dal Can. G. Barbero(마르베로 추기경이 책임 맡은 본당 주보), Novara, Tip. San Gaudenzio. 노바라의 공립 도서관은 1917년부터 1920년까지 연보를 보관하고 있다. 다른 본당들도 같은 제목으로 주보를 발행했다. 예를 들면, 「L’ Angelo della famiglia」, bollettino di San Leonardo, anno I, n. 1 (1913년 5월), Tip. San Gaudenzio, Novara 1913.

60) 「La Semente, giornale per il popolo」(씨뿌리기, 신자들을 위한 일간지), anno I, n. 1(1^a quindicina d’ aprile 1909), Tip. Bolognese, Bologna 1909. 「Istituto Culturale per il Catalogo Unico della biblioteca italiana e per l’ informazione bibliografica. Periodici italiani: 1886-1957」(이탈리아 도서관 연합회와 참고도서 정보를 위한 문화원. 이탈리아 잡지: 1886-1957) 참조.

게 하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La società della buona stampa' (선한 출판회)라고 부르는 적절한 단체가 소책자, 서적 및 좋은 신문들의 보급을 담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동도서관과 최상의 신문들에 국한해 정기구독도 접수합니다. 모금과 로또를 포함한 많은 수단을 통하여 경비를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서는 통상적인 일간지 정기구독 가격이 16리라였는데, 그와 같은 수단들을 통하여 가톨릭 일간지 구독료를 8리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좋은 일간지 보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들과 도시 소매상들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판매금액의 1~2%를 수수료로 그들에게 줍니다. 제의실지거나 착하고 영리한 소년에게 전례가 끝난 후 성당 앞 광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훨씬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면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소매상들에게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15. 결론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말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자기 주변에 발생하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숙고한다면, 각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겸손히 충고를 따른다면, 어떤 부분은 훨씬 경험이 풍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최상의 서적인 제로미니(Geromini)의 「Corso del eloquenza」(철교학 코스)⁶¹(Tip. Bazzi-Cavalleri - Como)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험의 결실과 활용해야 할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을 받을 희망 안에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Qui bene praesunt praesbyteri duplici honore digni habeantur, maxime qui in evangelio laborant.”⁶⁴

61) 이브레아(Ivrea)와 몬도비(Mondovi)의 주교로 구성된 위원회(몬시뇰 Moreno L., Ghilardi N. 그리고 성 요한 보스코)의 활동을 통해, 교양·교육서인, 'Lecture Cattolice' (가톨릭 독서)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L. GIOVANNINI, 「Le lecture cattolice di don Bosco」(돈 보스코의 가톨릭 독서), Liguori Editore, Napoli 1984, pp. 12-20의 소개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Lecture cattolice 1853-1902', elenco generale dei fascicoli pubblicati e programma di associazioni」(가톨릭 독서 1853-1902', 출간된 소책자 총목록 및 협회 프로그램), Ufficio delle lecture cattolice(가톨릭 독서 사무국), Torino 1902 참조.

62) 'Federazione Italiana delle Biblioteche Cattoliche Circolanti' (가톨릭 이동도서관 이탈리아 연맹)은 가톨릭 대중 이동도서관 전체 연합이었고, 거룩한 문화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보급한다는 고유한 목적에 보다 잘 부응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빛을 비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04년 7월에 설립되었다. 「Manuale del Bibliotecario」(도서관 매뉴얼), Federazione Italiana delle Biblioteche Circolanti (a cura di), Milano 1915, p. 223 (Direzione e Amministrazione: via Speronari, 3). 연맹은 「La Società Buona Stampa」(선한 출판회)라는 회보도 발간하였다.

5장 교리¹⁾

1. 우리는 앞에서 강론이 사제 직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 아주 예민하고, 유익하며,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교리’입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혼들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아이가 내일의 어른, 그리스도교 신자,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이가 훌륭하다면 내일에는 훌륭한 사람들, 착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들, 정직한 시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이가 고집이 세고, 무례하며, 종교에 무지하다면, 내일에는 양심

63) 저자 색인 참조

64) 1티모 5, 17: “지도자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원로들은 이중으로 존대를 받아 마땅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애쓰는 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 세례를 받은 것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만 득실대고, 정직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시민들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한편 사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실천적인 인물이었던 교황 비오 10세께서 하신 일 중 하나가 교리에 대한 회칙을 발표한 것입니다.²⁾

또 어떠한 신부도 교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부모들도 환영하는 활동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리고 소중한 아이들이 사랑받는 것을 보고 대단히 만족합니다. 차별하거나 증오심을 유발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신자들 스스로 융화시켜 교회로 이끕니다.

어른들은 이미 무관심주의에 길들여졌거나, 종교와 사제에 대

1)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있어서 교리는 으뜸가는 사목 과제였다. 신학생 때부터 이 활동에 전념했는데, 그 스스로 AD 78-81에서 설명하였다. 잡지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는 주세페 프리에로(Giuseppe Priero)가 편집한 2개 글을 게재하였는데 (1914-1915), 거기에 알바 교구의 교리교사 모임이 소개되었고 위원회에서 준비된 그리스도교 사상 가르침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G. PRIERO, ‘Adunanza catechistica diocesana di Alba’ (알바 교구 교리교사 모임), in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 1914, pp. 184-186, 그리고 ‘Il lavoro di un anno ad Alba’ (알바에서 1년 활동), in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 1915, p. 267. 그 다음에 『I programmi per l’insegnamento della dottrina cristiana nella diocesi di Alba』(알바 교구에서 그리스도교 프로그램과 가르침), Scuola Tip. Piccolo Operaio, Alba 1914.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도 AD 80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위원회의 일원이 되었고, 『I programmi』는 그가 1914년에 설립한 성바오로수도회의 첫 출판 작업이었던 것 같다. L. NORDERA, 『Il catechismo di Pio X. Per una storia della catechesi in Italia (1896-1916)』(이탈리아 교리교사를 위한 비오 10세의 교리서), LAS, Roma 1988, pp. 221-290, 449-451 참조.

해 중요성이 깊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그러므로 아직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은 이러한 묘목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야심을 충족시키는 활동이 아닙니다. 시간, 돈, 편안함, 평화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시작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당신 성심을 불태우시고, 작은 자들과 가장 성가신 이들까지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어루만져주시며, 그들을 껴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반 본당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리를 봅시다. 그 다음에는 축일 오라토리오에서 행하는 교리를 살펴봅시다. 우선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사항

a) “젊은이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소년들을 끌어당길 줄도 모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들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는 와중에 성공의 비결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희생할 줄 알고 요구되는 많은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벌이 꽃

2) PIO X, 『Acerbo Nimis』, ASS, XXXVII (1905), pp. 613-625. in CC, 1905, II, pp. 264-276 도 참조.

을 향해 날고, 파리가 꿀을 찾아 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투신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기들이 그토록 엄마에게 찰싹 붙어있습니까? 그녀가 사랑을 쏟기 때문입니다. 왜 돈 보스코가 젊은이의 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사랑을 베풀었기 282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키워달라고 하느님께 청합시다.

b) ‘신자들이, 그리고 특히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교리에 최대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단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강론대에서 강론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할 때 자주 열성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도와주는 축제와 교리경시대회를 통하여 열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교리의 유익함을 직접 느끼도록 합니다. 동시에 젊은이들을 더욱 순종적이고, 더욱 존경심을 갖게 하며, 더욱 근면하게 만들고, 그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성사생활로 이끌고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교리모임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자에게 해당 284
되는 부분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부모에게 부과되는 교육의 주된 의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의 의무는 자연적인 것이요, 사제의 의무는 자유선택 사항입니다.

c)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모두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도록 가르치고,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염두에 두도록 가르칩니다.

때때로 홀로 남겨졌다고 한탄하고, 책임을 나누어질 협력자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냉대, 모순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상황만 만난다고 불평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가끔 양심성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삭막한 상황은 일종의 비밀스러운 교만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한 교만은 주위의 관찰이나 지적을 못 견뎌내고,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두가 자기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지배합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이며, 현재의 주제에 대해 말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d) “젊은이들을 이끌기 위한 전략을 총동원하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본당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훌륭한 레퍼토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제와 모든 장소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실패했을 때는, 우리의 길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 등을

시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일을 유감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면, 젊은이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단조로움은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방법을 쓸 때도 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결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최상인 체 하는 것’입니다. 최고라고 여기는 것! 다시 말해 ‘항상 모두가’ 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모두가 와야 하지만, 모두가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최고라고 여긴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남자 어른들처럼 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 나이의 결점인 활달함과 무분별함을 꺾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서졌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교리 공부 전과 후에 떠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항상 어른들처럼 진지하기를 바라고, 노인들도 하품하는 긴 추상적인 묵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필립보 네리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저는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어깨 위에 짊어지는 고통을 겪겠습니다.”³⁾ 돈 보스코께서는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을 끌기 위한 수단들은 교리 전후에 오락을 준비하고, 상이나 선물을 약속하며,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교리 조직을 구성하고, 여러 계층에게 적절한 교리 수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상을 통한 방법

원칙: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행하는 것은 신성한 매혹이요 감동이며, 언어야 할 효과를 얻게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열성적인 사제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선물하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부각시킬 줄 알며, 어떤 외부 장치를 통해 자녀들과 부모들의 원의와 야심을 자극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제들은 비교적 많은 지출을 하고, 상당히 내적 가치가 있는 상을 주고서도 아주 미미한 효과만 얻습니다. 저는 교리 상을 받기 위해 본당신부에게 다가가면서 ‘그에게 애덕을 베풀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상을 주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 시상. - 성적, 참여도와 품행에서 아주 뛰어난 아이들 가운데 추첨을 해 주일 또는 교리가 있는 날, 상분, 과자, 과일, 영화

3) FILIPPO NERI (san), 『Lettere, rime e detti memorabili』(서간, 시와 잊지 못할 명언), Ed. Fiorentina, Firenze 1922, p. 123 참조.

티켓, 소액 상품권 등 작은 상을 주곤 하는 본당신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본당신부들은 사순 때만 빼고 중요한 축일과,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거나, 매번 하더라도 한 반씩 차례로 돌아가며 추첨을 합니다. 비록 상이 작더라도 즉각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학생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이러한 특별 시상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상의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상의 동기를 설명하는 일에 신경을 쓴다면, (결코 과장하지 않으면서) 칭찬을 덧붙여준다면, 은밀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여한다면 그만큼 상의 의미가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 285
고 어떤 곳에서는 신자들과 수상자들의 부모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전례 예식 전후에 성당 안에서 수상자들을 뽑아 상을 주는 방법이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보였습니다.

일반 시상. - 특별 시상을 하든 안 하든, 연중기간에는 장엄하고 일반적인 시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시상을 하기 위해서 장엄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시기와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나태해진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시기를 택해야 합니다.

일반 시상의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매번 젊은이들에게 출석, 학습, 행동평가를 표기할 수 있는 쪽지를 줄 수 있습니다. 쪽 287

지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10배, 50배,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다른 쪽지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개인 노트를 나누어줄 수도 있습니다. 매번 석 장의 쪽지를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두 번째는 행동평가, 세 번째 것은 출석점검을 위한 것입니다. 또는 쪽지 한 장을 주더라도, 성적에 따라 하나, 다섯, 열의 가치를 갖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각 교리교사가 자기 기록부에 표기를 한 점수를 활용하고, 훨씬 나은 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곳에서는 부모님들께 검사를 받아오라는 쪽지를 주고, 아이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쪽지의 숫자를 기록해둡니다. 어떤 곳에서는 각 젊은이에게 한 가지 숫자를 준 다음, 매번 카드 위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합니다. - 어쨌든 스티커, 쪽지 또는 점수의 총합이 수상자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시상식을 실행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한
286 가지 특별한 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비판과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있습니다. 상들을 진열한 다음 점수 순서대로 아이들을 불러 좋아하는 상을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오래 걸리지만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상품들을 진열해놓고 하나씩 가리키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표와 점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경쟁자를 압도해 경매

가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바자회 매장처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마다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표기해놓고, 아이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점수나 쪽지에 따라 살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상을 선택할 때 동반할 수 있도록 하면 활기가 넘치게 되고 윤리적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작으나마 모두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대했던 효과를 얻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즉 젊은이들을 교리 공부에 의욕을 갖게 하는 효과와 교리 공부가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학문이라고 부모들을 설득하는 효과입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수상의 윤리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상 공식석상에서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전체 앞에서뿐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신자들 앞에서 시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엄한 축제를 준비해야 하고, 넓고 편안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성당이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그리고 되풀이해서 젊은이들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미리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 부모, 선생님들, 사제들, 이웃 분당 사람들과 지역 유력자들까지 초대해야 합니다. 적어도 첫 수상

자들은 눈에 잘 보이는 특별한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쉽고 '아주 간략한' 연설을 준비해야 하고, 적합한 성가와 연주를 곁들여야 하고, 적절하게 주변을 장식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리교육에 협력한 모든 이를 위해서 (지나치지 않게)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제일 열심인 사람들을 '즐거운 여행, 또는 멀리 있는 유명한 성당을 방문하도록' 인솔하는 것이 최상의 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젊은이들을 적절하게 선별하지 못했을 때의 부당성이 문제입니다. 또 여행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주는 상은 몇 시간 동안의 산책이나 하루 종일 걸리는 소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산책은 음악, 노래, 특별 예식을 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유적이거나 가까운 성당을 방문할 수도 있고, 운동회나 영화 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을 주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합니까?” -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비충당 수단을 생각하느라고 열성적인 활동에 관한 우수한 아이디어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작가는, 여기서 부족한 건 바로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돈을 구할 줄 아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고상한 직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제는 성인의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것 일부를 내

놓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다른 많은 회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훌륭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하여, 장사에서 많은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헌금을 하도록 신자들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주는 만큼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그들 자녀들의 명예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일부 본당에서는 성당 안에 '교리를 위한 헌금' 이라고 써 붙인 특별 모금함을 설치해둡니다. 다른 본당에서는 젊은이들 스스로 작은 연극을 공연하고, 복권을 팔며,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정말 돈을 구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시상을 보다 검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성당을 방문하여 영성체를 하고, 같이 식사하며,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정도로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는 간단한 산책이나 소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걸치레로 과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이 그 자체로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대변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극기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과 사람들은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적기라고 보실 때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교리를 잘 연구한 본당일수록 그만큼 시상은 더 많이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표를 주지만, 대개 이러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출석에 대해 2번의 표 한 장, 좋은 행동평가에 대해 3번의 표 한 장, 학습에 대해 2번을, 미사에 기도서를 가져와서 미사 전례 동안 읽는다면 3번을, 고해성사할 때마다 5번의 표 한 장씩을 줍니다. 이 모든 숫자를 최종 집계하여 수상 290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리교육을 잘할 것⁴⁾

교리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잘 ‘가르치는’ 동시에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답변을 배우고 나아가 그들 나이에 처신해야 할 바와 교리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들이 배운 바를 조금씩 익혀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고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신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쁜 동료들과 어울리는 일을 피하는 것 등을 습관 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교리모임을 잘 구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교리 책임자가 본당신부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사제에게 맡기는 관습은 잘못입니다. 본당신부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참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만일 본당신부가 자신의 주요 의무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본당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당신부는 교리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의 영혼, 수장, 참된 조정자는 어디까지나 본당신부입니다. 성직록을 돌보는 일이 그의 주요 직무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요청할 수 있는 복음 선포도 아니요, 소수의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풀이해 말하건대, 그것은 교리입니다. 그 누구도 교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신부는 그가 활동할 장소를 생각해야 하고, 그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가 이끌어야 할 많은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리 조직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1. 시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장 편한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2. 반의 구분과 수. 반의 구분과 그 수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편파적이라고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그의 협력자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3. 각 반이 배워야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또 쉽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명료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어도 네 가지 범주로 질문들을 세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즉 필수적인 수단이나 계명처럼, 젊은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주 반복해서 숙지시켜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알

4) ATP의 본문에서 이 구분은 새로운 단락을 표시하지 않고, 앞 단락에 이어져 있다. 하지만 내용상 구분하는 것이 낫다.

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참회의 성사, 성체 성사를 누구에게 받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해야 할 내용도 있고, 설명해주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 내용 옆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 표시, 하이픈(붙임표), 괄호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교리 학교⁵⁾가 실행되는 형태는, 다섯 또는 네 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 시간표도 있고 시험도 치르는데, 반에 따라서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각 반은 '종교수업'을 모두 해야 하지만, 다루는 범위와 깊이는 당연히 다르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한 다음, 본당신부는 먼저 교리교사들에게,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점수를 얻는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점수가 시상을 하는 데 반영되는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교리교사나 아이들에게 자기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것, 즉 스티커, 소책자, 기록부 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본당신부가 어떤 특별반에 교리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직무는 학생들과 교리교사들을 감독하는 일이고, 반에 공지사항을 제때에 전달하고 특별히 벌을 줄 일이 있으면 그 벌을 부과하는 일입니다. 부모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각 반의 진보를 옆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적표만 주

시할 것이 아니라 반에서 질문도 하고 직접 설명을 요구하기도 해야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본당신부는 교리교사를 감독해야 하지만, '정당한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야말로 그들에게 직무상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책임감을 부과하며, 훌륭한 활동을 전개하고, 좋은 일을 위해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본당신부는 교리교사들에게 큰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거지와 말을 일일이 몰래 탐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며 강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특히 젊은이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독 업무 자체도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게 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하면서 해야 합니다. 교정할 일이 생기면 사적인 자리에서 지적해야 하고, 잘 한 일을 칭찬하고 악습을 버리도록 격려하는 좋은 말을 해주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절

291

5) '진짜 학교 형태의 교리교육'이라는 방식은 무엇보다 문시놀 L. 파바넬리(Pavanelli)와 문시놀 L. 비냐(Vigna)의 활동으로 추진되었다. L. PAVANELLI, 「L' insegnamento del catechismo in forma di vera scuola, secondo il metodo ciclico e il sistema intuitivo」(주기적인 교육방법과 직관적인 시스템에 따른, 진짜 학교 형태의 교리수업), Berruti, Torino 1914 와 L. VIGNA, 「Un parroco di campagna ai suoi catechisti」(어느 시골 본당신부가 교리교사에게), Berruti, Torino 1912 참조. L. NORDERA, 「Il catechismo di Pio X...」(교황 비오 10세의 교리서...), op. cit., pp. 271-275; 443-447 참조.

신랄한 책망과 조잡한 잔소리를 하지 말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와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선부른 관찰로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들에게 감사장을 주거나 감사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책 한 권이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면). 어쩌면 작은 여행이나 순례를 같이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과 아이들 앞에서, 특히 시상식 기회에 그들의 활동에 대해 칭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제 '반에서 교리수업을 할 실천적인 방안을' 살펴봅시다.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젖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적합한 방식으로 젖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리 수업은 준비를 잘 해야 하고, 적어도 교육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준비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이가 교리교육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를 아무것도 아닌 일

로 여깁니다. 어떤 것을 말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채 교리에 임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배우려 들지 않는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양심성찰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는 좋은 결과를 내는 데 거의 확실한 지침입니다.

교육학의 원칙에 관해서는, '교리교수를 위한 실천 가이드' 292 (Guida pratica per l' insegnamento del catechismo)⁶⁾에서 일부를 발췌할 수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대해서': 교리교사는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에 교실에 먼저 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좌석을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좌석을 지정해주어 마음대로 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이들끼리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자리를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모두를 지켜볼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정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수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원인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출입구 가까이에 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리교사는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하지만 또한 상냥해야 합니다.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고,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가면서, 또는 소리 나는 동안 명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

의를 집중하고 침묵 속에 있지 않다면 기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조용히 있지 않으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교리교사가 설명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조용히 시키기 위하여 큰소리를 치지 말아야 합니다. 협박하지 말아야 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업 중에 작은 선물거리를 나누어줌으로써 규율을 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소 비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아이들에게 야단치지 말아야 하고 착한 아이들의 좋은 태도를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침묵으로 그리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이나 악담을 해서도 안 되고, 수업을 고향 치는 것으로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고향을 칠 필요가 있다면, 위엄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심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에는, 말하고 꾸중하는 데 지나치게 힘을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애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책과 처벌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적성을 연구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도록 애쓰며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교만

6) 『Guida pratica all' insegnamento del catechismo』(교리교수를 위한 실천 가이드), Fratello delle Scuole Cristiane (a cura di), Berruti, Torino 1909 참조.

한 아이들에게는 종종 관심을 가지지 않는 체하는 것이 그들을 더 잘 돌보는 것이고, 농담을 좋아하고 무례한 아이들은 못들은 체하고, 이해하지 못한 체하며, 필요할 때 위엄과 단호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수업 도중에’ : 교과서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수업내용을 모르더라도 화내지 말고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교만한 아이들에게 약간의 질문을 하고, 질문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 실수를 유도하더라도 비웃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일반 학생들을 대하듯이 최대한 무관심한 척하며 고쳐주어야 합니다. 수줍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쉬운 질문을 던져 그들을 격려해주고 대답을 잘 하는 것을 치켜세우고 틀린 부분은 고쳐줍니다. 모두에게 질문을 해야 하지만, 특히 산만한 아이들과 가장 뒤쳐진 아이에게 질문하여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스꽝스럽고 모자라게 대답할 것으로 예견되는 아이에게는 즉시 말을 잘라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조잡한 사례나 상황을 결코 들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원칙을 전제로 하는 질문, 예를 들어 “여덟 번째 성사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무지를 결코 비난하지 말아야 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참을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수업하는 동안

너무 긴 사건이나 사례를 들지 않아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를 다루지 말고 성서, 교회의 역사, 아주 유명한 성인들의 생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의 요약과 실천방안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교리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들었거나 읽었던 것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수업을 마친 다음’ 시작할 때처럼 기도를 잘 암송하도록 하
294 고 질서정연하게 나가도록 합니다. 교리수업은 기도와 극기를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생들, 특히 가장 활발하고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을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위대한 전략은 명쾌한 설명을 잘하려면 질문과 세부질문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 스스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대화 형식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설명이 궁금해집니다. 쉬운 설명은 생생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세부 질문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아주 간략하게,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아이들의 능력에 적합해야 하고, 등급별로

분류되어야 하며, 다양해야 하고, 감동적이어야 하며,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와 같은 방법을 최상으로 적용하는 교리서가 출간되었습니다. 각 답변 다음에 이러한 세부 질문이 여러 종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Il Catechista dei fanciulli elaborato a mente dei voti del Congresso Catechistico di Milano』(밀라노 교리교사 대회 서약 정신에 따른 어린이들의 교리교사)⁷⁾ (Libreria del S. Cuore, Torino - L. 3).

몇 가지 교리교재⁸⁾

학문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진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유행을 모두 추종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
296 다고 해서 우리 사제는 결코 스스로 참된 발전의 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젊은이들의 주의를 많이 끌고 그 자체로 아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진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방법’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공기 펌프를 설명하기 위하여 물리학을 도입하는 것처럼 교리를 다루면서 그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교사가 예를 들어, 자기 학생들에게 ‘그림’ 교리서를 구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Il piccolo o il grande

catechismo illustrato」(그림으로 된 작은 또는 큰 교리서)⁹⁾ (L. 0,10 - L. 0,40: Società Buona Stampa, Torino).

종교의 주요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생애, 성사, 종말실재 등을 표현하고 있는 '상본 모음집 또는 엽서 모음집'을 곁에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도 매번 상당량을 수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작은 상본에 그려진 그림보다 훨씬 크게 표현된 '벽에 거는 궤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칠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영사기로 교리수업을 하는 것은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화가 되면 영사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영사기는 오로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교리 전후에 반에서 상영하도록 하십시오. 영사기를 통한 교리는 오히려 드물게 행하고 상처럼 주어진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합

7) 「Il Catechista dei fanciulli」, Guida pratica per l'insegnamento e per la spiegazione del breve catechismo prescritto da S. S. Pio X, compilato a mente dei voti del Congresso Catechistico Nazionale Italiano tenutosi a Milano nel settembre 1910, ('어린이들의 교리교사', 교황 비오 10세 성하에 의해 규정된 짧은 교리서의 가르침과 설명을 위한 실천 가이드, 1910년 9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이탈리아 전국 교리교사 대회 서약 정신에 따라 완성됨), Libreria Sacro Cuore(성심서원), Torino 1911.

8) 여기에서도 ATP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단락 구분을 첨부하였다(*역주. 목차에는 이 소제목이 빠져있다).

니다.

각 그림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무엇을 소개하는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사물과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한 윤리적 적용을 제시합니다.

'교리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리는 다른 많은 학문들처럼 배워야 하는 학문이 아니요, 머릿속에만 주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확장시켜야 하고, 마음으로 내려가 인간의 감정, 염원, 활동, 삶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좋은 품행에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297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이미 그 자체로 탁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 아마도 두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Q. PIANA, 「'Piccolo catechismo」, ad uso delle diocesi di Lombardia e Piemonte conforme al testo autentico prescritto dall'Episcopato lombardo e piemontese. Illustrato con 25 quadri, ('작은 교리서', 롬바르디아와 피에몬테 주교단이 규정한 텍스트에 따른, 롬바르디아 교구와 피에몬테 교구용. 25개 그림), Scuola Tip. Salesiana, San Benigno Canavese 1904, pp. 96; 「'Compendio della Dottrina Cristiana」, ad uso delle diocesi di Lombardia e Piemonte, conforme al testo autentico prescritto dall'Episcopato lombardo e piemontese, Illustrato con 62 quadri da Q. Piana, ('그리스도교 교리 개론', 롬바르디아와 피에몬테 주교단이 규정한 텍스트에 따른, 롬바르디아 교구와 피에몬테 교구용. Q. 피아나의 60개 그림), Scuola Tip. Salesiana, San Benigno Canavese 1904, pp. 304.

‘교리교사는’ 훌륭한 삶, 신심 깊은 사람, 절제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주 총명해서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아주 잘 구별해냅니다. 본당신부는 자신의 협조자들을 선택할 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설명하는 만큼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성당에 좋지 않은 자세로 들어오고, 싸우며, 공부를 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하기까지 한 아이들이라면,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교리에서 공부했던 바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가르치면서’ 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미사 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쁜 친구들과, 신성모독, 부정직을 어떤 혐오감으로 피해야 하는지를 성사 생활을 더 잘 그리고 더 자주 하도록 강조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교리 수업 마지막에 이르면 가르쳐준 원칙적인 사항에 대한 실천을 사건을 통하여, 일화를 통하여, 생기있고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결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실제적인

기억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어린 아이들은 그리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실천방안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가능한 한 수업 후 아이들의 성격과 자질을 살피기 위해 그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냅시다. 주님의 일꾼의 운명은 시편에 표현된 바와 마찬가지로입니다. “Euntes ibant et flebant mittentes semina sua, venientes autem venient cum exultatione portantes manipulos suos.”¹⁰⁾

‘교리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가들과 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¹¹⁾

Mons. BERSANI, 「Catechismo spiegato ai fanciulli per via d' esempi e di similitudini」(예화와 비유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설명한 교리).¹²⁾

GAUME, 「Il catechismo di perseveranza」, con le bellissime aggiunte e note del Dott. Morandi(「인내의 교리」, 모란디 박사의 매우 아름다운 설명과 각주), 8 vol. L. 16.

- 「Compendio del catechismo di perseveranza」(인내의 교리 보완), L. 1,20.

298 GUILLOIS, 「Spiegazione dogmatica, morale, liturgica e canonica del catechismo」(교리의 교의신학, 윤리신학, 전례신학과 교회법적 설명).

BOGGIO, Magister Parvulorum: 「Spiegazione del Catechismo Grande」(성인 교리 설명), L. 2,80.

- 「Piccolo coi Piccoli」: id. pel Catechismo Piccolo」(「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교리」: 어린이 교리 설명), L. 1,25.

DIANDA, 「Il Catechismo di Pio X spiegato al popolo sulle norme del Catechismo Tridentino」(트리엔트 교리 규범에 따라 신자들에게 설명해 준 비오 10세의 교리), 6 vol. L. 18.

Mons. ROSSI, 「Guida del catechista」(교리교사 안내서).¹³⁾

PERARDI, 「Manuale de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교사 매뉴얼).

SCHMITT, 「Il piccolo catechismo spiegato」(알기 쉬운 어린이 교리).

SCHOUPPE, 「Istruzione religiosa per esempi」(예화를 통한 종교 교육).

SEGNERI, 「Fiori d' esempi e paragoni tratti dal Cristiano istruito」(교육 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비유와 예화의 꽃).

SPIRAGO, 「Raccolta di esempi: 2 vol」(예화 모음집: 2권), in -16.

10) 시편 125, 6: “뿌릴 씨를 들고 울며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역주-우리말 성서에서는 126편. 125는 칠십인역과 대중 라틴어 성경의 시편 번호)

11) 저자 색인 참조.

12) 아마도 다음의 작품을 말하는 것 같다. A. BERSANI-DOSSENA, 「Catechismo spiegato al popolo per via d' esempi e di similitudini」(예화와 비유를 통해 대중에게 설명한 교리), Tip. Quirico e Campagni, Lodi 1904; 또는 「La religione spiegata ai giovinetti con esempi」(예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설명한 종교), 4a ediz. riveduta ed aumentata(4판 개정 증보판), Tip. Quirico e Campagni, Lodi 1905.

- 「Catechismo popolare cattolico」(가톨릭 대중 교리서), 3 volumi.

- 「Catechismo della gioventù」(젊은이 교리서).

ZACCARIA, 「Tesoro di racconti」(보화 같은 이야기).

「Giardino del catechista: prontuario d' esempi」(교리교사의 정원: 준비된 예화집).¹⁴⁾

「Il catechista istruito nei doveri del suo ministero」(교육 받은 교리교사가 직무에서 가지는 의무).¹⁵⁾

DELLA-VALLE, 「Metodo da tenersi nell' insegnare」(가르칠 때 사용해야 할 방법).

「Guida pratica nell' insegnamento del catechismo」(교리를 가르칠 때 필요한 실천적 안내서).

「Fede mia e vita mia」(나의 신앙과 나의 삶),¹⁶⁾ vol. 6.

「In alto I cuori!」(마음을 드높이!),¹⁷⁾ vol. 4.

「Gesù e I fanciulli」(예수님과 어린이들),¹⁸⁾ vol. 3.

Cav. Marietti(마리에티 출판사)와 Librerie Cattoliche(가톨릭 서점)에 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영사기 또는 슬라이드 환동기를 구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곳에 문의하기 바람.

1. 토리노의 'Unitas' 회.

2. 브레샤의 '현대 이탈리아 학교' (Scuola italiana moderna) 책임자.

본당 또는 주일 교리 학교

빈 대학의 사목신학자인 몬시뇰 스토보다 교수는 영혼의 사목 상태를 연구할 목적으로 유럽의 모든 주요 도시를 방문하기 위한 경비조로 상당한 금액을 그의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조직된 것과 같은 사목형태를 매우 칭송하였습니다.¹³⁾ 그러나 아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성당에 산재한, 많은 반들로 나누어 시행되는 교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주 넓은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과 교리교사들까지 산만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반들이 필요에 의해 크게 소리치기 때문에 서로를 방해합니다. 선생은 닫힌 방에서 가능한 많은 지도 수단들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혼란을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교리가 다른 교육들보다 홀대받는 것을 보면서 그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고생은 두 배, 세 배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

- 13) G. B. ROSSI, 「Guida al catechista」(교리교사 안내서), Chiantore e Mascarelli, Pinerolo 1897.
 14) 저자는 아마도 다음의 작가인 듯하다. P. LAGHI, 「'Giardino del catechista', ossia prontuario d' esempi per l' esposizione della dottrina cristiana」(「교리교사의 정원」, 즉 그리스도교 사상의 설명을 위한 예화 준비), Desclée e Lefebvre, Roma 1908.
 15) 아마도 다음의 작품을 말하는 듯하다. 「Il catechista istruito nei doveri del suo ministero」(교육 받은 교리교사가 직무에서 가지는 의무), Milano, Majocchi, 1879. 이 작품의 저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시도해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교리와 폐쇄된 지역에서 행해지는 교리교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열성적인 사제들이 취하고 있는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즉 오라토리오와 본당 학교(강좌)의 설립입니다.

모두가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성당 안에서 교리교육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적합한 일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봅시다.

a) 성당 안에 반을 가능한 한 최소 숫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당마다 제의실과 물건을 두기 위해 사용하는 방이나 마리아의 딸들(Figlie di Maria)²⁰⁾을 위한 방, 또는 루이지니²¹⁾ 회원들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리반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본당에는 서클을 위한 회합장소, 농협 금고를 위한 장소, 위원회를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도 성당 안에 반을 숨어내는 데 활 300

- 16) L. VIGNA - L. PAVANELLI, 「Fede mia! Vita mia!」(나의 신앙! 나의 삶!), Corso completo di religione(종교 완전 코스), Berruti, Torino 1913.
 17) A. BENINI - G. REVAGLIA, 「In alto I cuori」(마음을 드높이!), libri di lettura per le scuole catechistiche(교리교사 수업을 위한 독서), vol. 4, Ed. Internazionale, Torino 1913-1914.
 18) C. RINALDI, 「Gesù e I fanciulli」. Letture. Breve catechismo e preparazione alla prima comunione」(「예수님과 어린이들」. 독서. 첫영성체를 위한 간단한 교리와 준비), Cromotip. Bolognese, Bologna 1912.
 19) H. SWOBODA, 「La cura d' anime...」(대도시에서 영혼 사목), op. cit., pp. 137-141 참조.

용할 수 있습니다.

b) 성당 안에서 교리를 가르칠 때에도 어린이들은 어느 정도 바깥에서 놀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방식을 쓰면 아이들을 끌어 모으기 쉽고 많은 아이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도착하는 대로 반에 들어가도록 놓아두고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의 도착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흩어지게 되고 교리에 대한 중요성과 존경심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율은 안녕입니다! 거의 모든 성당은 마당이나 또는 적어도 앞이나 옆에 큰 길이 있습니다. 왜 본당신부는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가끔 자기 공간을 내줄 수 없습니까? 하나의 희생이요 난처한 일이기도 하지만, 꼬마들에 대한 애정,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 하늘을 위한 공덕을 보상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의 성가심을 잘 견디셨습니다.

c) 그뿐 아니라 성당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어린이와 교리교사들은 기도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d) 교리반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수업 중에 머무는 것은 장소가 거룩하므로 규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장'은 경건해야 합니다. 성수를 찍어 성호를 그으면서 한 쪽 무릎을 꿇고 인사해야 하며, 각자 성체 앞에 장쾌하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또는 적어도 몇 가지 열경기도

20) ATP, n. 94, 각주 2 참조.

21) ATP, n. 94, 각주 3 참조.

(화살기도)를 바친 다음,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반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수업 중에는 자세를 바로 해야 하고, 양손으로 교리서를 쥐거나 팔짱을 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역주. 우리 식으로는 팔짱을 끼는 행위는 건방지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집중하는 자세로 봄). 퇴장할 때는 줄을 서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두 사람씩 무릎을 굽히며 인사하고 십자성호를 긋도록 해야 하고 아무도 뛰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지만, 만일 교리교사가 신심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일을 확고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신심은 뼈를 감싸는 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살펴본 사항들을 어떤 값어치로든 고수하며 301 엄격하게 지키는 교리교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은 질서와 집중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리서가 좋지 않다고 불평합니다만, 초등학교 교사들은 3년간 공부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교육학 규칙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머리에 깊이 새겨둡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일 어떤 사제가 공부를 마치고 교육학에 관한 논문 하나를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우수한 저서들 가운데 일부를 인용합니다.²⁰⁾

KRIEG, 「Catechetica」(교리교수법).

BOGGIO, 「Catechismo e pedagogia」(교리와 교육학).

SPIRAGO, 「Metodica speciale dell' insegnamento religioso cattolico」(가톨릭 종교 가르침의 특별한 방법론).

VECCHIA, 「Pedagogia」(교육학).

D' ISSENGARD, 「Breve cenno di catechetica」(교리교수법에 대한 간략한 언급).

N. N., 「Guida pratica all' insegnamento del catechismo」(교리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적인 안내서).

정기간행물인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교사)를 읽는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²³⁾

오라토리오²⁴⁾

이탈리아의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리는 시대의 악에 의해 현재 비참한 모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목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철폐하고 그리스도교의 모든 흔적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를 압박하는 법과 규칙의 잡탕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자유의 마지막 조각들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가

22) 저자 색인 참조.

톨릭 액션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오라토리오를 검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만 살펴봅시다.

어떻게 오라토리오를 형성합니까?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문 302
제입니다. 그러나 돈 보스코와 코틀렌고의 방법을 기억합니다. 성인들은 작은 풀밭에서, 하나의 방에서, 지붕에서, 외양간에서 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다른 일이 또 생길 것입니다. 작은 씨앗은 하늘의 축복을 통하여, 그리고 희생정신을 통하여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보았던 방식'은 최고 휘방꾼입니다. 당장 빌딩, 크고 안락한 정원, 완벽한 인원, 잘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방법은 수천 가지 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비가 들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인들을 멀리하고 오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황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면 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거대한 목표를 가질 수 없습니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돈 보스코가 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오라토리오로 사용될 공간은 많은 일에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

간학교를 낫에는 고해성사 강좌를 여는 장소로 사용하고, 젊은 이들의 회합 장소로 신자들의 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303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단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마땅한 장소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편의를 위해서나, 교회의 정신을 위해서나 본당 옆에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가톨릭 조직이 교회 안의 기본적인 조직 옆에 딸처럼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당입니다.

비록 방이 한 개밖에 없더라도... 작은 방부터 지어야 합니다.

23) G. B. 스카칼라브리니(Scalabrini) 몬시뇰이 창간한 잡지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교사)는 1876년에 『Periodico Religioso per le scuole della Dottrina Cristiana della diocesi di Piacenza』(피아첸차 교구의 그리스도교 가르침 강좌를 위한 종교 잡지)로 시작되었다. 1890년부터 1908년까지 『Periodico del Comitato Permanente del I Congresso Catechistico Nazionale』(제1차 전국 교리교사 대회의 영구 위원회 잡지)가 되었고 1909년부터 1943년까지 교구 교리교사 사무국(Uffici Catechistici Diocesani)이 활용했다.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교사), anno 1, n. 1, 1876년 7월 5일 참조.

24) 신심수련과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축일에 젊은 남성들을 모으는 첫 아이디어는 성 가롤로 보로메오(Carlo Borromeo)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인은 ‘그리스도교 가르침 강좌’(scuole della dottrina cristiana)를 조직하였다. 성 필립보 네리(Filippo Neri)가 재창조적 요소를 가미하여 부활시켰다. 로마의 오라토리오의 모델을 본떠 페데리코 보로메오(Federico Borromeo) 추기경은 밀라노에 9개 오라토리오를 설립하였는데, 1609년부터 그리스도교 가르침 강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추기경이 직접 강의를 하였고 오랫동안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1904년 안드레아 가롤로 페라리(Andrea Carlo Ferrari) 추기경은 새로운 요청에 적합하게 쇄신하였다. 매우 유익한 이 조직을 개혁하고 널리 보급한 이는 성 요한 보스코였다. 성인 이후에 오라토리오는 특히 이탈리아 북부에서 급증하게 되었고, 평일에도 문을 개방한 ‘청소년의 집’(case della gioventù)이 되었다. 『Oratorio festivo』(축일 오라토리오), E.Ec, VII, 1963, pp. 795-796 참조.

처음부터 지붕이나 정원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방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마다 방 한 개씩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면, 본당신부는 은경축 때 5개 그룹을 수용할 수 있는 오라토리오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면,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그것을 알리면서 경비를 삭감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증하려는 신심 깊은 사람도 많 습니다.

비록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돈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필요 이상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조금씩 키우는 게 낫습니다. 게다가 가정자 코톨렌고(Cottolengo, 1934년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됨 - 편집자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종 낸 양배추가 더 크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본당의 성당 옆에 사제관과 오라토리오를 세우는 데, 처음부터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종종 목조 건물로 짓습니다. 전국 학교 사무국은 ‘가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 강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 강좌 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교육의

충만한 자유를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벨기에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 교육에 있어서 벨기에는 이탈리아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50년 이상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투쟁 교회의 군사들이 되어 독일, 벨기에,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누리고 있는 정당한 자유를 학교에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 자유 및 가톨릭 사상이 승리한다면 우리는 이미 학교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라토리오를 조직할 것입니까? 형성 과정일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교리수업을 유지할 정도까지는 오라토리오에 속하고 성당에 속합니다... 그 대신에 형성된 오라토리오에 대해서는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경험’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채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특별한 사례, 공통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라토리오의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살레시오회의 오라토리오와 그리스도교 학교 형제회(Fratelli delle Scuole cristiane)의 오라토리오를 연구해야 하지

만, 나중에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는 특성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라토리오 간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오라토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건전한 오락을 하도록 하고, 교리와 종교를 공부하도록 자극하며, 그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살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수단 305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에서 가르치는 교리, 간단한 공동수업, 미사, 성체강복, 오락과 레크리에이션. 즉 음악, 극장, 도서관, 영화를 활용하고 드문 일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뷔페’도 베풀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은 오라토리오입니다.

‘평균적이고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오라토리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아래 부분에서 살펴봅시다.

‘본당의’ 오라토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라토리오들은 ‘수도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는 수도회에 ‘큰 자유’를 주어야 하지만,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알아야 하고 지도부와 청소년은 될 수 있는 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당신부는 자기 입장에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종종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둘러봐야 하며, 수업시간에 더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나아가 책임 수도자는, 비록

그의 장상들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젊은이들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과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합니다. 자기 수도회의 회헌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서, 본당신부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만 그와 같은 오라토리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자신의 고유한 직무가 모든 사목활동의 영혼이어야 하므로 책임 수도자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자유와 수도회 고유의 규칙을 지킬 자유를 줘야 합니다.

‘본당 간의’(interparochiali) 오라토리오들이 있습니다. 본당마다 하나의 오라토리오가 있는 것이 나올까요? 두 본당, 세 본당, 네 개의 본당 중심에 하나의 오라토리오가 있는 게 나올까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답변은 제 답변이 아니라 ‘토리노 교리교사 대회’(congresso catechistico di Torino) (1911) 답변입니다.²⁵⁾ ‘이론적으로는 본당 오라토리오가 최상이요, 실제적으로는 본당 간 오라토리오가 최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비와 인원을 절약할 수 있고, ‘viribus unitis’(힘의 일치)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이 본당 간 오라토리오가 모든 본당신부에게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한 명의 책임자(수도자

306

이든 또는 세속사제이든 상관 없음)에게 맡겨진다면, 저는 본당 간 오라토리오를 선호하겠습니다. 만일 그 대신에 한 명의 본당신부

가 물질적, 윤리적으로 이끌거나 그 오라토리오를 전담하는 사람이 이끈다면, 저는 본당 오라토리오를 선호하겠습니다. 비록 그와 같이 왕성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viribus unitis’(힘의 일치)를 하도록 호소해야 하지만, 종종 오라토리오 때문에 힘이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때때로 젊은이들이 갈 데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제 ‘세부 조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 말한다면 조직은 대략 본당의 교리강좌 조직과 비슷합니다. 다만 아주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훨씬 나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a) 그들에게 적합한 모든 종류의 놀이를 동원해 항상 바쁘게 지내야 합니다. 오락은 오라토리오를 위하여 ‘sine qua non’(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성 필립보의 한 제자는 그의 스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놀이, 노래, 춤을 통하여 저희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줄 수도 있고,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게임과 달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b)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감시에서 벗어날 때에도 경계해야 합니다.

c) 위험들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신심 정신에 관해서는, 앞서 젊은 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을 사회생활로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만간 가톨릭 액션을 다루면서 살펴 볼 것입니다.

부록

307 1. ‘교리교사와 오라토리오 인원의 양성.’ 이것은 오라토리오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중 하나이고 본당에서 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25) 1911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토리노에서 A. 리켈미(Richelmy) 대주교의 사제 금경 축을 기리면서 개최되었던 ‘축일 오라토리오와 종교 학교에 관한 전국 대회’(Congresso Nazionale sugli Oratori Festivi e sulle Scuole di Religione)를 언급하고 있다. 대주교의 서한, 1911년 4월 28일의 ‘Lettera di indizione’ (소집서한), n. 59 - 1911년 5월 17일, 18일, 19일의 토리노 일간지 ‘Il Momento’에 사건에 관한 소식이 실렸다. 토리노에 관한 기사 부분에서 큰 제목으로 된 관련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축일 오라토리오와 종교 학교의 제 5차 대회(II V Congresso degli Oratori Festivi e delle Scuole di Religione): 교황 성하의 축복’, ‘축일 오라토리오 대회의 장엄한 개막식’, ‘축일 오라토리오 대회의 두 번째 날’. 대회 회의록은 다음의 저서에 수집되어 있다. M. A. ANZINI, ‘Gli oratori festivi e le scuole di religione’(축일 오라토리오와 종교 학교), Eco del V Congresso, Tip. S. A. I. D. Buona Stampa, Torino 1911.

양성되고 본당신부의 지도 아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정신을 더 깊이 새기고 더 많은 애정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본당의 다른 사제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거의 어디에서든 시노드가 부과한 의무가 있습니다. 교황님이 주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제에게도 이 의무보다 더 중대한 의무가 없고 더 엄격한 의무가 없습니다.”(교리에 관한 회칙)²⁶⁾ 사제서품식 때 주교님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하느님 백성에게 약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사제의 본질이 있고,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사도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본당신부는 사제들 중에서 첫 교리교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교역자로서 지닌 가치에 따라 그들을 대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이들을 찾고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오라토리오가 있다면, 그 안에 아주 나이가 많은 이들로 구성된 성인 반을 신설하여 ‘종교 강좌, 완덕의 강좌’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라토리오가 없다면,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을 위한 ‘인내의 교리’를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308 아주 폭넓은 강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전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에서 가장 뛰어난 이들은 우리의 교리교사들입니다.

교리교사들은 ‘가톨릭 연맹’에서 찾을 수 있고 ‘마리아의 딸들’ (Figlie di Maria)²⁶⁾ 회원 중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지역에 훌륭한 사람, 최상의 선생님들, 열성적인 수녀들, 신심 깊은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비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알릴 길이 없다면, 교리에 관해 강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청중의 열성에 뜨겁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기대 이상의 제안이 나옵니다. 그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교리교사로 양성해야 합니다. 양성은 이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종교적 양성과 과학적 양성입니다. 전자는 특히 고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참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삶으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후자는 적합한 서적을 빌려주거나 선물하면서 가르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짧은 강연을 해주면서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미 양성을 받은 자들이라면, 교리교사 조

26) PIO X, 『Acerbo Nimis』, op. cit., p. 274 참조.

27) ATP, n. 94, 각주 2 참조.

직을 설명해주고 일할 때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2. 교리 경시대회. 어떤 본당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항상 교리 지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미숙한 청소년들이 일등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활달해서 민첩하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우수하고 아주 열심히 청소년들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기억력이 부족해 꼴찌 상을 타거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본당신부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인 경연대회가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당에 신자들과 부모들이 모여 젊은이들의 교리지식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경연대회는 유익하지만, 교리 수업의 성적, 출석, 수업태도를 모두 고려해 출중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3. 교리 시험. 시험이 유익합니까? 일부 사람들은 3개월마다 시험을 치르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1년에 한 번 내지 최대한 두 번 보게 합니다. 시험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록 복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최대한 장엄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선생님 또는 초등학교 교사들, 인근 본당 사제들, 여러 교리교사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외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교리시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교리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신자들을 일깨우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다른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비해 아주 하찮게 여긴다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떻게 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열성적인 사제가 제시했던 최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즉 교리 반을 등급별로 나누어 한 반에서 다른 반으로 승격하기 위한 시험을 장엄하게 치르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성당에서 획득한 성적과 승격 상황을 발표하고, 각자에게 승격 증명서를 나누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교리교육 수료 시험은 더 장엄하게 치룹니다. 수료 증명서는 언제나 발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하는 데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정부가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식의 종교서약을 위해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실제로 신랑 신부
310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이러한 일은 실제에 있어서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골의 대다수 본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달성할 수 없다면 절반 정도라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신부가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적게 강조할수록 신자들의 평균 수준을 낮추게 되고, 신자들에게 교육을 적게 할수록 그와 같은 교리 가르침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일반 학교, 상당한 월급을 받는 많은 선생님들, 넓은 장소, 엄격한 시험, 수천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교리를 위해서는...? 모든 인간 학문에 대한 교리의 우월성을 믿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론적으로 그와 같은 우월성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무엇인가 하려는 용기와 열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4. 인내의 교리. 어디에서든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어린이 교리교육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이미 마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더욱 완전하고 더욱 합리적인 교육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성당에서는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가 아주 어렵고, 오라토리오가 설립된 곳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청소년들은 젊은이들 모임, 교양 서클, 장년들 모임으로 종종 이끌리지만, 젊은 여성들은 마리아의 동료(compagnia di Maria)²⁹⁾ 수

너희로 들어가기로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 교리에 나올 것입니다.

5. 합리적인 교리. 성당에서 강론대에서 혹은 제대에서 전 신자에게 행하는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저녁기도 전에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교중 미사 또는 일반 미사 전에 합니다. 아주 유익한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유용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신자 교리교육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규정되었고 다스린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재천명된 것으로²⁸⁾, 일종의 강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 입장에서 강론은 합리적인 교
311 리처럼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천천히 쉽게 말해야 하고, 단순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예화와 비유를 들어야 합니다.

6. 반에게 행하는 교리의 설명. 본당신부나 다른 사제가 참석한 전체 교리반에서 교리를 설명하는 본당이 있습니다. 그러한 본당에서 반을 나누는 것은 연극을 할 때만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어린이들은 오라토리오의 경당이나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효과적이지만, 특히 이러한 형식이 신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때 할 수 있고, 교리교사가 아직 충분하게 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곳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

1. “교리반은 몇 명씩의 청소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divide et impera.”(나누고 다스리라.) 즉 아주 많이 나누면 교리교사는 반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고, 소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말하고 모두에게 질문하면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숫자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의 능력에 따라,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 폐쇄된 방인지 개방된 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5~20명이 적당합니다.

2. “수업시간은 얼마 동안 하면 좋습니까?” 교황님은 “한 시간 동안”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³⁰⁾ 기도, 출석부나 쪽지 교부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은 교구에서 교리를 대립절에도 하기 때문에(그러한 사항은 엄밀히 말해서 교황님이 규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28) ATP, n. 94, 각주 2 참조.

29) PIO X, 「Acerbo Nimis」, op. cit., pp. 268-276 참조.

312 3.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수업 도중에 도장 찍은 출석부와 쪽지를 나누어주는 것은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업 전에 출석부를 거두고 수업 후에 도장 찍은 출석부를 나누어줍니다.” 통상적으로 쪽지는 나갈 때 나누어줍니다.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³¹⁾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본당은 교회법에 의거해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Congregazione della Dottrina cristiana: *역주 ‘그리스도교 사상 수도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Congregazione는 협회를 의미한다고 봄)를 설립하라.”³²⁾ 이 협회는 본당신부에게 교리를 지탱하기 위한 물질적이고 윤리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협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매년 일정액 회비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그 회비는 마리아의 동료(Compagnia: *역주- 여기서는 ‘동료’ 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마리아의 딸들의 동료 수녀회’, ‘마리아의 딸들’ 과 동일한 수녀회를 언급하는 것 같음)와 어린이 교리교육 시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교리교육을 위하여 일할 의무를 지는데, 자신의 자녀들,

31) PIO X, 「Acerbo Nimis」, op. cit., p. 274 참조.

고용자들, 친구들, 친지들, 지인들을 독려하는 방식으로든, 능력이 된다면 교리를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든 교리교육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본당신부는 자신의 본당에 걸맞은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와 같은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13

6장 사제가 보급해야 할 주요 신심과 캠페인

314

중요성. 신심 정신을 드러내주는 여러 형태 중 하나는 다양한 수도회 동료들, 신심 깊은 단체들과 신심 실천 단체들입니다. '덕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제는 완전한 주의집중, 공부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처럼, 일부 신심은 신적 기원을 자랑합니다. 거의 모든 신심은 하느님께 많은 빛을 받았던 성인들에 의해 전해졌고 보급되었습니다.

대다수 신심은 그르침이 없는 스승인 교회의 승인과 추천을 받았습니다.

죄를 피하는 일을 또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

31) E. 갈레티(Galletti) 문서들에 의해 추진된 1873년의 알바 교구 시노드의 회의록에서 알바 교구의 본당에 설립하거나 재건해야 할 'Società della Dottrina Cristiana'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의 일반 규칙이 공포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Appendix Novissima ad Synodum Dioecesanum Albensem...」(알바 교구 시노드에 대한 최신 부록), op. cit., pp. 171-178 참조.

32) 교황 바오로 5세는 1607년 10월 6일의 소칙서 「Ex credito nobis」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사상 대형제회' (Arciconfraternita della Dottrina Cristiana)를 로마에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본당에서, 수도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어린이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담당하였다. 대형제회는 회규와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의 변화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청에 호응해 나갔다. 교황 비오 10세는 1905년 4월 15일의 회칙 「Acerbo Nimis」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사상' 대형제회가 모든 본당에 설립되도록 확정하였다. 본당신부들이 교리 교육을 위하여 세속인 가운데 유능한 협력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C. TESTORE, 「Dottrina Cristiana (Arciconfraternita della)」(그리스도교 사상 <대형제회>), EC, IV, 1950, pp. 1907-1908 참조.

고 그리스도교 완덕에 나아가는 일을 바랄 때, 항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소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심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움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도 덕성이 아주 확고한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깊은 숙고나 부지런히 영적독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zione di Gesù Cristo)³¹⁾와 같은 영적독서 서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특히 신자들은' 어떤 신심과 약간의 외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수단들이 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리스도교 삶을 양성시키도록 기여할 때, 비록 우리 자신에게 크게 유익함을 입증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는 이 수단들을 선호해야 하고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영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가장 높은 곳까지 점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반 규칙. 사목 실습에 있어서 가꾸어나가야 할 주요 신심을 설명하기 전에, 매년 같은 사항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라도 일반적인 원칙 몇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본당신부, 보좌신부, 담당사제 등 신자들에게 파견된 모든 사제는 어떤 시골 본당에 어떤 특정한 신심이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오래된 신심이 약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판하고, 그것을 파괴하며, 변화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침착하게 이익, 악, 결실을 검토한 다음 이를 선택한 이익을 발전시키고 과도한 부분을 근절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면 조금씩 침체되어 가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과 부딪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 목적을 훨씬 일찍 달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폼페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많지만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는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부족한 신심이라고 믿는다면 처음의 신심을 두 번째 신심으로 갑자기 바꿀 것이 아니라 처음의 신심에 온화하게 전념해야 하고, 성모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최상의 경의 표시는 고해성사를 하는 것과 자주 영성체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한 최고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모님의 축일 때마다 강론과 공지 사항을 통하여 장엄한 양형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Vince in bono malum.”²⁾ 격렬한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 얻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1) J. GERSEN, 「De Imitatione...」, op. cit.

2. 신심, 신심 실천, 동료회는 ‘적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호불호도 갈리겠지만 한 사람이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제는 많은 신심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적지만 잘 하는 것’이 항상 성인들과 현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3.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인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a) 무엇보다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묵주기도를 보급해야 한다면, 묵주기도의 우리 성모님을 기념하는 제대, 성상,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b) 어떤 성인에 대한 신심을 다룬다면, 삶이 세부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성인을 선호합니다. 또한 신심, 단체, 회합 등이 어떠한지, 우리는 항상 성인 신심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신앙을 ‘실천할’ 수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점은 신자들이 외형적인 것으로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덕성과 극기정신으로 나아가고, 지상의 재물로부터 이탈하는 데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c) 끝으로 여러 연령층의 필요와 자질에 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심은 젊은이들에게 더 적합하고, 어떤 것은 남자 어른에게, 어떤 것은 젊은 여성에게, 어떤 것은 여자 어른들

2) 로마 12, 21: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에게 더 적합하며, 어떤 것은 노동자에게, 어떤 것은 농부에게, 어떤 것은 학생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층과 316 모든 연령층에 맞는 신심도 많습니다.

모든 이에게 적합한 신심들

1. 미사성제. ‘이 신심은 탁월한 신심입니다.’ 앞서 해당 주제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이 신심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훨씬 쉽게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스승의 계명, 덕, 권고에 대하여 [말하는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 영혼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신심입니다. 신심 실천과 더불어 이 신심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은 매월 첫 금요일의 거행입니다.

3. 성모 마리아. 이 신심을 실천하는 영혼은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리아 신심은 자신을 구원하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³⁾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현에 놀라는 사람은 그와 같은 신심이 아주 뿌리 깊은 악습에서 자신을 고치고 덕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모님으로부터 태어나셨고, “totum nos habere voluit per Mariam.”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는 여전히 어머니이시며 은총의 분배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위하여 천상의 계단이요 천국의 문이신 분께 드리는 신심보다 더 나은 수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신심은 모두가 이해하기 때문에 퍼뜨리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이 신심은 모든 위험에서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자발적인 신심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심을 약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새벽 여명이십니다. 그분께 드리는 신심은 하느님께 대한 회개의 새벽 여명입니다. 오늘날 마리아께 드리는 호칭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루르드의 원죄 없으신 마리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리아께 수도회가 널리 퍼져 있고 아주 소중한 결실을 이미 가져다주었다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4. 수호천사.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고 각자 자신의 수

3) ALFONSO DE LIGUORI (San), 『Opere ascetiche』(수덕 활동), vol. VI, Ed. Macioce e Pisani, Roma 1935, p. 179 참조.

호천사로부터 빛을 받고 보호받으며 인도됩니다.

5. 성 요셉. 하느님께서 요셉 성인을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수 계층 사람들에게 알맞은 신심들

여기에서는 아주 통상적인 것들을 상기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 교구, 지방에는 각기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어떤 곳에서도 특수 계층을 절대적으로 소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신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신심들은 모두에게 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젊은이들에게.’ 아주 적합한 신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루이지, 성 스타니슬라오 코스트카(Stanislao Kostka), 성 요한 베르크만스(Giovanni Berchmans) 등 성인들의 생애는 청년기에 왕성하게 그리고 아주 유익하게 읽힙니다.

5세부터 16세에 이르는 소년 소녀들에게 ‘어린이들의 활발한 묵주기도회’ (Rosario vivente tra i fanciulli)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열성단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소년들과 소녀들을 15명씩 나누고, 각자 매일 정해진 대로 묵주기도 신비 한 단씩을 바칩니다. 마리아 신심에 일찍부터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을 주고 조금씩 어른들 사이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도 묵주기도를 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쉬운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16세가 되면 ‘어른들의 활발한 묵주기도회’로 진급하여 같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매월 가입자들에게 묵주기도의 한 가지 신비를 그린 상본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매력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리노, 성 도미니코 수도회로 문의하십시오.)

2. ‘남자 어른들에게.’ 성 요셉이 적합합니다. 만일 모두가 그분께 기도하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남자 어른에게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 로코(Rocco). 특히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추앙받습니다. 그에 대한 신심은 신성모독의 대죄나 페스트가 창궐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이시도로 농부 등.

3. ‘여성들에게.’ 성녀 안나, 성녀 엘리사벳, 성녀 마르가리타 다 코르토나(Margherita da Cortona).

4. ‘젊은 여성들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녀 아네스, 성녀 안젤라 메리치 등. 잘 훈련된 ‘마리아의 딸들 동료회’ (compagnia delle Figlie di Maria)⁵⁾를 두고 있는 본당신부는 자기 본당의 선을 위하여 이미 많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ATP, n. 230, 각주 21 참조.

그렇지만 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매우 민감하고 아주 고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심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

1. 앞서 언급한 성인들 중 한 명을 수호성인으로 삼는 ‘동료회’(Compagnie)를 설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회’는 외적 조직이면서 신자들에게 주보성인에게 기도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켜주고 사제에게는 주보성인에 대해 말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 아름다운 성상이나 특수 그림으로 꾸민 제대를 갖추는 것처럼, 외적인 면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엄한 예식을 통하여 9일기도와 축일을 거행하고, 강론과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행렬할 때에는 특별 표어와 본당 기를 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들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수록하고 있는 서적들을 판매하고, 집에 걸 수 있는 주보성인의 성화와 상분을 판매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주보성인들을 기리는 순례와 행렬 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신심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성인을 본받도록 하는 것처럼, 신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강론대에서 자주 언급해야 하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교해소에서 언급해야 하고, 기회가 된다면 사

적으로도 언급해야 합니다.

4. 루이지니회(compagnie dei Luigini)⁶⁾, 마리아의 딸들(Figlie di Maria)⁷⁾, 그리스도인 어머니회(Madri cristiani) 등이 설립되어 있다면, 사제는 아마 아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간 강연회’, 매주 특별 기도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라토리오에 참가하는 젊은이들, 보육원에 참가하는 젊은 여성들, 형제회에 참여하는 남자어른들 같은, 참석자들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가가기 쉬운 여러 가지 캠페인

‘어린이 영성체를 위한 통합’(Pia Unione per la Comunione dei fanciulli)⁸⁾ 겨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인 7세가 되는 어린이들에게 영성체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키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갖은 영성체를 바라는 교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은 부모, 교사, 사제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그런 일을 할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Pia Unione)이 설립됐습니다. ‘수위권 직속’(Primaria)은 로마의 성 클라우디오 성당에 설립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회규와 적절한 설명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ATP, n. 94, 각주 2 참조.

321 ‘성 도미니코 제3회’⁹⁾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제3회.’¹⁰⁾ 둘 다 사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 안에 그리스도 정신이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도미니코 회는 ‘진리’(veritas)라는 모토 아래 신앙이 지성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회는 ‘사랑’(charitas)이라는 모토 아래 신앙이 윤리와 마음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주 풍부한 대사를 주고 영적 특은을 베풀어줍니다.

320 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 회는 매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강조하고 잦은 성사생활로 이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줍니다.

성 도미니코 제3회에 관해서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문의해보면 충분히 알려줍니다. 성 프란치스코 제3회에 관해서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면 어느 곳이든지 문의하면 충분히 알려줍니다.

‘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스카폴라.’¹¹⁾ 여기에는 ‘토요’(Sabatino) 특전이 결부되어 모든 이와 특히 병자들에게 큰 위

6) ATP, n. 94, 각주 3 참조.

7) ATP, n. 94, 각주 2 참조.

8) 교황 비오 10세는 1912년 1월 31일자의 소칙서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첫 영성체를 위한 일치’(Pia Unione per la Prima Comunione dei Bambini)의 대형제회(Arciconfraternita)를 설립하였다. 이 조직의 목적은 교령 「Quam singularis」에 대한 지식과 실행을 보급하는 것이었고, 또 그 교령의 규범에 상응하여 적절한 준비와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미사성체에 처음으로 다가서도록 안내하고, 이어서 유년기 동안 자주 천사의 양식으로 양분을 섭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었다. PIO X, 「Erectio Piae Unionis ipso

로를 줄 수 있습니다. 부과된 의무사항이 적은 만큼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Generale dei Carmelitani <가르멜 수도회 총본부>, Collegio S. Alberto <성 알베르토 기숙사>, Via Sforza Pallavicini, Roma에 문의하십시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스카폴라.’¹²⁾ 성 알폰소께서는 스카폴라를 지니고, 6번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는 사람은 335가지 전대사를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 Andrea della Valle, Roma에 있는 테아티니회의 총장신부님에게 문의하십시오.)

‘다른 표식들’(Altri abitini).¹³⁾ 다른 스카폴라와 같은 표식들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이름을 거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 요셉의 스카폴라, 연옥영혼들의 스카폴라, 일곱 고통의 스카폴라, 예수 그리스도 성혈의 스카폴라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도직.’¹⁴⁾ 예수 성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Comunione Prima Puerorum ad S. Claudii de Urbe in primariam unionem, cum facultate aggregandi in universo terrarum orbe], AAS, IV (1912), pp. 49-50 참조.

9) 전통적인 명칭은 ‘Fratelli e Sorelle del Terz’ ordine della Penitenza di San Domenico’(성 도미니코의 고행 제3회 형제 자매회)이다. 1405년에 와서야 교황 인노첸시오 7세의 칙서 「Sedis Apostolicae」(사도좌)를 통하여 1285년 M. De Zamora(데 자모라)가 작성한 규칙서를 확정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규칙서는 도미니코회 회헌에 영감을 받았지만, 결혼한 사람이든 독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다. L. A. REDIGONDA, 「Fratelli...」, op. cit., pp. 923-970 참조.

10) ATP, n. 94, 각주 4 참조.

로 하는 모임(unione)입니다. 그 유용성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말씀의 사도직이 필요하다면, 기도의 사도직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¹⁵⁾ 그리고 그 첫 단계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로마, Via dei Chiavari 6번지에 있는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어른들의 활발한 목주기도회.’¹⁶⁾ 어른들의 기도회는 ‘어린이들의 활발한 목주기도회’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무사항과 이점을 누립니다. (로마, Via dei Chiavari 6번지에 문의하십시오.)

‘지속적인 목주기도.’ 매월 한 번, 매일 선택한 시간에 목주기도 전체를 바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심 깊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피렌체, Convento di S. Maria Novella〈성 마리아 노벨라 수도회〉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1) 가르멜 회의 스카폴라 또는 수도복 은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가르멜 신심의 상징이 되었다. 16세기 말부터 가르멜 회의 성모님을 성화로 표현할 때 그 대부분은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있거나 무릎에 올려놓고 있고 수도회의 스카폴라를 성 시몬 스톡(Simone Stock)에게 주시면서 수도회의 ‘수도복(즉 스카폴라)’이 영원한 구원의 표지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다. 16세기부터 스카폴라와 함께 소위 ‘토요 특전’(privilegio sabatino)과 결부되었다. ‘토요 특전’은 다시 말해 스카폴라를 한 채 신심 깊게 죽은 형제들의 죽음 후 첫 번째 토요일에 성모님께서 그들을 연옥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교황 비오 10세는 1910년 12월 16일의 교령을 통하여 메달-스카폴라의 사용도 허용하였다. V. HOPPENBROUWERS, 『Carmelitani』(가르멜 회원들), DIP, II, 1975, pp. 506-507 참조.

‘결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신은 참으로 풍요로워서 모든 영적 필요에 부응하는 신심 실천, 조직,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 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필요한 것을 찾으면 각자는 바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하늘색 스카폴라’(L' Abitino ceruleo dell' Immacolata)는 ‘연옥영혼들을 위한 서약’(voto in favore delle anime purganti)과 함께 테아티니 성직 수도회(Ordine dei Chierici Regolari Teatini)의 특별 신심이다. 이 연합회는 1894년 로마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Sant' Andrea della Valle - Roma)에서 설립되었고 교황 레오 13세는 1894년 9월 18일자 교령을 통하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형제회(Arciconfraternita dell' Immacolata)로 격상시켰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스카폴라의 대형제회(Arciconfraternita dell' Abitino dell' Immacolata Concezione)라고도 부르는데, 교황 클레멘스 10세는 1671년 1월 30일자의 소칙서를 통하여 스카폴라의 준비와 배분을 테아티니회에 맡겼다. F. ANDREU, 『Chierici Regolari Teatini』(테아티니 성직 수도회), DIP, II, 1975, pp. 978-999 참조.

13) 작은 스카폴라나 수도복은 일부 형제회의 표식이고 봉쇄수도회나 활동수도회에 대한 제3회원들의 소속을 표현해준다. 이미 언급한 내용 외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기시킨다. 1) ‘성 요셉을 기리는 스카폴라’: 아마도 1893년 카푸친 회원들을 위하여 승인된 자색-갈색 스카폴라(수도복)를 말함. P. SIFRIN, 『Scapolare』(스카폴라), EC, XI, 1953, p. 16 참조. 알바 교구의 1873년 시노드는 성 요셉을 기리는 남성 단체를 설립하였고 본당에 이 단체를 추진하도록 본당신부들을 초대하면서 회규에 묘사하였다. 『Appendix Novissima...』(최신 부록), op. cit. 참조. 여기에서 첨부된 자료인 『Sodalizio maschile erigendo ad onore e sotto il titolo di San Giuseppe』(성 요셉 호칭 아래 성인을 기리면서 남성 단체 설립), pp. 199 - 212를 발견할 수 있다. - 2) ‘연옥영혼들을 위한 서약과 연관된 스카폴라.’ 연옥영혼들을 위한 서약의 실천은 ‘사랑의 영웅적 행

7장 가톨릭 액션

‘본질과 중요성’ - 이러한 제목을 보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마을금고, 포도주 저장고, 은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아닙니다. 물론 온건한 것을 택해야 하겠지만 성직자의 판단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을 포함해 ‘가톨릭 액션’이 될 수 있는 활동은 수없이 많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 앞서 언급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 문제’가 화두였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성직자로부터, 교회로부터, 종교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의 활동은 우리 국민을 사회주의로부터 구하였기 때문에 가히 섭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¹⁴⁾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러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주의가 프리메이슨과 결탁하고, 무정부주의와 결탁하며, 교회의 권리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파괴

위’라고 불렀고, 신학자요 저술가인 테아티노회 가스파르 드 올리덴(Gaspar de Oriden) (+1740)에 의해 보급되었다. I. CECCHETTI, 『Atto eroico di carità』(사랑의 영웅적 행위), EC, II, 1954, pp. 358~359 참조. - 3) ‘일곱 고통의 검정색 스카폴라’는 1255년 세르비티(serviti: *역주- 일명 Padri Serviti, 파드리 세르비티, 즉 봉사 신부회라는 성직 수도회를 이룸) 수도회에 윤택되었음. P. SIFRIN, 『Scapolare』(스카폴라), EC, XI, 1953, p. 16 참조. - 4) ‘성혈의 스카폴라’는 복자 가스파레 델 부팔로(Gaspere del Bufalo: *역주- 1786년 1월 6일생-1837년 12월 28일 사망, 1904년 8월 29일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복자품, 1954년 비오 12세에 의해 시성됨)가 설립한 성혈 선교 수도회(Congregazione dei Missionari del Preziosissimo Sangue)와 연결된 대형제회(Arciconfraternita)이다. M. COLAGIOVANNI와 B. CONTI, 『Preziosissimo Sangue』(지극히 고귀한 성혈), DIP, VII, 1983, pp. 812-814 참조.

14) ‘기도의 사도직’은 1844년께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이 연맹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과 보속 영성체를 제안하고, 19세기 예수회에서 발전시킨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를 구축하였다. 이 연맹은 급속도로 세계에 확산되었고 64개국에 사무국을 둘 정도가 되었다. M. FOIS, 『Compagnia di Gesù』(예수회), DIP, II, 1975, pp. 1279-1290 참조.

15) 『Manuale dell’ Apostolato della preghiera』(기도 사도직의 매뉴얼, Segreteria dell’ Apostolato della preghiera, Roma 1896, pp. 12-15 참조.

16) ATP, n. 230, 각주 21 참조.

적 정당들과 결탁했습니다. 요즘에는 윤리, 선거 분야에, 학교 안
323 에, 저널리즘 안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연합세력에 의해 종교
에 대항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갖 가면을 쓴
이러한 세력들은 아주 비열한 이교주의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시대적
요청을 잘 이해하시고 가톨릭 액션을 소집하시어 '가장 영향력
이 큰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한없이 폭넓은' 활동을 펼치도록
하셨습니다. 즉 "사회 안에 그리스도교 문화를 보급하고 촉진시
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제들에게 사제 직무와 시대의 요구를 완
전히 일치시키라고 촉구하셨습니다.²⁾

그렇다면 과연 가톨릭 액션이란 무엇입니까? 교황 비오 10세
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액션이라는 말은 교회의 선, 사회의 선, 특히 개인의
선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는 많은 활동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모든 지역
에서 꽃을 피우고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그만큼 풍성해졌습니
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
였습니다. "경애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출된
가톨릭 신자들의 무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방식을 동원해
반 그리스도 문화에 대항하고 투쟁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활

1) LEONE XIII,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 Litterae Encycliae(회칙), ASS, XXIII
(1891), pp. 641-670 참조.

력을 함께 모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반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나오는 매우 심각한 무질서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절하며,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원시키고, 하느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인간 권위의 원칙을 재확립하고, 백성들의 이
익,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며,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의 고통에 위로의 참되고 유일한 원천이 되는 종교적
원칙이 스며들게 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고 고뇌를 달래
주며, 배려하는 태도를 통하여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도록 연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인 법률이 정의롭게 실현되고 정의
에 반대되는 요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적용해 나가야 합니
다. 끝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권리와 교회의 거룩한 권리 324
를 참된 가톨릭 정신을 통하여 지지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대부
분 가톨릭 평신도에 의해 지지되고 추진되었고, 각 나라의 필요
한 상황과 각 지역의 특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 이러한
복합적인 활동이 보다 특별한 용어와 아주 고상한 표현을 통해
가톨릭 액션 또는 가톨릭 신자들의 활동이라고 불립니다. 시대
에 따라 비록 다양하게 설명되더라도,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가
톨릭 액션은 항상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교회는 그와 같은
도움을 호의적으로 수락하였고 축복하였습니다." (회칙 Il fermo
proposito)³⁾

2) PIO X, 「Il fermo proposito」(확고한 결단), Lett. Enciclica, CC, 1905, IV, pp. 1-19 참조.

가톨릭 액션의 이러한 참된 의미를 알면, 모두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에 기여하는 만큼 다소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제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우리의 열정으로부터 결코 가톨릭 액션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경향에 따라 여러 활동 중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가톨릭 액션을 ‘완전히’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제직과 사명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십니다. “참된 사도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구세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목자가 없는 양떼가 쓰러져 있는 것 같이 억압받는 군중을 향하여 내면에서 자비심이 우러나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서적의 효과적인 보급을 통하여, 말씀의 생생한 권고를 통하여, (상술한 경우에) 집회를 통하여, 정의와 사랑의 범위 안에서, 백성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합니다...”⁴⁾

325

일반적인 원칙

오늘날 액션 단체의 실천적인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려면, 일반적인 원칙 몇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1. ‘가톨릭 액션의 목적.’ 사제는 인간들을 천상으로 이끌 임무를 띠고 하느님으로부터 파견 받았습니다. 사제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하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무익한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의 판명 기준과 목적은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이 목적에 맞게 해야 하고, 모든 노력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며, 항상 이 목적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꾼, 은행원, 정치가, 책략가, 과학 교사에 불과할 뿐 신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황님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십니다. “하느님께서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327 완수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인간들 위로 들어올려진 사제는 모든 인간적인 이익, 모든 분쟁, 모든 사회 계층을 초월하여 늘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사제의 고유한 영역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대사인 그는 진리를 설교하고 하느님의 권리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 모든 피조물의 권리가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활동하면서 사제는 어떠한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느 한편만 드는 편파적인 사람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⁵⁾ 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서

3) PIO X, 「Il fermo proposito」(확고한 결단), op. cit., pp. 4-8 참조.

4) PIO X, 「Il fermo proposito」(확고한 결단), op. cit., pp. 17-18 참조.

클을 만든다면, 젊은이들을 파멸로부터 구하고 그리스도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금고를 만든다면, 사람들을 신부와 결속시키고 육체를 통하여 영혼에 이르기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 관여한다면, 법률 제정이 그리스도교에서 영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모든 회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2. 사제적 열성을 부추기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험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활동과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달리 해야 하고, 거주민들을 파악한 후 그들이 제시하는 종교조건, 윤리조건과 경제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보다 쉽고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처음 착수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조직체의 구
328 성원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활동 그 자체가 좋다고 모든 곳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지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본당에 들어간 사제는 적어도 1년 동안 그곳 분위기를 파악하

기 위해 가만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성숙된 후에도 활동하면서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성찰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Il diario di un parroco di campagna」(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일기)⁵⁾를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본당신부는 600여 명의 신자들을 사목해야 하는 본당에 들어간 다음, 신자들의 종교적 무관심을 이내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그들 안에 신앙을 소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 대화, 조사를 통하여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그들의 필요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네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돈의 부족, 신성모독의 대죄, 위생 결핍, 사고파는 일의 어려움. 그와 같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험난한 작업이 필요했지만,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 신성모독의 대죄를 보속하는 단체, 청소협력 단체, 야간 학교'를 통하여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마을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훨씬 좋아졌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첫 걸음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3. 교황님께서서는 우리의 활동이 '공개적이고 가톨릭적' 이기를 바라셨습니다.⁷⁾ 마치 수치스러워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마치 상

5) PIO X, 「Il fermo proposito」(확고한 결단), op. cit., p. 17 참조.

한 물건이나 밑수품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숨기는 것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조직에서도 종교에 관한 문제에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신봉자를 모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원칙을 따른다면, 회규가 있어야 하고 회원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조직은 종교적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4. 활동을 할 때 “이미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고를 덜 수 있고, 모순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오라토리오나 서클이 있고 본당 안에 있는 이동도서관이 유익하다고 본다면⁶⁾, 소량이지만 선별된 서적을 젊은이들에게 대여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차츰 어른들에게 서적을 빌려주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찰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계속 해나갑니다. 도움이 안 된다면 매번 조금씩 떨어져 나가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이미 루이지니 회(compagnia di Luigini)⁷⁾가 있다면, 특별 강연을 통하여 그 단체로부터 젊은이들의 서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제3회⁸⁾가 있다면 마을금고 설립에 가장 적합한 회원들을 파견할 수

6) 「Il diario di un parroco di campagna」(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일기)는 J. BLANC, 「Appunti di un parroco...」(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수첩), op. cit.와 동일한 작품으로 확인된다.

있습니다.¹⁰⁾

5. “모든 이 그리고 수녀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일들, 가령 오라토리오, 성가학교, 야간학교와 같은 일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활동이 시급하면 그것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절박하게 요청하지 않고, 또 최근의 교황청 법령에 따라 성직자는 그 법령을 따르되 법률로 책임질 일이 생기거나 거룩한 교역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직무는 피해야 하기 때문에 사제는 그 법령들을 교육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유익하다는 확증을 가진 후 교육해야 합니다.

6. 그런 활동을 시작했다면, “사제는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사항, 주변상황, 인근 본당의 사례, 신자들의 요구, 교회 권위기관의 권고와 지침 등이 유익하고 필요한 일을 알려줄 것입니다. 본당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단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행한 일들, 그 일의 방법들을 모조리 단죄하고 나서 실패할 것이 뻔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런 다음 그것을 내버리고 또 새로운 다른 일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소출하기 위하여 참을

7) PIO X, 「Il fermo proposito」(확고한 결단), op. cit., pp. 15-16.

8) ATP, n. 278, 각주 62 참조.

성 있고 꾸준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왔던 발을 아예 못쓰게 만
들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신자들보다 사제들과
젊은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사
329 려 깊고 비중 있는 인물인 토마스 아 켐피스는 말합니다. “무엇
보다 먼저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열성과 더불어 식별력, 공정함과 순수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레오 13세 - 1899)¹²⁾

7. 가톨릭 액션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호하고 보급하는 목표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 중재자로서 교황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
로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교황님은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경제적인 활동
이든 선거 활동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언
제,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교황님은 권

9) ATP, n. 94, 각주 3 참조.

10) ATP, n. 94, 각주 4 참조.

11) ‘마을금고’는 정해진 목적에 있어서나 가치 있는 수단에 있어서나, 띠고 있는 독특한
법률 형태에 있어서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신용금고 단체이다. 이탈리아에
서는 1884년에 첫 마을금고가 로레지(Loreggia)(파도바: Padova)에서 레오 볼렘보르그
(Leone Wollemborg)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그 뒤로 평신도 주도의 성격이 부
족하게 되었다. 마을금고는 1893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그때부터 성직자가 직
공과 농부의 하층계급의 경제와 윤리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이 단체의 설립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활동의 선구자는 베네치아의 L. 체루티(Cerruti) 문
시놀이었다. 1894년에 가톨릭 마을금고는 69개였고 1897년에는 779개에 달하였다.
1900년 - 1914년에는 2000여 개에 이르렀다. G. TOMAGNINI, 『Casse Rurali』(마을금
고), EC, III, 1949, pp. 996-998 참조.

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
과 선거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규정뿐 아니라 권고들도
수용할 만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아주 용기 있
고 유능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라고 하더라도 규율을 갖추지
않은 군대는 전쟁에서 패합니다. 우리의 뜻과 반대된다고 여겨
질 때에도, 우리의 방향지침을 수정하도록 개입할 때에도, 구두
로 결정되었던 사항을 철회하게 되었을 때에도 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신자라도 순명할 의무가 있지만 사제들은 더
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일과 관련해 오늘날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
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의 신앙고백,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로마교
회 문제, 저널리즘의 방향, 회칙 『Il fermo proposito』에 의해 확립
된 바를 따라 준수해야 할 ‘non expedit’ (정치참여 금지령: *역주 AD
53 각주 25에 의하면 ‘Non expedit’ (= non è conveniente: 적합하지 않음) 회칙
은 비오 9세가 반포한 금령으로서,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1874년 10월
13일 이후, 선거권자로운 피선거권자로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였
다. 이 금령은 로마를 정복함으로써(1870년 9월 20일) 이탈리아 정부가 교황령
을 거슬러 행사한 권력남용의 결과에 따라 나왔다. AD 62 각주 36에 의하면
1905년 비오 10세의 회칙 『Il fermo proposito』는 ‘Non expedit’를 폐지함으로써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함) 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¹³⁾

12) LEONE XIII, 『Depuis le jour』, Epistola Encyclica ad Archiepiscopos, Episcopos et Clerum
Galliae, ASS, XXXII (1899-1900), p. 204.

330 '주교님들에게 순명해야 하는 일'은 각 교구의 종교 관련 문제를 통솔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주교님의 명령에 순명할 뿐 아니라 주교님의 단순한 바람에 대해서도 열렬한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존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충고를 요청하고 겸손하게 따르도록 이끕니다.

8. '항상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의 감각을 지닌 이들, 최소한 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깊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지만, 장구한 이유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하는 바를 읽게 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설득으로 다져져서 우리의 것이 될 때, 그들의 동료들이 우리를 위한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실천적인 사항을 제안할 것입니다. 사제는 자신의 모든 학문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새 협력자들을 추가할 때' 천천히 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협력자들이 매번 조금씩 들어와 이미 있던 이들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무리감 한꺼번에 들어와 기존의 사람들을 압도할 것이고 활동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항상 실제적인 그리스도교적 삶을 요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시 중심지에서는 대다수가 부활절을 지내지 않을 정도로 종교가 이미 몰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구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조금씩 그들을 양성해 나갑니다. '너무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본당에서는 성사생활을 충실히 해야 좋은 신자로 인정받지만 어떤 곳에서는 부활절을 잘 지키거나 심각한 스캔들만 없으면 좋은 신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일들을 전제로 설명했으므로, 이제 특수 활동으로 들어가 봅시다. 특별 활동에 관해서는 짧은 암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른 서적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3) PIO X, 「Il fermo proposito」, op. cit., pp. 3-19.

국민연합¹⁾

몇 년간 독일에서 꽃을 피우고 최상으로 결실을 봤던 연맹을 본보기 삼아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이탈리아에 회를 창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회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가장 적합한 사회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하고, 그 활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교 사회 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활동은 보급하기가 쉽습니다. 이 활동은 어떠한 지역 조직을 둘 필요도 없고 반대나 파벌을 조장하지도 않으며, 월간 인쇄물을 통하여 가톨릭 액션 분야에 신자들을 아주 쉽게 과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 교황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교황님은 성직자에 의해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이 활동이 유지되고 보급되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쇄물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설명되는 것

입니다. 월례 특별 모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여성들에게 하는 강연에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 주제, 예를 들면 신성모독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축일 휴식에 관하여 성당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사무국(파도바)이나 또는 교구 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저서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교양인들을 위한 두 가지 저서를 기억합니다. TONIOLO, 「L'Unione popolare」(국민연합)²⁾, L. 0,40. MARCHETTI, 「L'unione popolare e l'ora presente」(국민연합과 현재)³⁾, L. 0,50. 이 책들은 말씀 드린 센터 사무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형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비중 있고 활발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신학강좌는 대학교에서 축출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종교수업이 폐지되었으며, 이제 이상한 법률, 교령, 규

1) 이탈리아 국민연합(Unione Popolare Italiana: *역주- AD 116에서도 나옴. '국민 일치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음)은 더 간략하게 '국민연합' (Unione Popolare)이라고 불리는데 1906년에 설립되었다. 이회는 1906년 6월 11일에 반포된 교황 비오 10세의 회칙 「Il fermo proposito」(확고한 결단)의 지침을 받아들였다. 국민연합의 활동은 회장인 주세페 토니올로(Giuseppe Toniolo)의 지도 아래 피렌체에 센터 사무국을 세움으로써 시작됐다. 국민연합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사회 주간' (Settimane Sociali)을 발생하는 일이었다. 국민연합의 기관지가 「사회 주간」(Settimana Sociale)이라는 주간지였고, 월간지인 「경보」(Allarme)와 나란히 발간되었다. S. TRAMONTIN, 「Unione Popolare」(국민일치 운동), DSMCI, pp. 394-395 참조.

칙, 해설과 분과적인 결정을 통하여 초등학교에서도 내몰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워 이뤄지는 박해이지만, 불합리한 것입니다. 정부 인사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폭정을 행사하는 프리메이슨이 일으키는 조직적인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노예처럼 위축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 가톨릭 세력이 이 분야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곧 ‘국민연합’ 이고, 국민연합은 그 중심에 ‘학교를 위한 총비서국’ (Segretariato generale Pro Schola)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지방마다 ‘학교를 위한 관구 위원회’ (Commissione Provinciale Pro Schola)를 세워야 하고, 이 위원회는 ‘교구 책임자’를 통하여 각 지역 안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부모연맹’을 구성하도록 추진시킬 것입니다. a) 국민연합의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것 b)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의와 관련해 본당신부를 도울 것 c) 나쁜 신문과 서적을 멀리하고 좋은 신문과 서적으로 대체할 것 d) 교육 행정 기관들이 교리 관련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는지 감시하고 월권행위를 고발하는 것 e) 공립학교와 관련된 부모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합법적인 법률 행위와 경영 청구권을 촉진할 것 f) 최대한의 종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 g) 교리와 종교수업을 도와주는 내용을 촉진시킬 것.

그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루도록 결정합니다. 1. 각 도시에서 부모들이 ‘법률에 의해 아직 허용되는 학교 내 교리수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본당학교와 오라토리오를 통한 교리를 최대한으로 배려합니다.’ 3. 종교 수업을 하는 학교를 통해 ‘자유 수업’을 얻기 위한 일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열성 있는 사제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영혼들,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하려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도바(Padova)의 국민연합센터 사무국(Ufficio Centrale dell’Unione popolar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해야 할 서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ZZARA, 『La scuola nella legislazione italiana』(이탈리아 법률에 규정된 학교)⁵⁾, 2 vol.

PIOVANO, 『La libertà d’ insegnamento in Italia nell’ ora presente』(현재 이탈리아 교육의 자유).⁶⁾

4) 국민연합은 공식 기관지인 「사회 주간」(Settimane Sociali)을 통해, 종교교육과 학교의 자유와 이혼, 신성모독에 대항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주제에 관하여 1908년 제노바에서 대회가 개최되었고 뒤이어 ‘학교를 위한 비서국’(Segretariato pro schola)이 설립되었다. S. TRAMONTIN, 『Unione...』, op. cit., p. 394 참조.

2) G. TONIOLO, 『L’Unione popolare fra i cattolici d’Italia, Ragioni, scopi, incitamenti. Adunanza dei delegati in Firenze 24.02.1906』(『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국민연합』, 이유, 목적, 격려. 1906년 2월 24일 피렌체 대표 모임), Tip. San Giuseppe, Firenze 1908.
3) S. MARCHETTI, 『L’ora presente e l’unione popolare fra i cattolici d’Italia』(이탈리아 가톨릭 신자의 국민연합과 현주소), Marietti, Torino 1910.

‘언급했던 센터 사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성 오라토리오⁷⁾

우리는 앞서 오라토리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살펴보
334 있습니다. 이제 오라토리오가 ‘하나의 본당이 사회, 윤리, 종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가장 쉬운 수단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본당신부는 자기 열성을 쏟아 아주 훌륭한
협력자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몇 마디 덧붙이
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보았던 것처럼, 조
금씩 형성해나갈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나 적어도 타당성에 관하여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골 지역에 살고 있습
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겨우 미사와 교리에 갈 시간밖에 없
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많은 집안일을 도와야 하고 목
장에도 가야 합니다...” 오라토리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교리교육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을 나눔으로
써 젊은이들에게, 교리교사들에게, 교육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말 모든 젊은이가 목장에 갑니까?
그리고 그곳에 간다고 해도, 하루 종일 그곳에 있습니까? 또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주일을 어떻

게 보냅니까?… 만일 15세가 되어, 또는 더 어린 나이더라도, 교
리수업에 가기를 중단하고, 신부도 안 만나고, 미사와 강론도 외
336 면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어떻게 하면 ‘가톨릭 대회’ (congresso cattolico)(1911)⁵⁾가 젊은이들에
게 훌륭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도록 가르치고 나중에 사제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라토리오의 젊은이들에게는 구별 없이 모두에게 ‘성가’ 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예식 도중에 노인들 목
소리만 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 중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에게는 ‘완벽한 성가수업’ 을 할 수 있고 본당신부는 주요 예식을
합창단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대로 장엄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335
도시 중심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규모 밴드’ 를 결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활동이 그 자체로 심각한 부당한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연극부서’ 를 만
들 수도 있고, ‘동호회’ 와 적당한 지역에서는 노동자와 학생들을
위한 두 부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본당신
부는 이미 노동자들을 위한 미래의 ‘야간 학교’ 와 학생들을 위한
종교 학교를 출범시킬 끈을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5) N. REZZARA, 「La scuola nella legislazione italiana」(이탈리아 법률에 규정된 학교), Tip. San Alessandro, Bergamo 1910.

6) G. PIOVANO, 「La libertà d' insegnamento in Italia nell' ora volgente」(과도기 이탈리아 교
육의 자유), Tip. Artigianelli, Monza 1909.

7) ATP, n. 302, 각주 24 참조.

나이가 일에서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부 도시에서는 정직하고 유능하며 그리스도교 신자인 주인에게 일을 배운 견습생들의 '고용'을 위한 부서와 우연한 사고를 돕기 위한 부서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어디에서든지 젊은이들을 '노동자 신용 금고, 신탁은행, 저축은행, 가정 금고'⁹⁾ 등 아주 기본적인 보장 단체에 파견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을 아주 우수한 보장 단체와 특히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령과 장애 대책 전국 은행'에 등록하도록 제시할 수 있습니다.¹⁰⁾

또한 젊은이들이 적절한 강연, 대화, 신문을 통하여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국가와 지방,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어른이 된 다음 아무런 충돌과 요구 없이 '선거운 그룹'에 속하게 될 때까지 유권자가 될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든 젊은이들 사이에 '소형 도서관', '성 루이지 동료회'¹¹⁾를 설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도시와 많은 지역에서는 '방과 후 학교'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정말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들과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 '교리교사 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가끔

8) ATP, n. 306, 각주 25 참조.

선생들과 시장에게 도움도 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음악이나 연극을 통해 젊은이들을 돕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쉽게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습니까?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는 사제는 본당 전체를 자신처럼 돌봅니다. 아주 쉽고 감미로운 연대감으로 결속시킬 줄 알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자신처럼 돌봅니다.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넘칩니다. 이러한 것이 선을 행하는 데 아주 적합한 방법입니다.

여성 오라토리오

남성 오라토리오에 대해 말했던 바를 여기서도 되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만 '젊은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독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는 소형 도서관이 아주 쉽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여

9) 알바의 첫 저축은행은 1855년 참사회의 부총장인 리날디(Rinaldi) C. S. 몬시뇰에 의해 설립되었다. 1855년 6월 24일에 그는 본당신부들에게 보내는 회람 지침서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이 은행의 회규를 읽고 설명해주었는지 물었다. "우리가 추천하는 본 단체의 명칭 자체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질서, 경제, 대책의 정신의 발전과 더불어, 그리고 보다 중요한 노동의 정신과 이러한 선의 결과가 초래하는 덕의 실천과 더불어 국민을 절약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p. 10). C. S. RINALDI, 「Circolare al clero e al popolo」(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회람서신), 24 giugno 1855, in Archivio Storico della Diocesi di Alba(알바 교구 역사 문서보관소) 참조.

성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딸들 동료'¹²⁾, 수녀들이나 교사들이 이끌어어나가는 '경제적 문화를 통한 훌륭한 주부 학교', '재봉이나 수예 학교', '젊은 노동자들의 고용 또는 보호 사무국', 노동 산업이 후원하는 '작업장'. 필요한 사항과 상황에 따라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절약의 필요성을 가르칠 수 있고, 사회보장의 전국 신용금고(Cassa nazionale di Previdenza)¹³⁾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병자들을 위한 신용금고와 일종의 국가 보조 형태의 신용금고와 같은 종류 단체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심 깊고 정직한 젊은 여성들을 얻을 수 있고 어머니들도 이내 자녀들에게 진지한 교육을 해줄 능력을 실제로 갖추게 됩니다.

종교 학교

종교 학교는 교황님께서 원하셨고, 교리에 관한 회칙에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셨습니다.¹⁴⁾

10) 노동에 대한 참되고 고유한 후견인의 법률적인 첫 명칭은 18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광산 분야에 관여하였다. 1898년에야 3월 17일의 법령 n. 80이 공포되었고, 이어서 노동 재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무보장에 관해서 9월 25일 n.411의 규정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에 비교적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의 법률 안에 노령과 장애 대책 전국 은행이 임시적이긴 하지만 국가 보조로 설립되었다(헌법 7월 17일, n. 350). 1919년에는 4월 21일 n. 603의 법령에 의해 노령과 장애 보험이 의무화되었다. L. LEVI SANDRI, 「Istituti di legislazione sociale」(사회법 제정), Ed. A. Giuffrè, Milano 1963, pp. 1-9 참조.

11) ATP, n. 94, 각주 3 참조.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들 337에게 종교 학교는 교육의 보완책과 같고 종종 느껴야 하는 오류의 해독제와 같습니다.

종교 학교는 노동자들, 특히 큰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종교 학교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종교 개념만 가지고 있는 남녀 어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방식이 요청됩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들이 설득하면 아마 모여들고, 혹시 놀이와 상품 때문에 모일 수 있고, 어찌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남녀 어른들은 종교적인 원칙 때문에, 그리고 '지성과 교양'을 배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 교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므로 지적이고

12) ATP, n. 94, 각주 2 참조.

13) ATP, n. 336, 각주 9와 10 참조. 사회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사회·정치적 개념들과 회칙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의 원칙에 영감을 받은 모든 가톨릭 운동은 20세기 초 사회문제에 관한 법률이 한층 완전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07년 6월 18일 242조의 헌법은 뒤이어 통합된 1907년 7월 7일 818조의 헌법과 더불어 여성과 어린이들의 노동 보호책을 마련해주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효과가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현이나 법 준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1919년에 이르러서야 농림-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종속된 노동산업부 감독기관이 설립됐다(12월 22일의 법률, n. 1361). L. LEVI SANDRI, 「Istituti di legislazione...」, op. cit., pp. 264-273 참조.

활동적인 지침을 요구하며, 특히 희생정신을 요구합니다.

그와 같은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도덕성을 위한 서클'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야 할 때, '젊은이들의 기숙사를 짓기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한 작은 부서', 필요에 따라서 '연극부서, 스포츠부서, 도서관 부서' 등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주의해야 합니다.

오라토리오와 종교 학교를 위한 아주 실천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책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Gli oratori festivi e le scuole di religione」(축일 오라토리오와 종교 학교) - Eco del V Congresso¹⁴⁾ (Società Buona Stampa, corso Regina Margherita, 176 - Torino).

야간 학교와 겨울 학교

두 가지 이유로 종교 학교와 오라토리오 곁에 이 학교들을 나란히 둘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들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익 때문입니다. 수학 수업이나 언어 수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도덕과 종교의 근본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활동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또 이민, 알코올중독, 바람직한 전원생활에 관하여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반대의 위험이 적

14) PIO X, 「Acerbo Nimis」, op. cit., pp. 264-273 참조.

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과 도시마다 지역적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면서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8

다음의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Manuale del maestro per le scuole serali」(야간 학교를 위한 교사의 매뉴얼), Prof. Losio(로시오 교수)¹⁶⁾ (Brescia, presso il periodico 「Scuola Italiana moderna」(정기간행물 '현대 이탈리아 학교' 별간 부록)).

이동도서관¹⁷⁾

독서에 대한 욕심은 날마다 커지기 때문에 건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서적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뿐 아니라 아주 적절한 때 필요한 말을 들려주는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 많은 서적을 구입하며, 장소를 마련하는 일 등으로 시작하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소량의 서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의 동호회처럼 시작합니다. 매번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주제에 관한 실천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품들은 정말 보화입니다. 「Guida del Bibliotecario」(도

15) M. A. ANZINI, 「Gli oratori festivi...」, op. cit.

서관 사서의 안내서) (Federazione italiana delle biblioteche circolanti cattoliche〈가톨릭 이동도서관 이탈리아 연합회〉 - via Speronari, 3 - Milano).¹⁸⁾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경비로도 소형 도서관을 어디에서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340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서적의 소중한 목록까지 제공해 줍니다. 같은 연합회에서는 월간 회보지도 발간하여 매일 출간되는 서적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공해줍니다. La Società Buona Stampa(선한 출판사) - Torino, corso Regina Margherita 176, 에서는 우리 같은 시골 중심지에 아주 적합한 ‘가톨릭 교양·교육 도서’도 출간하고 있습니다.¹⁹⁾

‘주의사항.’ - 소설들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추깁니다. 따라서 이미 소설을 읽는 습관이 있는 곳에서는 나쁜 서적 대신, 양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설을 읽는 습관이 없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소설책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훌륭한 프로파간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16) G. LOSIO, 『Manuale pel maestro delle scuole popolari, serali e festive』(초등교육, 야간학교, 일요학교 교사를 위한 매뉴얼), La Scuola(학교), Brescia 1908.

17) ATP, n. 278, 각주 62 참조.

중요한 것은 바로 활동입니다. 종교적인 생각, 사회적인 생각, 경제에 관한 생각, 덕에 관한 생각, 건강에 대한 생각 등을 장소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과 사 양면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공적 프로파간다.’ - 1. ‘펜을 통하여.’ 능력에 따라 소책자, 인쇄물, 후보에 글을 기고하고, 신문과 협력해 답변을 씁니다. 한 가지 생각이 훌륭한 일을 일구어낼 수 있고, 한 가지 사건이 신문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이러한 재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2. ‘학교를 통하여.’ 특히 개인 수업, 겨울 학교, 일요 학교, 야간 학교를 통하여 널리 알립니다.

3. ‘말씀을 통하여.’ 강연, 강론, 담화할 기회에 말을 통하여 보급합니다.

‘사적 프로파간다.’ - 공적 프로파간다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삼지만, 사적 프로파간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줍니다. 독일과

18) ATP, n. 278, 각주 62 참조.

19) ATP, n. 278, 각주 61 참조.

341 영국에서는 본당신부와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본당의 ‘모든’ 가정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풍부하게 건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중한 조언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을 뿌리 뽑겠습니까! 그와 같은 방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로를 가져다주겠습니까!

권할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리에 보내도록 설득해야 하고, 어떤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소책자를 줄 수도 있고, 교리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교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으며, 공적이고 일반적인 부탁보다는 사적인 부탁이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재치 있게 다가와 사제에게 윤리적 도움과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본당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춤추는 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장이 학교 내 교리교육을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방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제가 본당을 맡아 부임하면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사제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 그러한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초대하거나, 존경심을 표현하거나, 초대받거

나 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러 곤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가경자 몬도비의 트로나(Trona di Mondovi)께서는 그런 방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셨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전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문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선을 실천하셨습니다.²⁰⁾

토리노에서 가톨릭 액션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서약이 이뤄졌습니다. 즉 사제는 사회 교육의 중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수도회 장상을 찾아가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른 많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이 원칙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된 사례는 ‘동호회에서 교육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동호회에서는 강연, 담화, 학교가 도움이 되지만,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족적인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가족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선생인 체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구실을 붙여 원하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잘못된 경향과 그릇된 원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칙을 던진 다음, 다른 실제적 또는 가상의 경우들을 설명하면서

새롭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의무와 방식에 관하여 젊은이들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합에 사회주의 운영체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효과적인 공동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신문이나 서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낀 점을 표현하게 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평가하는 의원들이 왜 선출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투표권을 매수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동도서관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말해야 하고, 야간학교, 병원을 설립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덧붙일 사항은 사제관에서 점심이나 잡담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 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43 나이가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은가요? 사람들이 특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바라는 바를 표명해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를 뿐이고 그를 돕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342 20) G. GIACCONI, 『Vita del Ven. Servo di Dio Giovanni Battista Trona, prete della Congregazione dell' Oratorio di Mondovì』(몬도비의 오라토리오 수도회의 사제, 가정자 하나님의 종 세례자 요한 트로나의 생애), Tip. Vescovile, Mondovì 1902.

교양 서클

노동자들을 위한 서클, 학생들을 위한 서클, 농부들을 위한 서클이 있습니다. 이들 서클은 각자 직무를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료를 찾을 때 아주 용이합니다.

그중 학교가 가장 잘되고 있고, 특히 이들 서클에서는 가족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톨릭 액션 안에서 협력자 양성

이러한 일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직무상, 능력상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평신도의 말이 종종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대변할 뿐만 아니라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협력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본당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온순하며, 훌륭한 태도를 지녔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끔 그들을 사제관으로 초대하든지, 또는 야간 학교, 서클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든지 해야 하고,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이론을 가르친 다음, 실재를 덧붙여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작은 과

제를 맡깁시다. 예를 들면 서클의 결산, 신용금고의 결산을 권장 하도록 합니다. 축일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 읽도록 해주고, 적합하다고 보이면, 짧은 담화를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거나 적어도 공중 앞에서 설명하는 일을 맡깁시다. 이러한 작은 프로파간다 스타들과 협력자들은 활동에 아주 열성을 보일 것입니다.

액션의 특별 활동

344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좋은 생각들을 '선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고, 부차적으로 액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선적으로 액션의 특징' 을 가지고 있고 다만 부차적으로 프로파간다 특징을 보여주는 활동을 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액션 단체

이 분야는 사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고유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이민': 우리 이탈리아에 매우 큰 물질적 손해를 가져온 상처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윤리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힌 재난이었습니다. 사제는 개인적으로 열정을 쏟아 이러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념을 터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저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Guida dell'emigrante italiano」(이탈리아 이민자 안내서)²¹⁾ (Lecco - Tip. del Resegone, 0,25) 또는 「La chiave della fortuna' ossia 'manuale pratico dell'emigrante italiano in America」('행운의 열쇠' 즉 '미국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의 실천적 매뉴얼')²²⁾ (Tip. Buona Stampa, corso Reg. Marg., 176 - Torino - L. 0,70).

b) '노동자 피정.'²³⁾ 도시의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사흘간 하는 영신수련. 시행한 결과는 아주 많은 위로를 주는 것이었고, 특히 노동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피정의 집에서 할 수 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책자가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Ritiro per gli operai」(노동자들을 위한 피정) (Bergamo - Tip. S. Alessandro, Casa del popolo, 20 -1. 0,10).

c) '군복무에 소집된 사람들을 위하여.' 군복무 기간에 종종 윤리적으로 좌절을 겪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신부는 열성을 다해 돌봐야 합니다. 그들이 차출되기 전날과 방문하기 전날에 미사성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출발 전과 돌아온 다음 성사생활에 임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짧으나마 생생한 주의사항을 곁들인 말을 아버지 같은 애정을 담아 해주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에 서신을 통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통상적인 거주 도

시를 알아낸 후 자신의 본당신자들로 하여금, 만일 존재한다면,
345 '군대 동호회' 로 편지를 보내도록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열정
적인 사제에게 보내도록 신경을 씁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산출할 수 있는 이
동호회들 중 하나를 설립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d) '신성모독과 음담패설.' 이러한 두 가지 악습에 대항하는
연맹들이 있습니다. 이 악습들은 인간의 수치이자 그리스도교
수치로 차츰차츰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맹을 많은 본당에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
다. 국민일치 운동 사무국에 회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

21) 이 작품은 다음의 저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uida dell' emigrante italiano oltri' Alpe」(알프스 산맥 이편 이탈리아인 이민자 안내서), Pongetti, Bologna 1905.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다.

22) 아마도 다음의 저서를 말하는 것 같다. G. CURTI, 「La chiave della fortuna', ossia manuale pratico dell' emigrante e dell' emigrato italiano in America」('행운의 열쇠', 즉 미
국에서 이탈리아 이민과 이민자의 실천적 매뉴얼), Tip. Salesiana, Torino 1908.

23) '노동자 피정 단체'(Opera dei Ritiri Operai)는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족
되었고 이내 벨기에와 스페인으로 퍼져나갔다. 이탈리아에서는 1907년 A. 스트라텔
라(Stradella) 신부가 키에리의 성 루이지 빌라(Villa di San Luigi di Chieri)(Torino)에서 주
관한 영신수련 코스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반대받
았고 수락되었다. 이어서 명예롭게 추앙을 받았고 뒤이은 세월 동안 이탈리아 전 지역
으로 보급되었다. A. GUIDETTI, 「Le missioni popolari, I grandi Gesuiti italiani」(대중적
인 사명, 위대한 이탈리아 예수회원들), Rusconi, Milano 1988, pp. 319-323 참조. 이 단
체의 성격과 목적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Resoconto dei risultati delle
riunioni sull' Opera dei Ritiri Operai in Italia」(이탈리아 노동자 피정 단체에 관한 회합 결
산), Roma 16-17-18 aprile 1912, A.M.D.G. (a cura di), Tip. Artigianelli San Giuseppe,
Roma 1912 참조.

니다. 상기 사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을 보십시오. 프란체스
키니(Franceschini) 교수의 「La bestiamma in Italia」(이탈리아에서의 신성
모독)²⁴⁾ (L. 0,60)를 보십시오. 상기 사무국에서는 「Ma dove siamo?」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아주 아름다운 리플릿
형태의 인쇄물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성모독과 음
담패설을 금하는 글을 실은 엽서나 스티커도 있습니다.

리플릿 형태의 인쇄물은 스티커처럼 아주 저렴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쇄물은 성당 정문에서 가정이나 서클에 보급할 수 있
을 것이고, 접착할 수 있는 스티커는 편지, 소포에 붙이거나 집의
벽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e) '도박과 알코올 중독.' 사제의 주의를 환기시켜 자연적인
동기와 초자연적인 동기에 따른 두 가지 무질서한 행동에 대항
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런 행동에
대항하는 연맹들이 있습니다.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에 대항하는
연맹들을 모델로 삼는 연맹들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이 네 가
지 악습 전부와 싸우기 위해 결성된 단일 연맹도 있습니다.

마시(Masi) 박사의 저서가 가장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Fa
bene l' alcool? Conferenze per tutti」(알코올 섭취가 좋습니까? 모든 이를 위
한 강연)²⁵⁾ (L. 2,25, Cav. Pietro Marietti, Torino).

f) '교황청 전교회와 교황청 어린이전교회.'²⁶⁾ 「Operarii autem
pauci」(소수의 노동자들)²⁷⁾ (밀라노 - Via Monterosa, 71 - 해외 선교회에서 판매

346 L. 1,50)라는 책이나 교황청 전교회와 교황청 어린이전교회의 책
을 읽어보면 수많은 비신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되고 동정
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풍요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은 절대적으로 가난에 처한 사람의 편에 설 의무가 있지 않을
까요? 수단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1. '기도' 사제가 홀로 하거나 신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가 있
습니다.

2.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가능한 한 회사를 하고 모금' 을 합니다.

3. 적어도 매년, 가능한 한 공헌대축일에,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서나, 선교회의 남녀 성소자를 위해서나, 이러한 주제로 강론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신학교에서 매년 선교 단체에 정기적으로
학생을 한 명씩 보내줍니다.

g) '사용한 우표 단체' 노예해방, 교리교사와 자국 사제들의
교육, 그리스도교 신자촌의 설립 등을 목표로 삼습니다. 단체의
총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Grande Seminario di Liegi(리에지 대
신학교) (벨기에), 또는 Via del Quirinale, Roma에 있는 Collegio
Belga(벨기에 기숙사)의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가톨릭 청년회²⁶⁾

24) G. FRANCESCHINI, 「La bestemmia in Italia: pagine di psicopatologia sociale」(이탈리아의
신성모독: 사회 정신병리학 분석), Tip. Sorteni e Vidotti, Venezia 1909.

A) 앞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리스도교 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속 그리스도교 정신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장하여 교리교육을 마쳤더라도 가톨릭 서클이
나 그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
았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적인 조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탈리아 가톨릭 청년회' 의
국내 조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향을 얻
기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활동을 유일한 최종 목표에 맞추기 위
해서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얻고, 규칙과 회규를 알고자
하면, '이탈리아 가톨릭 청년회 총책임자 - 로마' 에 문의하면 됩
니다. 347

청소년 서클

B) 가장 일반적인 지역 단체는 젊은이들을 모든 위험에서 벗
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 그 서클의 이상적인 구성원 수, 성격, 회합의 빈도는 논하지

25) G. MASI, 「Fa bene l' alcool? Conferenze per tutti」(알코올 섭취가 좋습니까? 모든 이를 위
한 강연), Marietti, Torino 1913.

26) ATP, n. 72, 각주 6과 7 참조.

27) P. MANNA, 「Operarii autem pauci: riflessioni sulla vocazione alle missioni estere」(「소수의
노동자들」: 해외 선교회 성소에 관한 숙고), P.I.M.E., Milano 1909.

않겠습니다. 어떤 죄에 빠지지 않게 했다면 사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서클은 장소와 인원에 따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a) 교양
- b) 스포츠
- c) 음악과 노래

어떤 젊은이가 신앙과 정직을 잃지 않으면서, 삶에 대한 비관적인 나이인 15 - 20세 때를 잘 보낸다면, 그는 평생 신앙과 정직성을 잃지 않고 살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국제 가톨릭 연합²⁹⁾

28) 1867년 M. 파니(Fani) 백작과 G. 아콰테르니(Acquederni) 백작은 볼로냐에 '이탈리아 가톨릭 청년회'(Società della Gioventù Cattolica Italiana)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교황의 일시적인 권력의 쇠퇴와 더불어 가톨릭 연합주의를 드높일 시급성과 이 단체에 국가적인 특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리하여 이탈리아 가톨릭 청년회는 1874년 베네치아에서 개최되었고, 이는 이듬해 '이탈리아 가톨릭 위원회'(Opera dei Comitati Cattolici in Italia)와 '대회 단체'(Opera dei Congressi)가 시작되었던 퍼런 체에서 다시 열렸던 이탈리아 가톨릭 대회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Non expedit」(정치참여 금지령)에 의해 형성된 특별한 상황으로 연맹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고 교황청 입장에서 금령을 해제하게 해주었다. 1905년의 회칙 「Il fermo proposito」를 통하여 교황 비오 10세는 가톨릭 운동의 일반적인 재개편을 위한 지침을 내렸고, 그 결과 네 개의 큰 조직을 활성화하였는데 이 단체들은 각각 독립된 것이었다. 즉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 경제-사회 통합(Unione Economico-Sociale), 선거 통합(Unione Elettorale), 이탈리아 가톨릭 청년회(Società della Gioventù Cattolica Italiana)였다. R. MORO, 「Azione Cattolica Italiana」(이탈리아 가톨릭 액션), DSMCI, pp. 180-182 참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통합해 운영하는 단체를 일컫습니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a) 직업 알선 b) 여행자 보호 c) 임시 접대 d) 봉사기간 동안 후원 e) 실천적인 교육과정 f) 상호부조 g) 아동 성범죄 예방활동 h) 명예회복.

현재 주요 도시마다 지역단체, 관구단체, 전국단체, 국제단체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제는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여성들이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사제가 훌륭한 여자 평신도들이나 수녀들에게 연맹의 사무국과 서로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여성들을 도와주라고 요청하거나 중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맹 국제 사무국'(Rue Saint-Pierre, 22 프리부르 - 스위스) 또는 '청소년 보호 이탈리아 전국 위원회'(via della Consolata, 1 - 토리노)에 문의하십시오. 348

선거 활동³⁰⁾

이탈리아에서도 참정권이 확립됨에 따라 여기에 관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으로는 만

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앙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서 이혼을 쉽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수녀들을 축출하며,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학교에서 교리교육을 없앤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처럼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1. 정치 선거에 관해서는 'Non expedit' (정치참여 금지령)가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알고 있고, 교황 비오 10세께서 당신의 회칙 'In firmo proposito'³¹⁾에서 규정한 사항, 즉 '영혼의 선과 교회의 최고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그리고 주교들이 요청했을 때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어떤 사람은 선거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서' 선거인 명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황청 지침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장으로 가서 선거인 명부와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규범으로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도로를 내준다거나 광장을 만들어준다는 공약처럼, '오로지' 물질적인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

당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정당이나 사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있도록 해선 안 됩니다. 사제는 오직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다시 말해 영혼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조건 하나의 정당만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반 지침에 입각해 본당마다 초자연적인 선 349 이 요청할 때만 '규정되고, 조직된 선거운동' 그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방식과 회규를 알려면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 사무국 센터(파도바)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여성³²⁾

교황님께서서는 여성 조직도 구성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조직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여성의 고유한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게 하고, 중

29)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 가톨릭 연합(Associazione Cattolica Internazionale per la Protezione della Gioventù)은 1897년 프리부르(Fribourg)에서 발족하였다.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표단이 '아동 성범죄'에 대항하는 특별 연맹을 만들기 위해 모였고, 폭넓은 청소년 원조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 가톨릭 연합은 1902년 1월 30일에 토리노에서 설립되어 처음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연맹은 많은 이탈리아 도시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R. LANZAVECCHIA, 'L'opera per la protezione della giovane'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in 'Bollettino dell' Archivio per la storia del Movimento Cattolico in Italia' (이탈리아 가톨릭 운동 역사에 대한 문서보관 회지), 20(1985) 참조.

30) 가톨릭 운동으로부터 탄생한 '선거 통합' (Unione Elettorale)은 1919년 1월에 루이지 스투르초(Sturzo) 신부에 의해 설립된 이탈리아 국민당(Partito Popolare Italiano)이 대두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몇 개월이 지난 1919년 11월 12일, 선거 조금 전에,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Non expedit' (정치참여 금지령)가 효력 상실되었음을 천명하였고, 그와 같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정치 활동 분야가 개방되도록 율허하였다. R. MORO, 「Azione Cattolica Italiana...」(이탈리아 가톨릭 액션...), op. cit., pp. 180-183 참조.

립적이고 분파적인 조직으로부터 여성들을 지켜줍니다.

여성 조직은 다섯 개의 거대한 전국 통합 중 하나이고 세 분야를 관장합니다. 즉

‘종교 문화.’

‘사회 문화.’

‘활동 분야.’

본당마다 참가자 수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거나 그룹이 있습니다.

회규와 규정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민일치 운동(Unione Popolare)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동³³⁾

사랑이 필요하고, 특히 사랑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사제는 교황청의 지침을 따라 가톨릭 액션의 경제활동에 관여해야 합니다.

350 육체를 돌보면서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제는 이러한 규범을 숙고한 후에 손을 써야 할 것입니다.

1. 이 분야가 사제 고유 직무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느 정도 온화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영혼에 이익을 줄 수 없다면, 다른 이들을 재정적인 재난이나 낙담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하여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꼭 해야 한다고 여겨서도 안 되며, 개인적으로 그러한 활동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힘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교황청이 사제들에게 사제 고유 직무를 지나치게 파괴시키거나 경제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단체들의 경제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활동도 무수히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열거해 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³⁴⁾

a) ‘신용 대출 금고.’ 상당히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어음 대출 형태로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31) PIO X, 「Il fermo proposito」, op. cit., p. 13 참조.

32) 1900년부터 1904년까지 가톨릭 여성 조직의 기초 준비가 시작되었다. 밀라노에서는 「Azione muliebre」(여성들의 활동)라는 잡지가 창간되었는데, 이 잡지는 당시 여성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어려운 여정을 지지하고자 하였다. 여성 조합을 구축하고 일반교육과 종교교육의 문제에 관한 경험과 감수성을 대조하고, 참되고 고유한 여성운동을 시도했는데 1907년 대회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이후의 미심장한 순간이 되었다. 1908년에는 교황청의 호의를 통해 가톨릭 여성 조직이 가톨릭 운동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하여 다섯 번째 독립 조직이 탄생했다. 그것은 ‘가톨릭 여성 통합’(Unione fra le donne cattoliche)이었다. P. GAIOTTI DE BIASI, 「Movimenti cattolici e questione femminile」(가톨릭 운동과 여성 문제), DSMCI, pp. 102-105 참조; C. NOVELLI DAU, 「Società, Chiesa e associazionismo femminile」(사회, 교회와 여성 연맹), A.V.E., Roma 1988 참조.

b) '소비 협동조합' 식품, 비료, 유황 등을 공동으로 구매합니다.

c) '저축 및 대출 마을 금고' 영세 기업이 고리대금업자들 손에 넘어가는 일을 막고 절약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d) '대중 금고' 젊은 농부들과 노동자들에게 절약정신을 권장합니다.

e) '공동 저장 창고'

f) '과일 수출'

g) '전문직 통합', '농업 통합', '국민 사무국' 등.

h) '보험 회사':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우박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

화재보험,

352 가축 사망보험,

재난보험,

생명보험,

장해 노령보험.

가축 사망과 화재에 관한 보험들은 아주 유익한 지역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보험들도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베로나' (Verona)³⁵⁾

33) 가톨릭 연맹의 기구 여러 조직에서 '경제·사회 통합' (Unione economico-sociale)은 이탈리아 가톨릭 액션의 거대한 '독립 조직들' 중 하나이다. ATP, n. 347, 각주 28 참조.

보험협회가 있고, '레알레' (Reale)³⁶⁾ 보험회사, '아드리아티카' (Adriatica)³⁷⁾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회사 책임부서에 문의하십시오.

351

노동자들의 장해보험과 노령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자 대책 전국 은행'³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제도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관대한 제도입니다. 사제는 이러한 제도를 보급하는 와중에도 거룩한 태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유의사항

1. 이 모든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읽어야 합니다. 「Compiti del clero nell' azione cattolica」(성직자의 가톨릭 액션을 위한 의무)³⁹⁾ (베르가모 - Stabilimento tip. S. Alessandro - 1리라). 「La Settimana sociale」(사회주간)⁴⁰⁾ (파도바 - 연간 구독료 2리라).

2. 어떤 정보에 대해서든지 교구 책임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또

34) ATP, n. 329, 각주 11과 n. 336, 각주 9 참조. 알바 지역 내 농부들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조하라. G. MAGGI, 'Temi politici e sociali nell' azione dei cattolici albesi del primo novocento' (1900년대 초 알바 가톨릭 액션의 정치 사회적 주제들), in 「Alba Pompeia」, Nuova serie, anno IV, 1(1983), pp. 5-18 참조. 더 풍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의 저서를 참조하라. M. RISTORTO, 'L' azione sociale dei cattolici cuneesi nell' ultimo trentennio del secolo XIX' (19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쿠네오 주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 활동), in 「Bollettino dell' Archivio per la storia del Movimento Sociale Cattolico」(가톨릭 사회 운동 역사를 위한 문서보관 회보) in 「Italia」, anno VII, 2(1972), pp. 147-159 참조.

는 국민일치 운동 사무국 센터에 문의하시면 충분합니다.

3.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설립자와 관리자에게 설립하는 방법, 단체의 기능과 효력 등 모든 사항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서적들도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겠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9장 수도 성소

35) ATP, n. 75, 각주 17 참조.

36) 레알레 상호 보험(Reale Mutuo Assicurazione)은 1828년 토리노에서 설립되었다. 사르데냐 왕국의 첫 보험회사였다. 이 보험회사의 첫째 목적은 화재에 대한 보험이었다. 1834년에는 알바에서도 이미 설립되었다.

37) 아드리아티카 보험 또는 아드리아티카 보장 협회(Riunione Adriatica di Sicurtà: RAS)는 1838년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통치 때 설립되었다. 이 보험회사의 첫째 목적은 운송 분야의 보상, 특히 해상무역의 보상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아주 민감한 이 주제를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 대조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류는 결코 성소를 찾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성소에도 호의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류는 하느님께서 호의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까지 성소를 찾고 성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어쩌면 비관주의에 의해, 혹은 소홀함이나 일종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보통 과장된 열성에서 생겨납니다. 중용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도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신중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아버지로서, 믿는 사람에게 성소를 주십니다. 누가 그러한 성소를 가졌는지 분별하고 그 성소를 계발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사제에게 것처럼 위대한 성소를 호의로 베풀지 않았다면 그 어떤 사제가 이러한 의무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아버지들인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이르러 이러한 영

38) ATP, n. 336, 각주 10 참조.

39) N. REZZARA, 『Compti del Clero nell' Azione Cattolica』(성직자의 가톨릭 액션을 위한 의무), Tip. San Alessandro, Bergamo 1907.

40) ATP, n. 332, 각주 1 참조.

354 혼들이 아버지, 목자, 인도자 없는 고아가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양떼, 곧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공덕을 쌓는 일이라면, 목동들, 곧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양성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수도자들은 복음 권고를 따르면서, 완덕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하는 행운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표양은 세상에 가장 깊은 감동을 줍니다. 또한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도움을 줍니다. 또 이들은 “Praedicate omni creaturae.”¹⁾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완수하는 선교사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병원, 양로원, 보육원, 학교에서 수녀들은 축복받은 천사들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종교를 통하여 먼 지역에 문명을 전하고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교사들의 활동은 교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또 수녀들의 활동과 희생정신을 고용된 평신도 교사나 수행원들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처음으로 제대에 오르는 모든 사제, 서원을 하는 모든 수도자, 먼 나라로 떠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선교사는 ‘하나의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즉 활동, 말, 기도를 통하여 자기 후임으로 적어도 두 명의 사제, 수녀,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나친 얘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철저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염원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도자들은 스스로 결점을 가졌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덕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결점이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약한 도구도 활용하십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직자는 많습시다! 그러나 과연 항상 그렇게 많을까요? 만일 이 순간에 많이 있다면, 선교사가 많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8억5천만 인구의 아시아에 6천명의 신부가 확실히 너무 많은 숫자입니까! 반면 이탈리아에만 7만명가량의 신부가 있습니다!

355

실천적인 규범은 어떤 것인가?

1. 수도자 신분과 사제 신분에 관하여, 수녀들과 선교사들에게 가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둔 사람은 적절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의 영명축일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미사, 사제 은경축, 주교 은경축, 교황 은경축, 어떤 신학생의 착복식이나 어떤 수도자의 서원식 등과 같은 기회입니다. 매년 행해지는 장엄 미사 때, 예를 들어 공현대축일(신앙 전교 주일), 착한 목자에 관한 복음이 나

1) 마르 16, 15: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오는 주일, 어떤 거룩한 수도자나 사제의 축일, 루이지니회원들²⁾과 마리아의 딸들³⁾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 수많은 다른 특별한 상황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기회뿐 아니라 사적인 기회에도, 가족을 방문하면서, 어떤 좋은 경향을 보이는 젊은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전교회’ (Propagazione della fede)⁴⁾와 ‘어린이 전교회’ (S. Infanzia)⁵⁾에 관한 서적들, ‘살레시안 회보’ (Bollettino Salesiano)⁶⁾, ‘위로자’ (Consolata)⁷⁾ 등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 사제들, 선교사들, 수도자들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애에 관한 책을 읽는 일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수녀들이 있다면, 그러한 활동을 그들에게 맡기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2. “일해야 합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성소의 참된 표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착한 생활, 자연적인 선물과 충만한 은총의 선물, 경향) 본당신부나 고해신부는 성소의 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제는 그들에게 성소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이 성소에 대한 염원을 표출한다면 훨씬 쉽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민감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적 판단으로’ (in foro interno)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 ‘외적 판단으로’ (in foro externo)도 알아야 합니다.

다. 나아가 삶 전체를 알 수 있다면 훨씬 낫습니다.

또한 성소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심화시켜야 합니다. 356

a) 그러한 신분을 받아들여려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속적인지 관찰해야 합니다. b) 그 열망이 ‘특히’ 초자연적인 동기에 의해 주어졌다면, 징후를 종종 8세 또는 10세의 어린 나이에 볼 수 있습니다. c) 이러한 열망이 확실하다면, 후보자가 바라는 신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수단들이란 늘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고, 쾌락, 동료들, 나쁜 서적들을 피하는 것이며, 신심 깊은 삶을 살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열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2) ATP, n. 94, 각주 3 참조.

3) ATP, n. 94, 각주 2 참조.

4) ATP, n. 72, 각주 6 참조.

5) ATP, n. 72, 각주 7 참조.

6) ‘살레시안 회보’ (Bollettino Salesiano)는 살레시안 협력자회(Pia Società dei Cooperatori Salesiani)의 월간 정기간행물이다. 이탈리아 판은 1877년 8월에 ‘Bibliofilo cattolico o Bollettino salesiano mensile’ (가톨릭 애장서 또는 살레시안 월간 회보)라는 제명으로 시작되었고 제호 3년, n. 5호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숫자와 제목은 이 회보가 이전 정기간행물인 ‘Bibliofilo cattolico’ (가톨릭 애장서)와 연결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는 살레시안 서점의 기관지였다. 월간 광고용 회보였던 것이 1876년 9월부터 살레시오회 협조자인 P. 바랄레(Barale) 신부에 의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887년 1월부터 시작하여 정기간행물의 제목은 ‘살레시안 회보’ (Bollettino Salesiano)가 되었다. P. STELLA, 『Gli scritti a stampa di San Giovanni Bosco』(성 요한 보스코의 출판된 저서들), LAS, Roma 1977, pp. 17-20 참조.

7) 월간 잡지인 ‘위로자’ (La Consolata)는 1904년 거행될 마리아 성당 건립 100주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1899년에 창간되었다. 새 수도회인 ‘위로자의 선교회’ (Missioni della Consolata)(1901)의 선교활동을 위한 기관지로서 계속 발간되었다. 1927년부터 잡지의 제목을 ‘Missioni Consolata’ (위로자 선교)로 변경하였다. V. MERLO PICH, 『Istituto Missioni Cosolata, (위로자 선교회), DIP, V, 1978, p. 139 참조.

3. 이러한 수단 외에도 사제, 특히 본당신부는 실천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질적인 도움’도 줘야 합니다. 설명과 지침을 줘야 하며, 실천할 때 도움을 줄 신심 깊은 후원자를 찾아 연결해 주거나, 가정, 신학교, 수도회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젊은이가 이미 신학교나 수도회에 있더라도 사제가 돌보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 젊은이가 가끔 가족에게 휴가를 간다면, ‘지혜를 사용하되 아주 면밀하게’ 그의 행동방식을 조심하면서 살핀 후 관찰 사항을 ‘충실하게’ 장상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수도자 또는 사제 후보자가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을 항상 지킨다면 교회 안에 흘러야 했던 눈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부모의 눈물이나 두려움에 따라 판단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받도록 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현실 안에서’ 선과 악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에 관한 마지막 판단은 ‘빛을 받은 자유’를 후보자의 장상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5. 휴가 동안 이들 후보자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과 세상의 악 때문에 많은 위험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 특히 본당신부는 그들을 충고와 모범으로 돌봐야 합니다. 전례예절에

열성을 다하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아침 일찍 성당에 오도록, 늦은 시간 또는 저녁에 성체방문과 성체강복, 묵주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젊은이들이나 신학생들을 사제관에 자주 초대해야 합니다. 매일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가벼운 책임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같이 할 수 있고, 환자들을 방문할 때 그들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며, 그들을 사제의 길로 이끕니다.

6.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성소 정신에 따라, 장상들의 방향 지침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젊은이들을 이끈다는 목표를 위하여, ‘본당신부와 교육 장소의 장상들 사이에 일치된 행동지침’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밀접하게 비밀리에 서로 소통하면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서로의 시각, 예견, 인상을 교환하고, 해야 할 일에 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수단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축제를 조직할 것

사제에게 교리 시상식, 접대, 주교님 환대, 성당 축성식, 회합, 축제, 경시대회, 무덤 예절이나 특별 장례식 등을 위해 필요한 것
 358 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을 벌고, 바랐던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59 하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공급해야 합니다." 질서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사항들, 예기치 못한 요청들을 먼저 그리고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식, 축제의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서 그려봐야 하고, 또 이것을 다소 비관적인 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교육하는 것이 좋고, '관할하는 직무를 오직 한 군데' 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 시상식이라면, 무엇보다 성직자, 부모, 어린이들, 교사들, 초대하고자 하는 권위기관에 여유로운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아주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을 아름답게 전시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청소년이 상을 받으면서 별도로 마련된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권위기관의 사람들과 부모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상을 받으러 나가는 사람과 상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통로가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자리는 넉넉해야 하지만, 마음대로 앉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련한 사람이 자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구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수상자 이름을 충분히 들리게 할 목소리 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연설은 아주 짧고, 함축적으로 해야 하고, 감동적인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를 조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을 관찰하기 위한 기회도 포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제자리에 안내해주지 못하면서 입장하게 한다면, 한정된 장소에서 어떤 혼란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긴 연설, '무거운' 내용은 얼마나 지루하게 만들겠습니까?

초대해야 할 사람들을 잊어버리거나 자리를 안내할 때 실수를

범한다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망칠 수도 있는 이 같은 실수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많은 부당한 사항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수단을 충분히 숙고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예상해야 하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60

11장

성전 건립

성전은 성체성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당에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신자들은 교리, 복음, 강화 등 교육을 통하여 양성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립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건축에 대해 몇 가지 실천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1. ‘하느님 백성을 편안하게 수용할 만큼 넓어야 하고 공간의 수가 충분해야 합니다.’ 성당이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강론과 공지사항 중에 전례예식에 자주 참여하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영기고 특히 여름에 상호 방해가 되어 짜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대끼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시골 지역 성당들은 겨우 여인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들과 아이들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

361 씬을 듣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모서리 자리, 제의실, 복도에 불편한 상태로 자리를 잡아야 하므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종 도시의 교외지역 또는 큰 마을에서는 몇 년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놀랄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성당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많은 이유로 인하여, 도청 소재지의 시가지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거주민은 다른 곳으로 집중적으로 옮겨가고 아무도 없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교회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줄 알아야 하고, '일찌감치' 충분한 크기의 성당을 건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외지역이나 큰 마을에서 성당용지로 적합한 토지가 다른 용도 건축물로 채워지고, 하느님의 집은 중심에서 떨어져 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곳에 지을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오랜 숙고를 거친다면, 건물을 어떤 곳에 잡고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사회생활, 상업, 산업, 위생의 새로운 요청에 대비하는 것인지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또는 30년 후 어떤 장소에 건립한 성당이 유익할 것인지 예견한다면, 즉시 좋고 충분히 넓은 지역을 구입하고자 생각할 것입니다. 미리 예상하고 필요한 요건을 준비했다면, 먼저 임시 성당을 세운 다음, 큰 성당 건립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 성당뿐 아니라 사제관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오라토리오도 필요하고, 병설시설로 본당 학교, 가톨릭 액션을 위한 사무실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한 세기가 걸릴 수도 있는 사항들이 연이어 제기될 것입니다. 독일의 많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건물들을 즉시 세워 임대를 합니다. 큰 중심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바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원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의 몇몇 도시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2. “큰 사업일수록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362 하나의 원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은 위대한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위대한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 실천적인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 인내심과 위대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은 성당 건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모여들게 할 줄 알면 모입니다. 신앙심이 약한 지역에서도 그러한 일을 볼 수 있고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은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건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필요한 일일 때,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일할 때, 첫 난관을 꾸준히 극복할 때 그런 사업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한 난관은 그와 같은 활동에 착수하는 사람에게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입

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당에 각자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서는 몇 가지 사항만 열거해보겠습니다.

a) 적합한 토지를 조속히 구입한 다음, 먼저 임시 성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리고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목재로 건축하거나 철관으로도 건축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여러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건립하고자 하는 성당의 설계도를 준비할 책임을 설계기사에게 맡깁니다. 그런 다음 어떤 특정 부분을 짓는다면, 성가대석, 사제석, 어쩌면 미래 성당의 실내 또는 본채 일부분을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신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설계를 조금씩 완성해 나가도록 이끌어갈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제가 처음의 생각을 항상 활기차게 유지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공사 상황을 설명한다면, 신자들은 스스로 기부금을 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363 무엇보다 비록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한 곳에서 큰 성당을 세우기 위한 기금을 요청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쉽게 종교적인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무지가 증가하고 악습에 몰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성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비를 지출하겠습니까? 나아가, ‘긍정주의에 영감을 받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생겨나고 성장하는 사업은 항상 안정적이며 신자들을 다독이며 더 많은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던 어떤 사제는 처음에 첫 성당(성가대석, 사제석, 임시로 벽면에 붙은 제대만 건축)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1만리라만 요청했을 뿐 더 이상 기부금을 요청하지 않아도 365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조금씩 기부금을 내놓아 나머지 경비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비는 거의 10만리라에 육박했고 건축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b) 다음과 같은 전략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비대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장소에서는,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느 구역이 조만간 팔목할 만큼 성장한다면, 조속히 넓은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지는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충분한 이득을 취하거나 미래의 성당을 짓기 위한 기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사제가 ‘직접’ 하는 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종 믿을 만한 평신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의 도시 한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 구당(ogni tavola: *역주- 십진법 사

용 이전에 이탈리아 농가에서 쓰이던 면적 단위로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한 평당) 15리라에 구입한 토지가 60리라, 80리라와 100리라까지 팔렸습니다. 이윤으로 얻은 자금은 성당과 사제관 건축 경비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c) 다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구사합니다. 즉 미래 364 의 성당을 건립하기를 원하는 장소에 성모님이나 어떤 성인에게 봉헌하는 기둥, 또는 나중에 성당 이름을 취하게 될 주님의 신비에 봉헌하는 기둥을 세웁니다. 즉시 작은 경당을 세울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자들 사이에 신심과 경외심을 소개하고 가꾸어나가도록 9일기도, 3일기도, 강론, 미사, 기도,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을 통하여 노력합니다. 그와 같은 신심운동을 전개하고 큰 성당을 짓겠다는 아이디어를 철화하면, 원했던 바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제가 그동안 얻은 은총을 이야기하고 신심의 실천적인 수단들을 설명하기 위해 회보나 월간 또는 격월간 인쇄물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지순례를 활용하고, 기근이나 공적인 재난을 맞이하여 서약하는 기회를 활용합니다.

366 이러한 전략은 물론 긴 시간을 요구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보장해줍니다. 경당이나 교각이 이미 세워져 있고 신심이 전해져 있다면 할 일이 줄어듭니다. 뿌려진 씨앗이 성장하도록 하고 아주 뛰어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 외에 더 할 일은 없습니다.

d)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하고 연간 일정한 액수를 회비로 걷습니다. 신심 깊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지나친 의무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가정을 대상으로 모금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생전 또는 사후에, 자기 재산의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하도록 정합니다. 모금을 주도하고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정직한 여성 또는 남성들로 구성)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와 더불어 여러 가지 동반회들(마리아의 딸들¹⁾, 루이지 회원들²⁾, 규율자들³⁾ 등이 미래의 성당에 원하는 경당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대나 영사시설, 빈민환대 공간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e) 일반적으로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실제로나 (군건한) 희망으로나 확보하지 않고 일에 착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필요한 돈을 '이미 손에 모두' 가지고 있는 채 하는 것도 좋은 규칙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움을 주러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공약을 믿지 않습니다.

3. 이제 성전을 건립할 때 지켜야 할 '실천 방안' 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와 특별 사항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 성전은 하느님께 대한 공경을 실천하기 위

한 장소이며, 영혼의 선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과시, 사치스러운 집, 예술적인 건축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느님 백성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전은 주변의 건물들보다 아름다움에서 월등히 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domus Dei' (하느님의 거처)요, 또한 인간의 거주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그러한 것처럼, 신자들의 이익, 신심, 편의성이 예술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볍고 공허한 예술이 아니라, 성전에 바치는 참으로 거룩한 예술이어야 합니다.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골 중심지역 성전과 도시 중심지역 성전은 달라야 합니다. 시골 성전은 하느님 백성이 감동하고 경외심으로 북받칠 수 있게 청결하고 단순하며 신심 깊고 잘 꾸며진 성당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도시 성전은 웅장한 성당, 분명한 건축 양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 예술가의 정신, 교양 있는 자의 정신, 부자의 정신에도 잘 어울리는 그림과 장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1) ATP, n. 94, 각주 2 참조.

2) ATP, n. 94, 각주 3 참조.

3) 편테자들(Flagellanti) 또는 규율자들(Disciplinati)의 큰 운동은 1260년 파리에에서 일어났고 이탈리아 전역으로 보급되었으며, 수많은 형제회의 기원이 되었다. 이 형제회들은 편테를 실천함으로써 은총을 얻었다. P. PASCHINI, 「Confraternita」(형제회), EC, IV, 1950, pp. 257-260 참조.

여기서 한 본당신부의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성당의 건립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 특히 어떤 본당의 성전 건립을 현장소장에게 일임하거나 아무 건축기사에게 맡기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때때로 절약하고자 하는 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문기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특히 이미 다른 작업을 성공적으로 잘 해낸 기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는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작업을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원하지 않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도면이 제시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한 내용을 거침없이 말해야 합니다. 설계기사의 손에 무조건 맡겨버리는 일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종종 건축물이 지나치게 크게 지어지거나 또는 너무 비싸게 되거나 또는 실속 없게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제는 미리 자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성당에 구현하고 싶은 부분과 질적인 면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넓이, 본체의 수와 크기, 경당의 수와 넓이, 강론대와 고해소의 위치, 세례대의 위치, 남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지정석 등을 설계 기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론대가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자리 잡게 되고, 고해소가 너무 감추어진 곳이나

기다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며, 어린이들과 신자들의 자리가 서로 혼동되는 성당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사보다는 사제가 훨씬 많이 배려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367 특별한 사항들. 여기에서는 성당이 지녀야 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당이 가능한 한 예술적이어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질적인 측면을 덧붙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성당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성당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자면, 성당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a) 넓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자를 편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합니다. 장엄전례나 평일전례에 출석하는 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여성들에게만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들, 남성들에게 지정석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본당이 주교좌성당만큼 넓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공간이 부족한 것은 여러 부분의 건축(벽 쪽에 붙은 경당, 성가대석, 사제석, 강론대)과 합리적으로 위치를 정하는 기준을 무시했거나 미

래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b) 성당은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크고 많은 창을 갖추도록 배려해야 하고, 강한 지붕으로 덮어야 하며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지붕에 균열이 생겨 그림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나 타르를 층층이 여러 번 칠해야 합니다. 모든 벽면과 바닥을 물로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c) 목적에 맞도록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론자가 눈빛으로 모든 청중을 압도할 수 있고 청중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강론대가 있어야 합니다. 고해소는 신자들이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고, 남녀 신자별로 알맞은 수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너무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고해신부와 고백자들이 편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당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직하고 낮은 의자를 비치할 때에는 겨우 400명만 앉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은 훨씬 적당한 크기의 의자를 비치하여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석을 좁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바깥의 많은 성당들은 성가대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사제석 안에 앉도록 하거나, 오케스트라 곁이나 벽면 경당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사제가 성가대에 의해 방해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밖에 많은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모퉁이,

숨겨진 곳, 작은 방 같은 공간들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늘 혐오감을 줄 것입니다.

368 d) 성당이 항상 아침과 저녁 시간에도 밝은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다는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대의 문명이기는 이러한 세 가지 편의성을 비교적 적은 경비로도 제공해줍니다.

e) 예술성과 가치가 결여된 카펫, 장식품, 그림, 조각, 제의 등을 구입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찌면 상당히 아름다울 성당의 건축 양식과 때로는 예술적인 그림들과 값진 성물을 뒤덮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적은 양이지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을 유념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결국 더 적게 씁니다.”

성당 청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당의 모습을 보면 본당신부나 성당담임이 어떤 신앙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록 소박하지만 청결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성당

은 사람들을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애정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큰 성당일지라도 무질서하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방문하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목 측면에서도 성당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앞서 말한 제의실 지기에 대한 사항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직책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책에 걸맞게 인내심을 갖고 그를 훈련시키고, 항상 충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사제 자신이 아주 민감한 일을 평화롭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한다고 꿀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왕이신 분께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당의 ‘외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성당 인접지역과 외벽이 오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고, 지붕과 벽면의 균열부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창문 차양과 유리가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당의 ‘내관’을 살펴야 합니다. 바닥은 쓸고 닦은 상태여야 하고, 의자는 청결을 유지하고 줄을 맞추어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벽과 기둥, 벽면 상단 테두리 마감재, 등근 천장, 제대, 그림, 조각상 등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주

먼지를 털어내야 하고, 제대포, 성체포, 장백의 등은 자주 바꿔주어야 하며, 제의, 미사경본, 저녁기도서 등이 망가졌을 때에는 즉시 수선해야 하고, 성반과 성합, 성작과 같은 성구들은 사제가 아
371 무리 많이 보살피더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의, 세탁물, 책들과 성구들을 오랫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큰 옷장들을 마련해야 하고 이들을 안전한 장소에 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구마다 지정된 자리에 보관하고 잘 정돈되어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피야 합니다.

그러나 잘 유지된 성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닳습니다. 그럴 때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탐욕과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사항을 신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 줄 선한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로또, 복권, 모금, 영화상영 등을 모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술의 벗들’ 협회⁴⁾

앞서 성전 건립과 성당 청소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에 부록처 370 럼 덧붙여야 할 말은 이 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회의 프로그램 일부를 옮겨 봅니다.

“이 협회는 성음악을 전례적 형태로 이끈 바로 그 정신을 예술 분야에 붙여넣고자 합니다. 본 협회는 모든 예술인과 예술의 벗들을 위한 센터를 형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현할 것입니다. a) 그리스도교 예술의 문화, 사랑, 발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b) 고대 종교예술의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c) 교회를 공격해온 대중 산업주의(석고상, 종이 꽃, 착색 석판화, 형편없는 직물)에 대항하는 운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d) 신자들의 기부금을 전례의 고상함과 거룩함에 부응하는 예술 형태에 투자하면서 사랑스럽고 빛나는 후원(mecenatismo: *역주- 또는 메세나티즘. 르네상스 시대에 경제권을 장악한 메르치가의 예술과 학문의 후원자를 가리키는 메체나스는 에트루리아의 명문대가 출신인 로마 귀족 Gaius Cilnio Mecenate(기원전 68-기원후 8)의 이름에서 유래했고, 메체나티즘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학문의 후원행위를 가리킴)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 ‘Arte cristiana’(그리스도교 예술)라는 제목에서 빛을 받은 월간 잡지를 창간할 것이고 ‘Casa dell’ Arte Cristiana’(그리스도교 예술의 집)를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회, 대회, 여행, 단기 전시회 및 영구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협회는 추기경들, 주교들, 아주 저명한 예술가들과 광고인들 사이에 아주 지대한 지지와 환대를 정당하게 받고 있으며 참으로 모든 성직자로부터 후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
LAUS DEO

(하느님께 찬미)
·

4) '그리스도교 예술의 벗들' 협회(Società Amici dello' Arte Cristiana)는 "성직자와 예술가들 사이에 고대 친교를 재확립시키고 전례법의 고상함과 거룩함에 일치되는 예술 형태를 촉진시키자"는 목적으로 F. 크리스폴티(Crispolti)의 기획으로 밀라노에서 설립되었다. 이 협회의 보급용 기관지는 「Arte Cristiana」(그리스도교 예술)이라는 월간지로서, C. 코스탄티니(Costantini) 문시놀이 1913년 밀라노에서 창간했다. 「Liturgia」(전례), E.Ec., V, 1953, p. 830 참조.

색인

여기서 사용되는 숫자는 텍스트의 가장자리에 매겨진 숫자를
반향한다. 숫자 앞에 'n' 을 대동한 경우는 각주를 언급한다.

일러두기

성서 인용 색인

2열왕	20,1 : 271	마르	14,29 : 156 12,44 : 224 16,15 : 619
시편	125,6 : 528	루카	8,11 : 445 9,60 : 252 12,31 : 196 12,32 : 215 19,10 : 216
지혜	9,4 : 360	요한	10,10 : 56, 207 14,2 : 207 15,16 : 80, 495 20,21 : 56, 207
집회	33,28 : 162	사도	4,32 : 153
마태	4,19 : 80 9,12 : 279 10,16 : 231 16,18 : 139 18,15 : 248 19,29 : 81 25,40 : 261 26,35 : 156 26,40 : 157 26,41 : 157 26,58 : 158 28,19 : 443	로마	1,14 : 292 10,17 : 444 12,15 : 276

	12,21 : 559	2티모	4,2 : 444
1코린	4,15 : 80, 275		
	7,9 : 367	1베드	4,9 : 244
	9,16 : 81		5,2-4 : 23
			5,3 : 23
2코린	4,5 : 448		5,1-5 : 56
1티모	5,17 : 81, 506		

교회 문헌 색인

「Appendix Novissima ad Synodum Dioecesanam Albensem」(알바 교구 시노드에 대한 최신 목록), edita in solemni pro-synodali conventu, die V septembris 1873, Typ. Dioecesana Sansoldi, Albae Pompeiae 1873 : 144, 556

ENCHIRIDION INDULGENTIARUM(대사 편람), Typis Polyglottis Vaticanis, Ed. altera : 388

EX S. CONGREGATIONE CONCILII, 「Sacra Tridentina Synodus」(트리엔트 시노드), XX decembris 1905, ASS, XXXVIII (1905) : 379

EX S. CONGREGATIONE INDULGENTIARUM ET SS. RELIQUIARUM, 「Indulgentiae tribuuntur recitantibus quamdam orationem pro propagatione pii usus communionis quotidianae」(매일

영성체의 경건한 습관의 보급을 위한 기도문을 암송할 때 대사를 부여함), ASS, XXXVII (1905) : 380

EX S. CONGREGATIONE INDULGENTIARUM, 「De quotidie SS.mae Eucharistiae」(매일 드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에 대하여), Decretum, ASS, XL (1907) : 392

EX SEGRETARIA BREVIUM, 「As sociatio "Sacerdotalis Eucharistici Foederis"」(성체성사 사제연맹), 27 Julii - 10 Augusti 1906, ASS, XXXX (XL) (1906) : 391

LEONE XIII, 「Depuis le jour」, Epistola Encyclica ad Archiepiscopos, Episcopos et Clerum Galliae, ASS, XXXII (1899-1900) : 581

- 「Rerum Novarum」(새로운 사

태), Litterae Encyclicae, ASS, XXIII (1891) : 572, 593

PIO X, 「Acerbo Nimis」, ASS, XXXVII (1905) e CC, 1905, II : 463, 508

- 「Ad Andream card. Ferrari, archiepiscopum mediolanensem et episcopos provinciae ecclesiasticae mediolanensis pro annuis episcopalibus conferentiis Rhaidi congregatos」(라우디 주교회의 승인을 위하여, 북이탈리아 대주교, 안드레아 페라리 추기경에게, 그리고 북이탈리아 관구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 1 Julii MCMXI, AAS, III (1911) : 191

- 「Erectio Piae Unionis pro Communione Prima Puerorum ad S. Claudii de Urbe in primariam unionem, cum facultate aggregandi in universo terrarum orbe」, AAS, IV (1912) : 566, 567

- 「Haerent animo」, exortatio ad clericum catholicum, ASS, XLI (1908) : 53, 80, 120

- 「Il Fermo proposito」(확고한 결심), Lettera Enc., CC, 1905, III : 54, 61, 573-575, 577, 579, 582-583, 585, 608, 611, 613

- 「Inter plurimas pastoralis officii sollicitudines」(*역주- 이탈리아어 'Tra Le Sollicitudini' : 성음악에 관하여), 자 의 교 서, ASS, XXXVI(1903) : 435

S. CONGREGATIO CONSISTORIALIS(추기경성), 「De vetitatis clericis temporali administratione」(성직자 재산관리 금지에 대하여), 18 novembre 1910, CC, 1910, IV : 194

- 「De munere consilarii munitiorum vel provinciarum a sacerdotibus per Italiam suscipiendo」(이탈리아 사제들에게 허용되는 자치도시 혹은 관구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Decretum(교령), AAS, VI (1914) : 194

S. CONGREGATIO DE SACRAMENTIS, 「Quam singularis」, Decretum(교령), AAS, II (1910) :

386, 566

SACROSANCTUM CONCILIUM TRIDENTINUM(트리엔트 공의회), sessio XXIII(23차 회기), 「Decretum de Reformatione」(교회개혁에 관한 헌장), caput 1 : J. D. MANSI (a cura di), 「Sacroru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공의회 문헌 수록집), vol. XXXIII, Akademische Druck, Graz 1961 : 212

- sessio XXIV, 「Decretum de Reformatione」(개혁에 관한 교령), caput 1(제 1장) : 252

「Synodus Dioecesis Albensis」(알바 교구 시노드), habita anno 1841, VI, V et IV idus septembris, Typ. Chiantore et Sansoldi, Albae Pomeiae 1841 : 145

정기간행물과 잡지 색인

- | | | | | | | | | | | |
|--|--|---|--|---|--|---|--|--|---|-----------------------------------|
| 「Acta Apostolicae Sedis」(사도좌 관보) : 137, 170 | 「Acta Sanctae Sedis」(성좌 관보) : 170 | 「Allame (L')」(경중) : 488, 585 | 「Alba Pompeia」 : 61, 615 | 「Amico d' Italia」 : 191 | 「Angelo della Famiglia (L')」(가정의 천사) : bollettino di San Leonardo: 503 | 「Angelo della Famiglia (L') e la voce di Sant' Andrea」(가정의 천사와 성 안드레아의 목소리) : 499 | 「Annali dei Sacerdoti Adoratori」(성체흡송 사제회의 연보) : 132-133 | 「Avvisatore Ecclesiastico (L')」 : 171 | 「Azione Muliebre」(여성들의 활동) : 613 | 「Bollettino dell' Archivio per la |
| 「Osservatore Romano (L')」 : 137 | 「Papa (II)」(교황) : 138 | 「Regne de Jésus par Marie」(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통치) : 127 | 「Revue des Pre?tres de Marie | 「Reine des Coeurs (La)」(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사제들) : 127 | 「Sementa (La)」(씨뿌리기) : 502-503 | 「Seminario (II)」(신학교) : 192 | 「Settimana Sociale (La)」(사회 주간) : 488, 585, 617 | 「Società Buona Stampa (La)」(선한 출판회) : 102-104, 402, 423, 474, 505, 529, 595, 597 | | |
| 「storia del Movimento Sociale Cattolico in Italia」(이탈리아 가톨릭 운동 역사에 대한 문서보관 회지) : 610 | 「Bollettino Salesiano (II)」(살레시안 회보) : 621 | 「Catechista Cattolico (II)」(가톨릭 교리) : 55, 507, 539, 540 | 「Civiltà Cattolica (La)」(치빌타 카톨리카: 가톨릭 문화) : 17-18, 167, 170 | 「Conoscere don Alberione」(알베리오네 신부를 알기) : 13, 50, 132 | 「Consolata (La)」(위로자) : 621 | 「Gazzetta d' Alba」 : 385-386 | 「Madre e Regina (La)」(어머니요 여왕이신 분) : 127 | 「Momento (II)」 : 546 | 「Monitore Ecclesiastico (II)」 : 137, 167, 476 | |

참고도서 색인

(편집자에 의해 인용됨)

- ALBERIONE G., 「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사제의 열성에 참여하는 여성), Scuola Tip. (1954) : 570
- “Piccolo Operaio”, Alba 1915. - Nuova edizione,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1 : 44, 53-54, 498
- 「La mia messa」(나의 미사), in 「Le preghiere della Famiglia Paolina」(바오로 가족 기도서), EP, Roma 1965 : 111
- ANDREU F., 「Chierici Regolari Teatini」(테아티니 성직 수도회), DIP, II (1975) : 569
- BUGNINI A., 「Figlie di Maria」(마리아의 딸들), EC, V (1954) : 227
- CATTANEO L., 「L'adorazione eucaristica」(성체흡송), in PIOLANTI A. (a cura di), 「Eucaristia」(성체성사), Desclée, Roma 1957: 418
- CECCHETTI I., 「Atto eroico di carità」(사랑의 영웅적 행위), EC, II (1954) : 570
- CERIA E., 「Annali Società Salesiana. Dalle origini alla morte di San Giovanni Bosco (1841-1888)」(살레시오회 연보. 초창기부터 성 요한 보스코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841-1888>), SEI, Torino 1941 : 450
- CIPROTTI P., 「Acta Apostolicae Sedis」, EC, I (1949) : 170,
- COLAGIOVANNI M.와 CONTI B., 「Preziosissimo Sangue」(가장 고귀한 성혈), DIP, VII (1983) : 570
- CRESI D., 「San Francesco e i suoi Ordini」(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 성직 수도회), Ed. Studi Francescani, Firenze 1955 : 228
- DA SILVA A. F., 「Il cammino degli esercizi spirituali nel pensiero di don G. Alberione」(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상 안에 나타난 영신수련의 여정), Centro Spiritualità Paolina, Ariccia 1981 : 58, 97, 111
- 「Gli esercizi spirituali secondo don Alberione. Dipendenza e originalità」(알베리오네 신부에 의한 영신수련. 의존성과 독창성), in 「Conoscere don Alberione」(알베리오네 신부를 알기), I (1982) : 132
- DEGANO E., 「Paggi d'onore del SS. mo. Sacramento」(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의 명에 꼬마 들리리), EC, IX (1952) : 441
- DEL PIANO F., 「Manuale delle Figlie di Maria」(마리아의 딸들의 지침서), Ed. Santa Lega Euacristica (성체성사 연맹), Milano 1902 : 227
- 「De Regimine Foederis Internationalis “Pro Pontifice et Ecclesia”」, ex Schola Tip. Salesiana, Taurini 1921 : 138
- DOMENICALI G., 「Congregazioni religiose e leghe eucaristico-sacerdotali」(수도회와 사제 - 성체성사 연맹), in PIOLANTI A. (a cura di), 「Eucaristia」(성체성사), Desclée Roma 1957 : 384
- 「Donne e uomini oggi a servizio del Vangelo」(복음을 위해 일하는 오늘의 여성과 남성들), ed. Centro di Spiritualità Paolina, Roma 1993 : 498
- DUMAS A., 「Les Mohicans de Paris」(파리의 모히칸) (1864) : 498
- FOIS M., 「Compagnia di Gesù」(예수회), DIP, II (1975) : 570
- FROEBEL F., 「L'educazione dell'uomo」(인간교육), Paravia, Torino 1852 : 289
- 「Manuale pratico di giardini d'infanzia」(유년기라는 정원을 위한 실천적 매뉴얼), Civelli, Milano 1871: 289
- GAIOTTI DE BIASE P., 「Movimenti cattolici e questione femminile」(가톨릭 운동과 여성 문제), DSMCI (1981) : 613

- GIOVANNINI L., 「Le letture cattoliche di don Bosco」(돈 보스코의 가톨릭 독서), Liguori Editore, Napoli 1984 : 505
- GROSSI F., 「I Sacramentini」(성체회), in ESCOBAR M. (a cura di), 「Ordini e congregazioni religiose」(성직회와 수도회), vol. II, Società Ed. Internazionale, Torino 1953 : 133
- GUIDETTI A., 「Le missioni popolari, I grandi Gesuiti italiani」(대중적인 사명, 위대한 이탈리아 예수회), Rusconi, Milano 1988 : 604
- HOPPENBROUWERS V., 「Carmeliani」(가르멜 회원들), DIP, II (1975) : 568
- 「Istituto Culturale per il Catalogo Unico della biblioteca italiana e per l'informazione bibliografica」, Periodici italiana: 1886-1957」(이탈리아 도서관 연합회와 참고도서 정보를 위한 문화원. 이탈리아 잡지: 1886-1957) : 503
- LANZAVECCHIA R., 「L'opera per la protezione della giovane」(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in 「Bolletino dell' Archivio per la storia del Movimento Cattolico in Italia」(이탈리아 가톨릭 운동 역사에 대한 문서보관 회지), 20 (1985) : 610
- LEVI SANDRI L., 「Istituti di legislazione sociale」(사회법 제정), Ed. A. Giuffrè, Milano 1963 : 592
- 「Liturgia」(전례), E. Ec., V, 1953 : 642
- 「Livre (Le) d' or」, manuel complet de la parfait dévotion a la T. S. Vierge(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완벽한 신심에 관한 매뉴얼 완성본), Secrétariat de Médié Moiatrice - Péres Montfortains (a cura di), Typ. Brepols S. A., Turnhout 1942 : 127
- MACCARIO L., 「Le società operaie di Alba 1847-1955. La Società degli Artisti ed Operai」(알바 노동자 조합 1847년-1955년. 기술자와 노동자 조합), Famija Albeisa, Alba 1973 : 195
- MAGGI G., 「Temi politici e sociali nell' azione dei cattolici albesi del primo novocento」(1900년대 초 알바 가톨릭 액션의 정치 사회적 주제들), in 「Alba Pompeia」, Nuova serie, anno IV, 1 (1983) : 13, 61, 615
- 「Manuale dell' Apostolato della preghiera」(기도 사도직의 매뉴얼), Segreteria dell' Apostolato della preghiera, Roma 1896 : 570
- MERLO PICH V., 「Istituto Missioni Cosolata」(위로자 선교회), DIP, V (1978) : 621
- MIDALI M., 「Teologia pastorale o pratica, cammino storico di una riflessione fondante e scientifica」(사목신학 또는 실천신학,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성찰의 역사적 여정), LAS, Roma 1985 : 30, 84
- MORO R., 「Azione Cattolica Italiana」(이탈리아 가톨릭 액션), DSMCI (1981) : 608, 611
- NADDEO E., 「Il vero Pastore d' anime」(영혼의 참된 목자), Ferri, Roma 1922 : 227
- NORDERA L., 「Il catechismo di Pio X. Per una storia della catechesi in Italia (1896-1916)」(이탈리아 교리교사를 위한 비오 10세의 교리서 <1896-1916>), LAS, Roma 1988 : 507
- NOVELLI DAU C., 「Società, Chiesa e associazionismo femminile」(사회, 교회와 여성 연맹), A. V. E., Roma 1988 : 613
- ODOARDI G., 「Conventuali」(콘벤뚜알 수도회), DIP, III (1976) : 263
- 「Oratorio festivo」(축일 오라토리오), E. Ec, VII (1963) : 540
- PALAZZINI G., 「Obolo di San Pietro」(성 베드로의 기금), EC, IX (1952) : 191
- PALAZZINI P., 「Unione Popolare」(국민일치운동), EC, XII (1954) : 488
- PASCHINI P., 「Ozanam Antoine-Frédéric」(오자남 안투완느-프레데릭), EC, IX (1952) : 264

- 「Confraternita」(형제회), EC, IV (1950) : 634
- PAVANEKKU L., 「L' insegnamento del catechismo in forma di vera scuola, secondo il metodo ciclico e il sistema intuitivo」(주기적인 교육방법과 직관적인 시스템에 따른, 진짜 학교 형태의 교리수업), Berruti, Torino 1914 : 521
- PAVENTI S., 「Opere Pontificie Missionarie」(교황청 전교회), EC, IX (1952) : 192
- 「Opera Pontificia della Santa Infanzia」(교황청 어린이전교회), EC, IX (1952) : 192
- PIRRI P., 「Civiltà Cattolica (La)」, EC, III (1949) : 167
- PRIERO G., “Adunanza catechistica diocesana di Alba”(알바 교구 교리교사 모임), in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 1914 : 507
- “Il lavoro di un anno ad Alba”(알바에서 1년 활동), in 「I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 1915 : 55, 507
- 「Programmi (I) per l' insegnamento della dottrina cristiana nella diocesi di Alba」(알바 교구에서 그리스도교 프로그램과 가르침), Scuola Tip. “Piccolo Operaio”, Alba 1914 : 507
- REDIGONDA L. A., 「Fratr Predicatori」(설교가 신부들), DIP, IV (1977) : 430
- 「Resoconto dei risultati delle riunioni sull' Opera dei Ritiri Operai in Italia」(이탈리아 노동자 피정 단체에 관한 회합 결과 결산), Roma 16-17-18 aprile 1912, A.M.D.G. (a cura di), Tip. Artigianelli San Giuseppe, Roma 1912 : 604
- RICCIOTTI G., 「Bibbia e non bibbia」(성서와 비성서), Morcelliana, Brescia 1935 : 328
- RICHELMY A., “Lettera 11 febbraio 1909”(1909년 2월 11일자 서한), in 「Raccolta Lettere Pastoralis」(사목서한 모음집), biblioteca del Seminario Arcivescovile di Torino(토리노 대주교 직할 신학교 도서관) : 479
- ‘Lettera di indizione del Congresso Nazionale sugli Oratori Festivi e sulle Scuole di Religione’(축일 오라토리오와 종교 학교에 관한 전국 대회 소집서한), Torino, 28 aprile 1911, n. 59, biblioteca del Seminario Arcivescovile di Torino : 546
- RINALDI C. S., 「Circolare al clero e al popolo」(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회람서신), 24 giugno 1855, in Archivio Storico della Diocesi di Alba(알바 교구 역사 문서보관소) : 591
- RISTORTO M., “L' azione sociale dei cattolici cuneesi nell' ultimo trentennio del secolo XIX”(19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쿠네오 주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 활동), in 「Bollettino dell' Archivio per la storia del Movimento Sociale Cattolico」(가톨릭 사회 운동 역사를 위한 문서보관 회보) in 「Italia」, anno VII, 2 (1972) : 615
- ROCCA G., 「Predicazione」(복음선포), DIP, VII (1983) : 463
- ROMITA F., 「Monitore ecclesiastico (II)」, EC, VIII (1952) : 167, 170
- SIFRIN P., 「Scapolare」(스카폴라), EC, XI (1953) : 569, 570
- 「Società Cattolica di Assicurazione. 60 anni di vita 1896-1956, cenni storici e dati statistici」(가톨릭 보험협회. 1896년-1956년 60년간의 역사와 통계자료), Scuola Tip. Nigrizia, Verona 1956 : 198
- 「Società (La) d' istruzione, di educazione e di Mutuo Soccorso fra gli Insegnanti」(교사들 공제조합과 교육조합), Monografia presentata all' Esposizione Generale Italiana in Torino 1884, Tip. Camilla e Bertolero, Torino 1884 : 196, 197
- 「Statuto della Società di Mutuo Soccorso e Previdenza Economica fra i cittadini d' ambo i sessi del comune di Roddi」(로디 시민의 공제조합과 경제보험 정관), Tip. S. Racca,

Bra 1891 : 195 TOMAGNINI G., 「Casse Rurali」
 「Statuto dell' Opera Pia dei (마을금고), EC, III (1949) : 580
 Parrochi Vecchi od Inabili」(연로하 TRAMONTIN S., 「Unione Popol
 거나 일할 수 없는 본당신부의 경 are」(국민일치 운동), DSMCI
 건한 회의 회규), Artigianelli, (1981) : 585
 Torino 1877 : 192 VASSALLI G., 「Sacerdoti del
 「Statuto e Regolamento della Società SS.mo Sacramento」(성체 사제회)
 di Previdenza e Mutuo Soccorso tra (Sacramentini), DIP, VIII (1988) :
 gli Ecclesiastici」(성직자 공제 및 보 132
 협조합의 정관과 규칙), Marietti, VENTURINI M., 「Unione Apost
 Torino 1911 : 197 olica」(사도 일치회), EC, XII
 「Statuto organico della Società di (1954) : 120
 Istruzione, di Educazione e di Mutuo 「Verbale di costituzione della Società
 Soccorso fra gli Insegnanti」(교사들 di Mutuo Soccorso fra gli Ecclesiastici
 공제조합과 교육조합의 정관), della Diocesi di Alba e della 1°
 Tip. Scolastica di S. Franco e Figli adunanza generale」(알바 교구의 성
 e Compagni, Torino 1858 : 197 직자 공제조합 설립과 제1차 총회
 STELLA P., 「Gli scritti a stampa di 회의록), 1893년 9월 2일, in
 San Giovanni Bosco」(성 요한 보 Archivio Storico della Diocesi di
 스코의 출판된 저서들), LAS, Alba(알바 교구 역사 보관소) : 196
 Roma 1977 : 621 VIGNA L., 「Un parroco di camp
 TESTORE C., 「Dottrina Cristiana agna ai suoi catechisti」(어느 시골
 (Arciconfraternita della)」(그리스도 본당신부가 교리교사에게),
 교 사상 <대형제회>), EC, IV Berruti, Torino 1912 : 521
 (1950) : 556

저자 색인

(본문에서 언급되었고 완전히 인용된 작품의 저자들만 고려하였음.)

ALESSI G., 「Rosa Mistica」(신비의 일 위한 9일기도와 묵상), Marietti,
 장미), Tip. del Seminario, Padova Torino 1826 : 490
 1899 : 423 - 「Opere ascetiche」(수덕 활동),
 ALFONSO DE' LIGUORI (san), vol. VI, Ed. Macioce e Pisani, Ro
 「Apparecchio alla morte」(죽음에 ma 1935 : 109, 561
 이르는 장치), Tip. Salesiana, - 「Pratica di amar Gesù Cristo」(예수
 Torino 1891 : 93, 477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실천),
 - 「Gran Mezzo della Preghiera」(기 Marietti, Torino 1887 :
 도의 위대한 수단), Messaggi, - 「Selva di materie predicabili ed
 Milano, 1860 : 102 istruttive, Opere ascetiche」(강론과
 - 「Istruzione pratica pei confessori, 교육을 위한 자료집. 수덕 활동),
 Opere ascetiche」(고백자들을 위 vol. III, Marietti, Torino 1967 : 109
 한 실천 교육, 수덕 활동), - 「Visite al SS. Sacramento ed a
 dogmatiche e morali, vol. IX, Mari Maria SS.ma per tutti i giorni del
 etti, Torino 1887 : 337 mese」(성체조배와 성모의 달 매
 - 「Le Glorie di Maria」(마리아의 영 일 성모 마리아 방문), Tip. F.lli
 광), Armeodo, Torino 1887 : 102 Lanzani, Milano 1910 :
 - 「Novene ed altre meditazioni per ANZINI M. A., 「Gli oratori festivi e
 alcuni tempi e giorni particolari le scuole di religione」(축일 오라
 dell' anno」(연중 특별 시기와 특정 토리오와 종교 학교), Eco del V°

- Congresso, Tip. S. A. I. D. Buona Stampa, Torino 1911 : 546, 595
- ARATO B., 「Il S. Sacrificio della Messa」(미사의 희생 제물), P. Celanza, Torino 1896 : 100
- ARTUSIO M., 「La Filotea divota del Sacro Cuore di Gesù」(예수 그리스도 성심께 헌정된 신애론), Tip. S. Lega Eucaristica(성체성사 연맹 인쇄소), Milano 1920 : 490
- ARVISENET, 「Memoriale vitae sacerdotalis」(사제의 삶에 대한 회고록), Typis S. C. de Propaganda Fide, Roma 1978 : 99, 102
- AUGUSTINI AURELII, 「Confessionum」(고백록), libri tredicim(제 13권), Editio emendatissima, Typis S. C. de Propaganda Fide, Romae 1878: 102
- 「Meditationes soliloquia et manuale. Accedunt meditationes B. Anselmi, D. Bernardi et idiotae contemplationes」, Marietti, Taurini 1929
- BACUEZ N., 「L' ufficio divino dal lato della pietá」(신심의 측면에서 본 성무), Artigianelli, Torino 1885 : 100, 106
- BARBERIS G., 「Il grande Sant' Agostino, Vescovo d' Ippona」(히포의 주교,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노), Marietti, Torino 1887 :
- BEAUDENOM L., 「Formazione all' umiltà, e per essa all' insieme delle altre virtù」(겸손에 대한 양성, 그리고 다른 덕성을 위한 양성과 함께), Tip. Salesiana, Firenze 1913 : 100
- BENINI A. - REVAGLIA G., 「In alto I cuori」(마음을 드높이), Libri di lettura per le scuole catechistiche(교리교사 수업을 위한 독서), vol. 4, Ed. Internazionale, Torino 1913-1914 : 534-535
- BERCHIALLA V. G., 「 'San Giuseppe.' Manuale di letture e contemplazioni sella vita del Santo Patriarca Sposo di Maria」('성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신 성조의 생애에 관한 독서와 묵상 매뉴얼), Stamperia Società Tip., Nizza 1860 : 491
- BERENGO J., 「 Enchiridion parochorum seu institutiones Theologiae pastoralis」(본당신부 안내서 혹은 사목신학 지침서), Typ. Aemiliana, Venetiis 1877 : 326
- BERSANI-DOSSENA A., 「 La religione spiegata ai giovinetti con esempi」(예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설명한 종교), Tip. Quirico e Camagni, Lodi 1905 : 532
- 「Catechismo spiegato al popolo per via d' esempi e di similitudini」(예화와 비유를 통해 대중에게 설명한 교리), Tip. Quirico e Campagni, Lodi 1904 : 532
- 「 Mese di Maggio.' Discorsetti ad onore della Vergine」('5월 성월.' 동정녀에 관한 짧은 연설과 예찬), Tip. Quirico e Campagni, 1909 : 423
- BERTANI C., 「Vita di Maria SS.ma」(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생애), Tip. De' Paolini, Monza 1902 : 425
- BLANC J., 「Appunti di un parroco di campagna」(시골 본당신부의 개요), tradotto dal teologo C. Testone(신학자 테스트오니 번역), Typ. "Giovanna d' Arco", Casteggio (Pavia) 1911 : 206, 578
- BOGGIO P., 「 'Magister parvulorum.' Spiegazione del Catechismo Grande」('초보교육.' 성인 교리 설명), Marietti, Torino 1913 : 533
- 「Catechismo e pedagogia」(교리와 교육학), Marietti, Torino 1915 : 538
- 「 'Piccolo coi piccoli' , ossia Vademecum del catechista, Spiegazione dei primi elementi della dottrina cristiana tratti dal catechismo di Pio X」('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교리' , 즉 비오 10세의 교리서에서 다른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대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 Marietti, Torino 1913 : 533
- BONA J., 「 'De Sacrificio Missae' ,

Tractatus asceticus continens praxim, attente, devote et reverenter celebrandi」(‘미사성체에 대하여’, 실천적이고, 주의 깊으며, 신심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덕신학과 존경할만한 집전자에 관하여), Marietti, Taurini 1900 : 104, 395-397

BONACCIA P., 「Il perfetto manuale di San Giuseppe」(성 요셉께 대한 완벽한 지침서), composto per l'uso dei suoi devoti(성인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구성됨),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72-1876 : 487(270n에서는 1872-1876 대신에 1872-1896이라고 되어 있음-역주) : 491

BORGIO C., 「Novena in preparazione alla festa del Sacro Cuore di Gesù Cristo' ad uso delle persone religiose secolari」(‘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축일 준비를 위한 9일기도.’ 재속수도자들용, G. Fenoglio, Cuneo 1854 : 490

BOUGAUD L. V., 「Storia della beata Margherita M. Alacoque」(복녀 마르가리타 알라코크의 생애), Marietti, Torino 1908 : 105

- 「Storia di Santa Giovanna di Chantal」(성녀 요안나 드 샬탈의 생애), Marietti, Torino 1891 : 105

- 「Storia di San Vincenzo de' Paoli」(성 빈첸시오 드 폴의 생애), Marietti, Torino 1891 : 105

BOWDEN J. E., 「Vita e lettere del padre Federico Guglielmo Faber」(페데리코 굴리에모 파베르 신부의 생애와 서간집), Traduzione dall'inglese della principessa Gonzaga(곤자가 공주의 번역), 「Manna Rancadelli」, Marietti, Torino 1912 : 103

BRAZZOLI A., 「Il glorioso patriarca San Giuseppe」(영광스러운 성조 성 요셉),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64 : 491

BUETTI G., 「I Misteri del Rosario」(묵주기도의 신비), Marietti, Torino 1913 : 426

CABRINI F., 「Il sabato dedicato a Maria SS.ma」(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토요일), Tip. Emiliana, Venezia 1913 : 98

CAPECELATRO A., 「La vita di Sant'Alfonso M. de' Liguori」(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의 생애), Desclée, Roma 1893 : 105

- 「La vita di San Filippo Neri」(성 필립보 네리의 생애), Boniardi-Pogliani, Milano 1884

- 「Padre Ludovico da Casoria」(루도비코 다 카소리아 신부), Desclée, Roma 1893 :

- 「Storia di San Pier Damini」(성 피에르 다미니의 전기), G. Barbera, Firenze 1862 :

CAPELLO P., 「Vita di San Francesco di Sales」(성 프란치스코 드 살의 생애), Marietti, Torino 1861 : 101

CARMAGNOLA A., 「La porta del cielo」(하늘의 문), Tip. Salesiana, Torino 1897

- 「Le litanie della Madonna」(성모님의 호칭기도), Ufficio delle

letture cattoliche(가톨릭 문학 사무국), Torino 1906 : 425

CARSIDONI I., 「La scuola di Gesù appassionato aperta al cristiano con la meditazione delle sue pene」(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묵상과 함께 그리스도교인에게 개방된 열정적인 예수님의 학교), Tip. Pontificia Istituto Pio IX, Roma 1908 : 99

CASANOVA M., 「'Corona di maggio', ossia Mese di Maria per le parrocchie」(5월의 화관, 혹은 본당을 위한 마리아의 달), Marietti, Torino 1905 : 424

「Catechista dei fanciulli (II)」, Guida pratica per l'insegnamento e per la spiegazione del breve catechismo prescritto da S. S. Pio X」(‘어린이들의 교리교사’, 교황 비오 10세 성하에 의해 규정된 짧은 교리서의 가르침과 설명을 위한 실천 가이드), Lib. Sacro Cuore(성심 서원), Torino 1911 : 528

「Catechista istruito nei doveri del

suo ministero (II)」(교육 받은 교리 을 수 없음.
교사가 직무에서 가지는 의무), DALMAZZO P., 「Mons. Giovanni
Majocchi, Milano, 1879 : 534 M. Silvestro, dottore in medicina e
CHAIGNON P., 「 Il prete chirurgia, vicario mondiale della
santificato dalla pratica dell' Congregazione di San Giuseppe:
orazione」(기도의 실천에 의해 성 memoriale di un amico」(성 요셉
화된 사제), Tip. Emiliana, Venezia 수도회 부총장, 외과박사요 의약
1907 : 98 박사인 M. 실베스테르 요한 몬시
CHIAVARINO L., 「Il piccolo mese 놀 : 친구의 회고록), Tip.
di marzo」(3월의 작은 달), Tip. Cooperativa, Cuneo 1910
Salesiana, Torino 1899 : 128 DE GIBERGUES M., 「 'La Castità.'
CORNALE L., 「La rapitrice dei Conferenze」(정결에 관한 강연),
cuori」(마음의 약탈자), Tip. traduzione del sac. E. Valenti(발렌
Prosperini, Padova 1906 : 425 티 신부의 번역), Artigianelli,
CURTI G., 「 'La chiave della Monza 1913 : 352
fortuna' , ossia manuale pratico DELLA VALLE F., 「Metodo da
dell' emigrante e dell' emigrato tenersi nell' insegnare la dottrina
italiano in America」('행운의 열 cristiana ai fanciulli」(그리스도교
쇠' , 즉 미국에서 이탈리아 이민 교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과 이민자의 실천적 매뉴얼), Tip. 사용해야 할 방법), Tip. Salesiana,
Salesiana, Torino 1908: 604 San Pier d' Arena 1891 : 534
CUVELHIER M., 「Meditationes DE MICHELI R., 「 Memorie
brevisssimae in usum sacerdotum」 biografiche del sac. Tito Ram
(아주 짧은 사제용 묵상), Marietti, pone」(사제 디도 람포네의 생애
Taurini 1910 ; 일치하는 자료를 찾 회고록), Tip. Salesiana, Milano
1903 : 105
DUMAS A., 「Les Mohicans de
DENIFLE H., 「 Vita Soprann Paris」(파리의 모히칸) (1864) : 498
aturale」(초자연적인 삶), Marietti, FABER F. W., 「Betlemme」(베들레
Torino 1911 : 104 햄), Marietti, Torino 1908 : 103
DIANDA G., 「Catechismo magg - 「Conferenze spirituali」(영성 강
iore di S. S. Pio X spiegato al popolo 의), Marietti, Torino 1876 : 103
sulle norme del catechismo - 「 Il Creatore e la creatura' , ossia
tridentino」(트리엔트 교리 규범에 portenti dell' amore divino」(창조
따라 신자들에게 설명해준 위대한 주와 피조물 다시 말해서 하느님
교황 비오 10세의 성인 교리), 사랑의 운반자), Marietti, Torino
Marietti, Torino 1911 : 533 1903 : 102-103
D' ISSENGARD G., 「Cenni di - 「 Il piede della Croce' , ossia i
catechetica」(교리교수법에 대한 dolori di Maria」('십자가의 발치' ,
언급), Lice, Torino 1910 : 539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고통),
DUBOIS H., 「 Guida dei Marietti, Torino 1875 : 103
Seminaristi」(신학생들의 안내서), - 「 Il prezioso Sangue' , ossia il
Marietti, Torino 1890 : 102 prezzo della nostra salvezza」('소중
- 「Il Santo Prete」(거룩한 사제), 한 성혈' ,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
Marietti, Torino 1904 : 102 의 값), Marietti, Torino 1887 : 103
- 「Pratica del cristianesimo」(그리 - 「 Il santo Sacramento' , ovvero le
스도교의 실천), Marietti, Torino opere e i modi di Dio」('거룩한 성
1859 : 102 사' , 또는 하느님의 활동과 그 방
- 「Pratica dello zelo ecclesiastico」 식), Marietti, Torino 1891 : 102
(교회 열성의 실천), Marietti, - 「Progressi dell' anima nella vita
Torino 1864 : 102, 206 spirituale」(영적 삶 안에서 영혼의

진보), Marietti, Torino 1912 : 102	FINCO G., 「Virga Jesse」(이새의	Venezia 1735 : 101	101
- 「'Tutto per Gesù', ovvero gli	동정녀), Rondinella-Loffredo,	- 「Stendardo della Croce」(십자가	- 「Il catechismo dogmatico」(교의
agevoli modi d' amore divino)」(모든	Napoli 1904 : 423	의 표식), Stamperia Baglioni,	에 관한 교리), Tip. Oratorio San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 또는 하	FRANCESCHINI G., 「La bestemia	Venezia 1748 : 101	Francesco di Sales, Torino 1872 :
느님 사랑을 따르는 방식),	in Italia: pagine di psicopat	FRANCO S., 「Il mese di giugno	103
Marietti, Torino 1908 : 103	ologia sociale」(이탈리아의 신성모	consacrato al Sacro Cuore di Gesù」	- 「Il conforto dell' anima divota」
FALETTI, 「Il maggio a Maria. La	독: 사회 정신병리학 분석), Tip.	(예수님의 성심에 봉헌된 6월),	(신심 깊은 영혼의 위로), Ed.
Madre e i figli. Considerazioni	Sorteni e Vidotti, Venezia 1909 :	Tip. Oratorio San Francesco di	Fiorentina, Firenze 1891 : 103
popolari pel mese mariano」(마리	606	Sales, Torino 1872 : 489	- 「Il convito del divino amore」(하
아께 봉헌된 5월. 어머니와 아들.	FRANCESCO DI SALES (san),	FRASSINETTI G., 「Amiamo Gesù」	느님 사랑의 향연), Tip. della
마리아 성월을 위한 신자들의 숙	「Discorsi di sacre controversie」(거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Tip.	Gioventù, Genova 1893 : 103
고사항), Marietti, Torino 1913 :	룩한 논쟁에 대한 담화),	Salesiana, Torino 1883 : 103	- 「Il Pater noster di Santa Teresa di
424	Rondinella, Napoli 1859 : 101	- 「Amiamo Gesù, Giuseppe, Maria」	Gesù」(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주님
- 「Profili mariani contemporanei」	- 「Filotea」(필로테아: *역주-신애	(예수님, 요셉, 마리아를 사랑합시	의 기도), Tip. Salesiana, Torino
(당대 마리아의 프로필), Marietti,	론), Marietti, Torino 1864 : 101,	다), Tip. Poliglotta Vaticana, Roma	1891 : 103
Torino 1914 : 424	477	: 103	- 「Il padadiso in terra nel celibato
FERRERI S., 「Il cuore di Gesù	- 「Lettere spirituali」(영적 서간),	- 「Amiamo Maria」(성모님을 사랑	cristianoa」(그리스도교 독신에 나
studiato nel Vangelo. Letture-	Stamperia Baglioni, Venezia 1748 :	합시다), Tip. Salesiana, Torino	타난 지상의 낙원) in 「Lecture
prediche」(복음에서 연구된 예수	101, 398, 468, 494	1898	Cattoliche」, anno IX, fascicolo IX,
그리스도의 성심: 독서-강론),	- 「Teotimo」(테 오 티 모), Tip.	- 「Amiamo S. Giuseppe」(요셉성	Paravia, Torino 1861 : 365
Marietti, Torino 1875 : 490	Salesiana, Torino 1884 : 101	인을 사랑합시다), Tip. Salesiana,	- 「Il religioso al secolo」(세기의 수
FILIPPO NERI (san), 「Lettere, rime	- 「Trattenimenti spirituali」(영적 유	Torino 1895 : 103	도자), Poliglotta Vat., Roma 1909 :
e detti memorabili」(서간, 시와 잇	흥), Ancheoli, Roma 1666 : 101	- 「Gesù Cristo regola del sacerdote」	103
지 못할 명언), Ed. Fiorentina, Fire	- 「Sermoni famigliari」(가족들에게	(사제의 규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 「Industrie spirituali」(영적 작업),
nze 1922 : 512	한 연설), Stamperia Baglioni,	Tip. della Gioventù, Genova 1899 :	Paravia, Torino 1860 : 103

- 「La divozione illuminata」(빛나는 신심), Tip. Vaticana, Roma 1907 : 103
- 「La forza di un libretto. Dialoghi tra due amiche sopra l'operetta "La gemma delle fanciulle cristiane", ossia la santa virginità」('소책자의 힘.' "그리스도교 어린이들의 보석"이라는 소책자에 관한 두 친구 간의 대화, 즉 거룩한 동정), Tip. Vaticana, Roma 1909 : 103
- 「Le amicizie spirituali」(영적 우정), Tip. Salesiana, Torino 1893 : 103
- 「Manuale pratico del parroco novello」(초임 본당신부의 실천적인 매뉴얼), Tip. della Gioventù, Genova 1871 : 35, 37, 205, 313, 373
- 「Pratica della Confessione progressiva e della direzione spirituale」(점진적인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의 실천), Tip. Lethielleux, Parigi : 102
- GASTALDI P., 「Vita del venerabile Servo di Dio, Giuseppe Benedetto Cottolengo, fondatore della piccola Casa della Provvidenza」(하느님 섭리의 작은 집의 창설자, 가정자 하느님의 종 요셉 베네딕트 코토렌고의 생애), Tip. Salesiana, Torino 1882 : 105
- GAUME J. J., 「Il catechismo di perseveranza」(인내의 교리), Tip. Agnelli, Milano 1904 : 532
- 「'Compendio del catechismo di perseveranza', ovvero esposizione storica, dogmatica, morale e liturgica della religione dall'origine del mondo sino ai dì nostri」('인내의 교리 보완', 또는 세상의 기원으로 부터 우리 시대까지 종교의 역사적, 교의적, 윤리적, 전례적 설명), Marietti, Torino 1878 : 533
- GAY C., 「I misteri del santo Rosario」(거룩한 묵주기도의 신비), Tip. Salesiana, San Pier d' Arena 1888 : 492
- GEROMINI E., 「Corso di eloquenza ad uso dei seminari」(신학생용 설교학 코스), Bazzi-Cavalleri, Como 1888 : 506
- GERSEN J., 「De Imitatione Cristi」(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하여), libri quattuor, ex off. Salesiana, Augustae Taurinorum 1899 : 101, 461, 558
- GIACCONE G., 「Vita del Ven. Servo di Dio Giovanni Battista Trona, prete della Congregazione dell' Oratorio di Mondovì」(몬도비 의 오라토리오 수도회의 사제, 가정자 하느님의 종 세례자 요한 트로나의 생애), Tip. Vescovile, Mondovì 1902 : 600
- GIARDINI L., 「Ore Sante dinnanzi al SS.mo Sacramento」(성체 앞에서 바치는 성시간), Marietti, Torino 1914 : 393
- 「Triduo Eucaristico secondo lo spirito di S. S. Pio X」(교황 비오 10세의 정신에 따른 성체성사 삼일 기도), Marietti, Torino 1913 : 393
- GIBBONS J., 「L' Ambasciatore di Cristo」(그리스도의 대리자), Marietti, Torino 1910 : 102, 206
- GIULIANO EYMARD (san), 「Aggregazione del SS. mo Sacramento」(성체성사의 병설단체), Artigianelli San Giuseppe, Roma 1909 : 111
- 「La SS. ma Eucaristia」 :
 ° 「La presenza reale」(실체적인 현존), vol. I, Roma Tiberina, 1898 : 99
 ° 「La santa comunione」(영성체), vol. II : 99
 ° 「Meditazioni per Esercizi Spirituali ai piedi di Gesù in Sacramento」(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영신수련을 위한 묵상), vol. III : 99
 ° 「L' Eucaristia e la vita cristiana」(성체성사와 그리스도교 삶), vol. IV : 99
- 「Mese del SS. Sacramento」(미세의 정신에 따른 성체성사 삼일 기도), Tip. Lorenzetti, Torino 1909 : 99
- 「Mese di Nostra Signora del Sacramento」(성사의 여주인이신 성모님의 미사), Marietti, Torino

- 1919 : 99
 - 「Vita e virtù del padre Pier Giuliano Eymard', fondatore della Congregazione del SS. mo Sacramento」(성체성사 수도회의 창설자, '피레르 줄리아노 에이마르 신부의 생애와 덕'), Religiosi SS. mo Sacramento-San Claudio, Roma 1900 : 99
 GIUSEPPE CAFASSO (san), 「Meditazioni per esercizi spirituali al clero」(성직자 영신수련을 위한 묵상), Tip. F.lli Canonica, Torino 1892 :
 - 「Istruzioni per esercizi spirituali al clero」(성직자 영신수련을 위한 교육), Tip. F.lli Canonica, Torino 1893 :
 Guerra A., 「I chierichetti, loro qualità, loro ufficio」(소신학생, 그들의 자질, 그들의 직무), Tip. Salesiana, San Benigno Canavese 1902 : 402
 - 「Il predicatore secondo il Cuore di Gesù」(예수 성심에 따른 복음 선포),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87 : 490
 GUGGINO G., 「Dell' impurità e dei mezzi per vincerla」(불결한 행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들), Marietti, Torino 1907 : 349, 350
 「Guida dell' emigrante italiano oltr' Alpe」(알프스 산맥 이편 이탈리아인 이민자 안내서), Pongetti, Bologna 1905 : 604
 「Guida pratica all' insegnamento del catechismo」(교리교수를 위한 실천 가이드), Fratello delle Scuole Cristiane (a cura di), Berruti, Torino 1909 : 524
 GUILLOIS A., 「Spiegazione dogmatica, morale, liturgica e canonica del catechismo」(교리의 교의신학, 윤리신학, 전례신학과 교회법적 설명), Ed. Fiorentina, Firenze 1904 : 533
 HAMON A., 「Meditazioni ad uso del clero e dei fedeli, per tutti i giorni e le feste principali dell' anno」(성직자와 신자들 사용을 위
 한 연중 주요 축일과 매일 묵상), Tip. Accademia Reale Scienze, Napoli 1895 :
 HUGUET J., 「Glorie e virtù di San Giuseppe modello delle anime interiori」(내적 영혼들의 모델이신 성 요셉의 영광과 덕), Tip. Salesiana, Torino 1884 : 491
 - 「La devozione di San Giuseppe in esempi」(귀감이 되시는 성 요셉께 대한 신심),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85 : 491
 JOANNES CHRYSOSTOMUS (san), 「De Sacerdotio」(사제직에 대하여), libri sex, sumptibus E. Bredtii, Lipsiae 1866 : 102
 KRIEG C., 「Cura d' anime speciale」(특별한 영혼에 대한 사목), Marietti, Torino 1913 : 35-36, 40, 78
 - 「Catechetica, ossia scienza del catecumenato ecclesiastico」(교리,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입교준비에 대한 학문), Marietti, Torino 1915 : 40, 78
 - 「Omiletica o scienza dell' evangelizzazione della Parola di Dio」(강론 또는 하느님 말씀의 복음화에 대한 학문), Marietti, Torino 1920 : 40, 78
 KROUST J., 「Meditationes de praecipuis fidei mysteriis」(신앙의 신비에 대한 묵상), Tip. San Giuseppe, Milano 1903 : 98
 LAGHI P., 「Giardino del catechista', ossia prontuario d' esempi per l' esposizione della dottrina cristiana」('교리교사의 정원', 즉 그리스도교 사상의 설명을 위한 예화 준비), Desclée e Lefebvre, Roma 1908 : 534
 LEMOYNE G., 「Memorie biografiche di San Giovanni Bosco」(성 요한 보스코의 회고록), Società Ed. Internazionale, Torino, 1898
 LE QUERDEC Y., 「Lettere di un parroco di campagna」(시골 본당 신부의 편지), Uff. Rassegna Nazionale, Firenze 1895 : 104, 205
 - 「Lettere di un parroco di città」(도시 본당 신부의 편지), Uff.

Rassegna Nazionale, Firenze 1897 : 104, 205, 300
- 「San Francesco di Sales proposto a modello delle anime pie specialmente dei sacerdoti」(특히 사제들의 신심 깊은 영혼의 모델에 대해 제안한 성 프란치스코 드 살), Marietti, Torino 1867 : 104
「Lecture cattoliche 1853-1902」, Elenco generale dei fascicoli pubblicati e programma di associazioni」(가톨릭 독서 1853-1902', 출간된 소책자 총목록 및 협회 프로그램), Ufficio delle letture cattoliche, Torino 1902 : 505
LISI S., 「'Che fa il Cuore di Gesù nell' Eucaristia?' Trenta sermoni da servire per un mese al Sacro Cuore di Gesù」('예수 성심께서는 성체성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 성심성월을 위한 30개의 설교집), Tip. Castorina, Giarre 1887 : 490
- 「Il rosario di Maria e i bisogni della società moderna」(마리아의 묵주기도와 현대 사회의 요청), Tip. Castorina, Giarre 1892 : 492
LOSIO G., 「Manuale pel maestro delle scuole popolari, serali e festive」(초등교육, 야간학교, 일요일 학교 교사를 위한 매뉴얼), La Scuola, Brescia 1908 : 596
LUIGI GRIGNION DE MONFORT (san), 「Trattato della vera devozione a Maria Vergine」(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논고), Ferrari, Roma 1908 : 126, 127
- 「Trattato della vera devozione alla Santa Vergine e Il Segreto di Maria」(동정 성모에 대한 참된 신심과 마리아의 비밀에 대한 논고), De Fiore S. (a cura d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0 : 421
MANNA P., 「Operarii autem pauci: riflessioni sulla vocazione alle missioni estere」('소수의 노동자들' : 해외 선교회 성소에 관한 숙고), PIME, Milano 1909 : 607
「Manuale del Bibliotecario」(도서관 매뉴얼), Federazione Italiana delle Biblioteche Circolanti (a cura di), Milano 1915 : 505
「Manuale Liturgico del Cristiano, ossia "La liturgia ordinariamente si usa nelle chiese secondo il rito romano"」(그리스도교 전례 매뉴얼, 또는 "로마 전례 의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전례"), Lavoro di un parroco ticinese, Marietti, Torino 1913 : 402-403
MARCHETTI S., 「L' ora presente e l' unione popolare fra i cattolici d' Italia」(이탈리아 가톨릭 신자의 국민 연합과 현주소), Marietti, Torino 1910 : 586
MARCONI G., 「Mese di marzo consacrato al glorioso patriarca San Giuseppe sposo di Maria Vergine」(동정녀 마리아의 신랑이신 영광스러운 성조 성 요셉께 봉헌된 3월 성월), Tip. Contedini, Roma 1842 : 490
MARTINENGO F., 「'Il fabbro di Nazaret modello degli operai e patrono della cattolica chiesa' : racconto dell' autore del Maggio in campagna」(가톨릭 교회의 주보 이시요 노동자들의 모델이신 나자렛의 노동자' : 5월 성월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 Tip. Salesiana, Torino 1880 : 491
MASI G., 「Fa bene l' alcool? Conferenze per tutti」(알코올 섭취가 좋습니까? 모든 이를 위한 강연), Marietti, Torino 1913 : 607
'Massime eteme' (최대의 영원, 종말 실재와 같은 의미-역주) : 408
MAZZINI, 「Nel più bel mese ossia brevi considerazioni e ossequi a Maria per ogni giorno nel mese di maggio」(가장 아름다운 달 다시 말해서 5월 성월 매일 동안 마리아께 드리는 짧은 숙고와 존경), Marietti, Torino 1915 : 423
「'Mese di maggio del popolo' , opera di un parroco di campagna」('신자들의 5월 성월' , 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작품), Marietti, Torino 1915 : 423

- MEYER R. G., 「Primi lezioni nella scienza dei santi」(성인에 대한 학문 첫 수업), Desclée, Roma 1910 : 102
- MINNEO J. M., 「San Giuseppe e la somma dulia che gli è dovuta」 Studio intorno ad un accrescimento di onori nel pubblico culto al Santo Patriarca」(‘성 요셉과 그분께 드려야 할 최대의 경배.’ 성조께 대한 공적 공경에서 성장된 존경에 대한 연구),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90 : 491
- 「San Giuseppe o il più grande dei Santi」 Studi sulla sua vita, sulle sue grandezze, sul suo culto」(‘성 요셉 또는 가장 위대한 성인.’ 성인의 삶, 그분의 위대함, 그분 공경에 관한 연구), Tip. Dell’ Armonia, Palermo 1889 : 491
- 「Spirito del Curato d’ Ars」(아르스의 성자 정신), Marietti, Torino 1831: 103(본문 16쪽에서는 저자가 MONNIN으로 명시됨-역주)
- 「Il Curato d’ Ars」(아르스의 본당 신부), Marietti, Torino 1904(본문 18쪽에서는 저자가 MONNIN으로 명시됨-역주)
- MONSABRÉ J., 「Il santo rosario」(기록한 묵주기도),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98 : 104, 492
- MULLOIS I., 「Corso di sacra eloquenza popolare」, saggio sul modo di parlare al popolo」(‘대중적인 기록한 웅변 코스’, 대중에게 말하는 방식에 관한 논문), Paravia, Torino 1855 : 451
- MUZZARELLI A., 「Il mese di Maria」(마리아의 달), Fiaccadori, Parma 1910 : 423
- NICOLIS DI ROBILANT L., 「Vita del venerabile Giuseppe Cafasso」(복자 요셉 카파소의 생애), Tip. Salesiana, Torino 1912
- PAGANI G. B., 「L’ anima divota della SS.ma Eucaristia」(성체성사에 열렬한 영혼), Pirotta, Milano 1845 : 99
- PATRIGNANI G., 「Il divoto di San Giuseppe」(성 요셉께 대한 신심), Marietti, Torino 1893 : Roma 1866 : 491
- PENTORE T., 「Nostra Madre」 Pratiche per il mese di maggio」(‘우리의 어머니.’ 5월 성월을 위한 실천), Tip. Salesiana, Torino 1904 : 425
- PERARDI G., 「Manuale del catechista cattolico」(가톨릭 교리교사 매뉴얼), Berruti, Torino 1908 : 533
- PERREYVE H., 「La giornata dell’ ammalato」(병자의 하루), Marietti, Torino 1914 : 103
- PIANA Q., 「Piccolo catechismo」, (작은 교리서), Scuola Tip. Salesiana, San Benigno Canavese 1904 : 529
- 「Compendio della Dottrina Cristiana」(그리스도교 교리 개론), Scuola Tip. Salesiana, San Benigno Canavese 1904 : 529
- PICCONI T., 「I pregi della Vergine Madre di Dio, esposti in 39 sermoni」(39개의 설교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녀에 대한 존경), Marietti, Torino 1893 : 424
- 「Vita di Maria SS.ma esposti in 31 sermoni」(31개의 설교에서 나타난 지극히 기록하신 마리아의 생애), Marietti, Torino 1893 : 425
- G. PIOVANO, 「La libertà d’ insegnamento in Italia nell’ ora volgente」(과도기 이탈리아 교육의 자유), Tip. Artigianelli, Monza 1909 : 589
- 「Raccolta di sermoni per ciascun giorno del mese di maggio sulle prerogative di Maria SS.ma」(지극히 기록하신 마리아의 특전에 관한 5월 성월 매일 설교 모음집), tradotta da P. Cappello(P. 카펠로 번역), Marietti, Torino 1864 : 424
- REZZARA N., 「La scuola nella legislazione italiana」(이탈리아 법률에 규정된 학교), Tip. San Alessandro, Bergamo 1910 : 588-589
- 「Compiti del Clero nell’ Azione Cattolica」(성직자의 가톨릭 액션

- 을 위한 의무), Tip. San Alessa ndro, Bergamo 1907 : 617
- RINALDI C., 「Gesù e I fanciulli」. Letture. Breve catechismo e preparazione alla prima comunione」 (‘예수님과 어린이들’ . 독서. 첫 영성체를 위한 간단한 교리와 준비), Cromotip. Bolognese, Bologna 1912 : 535
- RODRIGUEZ A., 「Esercizio di perfezione e di virtù cristiane」(그리스도교 완덕과 덕행의 실천), Marietti, Torino 1902 : 103
- ROSSI G. B., 「Il mondo simbolico」(상징의 세계), G. Speirani, Torino 1890 : 474
- 「Guida al catechista」(교리교사 안내서), Chiantore e Mascarelli, Pinerolo 1897 : 534
- RUIZ A., 「L’ Educazione della Castità」(정결 교육), Marietti, Torino 1909 : 354
- SACERDOTE DELLA CONGREGAZIONE DELLA MISSIONE, 「Maria al cuor della giovane」(젊은이들 마음에 계신 마리아), Marietti, Torino 1907 : 426
- SACERDOTI H. L., 「Mese di Maria delle anime di vita interiore」(내적 삶을 사는 영혼들의 마리아 성월), Marietti, Torino 1910 : 426
- SALZANO T., 「Il mese di ottobre dedicato al santo rosario di Maria Vergine Madre di Dio e Madre nostra」(하느님의 어머니시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의 거룩한 묵주기도에 봉헌된 10월 성월), Tip. Patronato, Udine 1886 : 492
- SCHMITT A., 「Il piccolo catechismo spiegato」(알기 쉬운 어린이 교리), Marietti, Torino 1910 : 533
- SCHOUPPE F. X., 「Istruzione religiosa per esempi secondo l’ordine delle lezioni del catechismo」(교리 수업 순서에 따른 예화를 통한 종교 교육), Buzzetti, Torino 1907 : 533
- 「Il domma del purgatorio」, illustrato con fatti e rivelazioni particolari. Versione italiana del Sac. Buzzetti」(특별 계시와 사건을 통해 설명한 연옥에 대한 교의. 사제 부체티 신부의 이탈리아어 번역), Artigianelli, Torino 1900 : 492
- SEGNERI P., 「Fiori d’ esempi e paragoni tratti dal Cristiano istruito」(교육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비유와 예화의 꽃), Marietti, Torino 1882 : 533
- SPIRAGO F., 「Catechismo cattolico per al gioventù in domande e risposte」(젊은이를 위한 질의응답 교리서), Marietti, Torino 1911 : 533
- 「Catechismo popolare cattolico」(가톨릭 대중 교리서), 3 volumi : 533
- 「Metodica speciale dell’ insegnamento religioso cattolico」(가톨릭 종교 가르침의 특별한 방법론), Marietti, Torino 1910 : 539
- 「Raccolta di esempi per l’ istruzione catechistica, predica azione e letture」(교리, 강론과 독서를 위한 예화 모음집), Marietti, Torino 1911 : 533
- SWOBODA H., 「La cura d’ anime nelle grandi città」(대도시에서 영혼 사목), Pustet, Roma 1912 : 36, 40, 56, 59, 206-207, 315, 319, 486, 535
- TERTULLIANO M. T., 「De camis resurrectione」(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in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라틴 교회 문헌), vol. 47, G. Freytag, Lipsiae 1906 : 474
- TIRINZONI P., 「Il prototipo e il protettore di ogni stato」(모든 신분 의 전형이시요 수호자), Marietti, Torino 1908 : 492
- TONIOLO G., 「L’ unione popolare fra i cattolici d’ Italia. Ragioni, scopi, incitamenti. Adunanza dei delegati in Firenze 24.02.1906」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국민 연합’ , 이유, 목적, 자극. 1906년 2월 24일 피렌체 대표 모임), Tip. San Giuseppe, Firenze 1908 : 586
- VACCARONO L., 「Il cuore di Gesù

al cuore del sacerdote」(사제의 성심에 대한 예수 성심), Tip. Salesiana, Torino 1888 : 103

VANNUTELLI F., 「Il mese di giugno consacrato al Sacro Cuore di Gesù Cristo」(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에 봉헌된 6월), G. Tata, Roma 1901: 489

VECCHIA P., 「Elementi di pedagogia e brevi cenni sui principali sistemi di educazione」(교육학의 요소와 교육의 기본 시스템에 관한 간략한 압시), Paravia, Torino 1911 :

VIGNA L. - PAVANELLI L., 「Fedemia! Vita mia!」(나의 신앙! 나의 삶!), Corso completo di religione(종교 완전 코스), Berruti, Torino 1913 : 535

VITALI A., 「Vita e gloria del gran Patriarca San Giuseppe sposo purissimo di Maria」(마리아의 가

장 순결하신 배필이신 위대한 성조 성 요셉의 생애와 영광), Saraceni, Roma 1885 : 492

ZACCARIA A., 「Tesoro di racconti istruttivi ed edificanti ad uso specialmente dei parrochi per la spiegazione del Vangelo e del Catechismo」(특히 복음과 교리 설명을 위한 본당신부용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이야기 보화), Tip. Mareggiani, Bologna 1884 : 534

ZERBONI G., 「Il Sacro Cuore di Gesù maestro e modello e conforto dei cristiani」. Discorso morali per il mese a Lui consacrato」(「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스승이요 모델이시며 위로인 예수님의 성심」. 그분께 봉헌한 성심성월 위한 윤리 설교), Tip. Immac. Concezione, Modena 1887 : 489

연맹 색인

Aggregazione dei Sacerdoti adoratori(성체흡수 사제 병설단체) : 131, 385

Aggregazione del SS. Sacramento(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병설단체) : 414

Apostolato della preghiera(기도의 사도직) : 569

Arciconfraternita della Dottrina Cristiana(그리스도교 사상 대형제회) : 556

Assicurazione adriatica(아드리아티카 보험) (RAS) : 616

Associazione Cattolica Internazionale delle opere di protezione della giovane(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 가톨릭 연합) : 610

Associazione dei sacerdoti di Maria Regina dei cuori(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사제들 연맹) : 127

Associazione per la protezione della giovane(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 가톨릭 연합) : 610

Associazioni di previdenza, di Credito e Assicurazione(신용금고와 보험의 사회보장 연맹)

Biblioteca circolante(이동도서관) : 7, 504, 596

Cassa di risparmio(저축은행) : 591

Cassa nazionale di previdenza per l'invalidità e la vecchiaia(노동자들의 노령과 장애 대책 전국 은행) : 591

Cassa rurale di depositi e prestiti(저축 및 대출 마을금고) : 615

Circoli di cultura spirituale, intellettuale e pastorale tra il clero(Monaco)(성직자들의 영성적, 지적, 사목적 교양 모임)

Comitato nazionale italiano della protezione della giovane(청소년

보호 이탈리아 전국 위원회) : 611	신 동정 마리아 스카폴라) : 568	Opera del Buon Pastore(선한 목자 기도) : 429-430, 570
Commissione provinciale "Pro Schola" (학교를 위한 관구 위원회) : 587	Confraternita del Preziosissimo Sangue di Cristo (abitino)(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의 스카폴라) : 569	회) : 191
Compagnia delle Figlie di Maria(마리아의 딸들 동료회) : 564	Lega dei Missionari gratuiti(무상의 선교사 연맹) : 28, 390, 481	Opera del pane di Sant' Antonio per i poveri(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 안토니오의 빵의 자선회) : 263
Compagnia di San Luigi(성 루이지 동료회) : 592	Lega per la comunione frequente(갓은 영성체를 위한 연맹) : 6, 384	Opera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 e della Santa Infanzia(교황청 전교회와 어린이 전교회) : 607
Conferenze pastorali(사목 협의회) : 314, 316, 478	Lega Sacerdotale Eucaristica(성체 성사 사제 연맹) : 384, 391	Oratori(오라토리오) : 539
Confraternita dei Disciplinati o Flagellanti(규율자 또는 편태자회) : 441	Lega sacerdotale "Pro Pontifice et Ecclesia," (교황님과 교회를 위한 사제 협회) : 5, 138	Pia Unione dei Figli e delle Figlie di Maria(마리아의 아들들과 딸들 회) : 227
Confraternita del Carmine (abitino)(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스카폴라) : 568	Lega Sacerdotale Riparatrice(사제 보속 연합회) : 5, 134	Compagnia Figlia di Maria(마리아의 딸들 동료회)를 보라.
Confraternita dell' Addolorata (abitino)(일곱 고통의 스카폴라) : 569	Obolo di San Pietro(성 베드로의 기금) : 191	Pia Unione dei Luigini(루이지니회) : 227, 566, 579, 621
Confraternita delle Anime Purganti (abitino)(연옥영혼들의 스카폴라) : 569	Opera dei Comitati cattolici in Italia(이탈리아 가톨릭 위원회) : 198, 608	Compagnia di San Luigi(성 루이지 동료회)를 보라.
Confraternita dell' Immacolata (abitino)(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	Opera dei Parroci vecchi(연로한 본당신부 회) : 191	Pia unione per la comunione dei fanciulli(어린이 영성체를 위한 통합) : 566

Società San Vincenzo de' Paoli(성 빈첸시오 드 폴 회) : mpagnamento del S. Viatico(노자 성체의 동반을 위한 어린이들의 모임) : 6, 440

Sodalizio di San Giuseppe (abitino)(성 요셉의 스카폴라) : 569

Terz' ordine della Congregazione del Ss. Sacramento(거룩한 성체성사 수도회의 제3회) : 131

Terz' ordine di San Domenico(성 도미니코 제3회) : 567

Terz' ordine di San Francesco d'Assisi(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제3회) : 227, 309, 567

Unione Apostolica(사도 일치회) : 5, 119-120, 184

Unione dei fanciulli per l'acco-

mpagnamento del S. Viatico(노자 성체의 동반을 위한 어린이들의 모임) : 6, 440

Unione delle domestiche di Gesù in Sacramento(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미 모임) : 439

Unione economico-sociale(경제-사회 통합) : 608, 614

Unione elettorale(선거 통합) : 608, 611

Unione fra le donne cattoliche(가톨릭 여성 통합) : 613

Unione popolare(국민일치 운동) : 13, 61, 488, 585-586, 608, 612-613

장소 색인

Alba(알바) : 10, 12, 13, 14, 20, 21, 22, 23, 44, 51, 55, 57, 60, 61, 71, 74, 76, 142, 144-145, 175, 192, 385-386, 390, 507, 556, 569, 591, 615-616, 649, 651

Essen(에센) : 312, 315

Europa(유럽) : 37, 40, 42, 48, 535, 610

Firenze(피렌체) : 39, 100, 104, 205, 228, 300, 429 512, 571, 585-586

Asia(아시아)

Austria(오스트리아) : 138, 419, 616

Francia(프랑스) : 48, 66, 120, 134, 169, 177, 191, 212, 214, 277, 279, 315, 316, 342, 498, 570, 604, 607

Bassano Veneto(바싸노 베네토) : 베네토 남부 지역-역주

Friburgo(프리부르) : 610-611

Belgio(벨기에) : 42, 127, 316, 542-543, 604, 608

Genova(제노바) : 37, 313

Germania(독일) : 39, 41, 42, 138, 277, 502, 504, 542-543, 585, 599, 630-631

Bologna(볼로냐) : 24, 50, 502-503, 535, 604, 608

Inghilterra(영국) : 277, 504, 543, 599, 631

Brescia(브레샤) : 34, 328, 535, 596

Chieri(키에리) : 104, 604

Italia(이탈리아) : 9, 16, 18, 34, 36, 37, 39, 40, 42, 43, 45, 49, 50, 54,

120, 133, 135, 138, 140, 167, 170-171, 175, 191, 194-195, 198, 237, 278, 315, 421, 463-464, 467, 502-503, 505, 507, 528, 535, 539, 543, 564, 573, 580, 582, 585-589, 596-597, 603-604, 608-610, 621, 631, 633-634, 638

Liegi(리에지) : 608

Loreggia (Padova)(올레짜; 파도바) : 580

Lourdes(루르드) : 459, 562

Maratea (Potenza)(마라테아; 폰텐차) : 167

Milano(밀라노) : 43, 98-99, 104-105, 116, 227, 289, 314, 418, 490, 505, 528, 534, 540, 592, 597, 604, 607, 613, 642

Monaco(모나코) :

Mondovi(몬도비) : 505, 600

Monte Berico(몬테 비안코) : 120(프랑스에서는 몽블랑-역주)

Napoli(나폴리) : 16, 17, 105, 169, 505

Nancy(낭시) : 192

Novara(노바라) : 37, 502-503

Padova(파도바) : 263, 580, 586, 588, 612, 617

Palestina(팔레스타인) : 207

Parigi(파리) : 102, 131, 192, 498, 509, 634

Perugia(페루지아) :

Piacenza(피아첸차) : 135, 441, 540

Piemonte(피에몬테) : 12, 27, 138, 175, 196, 315, 335, 529

Pinerolo(피네롤로) : 502, 534

Ravenna(라벤나) : 227

Roddi(로디) : 195

Roma(로마) : 10, 11, 13, 16, 18, 20, 30, 34, 36, 38-39, 43-44, 46-50, 52, 56-57, 59, 84, 99, 101-102, 104-105, 111, 126-127, 131, 138, 140, 167, 170, 174, 191-192, 206-207, 227, 384, 403, 418, 430, 435, 442, 470, 489, 490-492, 498, 507, 534, 540, 556-570, 582, 604, 608-609, 613, 621, 642

Spagna(스페인) : 604

Svizzera(스위스) : 138, 611

Torino(토리노) : 14, 16, 17, 18, 21, 23, 24, 34, 35, 39, 40, 73, 78, 98, 99-106, 109, 128, 132-133, 135, 140, 192, 197, 205-206, 217, 289, 337, 350, 354, 365, 385-386, 393, 402-403, 423-426, 430, 450-451, 474, 477, 479, 489-492, 504-505, 521, 524, 528-529, 535, 545-546, 564, 586, 595, 597, 600, 604, 607, 610-611, 616

Trento(트렌토)

Trieste(트리에스테) : 253, 616

Venezia(베네치아) : 98-99, 398, 580, 606, 608

Verona(베로나) : 197-198, 616

Vicenza(비첸차)

Vienna(비엔나)

인명 색인

- Acquaderni Giovanni : 608
 Agnese (santa) : 564
 Agostino (sant') : 104, 138, 244, 346, 496
 Alberione Giacomo (sac.) : 10, 11, 13-14, 20, 50, 54, 56-58, 97, 111, 132
 Alessi Giuseppe (sac.) : 423
 Alfonso de' Liguori (sant') : 109, 477, 490, 561
 Andreu Francesco (CR) : 569
 Angela Merici (santa) : 564
 Anna (sant') : 564
 Antonio (sant') : 445
 Antonio da Padova (sant') : 263
 Anzini Maria Abbondio : 546, 595
 Arato Bernardo (sac.) : 100
 Artusio Marcellino (CS) : 490
 Arvisenet Claude (sac.) : 99, 102
 Avanzini Pietro (sac.) : 170
 Bacuez Nicolas Luis (PSS) : 100
 Barale Pietro : 621
 Barberis Giulio : 104
 Barbero G. (can.) : 13, 502-503
 Beaudenom Leopoldo (can.) : 100
 Benedetto XIV : 462
 Benini A : 535
 Berchiolla Vincenzo G. (MV) : 490-491
 Berengo Giovanni : 326
 Bernardino da Siena (san) : 564
 Bernardo (san) : 423
 Bersani Dossena Angelo (mons.) : 532
 Bertani C. : 425
 Blanc Jules (SJ) : 206, 578
 Boggio Pietro (sac.) : 533, 538
 Bona Giovanni (card.) : 394
 Bonaccia Paolo (sac.) : 490-491
 Boni Antonio : 40, 780
 Borgo Carlo (SJ) : 489-490
 Borromeo Carlo (san) : 41, 540
 Borromeo Federico (card.) : 540
 Bougaud Emile (vesc.) : 105
 Boeden J. E. : 103
 Brazzoli Angelo (SJ) : 490-491
 Buetti Guglielmo : 426
 Bugini Annibale (CM) : 227
 Cabrini Francesco (sac.) : 98
 Capecelatro Alfonso (card.) : 105
 Capello Paolo : 101
 Cappello Paolo : 424
 Carmagnola Albino (sac.) : 425
 Carsidoni Ignazio (CP) : 99
 Casanova M. : 424
 Cattaneo Bartolomeo : 217
 Cattaneo Luigi (SSS) : 418
 Cecchetti Igino : 570
 Ceria Eugenio (SDB) : 450
 Cerruti Luigi (mons.) : 580
 Cervia Cornelio (padre) : 135
 Chaignon Pierre (CJ) : 98
 Chiaudano Bartolomeo (can.) : 138
 Chiavarino Luigi (sac.) : 128
 Cicerone Marco Tullio : 248
 Ciprotti Pio : 170
 Clemente VIII : 418
 Clemente X : 569
 Clemente XI : 418
 Colagiovanni Michele : 570
 Conti Beniamino : 570
 Cornale Luigi (sac.) : 425
 Costamagna Giacomo (Mons.) : 449
 Costantini Celso (card.) : 642
 Cresi Domenico (sac.) : 228
 Crispolti Filippo : 642
 Curci Carlo (SJ) : 167
 Curti Giuseppe : 604
 Cuvelhier Michel :
 Dalmazzo Peano : 105
 Da Silva Antonio F. (SSP) : 58, 64, 97, 111, 132
 D' Azeglio Cesare : 191
 De Fiores Stefano (SMM) : 421
 De Forbin-Janson Carlo (vesc.) : 192
 Degano Elio : 441
 De Gibergues M : 352
 De Honestis Pietro (C.R.S.A.) : 227

De La Rousselière Marie : 131	Franceschini Giacomo : 606	Giardini Leopoldo (sac.): 393	490-491
Della Valle Francesco (sac.): 534	Francesco d' Assisi (san) : 94, 263	Gibbons Giacomo (card.):	
Del Piano Fulgenzio (OCD) : 227	Francesco di Sales (san) : 101, 104,	Giovanni Berchmans (san) : 563	Ignazio di Loyola (san) :
De Micheli Riccardo : 105	398, 468, 477, 489, 494	Giovanni Bosco (san) :	Innocenzo VII :
Denifle Heinrich : 104	Franco Secondo (SJ) : 489	Giovanni Crisostomo (san) :	Isidoro (san) :
De Zamora Munio (OP) : 567	Frassinetti Giuseppe (sac.): 37-38,	Giovanni Maria Vianney (san) :	
Dianda Gilberto (sac.): 533	101, 103, 205, 312-313, 365, 373	Giovannini Luigi (SSP) : 64, 505	Jaricot Paolina : 191, 430
D' Isengard Giuseppe :	Froebel Federik : 289	Giuda (dinastia) :	
Domenicali Guido : 384		Giuda Iscariota :	Krieg Cornelio : 35-36, 39-41, 54,
Domenico (sac.) :	Gai G. (mons.): 491	Giuliano Eymard (san) : 41, 99, 131-	78, 206, 326, 538
Dubois Henrie (sac.): 102, 206	Gaiotti De Biase Paola : 613	132	Kroust Jean : 98
Dumas Alexandre :	Galileo Galilei :	Giuseppe (san) :	
	Galletti Eugenio (mons.): 12, 142,	Giuseppe Cafasso (san) :	Laghi Paolo : 534
Elisabetta (santa) : 564	192, 556	Giuseppe Cottolengo (san) :	Lanzavecchia L. :
Escobar Mario : 133	Gaspere Del Bufalo (san) : 570	Gonzaga Manna Rancadelli :	Lebeurier (mns.): 120
	Gastaldi Pietro (card.): 105	Gregorio Magno (san) :	Lemoyne Giovanni Battista (SDB) :
Faber Federik William (sac.) : 102	Gaume Jean : 532	Grossi Francesco : 132-133	105
Faletti Luigi : 424	Gauss Furio (JGS) : 253	Guerra Almerico (sac.) : 402, 490	Leone XII :
Fani Mario : 608	Gennari Casimiro (card.): 137, 384,	Guggino Giuseppe (sac.) : 349-350	Leone XIII : 572, 581
Fea Michele : 144	476	Guidetti Armando (SJ) : 604	Le Querdec Yves : 104, 205, 300
Ferrari Andrea (card.): 191, 540	Gerolamo (san) :	Gullois Ambroise (sac.):	Levi Sandri Lionello : 592-593
Ferrari Severino :	Geromini Eugenio : 492-493		Lisi Sebastiano (sac.): 489-492
Filippo Neri (san) : 512, 540	Gersen Joannes : 101, 416, 558	Hamon André : 98	Losio Giuseppe : 596
Finco Gaetano (sac.): 423	Ghilardi Nicola (mons.): 505	Hoppenbrouwers Valerio : 568	Luigi Gonzaga (san) :
Fois Mario (SJ) : 570	Giaccone Giuseppe :	Huguet Jean Marie Joseph (SM) :	Luigi M. Grignon de Monfort (san) :

421	Morandi E. :	535	Re Giuseppe Francesco (vesc.) :
	Moreno L. (mons.) : 505	Paventi Saverio : 192	Revaglia G. : 535
Maccario Luciano : 195	Moro Renato : 608, 611	Pentore Tommaso : 425	Rezzara Nicolò : 45, 588-589, 617
Maddalena (santa) :	Mott Marie-Edouard (C.M.) : 134	Perardi Giuseppe : 533	Ricciotti Giuseppe (CRL) : 328
Maggi Gianfranco : 13, 61, 615	Mullois Isidoro : 450-451	Perreyve Henri :	Richelmy Agostino (vesc.) : 479, 546
Manna Paolo (PIME) : 607	Muzzarelli Alfonso (card.) : 423, 475	Piana Quintino (SDB) : 529	Rinaldi Colombano Sabino (vesc.) :
Mansi Joannes Dominicus (OMD) :		Piccone Teodoro : 424-425	591
212, 252	Naddeo Emmanuele (OSB) : 18, 39,	Pietro (san) :	Ristorio Maurizio (sac.) : 615
Marchetti Serafino : 586	227	Pio IX : 99	Rocca Giancarlo (SSP) : 13, 59-60,
Marconi Giuseppe (sac.) : 490	Nicolis Di Robilant Luigi :	Pio X : 46, 80, 120, 191, 435, 463,	63, 463
Margherita da Cortona (santa) : 564	Nordera Luciano : 43, 507, 521	507-508, 548, 553-554, 566, 573,	Rocco (san) : 564
Maria (SS.) :	Novelli Dau Cecilia : 613	575, 577, 579, 583, 594	Rodriquez Alfonso :
Maria Maddalena de' Pazzi (santa) :		Pio XI :	Romita Fiorenzo : 167
448	Odoardi Giovanni (OFM) : 263	Pio XII :	Rossi Giovanni Battista (mons.) :
Marini Luigi (sac.) : 120	Ozanam Antoine-Frédérie : 264	Piolanti Antonio (mons.) :	474, 502, 533-534
Martinengo Francesco : 490-491		Piovano Giuseppe : 588-589	Rota Pietro (vesc.) : 491
Masi Gaetano : 606-607	Pagani Giovanni :	Piras Alberto (sac.) :	Ruiz Amado Ramos : 354
Mazzini Guido :	Palazzini Giuseppe : 191	Poletti Carlo : 99, 132, 385-386	
Merlo Pich Vittorio : 621	Palazzini Pietro : 488	Poletti Carlo (SSS) : 99, 132, 385-	Sacerdoti H. L. : 426
Meyer R. G. : 102	Paolo (san) : 11, 13, 44, 50, 52, 57,	386	Salzano Tommaso (mons.) : 491-492
Midali Mario (SDB) : 30, 34, 84	60, 421, 424, 498	Priero Giuseppe (sac.) : 55, 386, 507	Scalabrini Giovanni Battista (vesc.) :
Mineo Janny Mario (sac.) :	Paolo V :		42, 441, 540
Molinari Carlo (Can.) :	Paschini Pio (mons.) : 264, 634	Ravignani Eugenio (mons.) : 253	Schmitt A. : 533
Monnin Alfredo :	Patrignani Giuseppe (SJ) : 491	Redigonda Luigi Abele (OP) : 430,	Schouppe François : 492, 533
Monsabré Jacques : 116, 490, 492	Pavanelli Lorenzo (vesc.) : 42, 521,	567	Segneri Paolo : 533

Sifrin Pietro : 569-570
 Simone Stock (san) : 568
 Soncin Francesco (sac.) :
 Spirago Francesco : 533, 539
 Stanislao Kostka (san) : 563
 Stella Pietro (SDB) : 621
 Stradella A. (SJ) : 604
 Sturzo Luigi (sac.) : 611
 Swoboda Heinrich : 36, 39-41, 54-56, 58-59, 206-207, 315, 319, 486, 535
 Tacito : 271
 Tertulliano :
 Testone Carlo (sac.) :
 Testore Celestino : 556
 Tirinzoni Paolo (sac.) : 490, 492
 Tomagnini Giulio : 580
 Tommaso da Kempis :
 Toniolo Giuseppe : 585-586

Tramontin Silvio (sac.) : 46, 585, 587
 Trona Giovanni Battista (ven.) :
 Vaccarone Lorenzo : 103
 Valenti E. : 352
 ValfrÈ Sebastiano (beato) : 263
 Vannutelli Francesco (d.C.d.G.) : 489
 Vassalli Giuseppe : 132-133
 Vecchia Paolo : 539
 Venturini Mario (sac.) : 120, 138
 Vigna Luigi (mons.) : 521, 535
 Vincenzo de' Paoli (san) : 264
 Vitali Antonio : 490, 492
 Wollemborg Leone : 580
 Zaccaria Antonio (sac.) : 534
 Zaccheo :
 Zerboni Giovanni (SJ) : 489

*괄호 안의 약어는 다음을 의미함-역주

beato	복자
can.	규율수도자
card.	추기경
mons.	몬시뇰
san/sant'	성
santa	성녀
sac.	사제
vesc.	주교
ven.	가경자
dinastia	왕조
SS.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적용)
C.M.	마리아의 딸들 동료회
CR	테아티니 성직 수도회
C,R,S,A	규율수도자의 성직자 신심회
OCD	
d.C.d.G.	예수성심회
CP	예수고난회
IGS	예수사제회(성바로수도회 병설 재속 사제회)
OFM	프란치스코 수도회(작은 형제회)
OP	도미니코수도회
OSB	베네딕토 수도회
PIME	해외 전교회(Pontificium Institutum pro Missionibus)

SDB	살레시오 수도회
SJ	예수회
SM	마리스타 수도회
SSP	성바오로수도회
SSS	성체성사 신부회

* 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수도회 약자인지 모르겠음.

CJ
CRL
CS
MV
OMD
SMM

주제 색인

Adolescenti(사춘기, Giovani 참조):	- 권위의 과제: 209
347-353	- 권위와 직무: 231-235
Adorazione(흠숭)	- 권위와 순명: 136-137, 139-140,
- 하느님 백성과 함께: 414-420	245
- 성체성사에 대한: 411-413	- 시민권과의 관계: 246, 252-256,
- 특별한 경우에: 416	261, 295
Aggiornamento(쇄신)	Azione pastorale(사목활동)
- 쇄신과 강론: 456-459	- 정의: 207
- 쇄신과 발전: 222-223, 311-313	- 사목활동의 식별: 209, 214, 220-
- 쇄신의 필요성: 161, 163-168	223, 299-303
- 사목 직무 안에서: 223	- 사목활동과 본당 연합회: 309-
Amministrazione(운영/관리)	310, 576
- 운영에 대한 조언: 287-288	- 양상: 224-228, 231, 237, 241,
- 교회 재산의 관리: 177, 184-186,	245, 248-249, 252-261
193	- 목적: 207, 213
- 성사들의 집행(관리): 213, 245,	- 청소년들을 위하여: 347-353
261-273	- 병자들을 위하여: 97, 130
- 관리와 결산: 184	- 어린이들을 위하여: 97
- 재물관리와 검증: 186	- 전체 신자들을 위하여: 214, 278
Autorità(권위)	- 일반적인 원칙: 208-216

Bibbia(성서)	547	- 사제들 간의 협력 : 241-242, 306	Conoscenza della situazione(상황에 대한 지식)
- 성서와 강론 : 166, 371, 471	- 교리와 사제 직무 : 507	- 사제들과 평신도 사이의 협력 : 248-249, 309-310	- 본당 상황에 대한 지식 : 276, 577
- 양성 : 166	- 교리와 기도 : 527	Comunione(영성체)	- 가정 상황에 대한 지식 : 276
- 성서에 관한 묵상 : 96, 104, 474	- 방법 : 510-511	- 잦은 빈도수 : 379-384, 393	- 양상 : 167
- 성서에 대한 설명 : 474	- 조직 : 533-537, 554	- 준비 : 110, 393, 395	- 필요성 : 167, 170, 211, 310
Canto(성가)	- 교리를 위한 보조자료 : 229, 527-533	- 첫영성체 : 384-386	Conversione(회심/회개)
- 성가 학교 : 173, 434-439	Celibato(독신, Carità 참조)	- 감사 : 395-397	- 정의 : 89
Cappellano(담당사제)	- 독신과 고해신부 : 363-365	- 성사 : 379	- 자세 : 292
- 담당사제와 협력 : 306	- 독신과 사제직 : 140-149, 363-365	Conferenze pastorali(사목협의회/강연)	- 회개와 강론 : 447
- 담당사제와 사도직의 자유 : 231, 306	- 독신과 차부제직 : 140	- 목적 : 209	Correzione fraterna(형제적 교정)
- 담당사제와 상호관계 : 142, 235, 241, 245, 317	Chiesa(교회/성당/성전)	- 촉진 : 209, 242, 316-317	- 형제적 교정과 사도직 : 239
- 사도직 책임 : 231, 317-319	- 교회의 사목활동 : 207-213	Confessore(고해신부)	- 양상 : 233
- 담당사제를 위한 규범 : 317-320	- 성전건립 : 628-638	- 고해신부를 위한 몇 가지 지침 : 146	- 필요성 : 229, 236-241
Carità(사랑/애덕) (Celibato 참조)	- 교회와 신심 : 421	- 고해신부의 처신 : 328-334, 361-362, 373-374	Cristianesimo(그리스도교)
188	- 교회와 전례 : 434	- 영적 지도신부 : 123	- 정의 : 207
- 사랑과 사제 직무 : 153	- 교회와 강론 : 443-444	- 고해신부와 다양한 참회자들 : 332-356	- 그리스도교와 사목활동 : 207
- 사랑과 참회의 성사 : 449-450	- 교회와 사회주의 : 572	- 고해신부와 독신자 : 363-365	Cura patorale(사목/사목적 배려, Azione pastorale 참조)
- 애덕의 중요성 : 88	- 투쟁교회 : 129, 226	- 고해신부와 결혼 : 367-370	Devozione(신심)
Catechesi(교리)	- 교회의 사명 : 85	- 고해신부의 준비 : 166, 359-360	-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 : 124-126, 174, 421-430, 561
- 성인들을 위한 교리 : 320, 552	- 교회를 위한 기도 : 115	- 고해신부의 자질 : 121	- 성 요셉께 대한 신심 : 90, 96, 126-128
- 소년들을 위한 교리 : 320, 526	- 정화교회 : 129		- 성심께 대한 신심 : 96, 561
- 교리를 돌봄 : 507, 518, 529, 589	Collaborazione(협력)		
- 교리와 양성 : 522-523, 529, 546-	- 필요성 : 209, 237, 306, 309		

- 수호천사께 대한 신심 : 90, 96, 128-130
- 연옥영혼에 대한 신심 : 90, 96, 130
- 보급 : 564-565
- 신심과 하느님 백성 : 558-562
- 신심과 그리스도교 정신 : 421, 557-558
- 목적 : 557-559
- Dialogo(대화)
- 대화와 강론 : 483
- 사목에서 대화 : 241, 310, 314
- 사제들 사이의 대화 : 235, 241
- Dio(하느님)
- 하느님의 도우심 : 297
- 하느님과 사제 : 113, 399
- 하느님과 신심 : 88
- 무한하신 지혜 : 208
- 하느님과 일치 : 88, 235, 327, 379
- Direzione spirituale(영적 지도)
- 영적 지도와 사목활동 : 300
- 영적 지도와 사제 직무 : 122, 300
- Discernimento(식별)
- 시대의 표징에 대한 : 222
- 직무에서 : 222
- 사목활동에서 : 209, 220, 301-303
- 강론에서 : 446, 458-459
- Educazione(교육, Formazione 참조)
- 신자들의 교육 : 112, 130, 265
- 청소년 교육 : 287
- 교육과 성체성사 : 384-386, 388-390
- Elemosina(자선/회사)
- 자선과 정의 : 186
- 자선의 우선성 : 189
- Emigrazione(이민) : 602
- Eucaristia(성체성사, Messa 참조)
- 정의 : 109
- 성체성사와 사제 직무 : 110, 112, 155-156, 320
- 성체성사와 하느님 백성의 준비 : 403-407
- 성체성사와 감사 : 110, 117
- 목적 : 109-110
- Famiglia(가족/가정)
- 가족에 대한 지식 : 213, 276
- 가정과 출판물 보급 : 501
- 가족과 부모의 교리 교육 : 507-510
- 가정과 성사 준비 : 385-387
- 학교의 종교 수업 : 287, 586-587
- 본당신부와 가정 간의 관계 : 113, 328
- 155, 261, 268, 274-275
- 가정 방문 : 163, 173, 213, 274, 277, 280
- Fanciulli(어린이들)
- 어린이 사목 : 97, 303
- 어린이들과 교리교육 : 518
- 어린이들과 성사 : 385-388
-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 105
- Fede(신앙)
- 신앙과 신심 : 88
- 신앙과 강론 : 443-444
- Formazione(양성, Educazione 참조)
- 교리 양성 : 507
- 그리스도교 양성 : 529, 573-574
- 사춘기의 양성 : 348-353
- 참회자들의 양성 : 332
- 마음과 정신의 양성 : 88, 207, 529
- 양성의 요소 : 82, 225
- 인간적-종교적 양성 : 85, 112, 168, 186, 207, 220, 287
- Gesù Cristo(예수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 115, 117
- 예수 그리스도와 사제 : 79-80, 113, 328
- 예수 그리스도와 사목활동 : 207, 219, 231, 573
- 예수 그리스도와 성사에 대한 교육 : 79-80
- 예수 그리스도와 강론 : 443
- 예수 그리스도와 청렴 : 345
-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 207, 210
-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계신 : 113, 411
- 참된 길 : 115
- Giovani(젊은이/청소년)
- 젊은이들을 위한 활동 : 607-609
- 젊은이들과 사제 직무 : 85, 90, 149, 157, 508
- 젊은이들과 화해의 성사 : 332-339
- 청소년 교육 : 225
- 청소년 미사 : 409
- Giustizia(정의)
- 정의에 대한 양성 : 186
- Ideologia(이데올로기/관념) : 139, 220, 572

Infemi(병자들)	- 마리아에 관한 묵상 : 96	- 프뢰벨식 방법 : 288	- 사명을 위한 목적과 연구 : 161-
- 병자들의 사목 : 97, 261-263, 271-272	Matrimonio(결혼)	- 사목 방법 : 211, 238-239, 280, 310	162
- 병자들을 위한 기도 : 109, 272	- 결혼과 고해성사 : 367-370	Mezzi della comunicazione sociale(사회 홍보 수단)	- 사목 사명 : 244
- 병자 방문 : 93, 97, 148, 259-261, 271-272, 289	- 결혼과 양성 : 368	- 보급 : 226, 382, 500, 504	- 선교를 위한 기도 : 114
Laico(평신도)	- 결혼에 대한 준비 : 368	- 효과 : 172, 220-222, 278-279, 308	Obbedienza(순명)
- 평신도와 활동의 자유 : 208, 307	Meditazione(묵상)	- 목적 : 137, 220-222, 457-459, 500-501, 581, 595	- 교황께 대한 순명 : 136-137
- 평신도와 사제들의 관계 : 208, 248-251, 307	- 사제의 묵상 : 89	- 기능 : 166, 170, 292, 597-598	- 주교께 대한 순명 : 139-140
Legge(법)	- 성서에 대한 묵상 : 105	- 선택 : 172, 528	- 중요성 : 136
- 교회법 : 193	- 묵상의 중요성 : 94	Ministero(직무)	Opere(활동)
- 시노드 법 : 142	- 묵상의 주제 : 96-98	- 사제의 사목 직무 : 96, 219, 220-222, 235, 246, 279, 300	- 가톨릭 활동 : 578-580
Libertà(자유)	Mente(정신)	- 예수님의 사목 : 207, 300	- 직무로서 활동 : 96
- 자유와 사제 직무 : 245, 249, 306	- 정신의 양성 : 207, 529	- 직무에 대한 준비 : 161-162, 165	- 활동과 그리스도교 양성 : 208
Liturgia(전례)	Messa(미사)	- 직무의 책임과 자유 : 232-235, 245, 300, 307	- 활동의 우선성 : 580
- 전례와 사목활동 : 207, 399-401	- 미사와 사제 직무 : 110, 112, 155-156, 320	- 사제 직무와 교리 : 507	- 사회 활동 : 585, 589
- 하느님 백성 사이의 전례 : 401	- 미사와 감사 : 109, 110, 117	- 사제 직무와 영적 지도 : 300	Oratorio(오라토리오)
- 전례 규범 : 400	- 미사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준비 : 403-407	- 사제 직무와 강론 : 443-444	- 오라토리오와 교리교육 : 546-
Maria Ss.(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Metodo(방법)	- 사제 직무와 성사 : 320, 390	548
- 신심 : 90, 124-126, 174, 421-430, 561	- 교리교육 방법 : 510-511, 527-528	Missione(사명/선교)	- 오라토리오와 청소년 양성 : 539-548
- 마리아와 사제 직무 : 124	- 네 가지 목적의 방법 : 110, 116, 131, 414	- 사제의 사명 : 80, 105	- 오라토리오와 부모 : 226
- 마리아와 성체 방문 : 115	- 면학의 방법 : 167		- 남성오라토리오와 여성오라토리오 : 589-592
- 마리아의 축일 : 430	- 삶의 방법 : 92, 131		- 오라토리오의 조직 : 225

- 교황과 가톨릭 활동 : 581
- 교황께 대한 순명 : 136-137, 581
- 교황을 위한 기도 : 137
- Parola di Dio(하느님의 말씀)
- 하느님 말씀의 선포 : 443-444, 447, 457
- Parrocchia(본당, Programmazione pastorale 참조) : 93, 140, 244
- 본당에 대한 지식 : 277
- 정의 : 208
- Parroco(본당신부)
- 본당신부의 사목 활동 : 208, 220, 300-301, 303-304, 544
- 본당신부와 신자들에 대한 지식 : 168, 210, 214, 268, 277, 577
- 본당신부와 사목 활동의 조정 : 208-209, 304-313, 519
- 본당신부와 사회사업 : 281, 291, 577-578
- 본당신부와 병자들과의 관계 : 259-273, 289
- 본당신부와 사제들과의 관계 : 93, 232-248, 306
- 본당신부와 연맹들과의 관계 : 208, 242, 287-291, 558-559
- 본당신부와 권위기관과의 관계 : 252-255
- 본당신부와 가정들과의 관계 : 268, 273-275
- 본당신부와 봉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 252
- 본당신부의 사목 책임 : 208, 214, 268, 300, 304, 307
- 본당신부의 역할 : 300
- Peccato(죄)
- 죄와 회개 : 113, 292
- 죄와 양심성찰 : 117
- 죄와 사제생활 : 113, 223, 327
- Penitenza(속죄)
- 속죄와 강론 : 494
- 속죄의 성사에 잦은 참여 : 370-377
- 준성사 : 338, 356
- 성사 : 119-124, 242, 327, 330, 331
- Perseveranza(항구함/인내)
- 직무에 항구함 : 165
- 면학에서 항구함 : 165
- Pietà(신심) (Preghiera 참조)
- 신심의 정의 : 88
- 신심과 양성 : 82, 85-98
- 신심과 사제의 덕성 : 136-153
- 신심 정신의 표명 : 341-342, 557-558
- 신심의 실천 : 80, 85, 92-94, 105, 155
- Popolo(하느님 백성)
- 하느님 백성과 사제 : 113, 116, 275
- 하느님 백성과 전례 생활 : 207-208, 213, 401-407
- 하느님 백성을 위한 사목적 시도 : 214, 278, 375
- 하느님 백성의 교육 : 222
- 하느님 백성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 168, 170, 211, 310, 458-459, 577
- Predicazione(강론)
- 효과 있는 강론을 위한 조건들 : 493-497
- 정의 : 443-444
- 강론의 식별 : 445
- 강론과 사제 직무 : 320, 443-457, 460
- 강론과 기도 : 494
- 강론과 출판물 : 501
- 강론의 원천 : 167, 371, 380, 458-459, 462-464, 471-473, 474-476
- 강론의 결실 : 471
- 양상 : 444, 445
- 필요성 : 443, 445
- 강론에 대한 준비 : 164, 456-459
- Preghiera(기도, Pietà 참조)
- 기도의 지향 : 105, 115, 273
- 기도의 필요성 : 359, 494, 525
- 기도의 시간 : 89, 374
- Previdenza(사회 보장)
- 사회보장의 태도 : 195
- 사회보장과 절약 : 186-195
- Programmazione pastorale(사회 프로그램)
- 정의 : 301
- 분별(Discernimento 참조)
- 사회 프로그램과 상황 분석 : 214, 224-225
- 사회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 : 318-320, 577-578
- 사회 프로그램과 상호관계 : 224, 228
- 목적 : 213, 265
- 필요성 : 208-209, 301

- 일반 원칙 : 208, 214, 301
- 이익 : 208-209
- 검증(Verifica 참조)
- Progresso(발전/진보)
- 발전의 중요성 : 222
- 학문의 발전 : 223
- Questione operaia(노동자 문제) : 572
- Relazione(관계)
- 관계와 환대 : 244
- 본당신부의 상호관계 :
 - 병자들과 관계 : 259-273
 - 신자들과 관계 : 208, 228, 231, 248-251, 259
 - 선생들과 관계 : 257-259
 - 보좌신부와 관계 : 232-241
 - 가정과 관계 : 269, 273-275
- 직무상 관계의 영향 : 222, 241
- 관계의 일반 원칙 : 231
- 사제의 관계의 자질 : 146-149, 231, 241-244
- Religione(종교)
- 종교의 목적 : 327
- 종교 학교 : 586-587, 594
- Ricerca(탐구)
- 사목 수단에 대한 탐구 : 157, 168, 310-311
- 사목 상황에 대한 탐구 : 168
- Ritiro(피정)
- 노동자들의 피정 : 603
- 피정의 필요성 : 316
- Rosario(묵주기도) : 90, 116, 124, 155
- Sacerdote(사제, Parroco, Amministrazione 참조)
- 사제의 양성 : 128, 161-171, 220, 320
- 사제 직무 : 80, 110
- 사제의 사명 : 80, 105, 161-162, 164, 443-447
- 사제의 사목 책임 : 80, 93, 133, 157, 263, 290, 304
- 전례 생활 : 109-112, 207, 399
- 영성 생활 : 88-90, 94-97, 105, 113-115, 117-119, 136-159
- Sacramento/i(성사)
- 성사생활에 갖은 참여 : 112, 301, 320, 393, 497, 518
- 성사를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 : 327
- Santificazione(성화)
- 사제의 성화 : 79, 88, 136, 226
- 성화와 신심 : 88
- Scienza(학문)
- 학문의 쇄신 : 166
- 학문과 양성 : 82, 149
- 학문의 중요성 : 222
- Scuola(학교)
- 성가 학교 : 173, 433-438
- 종교 학교 : 139, 586-588
- 학교와 그리스도교 수업 : 257
- 학교와 교사들 : 257
- 야간 학교 : 173, 595
- Seminario(신학교) : 83, 139, 150, 156, 164, 191
- Studio(면학/연구)
- 주변에 대한 연구 : 168
- 성서에 대한 연구 : 166
- 면학과 쇄신 : 164-166
- 면학과 양성 : 82, 108
- 면학과 사명 : 161, 164
- 목적 : 108
- 필요성 : 161
- Suore(수녀)
- 수녀와 교리 : 287
- 수녀와 병자들 : 271
- 수녀들과 본당 신부의 관계 : 284-285
- Tempo(시간/시기)
- 사명을 위한 시기 : 229, 281
- 시간의 소중함 : 93, 162
- 시간의 활용 : 161, 163
- Teologia(신학) 168
- 교의신학 : 164
- 윤리신학 : 83, 164, 166, 224, 234
- 사목신학 : 83
- Testamento(유언) : 199-202
- Unione(일치/통합/일치회)
- 사도 일치회 : 119, 184
- 하느님과 일치 : 88, 327
- 사목활동에서 일치 : 244
- 국민일치 운동 : 585-587
- Unzione degli infermi(병자 도유) : 261, 266, 270-274
- Verifica(검증)
- 관리 : 186
- 사제의 인격적이고 사도적 검증 : 117-119, 166, 315
- Vescovo(주교)
- 주교계 순명 : 139-140, 581

- 주교의 책임 : 140
- 사제성소 : 362-364
- Visita(방문)
- 수도생활 성소 : 362-364
- 친구들 방문 : 163, 242
- 성소에 대한 애니메이션 : 618-623
- 병자들 방문 : 93, 98, 163, 168, 242, 303
- 성소와 가정 : 622-623
- 성체방문(Adorazione 참조) : 90, 113-116, 155, 413-416
- 성소와 젊은이들 : 622
- 가정 방문 : 163, 173, 213, 276, 303
- Zelo(열성) : 151, 224-225, 289
- 열성과 강론 : 449
- 분당 방문 : 168, 311
- 사제적 열성 : 82, 85, 117, 214-215, 235, 238, 257-258, 287, 411
- 방문의 양상 : 279-281, 285, 303
- Vocazione(성소)

